

제53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고려시대의 언어와 고려가요

일시: 2017년 8월 16일(수)-17일(목)(1박 2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산학협력관 301호

주최: 口訣學會

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CK-1 한국언어문화교육사업단

▣ 제53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제1부> 2017년 8월 16일(수)

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13:30- 14:00	등 록	
14:00- 14:10	개회사: 이건식(구결학회 회장, 단국대) 환영사: 김정우(대구가톨릭대 총장)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기획 주제 발표: 고려시대의 언어와 고려가요		사회: 남경란 (대구가톨릭대)
14:10- 14:30	석독구결과 고려가요 발표: 이용(서울시립대)	
14:30- 14:50	고려시대 음운과 고려가요 발표: 김유범(고려대)	
14:50- 15:10	고려가요의 어휘 발표: 황선엽(서울대)	
15:10- 15:20	휴 식	
15:20- 15:40	고려가요의 문법(1) —쟁점이 된 고려가요 속 형태를 중심으로— 발표: 김지오(동국대)	
15:40- 16:00	고려시대 문법과 고려가요(2) —문장 종결법을 중심으로— 발표: 하정수(동국대)	
16:00- 16:20	고려가요의 해석과 문학적 저변 발표: 박재민(숙명여대)	
16:20- 17:20	[종합토론] 이동석(교원대), 김양진(경희대), 박진호(서울대)	좌장: 이은규 (대구가톨릭대)
17:20- 18:30	저녁 식사	
초청 발표 및 특강		사회: 이준환 (창원대)
18:30- 19:10	[훈점어학회 초청발표] 日本語辭書雜考 —古辭書と日本語— 발표: 大槻 信(京都大學)	
19:10- 19:50	[훈점어학회 초청발표] サ行拗音 —開拗音と合拗音のあわい— 발표: 肥爪 周二(東京大學)	
19:50- 20:50	[특강] 當代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문제 발표: 백두현(경북대)	사회: 장경준 (고려대)

<제2부> 2017년 8월 17일(목)

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개인 연구 발표		
09:30- 10:00	이두자 ‘在’과 〈동석자〉 존대 —석가탑 중수 문서를 중심으로— 발표: 주영민(서울시립대)	사회: 김성주 (동국대)
10:00- 10:30	구결자 ‘艮’에 대하여 발표: 문현수(고려대)	
10:30- 11:00	신라의 오방 관념과 <처용가> 형성 과정의 한 단서 발표: 서철원(서울대)	
11:00- 11:10	휴 식	
11:10- 11:40	고대·중세어의 어미 구조체에 대하여 발표: 고영근(전 서울대)	사회: 김남경 (대구가톨릭대)
11:40- 12:10	영상처리를 통한 입결(口訣) 연구 발표: 남경란(대구가톨릭대)	
12:10- 12:40	명수법의 통시적 변화 연구 —‘億’을 중심으로— 발표: 최준호(서울대)	
12:40-	폐회사: 이건식(구결학회 회장, 단국대)	사회: 안대현 (한국기술교육대)

■ 목 차 ■

<기획 주제 발표>

석독구결과 고려가요	이 용	◆ 001
고려시대 음운과 고려가요	김유범	◆ 013
고려가요의 어휘	황선엽	◆ 025
고려가요의 문법(1) — 쟁점이 된 고려가요 속 형태를 중심으로 —	김지오	◆ 047
고려시대 문법과 고려가요(2) — 문장 종결법을 중심으로 —	하정수	◆ 067
고려가요의 해석과 문학적 저변	박재민	◆ 081

<초청 발표 및 특강>

日本 語辭書 雜考 — 古辭書と日本語 —	大槻 信(오오츠키 마코토)	◆ 099
[번역문]	신웅철 譯	◆ 107
サ行拗音 — 開拗音と合拗音のあわい —	肥爪 周二(히즈메 슈지)	◆ 115
[번역문]	정문호 譯	◆ 125
當代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문제	백두현	◆ 135

<개인 연구 발표>

이두자 ‘在’과 〈동석자〉 존대 — 석가탑 중수 문서를 중심으로 —	주영민	◆ 169
구결자 ‘艮’에 대하여	문현수	◆ 185
신라의 오방 관념과 <처용가> 형성 과정의 한 단서	서철원	◆ 203
고대·중세어의 어미 구조체에 대하여	고영근	◆ 219
영상처리를 통한 입결(口訣) 연구	남경란	◆ 227
명수법의 통시적 변화 연구 — ‘億’을 중심으로 —	최준호	◆ 247

<기획 주제 발표>

석독구결과 고려가요

이용(서울시립대)

1. 서론

이 글은 이제까지 석독구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고려가요의 해석에서 문제가 있었던 어구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석독구결 연구는 1973년 충청도 서산 문수사에서 『구역인왕경』 권상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90년대에 『화엄경소』 권제35, 『화엄경』 권제14, 『합부금광명경』 권제3, 『유가사지론』 권제20 등의 석독구결 문헌이 발굴되면서 고려시대 국어 문법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이처럼 석독구결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고려가요의 해석에 적용해 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석독구결의 문법에 관련한 연구 성과가 고려가요의 해석에 적용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진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가요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거나 이전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의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2. ‘-고시라’

다음은 ‘-고시라’가 들어 있는 예문이다.

- (1)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정읍사>
나. 어느이다 노코시라<정읍사>
다. 정(情) 둔 오늬범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만전춘>
라. 紅絲로 紅글위 밋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한림별곡>

- ① 尊稱命令形으로 「願望」의 義를 兼有.¹⁾
② 연결어미 ‘고’, 본동사 ‘시’, 명령형종결어미 ‘라’로 구성.
③ 비추어 주시라. ‘소망’과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음.
④ 이현희(1994): 고려가요에서 난제 중 하나가 ‘-고시-’임
가. -고/어말어미+시-/동사
나. -고-/선어말어미+-시-/선어말어미

고려가요 연구에서 ‘-고시-’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아직도 명확히 해결되지는 않았

1) ①, ②, ③은 각각 양주동(1947), 박병채(1994), 최철·박재민(2003)에서 설명한 것을 가져온 것이다.

다. 본고에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여 명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고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진호(1998)에서는 ‘-ㄱ-’가 나오는 문맥을 검토하고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말할 때 나타나는 상대높임법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용(1999)에서는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ㄱ-’을 다루고 그 의미를 원망과 연결 지어 보았다.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와 관련해서는 ‘-ㄱ-’가 ‘-시-’의 뒤에 오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어말어미 분포에 의하면 ‘-고시-’의 결합은 가능하지 않다. 남풍현(2013)에서는 확실히 명명하고 확인법에 話者의 意志가 들어가 확신을 나타내는 보조어간이라고 하였다.

이들 논의에서 ‘-고시-’와 관련한 내용도 찾을 수 있다. 박진호(1998:161)에서는 고대국어의 ‘ㄱㅏㅏㅏㅏ’가 중세국어의 ‘-쇼셔’에 대응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어미구조체에서 ‘ㅏ’의 특성으로 ‘ㅏ’가 개재하면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ㅏ’의 개재 없이 ‘-고-’와 ‘-시-’가 통합할 때는 ‘-시-’가 앞에 오지만 ‘ㅏ’가 개재하면 ‘-ㄱㅏㅏㅏㅏ’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고기시셔’에서 ‘기’가 빠지면 ‘-시-’가 ‘-고-’의 통합 순서가 뒤집어져서 ‘-시고셔’가 되고 ‘-고-’의 /ㄱ/이 약화되면 ‘-시오셔’의 단계를 거쳐서 ‘-쇼셔’가 된다고 하였다. ‘ㅏ’와 관련해서 선어말어미의 통합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가설은 이용(1999)에서도 제시된 바가 있다.²⁾ 그렇다면 ‘-고시-’는 형태소 배열상 특이한 결합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어미구조체 ‘-고기시-’의 존재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ㄱㅏㅏㅏㅏ’가 보이는 예이다.

- (2) 覺悟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3:12>, 見白ノ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금광3:15:1>, 演暢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화엄 14:8:24>, 施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화소11:01>, 消滅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자비19:03-04>

‘-고기시-’는 유가 계통 문헌에서는 ‘-ㄱㅏㅏㅏㅏ’로 표기되어 8회, 화엄경 계통 문헌에서는 ‘-ㄱㅏㅏㅏㅏ’로 표기되어 10회 출현한다. 새로 발견된 <<慈悲道場懺法>>에서는 7회 출현한다.

‘-고기시-’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다른 유사한 형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사한 형태들에 대한 고찰은 ‘-고기시-’의 정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은 이승재(1995)에서 ‘-ㄱㅏㅏㅏㅏ’의 이형태로 다루어지기도 했던 ‘-거/어기시-’의 예이다.

- (3) 가. 入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15:5>, 登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11:7>, 成就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 15:16>, 久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화소35:11:19>

- 나. 通達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15:6>, 問白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14:20>, 說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 <구인 02:21>

(3가)는 ‘-ㄱㅏㅏㅏㅏ’, (3나)는 ‘-ㄱㅏㅏㅏㅏ’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13가, 나)의 ‘-ㄱㅏㅏㅏㅏ’와 ‘-ㄱㅏㅏㅏㅏ’는 비타동과 타동에 따른 교체를 보인다. (3)의 예문에서 보면 ‘-ㄱㅏㅏㅏㅏ’가 쓰인 (가)는 ‘入ㄴ’, ‘登ㄴ’ 등 비타동사와 결합하고 있으며,³⁾ ‘-ㄱㅏㅏㅏㅏ’가 쓰인 (3나)는 ‘通達ㄴ’, ‘問-’ 등 타동사와

2) 필자는 이 논문을 출판되기 이전인 1998년에 이미 형태론연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3) 언뜻 보기에는 ‘成就ㄴ ㄱㅏㅏㅏㅏ ㄱㅏㅏㅏㅏ’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루어지다’로 자동사로 해석되어야

결합하고 있다. ‘-ㄱ/ㄴ ㄱ-’의 ‘-ㄱ/ㄴ-’가 보이는 타동과 비타동의 교체는 ‘-ㄱ/ㄴ-’가 나타나는 다른 구결 연결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정확하게 비타동·타동에 따른 교체를 보여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ㄱ/ㄴ ㄱ-’에서 ‘ㄱ’과 ‘ㄴ’은 선어말어미 ‘-ㄱ/ㄴ-’와 형태론적 특성이나 의미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예를 하나씩 보면 ‘-ㄴ-’는 주체를 존대하는 데 쓰이고 있으므로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ㄱ/ㄴ’과 ‘ㄴ’가 모두 선어말어미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ㄱ’의 문법범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문법적 상식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선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사이에 있는 ‘ㄱ’을 선어말어미로 볼 가능성이 떠오른다.⁴⁾

이제 다른 ‘기시-’ 결합형인 ‘-ㄷ 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 가. 說^ㄷ ㄱ^ㄴ | <구인02:6-7>, 無^ㄷ ㄱ^ㄴ | <구인03:3>, 住^ㄷ ㄱ^ㄴ | <구인03:15>

나. 現^ㄷ 勿^ㄴ 牙^ㄴ <화엄14:12:15>

다. 有^ㄷ ㄱ^ㄴ <구인02:3>, 有^ㄷ ㄱ^ㄴ <구인02:3>

(4가)는 ‘-ㄴ기시-’에 대응되는 표기이다. (4나)는 ‘-ㄴ시-’가 출현한 예이다. (4다)는 ‘-겨기시-’의 예이다. 그런데 (4나)에 보이는 ‘-ㄷ ㄱ-’은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특이한 결합이다. 석독구결에서 ‘-ㄷ-’는 배열 순서상 ‘-ㄱ-’에 후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열 순서라면 ‘-ㄷ-’는 ‘-ㄴ-’ 뒤에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ㄷ ㄱ-’에서는 ‘-ㄷ-’가 ‘-ㄴ-’에 선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현상이다. 일반적인 선어말어미 배열 순서에서 ‘-고-’가 ‘-시-’에 후행하므로 ‘-고기시-’의 존재는 배열 순서만을 고려할 때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ㄴ기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ㄴ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ㄴ기시-’에서 ‘ㄱ’이 사라지면서 ‘-ㄴ시-’가 가능해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서 가능하지 않은 ‘-ㄴ시-’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4가)와 (4나)의 관계에 대한 파악은 ‘-고기시-’, ‘-고시-’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시-’ 역시도 ‘-고기시-’에서 ‘기’가 없어지면서 가능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⁵⁾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ㄱ’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ㄱ’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처럼 ‘ㄱ’의 정체는 선어말어미라고 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어미 배열의 순서를 바꾸는 선어말어미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ㄱ’이 역사적으로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이상에서 ‘-고시-’를 해결하기에 앞서 ‘-고시-’가 ‘-고기시-’에서 왔다는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ㄱ’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고기시-’에 대해 남풍현(2017)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ㄱ ㄱ-’에서 ‘ㄴ’은 조동사 ‘ㄱ-’의 일부이고 조동사 ‘ㄱ-’는 ‘존자의 품위 있는 어떤 행위’인데 문

문맥상 적당한 곳이다.

4) 구결사전(황선엽·하귀녀·이전경 외, 2009)에서는 ‘ㄱ’을 선어말어미로 다루고 있다.

5) ‘-ㄴ ㄱ-’을 보이는 실제 예가 석독 구결 자료에 문증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ㄷ-’과 계열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ㄴ-’의 경우에는 ‘-ㄴ ㄴ-’과 같은 예가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맥에 따라서는 ‘계시다’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예와 해석을 가져오는데 ‘-口ハㄷ(ニ)’와 유사한 형태들부터 살펴 들어가기로 한다.

(5) 가. 大覺 世尊¹ …… 摩訶般若波羅蜜² 金剛般若波羅蜜³ 天王問般若波羅蜜⁴ 光讚般若波羅蜜⁵ 說⁶ ハニ⁷ 1 <구인02:20-23> (大覺 世尊은 …… 摩訶般若波羅蜜과 金剛般若波羅蜜과 天王問般若波羅蜜과 光讚般若波羅蜜과 하는 것들을 분명 연설하셨습니다.)

나. 一切 衆生¹ 暫² 火七 報³ 十 住⁴ 口⁵ 乙 金剛原⁶ 十 登⁷ ハニ⁸ 1 11⁹ 淨土¹⁰ 居¹¹ 口¹² 七 1 <구인11:07> (모든 중생은 잠깐 과보에 머물지만 金剛原에 올라 계신 이라야 淨土에 마땅히居하심직 하다)

다. 三万億 菩薩摩訶薩¹ 無生法忍² 得³ ハニ⁴ 1 <금광14:22-23> (三万億 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어 계시며)

라. 衆¹ 多² 1 刹³ 或⁴ 有⁵ 1 佛⁶ 有⁷ ハニ⁸ 1 1 或⁹ 有¹⁰ 佛¹¹ 無¹² 1 1 <화엄15:10> (많고 많은 세계는 혹은 부처님이 계신 곳도 있고 혹은 부처님이 없으신 곳도 있다)

(5가)의 ‘說⁶ ハニ⁷ 1’는 확인법 보조어간(=선어말어미) ‘⁶ /아’와 극존대의 조동사 ‘⁷ /기’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 ‘분명 연설하셨습니다’로 해석하였다. (5나)에서는 ‘登⁷ ハニ⁸ 1 11⁹’의 ‘⁷ /기’를 ‘金剛原에 오를 이’에 대한 극존대로 보고 ‘올라 계신 이라야’로 해석하였다. (5다)에서 ‘得³ ハニ⁴ 1’는 현재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³ /느’와 조동사 ‘⁴ /기’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얻어 계시며’ 해석하였다. (5라)에서 ‘有⁷ ハニ⁸ 1 1’는 조동사 ‘⁷ /거’와 극존대의 조동사 ‘⁸ /기’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 ‘계시다’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제 ‘-口ハㄷ(ニ)’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惟¹ ハ 願² 口³ 入⁴ 1 大王⁵ 口⁶ 入⁷ 1 之⁸ 乙 捨⁹ 口¹⁰ 余 我¹¹ 口¹² 十 與¹³ 口¹⁴ 口¹⁵ 1 <화소 11:19-20> (오직 원하는 것은 대왕께서는 그것을 버리어서 나에게 꼭 주시며)

나. 仁¹ 口² 亦³ 1 當⁴ ハ 於此⁵ 1 會⁶ 七 中⁷ 口⁸ 七 人 修行⁹ 口¹⁰ 口¹¹ 1 七 勝功德¹² 乙 演¹³ 口¹⁴ 口¹⁵ 1 <화엄08:24> (당신도 …… 修行하신 바의 勝功德을 꼭 演暢하여 주십시오)

다. 作樂¹ 口² 口³ 1 …… 量 無⁴ 七 1 音樂⁵ 乙 作⁶ 口⁷ 3 如來⁸ 乙 覺寤⁹ 口¹⁰ 口¹¹ 口¹² 1 佛¹³ 1 即¹⁴ 口¹⁵ 口¹⁶ 1 口¹⁷ 口¹⁸ 1 口¹⁹ 口²⁰ 1 <구인03:12-13> (음악을 하는 이도 또한 …… 無限한 음악을 지어 여래를 覺寤하시웁게 하시니)

(6)의 예들을 확인법 보조어간(=선어말어미) ‘口/고’와 ‘ハㄷ(ニ)/기’가 연결된 예로 보았다. 그리고 ‘ハ’의 의미는 ‘하’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6가)의 주어는 賤人이 부른 ‘大王’이고 (6나)의 주어 ‘仁’은 賢首菩薩이라고 하였다. (6다)에서는 ‘ハニ’로 여래가 하는 행위를 존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남풍현(2017)에서는 ‘기시’의 의미와 더불어 ‘고기시’의 문법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시’는 조동사이다. 그리고 ‘口’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확인법 보조어간(=선어말어미)이다. 유사한 결합을 보이는 ‘-ハ/口ハニ-’, ‘-ハニ-’, ‘-ナハニ-’, ‘-白ハニ-’ 등의 용례에 미루어 볼 때, 보조어간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해결 방안은 기존에 설명해 주지 못했던 ‘ハ’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받아들여지기 주저할 점이 없지 않다. 먼저 기존의 문법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선어말어미 ‘-고-’ 뒤에 바로 조동사 ‘기시-’가 오는 결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선어말어미 뒤에 조동사가 오는 결합이 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동사 ‘ハ-’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멸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설명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고기시-’를 ‘-고-/보조어간 + 기시-/조동사’는 ‘-고기시-’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고-’를 확신법으로 보기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논증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고-’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상술하자면, 박진호(1998)에서는 상대높임법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술이 장윤희(1998:69)에서도 나오는데 ‘-고ハハ立’, ‘-고立’의 차이는 결국 상대 높임법 등급상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고-’를 상대높임법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고ハハ立’가 청원구문의 하위 인용문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장윤희(1998:180)에서 말한바, 상위자에 대한 명령 표현에서는 항상 청원, 요청, 권유 등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⁶⁾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용(1999)에서 ‘-고-’의 의미로 제시한 ‘원망’은 ‘-고-’의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고ハハ立’ 구문이 가진 상대높임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기시-’로 볼 수 있는 어미구조체는 향가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

(7) 가. 十方叱佛體闕遣只賜立<懺悔業障歌 8>

나. 慕人有如白遣賜立<願往生歌 8>

(7가)는 석독 구결문의 ‘-고ハハ-’에 대응되는 향가의 ‘遣只賜’가 보이는 예이다. 남풍현(2017)에서는 ‘闕遣只賜立’를 ‘알아 주소서’ 정도로 해석했다. (7나)는 ‘ハ’가 빠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遣賜-’가 있는 문장이다. 이 예는 고령가요의 ‘-고시-’를 ‘-고ハハ(ニ)-’와 연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인다. ‘ハ’가 ‘只’의 약체자에서 온 것임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렇다면 고령가요의 ‘-고시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까지 정리한 것에 기대면 ‘-고시라’는 ‘-고-/선어말어미 + 기시-/조동사 + 라/명령형어미’로 ‘-고기시라’에서 ‘기’가 사라진 형태라고 보인다.⁷⁾ ‘-고-’는 선어말어미로 ‘상대높임법’(박진호, 1998)이나 ‘확신’(남풍현, 2017)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진호(1998)이나 장윤희(1998)를 참고한다면 상대높임법과 관련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취오시라’(1가)는 ‘비추어 주소서’, ‘놓아 주소서’(1나), ‘당겨 주소서’(1다), ‘밀어 주소서’(1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고라’에서 ‘소망, 원망’, ‘청원, 요청’ 등의 의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고라’의 고유한 의미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라’가 상대를 높여 대접한 명령형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의미라고 하였다.

7) ‘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4. 未來ㄴ+7 幾ㄱㄱ 如來ㄴ 幾ㄱㄱ 聲聞 辟支佛ㄴ 幾ㄱㄱ 衆生ㄴ ㄴ_全 有分
 <화소07:17-18>

위의 예문에서 보면 ‘-(이)여’는 나열 구문에 쓰이고 있다. 나열하고자 하는 명사구 뒤에 ‘-
/ᆞ’를 쓰고 마지막에 아우름동사 ‘-ᆞ’를 쓰고 있다. 이때 아우름동사 ‘-ᆞ’에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다. ‘-ᆞ’는 이러한 결합의 결과이다.

그러나 고려가요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NP(이)여 … NP(이)라 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악학궤범』이 편찬된 16세기에는 나열에 쓰인 ‘-(이)여’와 아음류동사의 용법이 자취를 감추게 되자,⁸⁾ 뒤에 나온 ‘-(이)여’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서 일어난 변개로 보인다.

(10나)는 (9라)의 용법에 해당된다. 이번에도 석독구결의 예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1) 가. 爾時十 文殊師利菩薩ᄃ 智首菩薩ᄃ 告ᄃᄃ 言ᄃᄃ 善ナᄃ{哉}ᄃ 佛子: <화엄
02:10-11>

4. 爾_レ時_ニ 賢首菩薩_ハ 偈_ヲ以_テ 答_フ 曰_ク尸 善_ク口_ヲ{哉}_イ 仁者_ニ <화엄
09:01-02>

다. 時+ 波斯匿王₁ 言₂尸 善₃ろ₄1_イ 大事₇ 因緣_ゝ 故_ノソ₂ロト₇リ₇工_ソ }
 <구원03:20>

(11가)와 (11나)는 『화엄경』의 예로 원문에 감탄의 표지 ‘哉’가 덧붙여 있고 감탄의 뜻이 ‘-ㄱㅑ’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 뒤에는 ‘명사구 + ㅅ’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문은 원문이 도치되어 있다(善[佛子], 善[仁者]). (10다)는 유가 계통인 『舊譯仁王經』에 나오는 예로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구문상 (11가, 나)와 차이가 없다(善[大事因緣故]).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여기서 ‘-(이)여’가 감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8바)처럼 감탄과 관련 없이 도치구문에서 후치된 성분에 나타나는 예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예를 보면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나 이유절이 후치되었을 때도 ‘-(이)여’가 붙는다. 특히 이유절은 앞에 제시된 명제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논리적 문체이므로 감탄의 語氣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박진호, 2015:431).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11다)의 예문에 나오는 ‘-ㅅ/ㅆ’에 대해서도 도치구문에서 후치된 성분에 나타나는 조사로 묻어 볼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한 구문이 ‘-을서 + NP + 이(여)’의 형식으로 후기중세국어 한글 자료에 무수히 나온다(박진호, 2015:427-439).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가. 快樂^ㅎ볼써 淸淨^ㅎ 業이여 能^히 이런 妙果를 일우시도다 (快哉淸淨業 能成是妙果)
 <월석4:33b>

나. 고통을 여희여 解脫을 得게 하니 어딜써 觀世音이여 (離苦得解脫케 하니 良哉라 觀世音이여) <능엄6:65b>

이들 예문에서도 감탄의 ‘哉’와 성분의 도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감탄과 도치가 있는 구문에서 쓰이는 ‘-(이)여’의 용례가 매우 오랫동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서의 ‘-을서 + NP + -(이)여’ 형식이 고려가요의 예인 (9나)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점

8)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이)여’가 접속조사의 기능을 가진 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접속조사의 예는 고영근(2002:106) 참조.

에 생각이 미치면 (9나)를 석독구결과 관련지어서 언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저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여’가 지닌 기능이 석독구결의 ‘-ㅓ/ㅓ’와 관련되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석독구결에는 명사 나열구문만이 아니라 동사 나열구문도 보인다.

(13) 가. 聞尸 已_ㅓ口_ㅓ其 心_ㅓ迷尸 不_ㅓ沒尸 不_ㅓ聚尸 不_ㅓ散尸 不_ㅓ
 <화소15:07-08>

나. 相續假法_ㅓ 一 非_ㅓ異 非_ㅓ _ㅓ나 _ㅓ <구인14:07>

다. 爾_ㅓ時_ㅓ十_ㅓ三_ㅓ明_ㅓ大_ㅓ滅_ㅓ金_ㅓ剛_ㅓ智_ㅓ釋_ㅓ迦_ㅓ牟_ㅓ尼_ㅓ佛_ㅓ年_ㅓ乙_ㅓ初_ㅓ七_ㅓ月_ㅓ七_ㅓ八_ㅓ日_ㅓ十_ㅓ方_ㅓ七_ㅓ十_ㅓ地_ㅓ坐_ㅓ _ㅓ나 <구인02:10-11>

위의 예문에서 (13가)는 동사의 나열에, (13나)와 (13다)는 각각 형용사와 계사의 나열에 쓰이고 있다. 명사의 나열구문과 마찬가지로 나열이 끝난 뒤에는 아우름동사 ‘-ㅓ’가 나타난다.

고려가요에도 동사 나열구문이 나온다. 다음은 그 예이다.

(14) 어▶저◀ 녹▶저◀ 흐논디 <동동>

① 「將然」의 뜻을表하는助詞. 「흐고저 흐자」에서 보는바와같이 주로 「願望」의義를表하나單純한「將然」의義에도使用된다.

② 원망형어미

③ 복수의 용언 나열. ‘어저 녹저’를 단순히 ‘얼고자 녹고자’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 즉, 문맥에 따라 유동적 해석(願望·將然)이 가능.

(14)는 양주동(1954) 이래 ‘얼려 녹으려’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석독구결의 문법을 참고하면 나열구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이현희(1994), 최철·박재민(2003)에서 이미 있었다. 이 문장에서 ‘-저’는 동사 ‘얼-’과 ‘녹-’에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아우름동사 ‘흐-’가 나온다. 기존에 현대어로 옮기면 ‘얼고 녹고 하는데’ 정도가 된다. 다만 여기서 ‘흐논디’에 보이는 ‘-오-’의 결합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이현희, 1994).

4. ‘-은더’

고려가요에는 ‘-은더’와 결합한 어미구조체가 4회 나타난다. 다음은 그 예이다.

(15) 가.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 (三葉) 몰히 마_ㅓ리신_ㅓ디 (四葉) 슬_ㅓ웃_ㅓ븐_ㅓ디 아_ㅓ으 (附葉) 니_ㅓ미 나_ㅓ를 흐_ㅓ마 니_ㅓ즈시_ㅓ니_ㅓ잇_ㅓ가 <정과정>

나. 므슴다 緣事_ㅓ니_ㅓ른 넷_ㅓ나_ㅓ를 닛_ㅓ고_ㅓ신_ㅓ디 <동동>

다. 汗衫(한삼) 두_ㅓ피 누_ㅓ워 슬_ㅓ흘 스_ㅓ라_ㅓ온_ㅓ디 고_ㅓ우_ㅓ닐 스_ㅓ식_ㅓ옴 녀_ㅓ려 <동동>

라. 이_ㅓ링_ㅓ공 더_ㅓ링_ㅓ공_ㅓ야 나_ㅓ즈_ㅓ란 디_ㅓ내_ㅓ와_ㅓ손_ㅓ디 오_ㅓ리_ㅓ도 가_ㅓ리_ㅓ도 업_ㅓ슨 바_ㅓ므_ㅓ란 쏘_ㅓ 엇_ㅓ디_ㅓ호_ㅓ리_ㅓ라 <청산별곡>

- ① 「더」는 「ㄷ+여」, 곧 原始抽象名詞 「ㄷ」의 感歎形이니 그 原義는 「것이어·일이어」
- ② 감탄형-더(ㄷ+여)
- ③ ‘ㄴ더’는 통상적으로 구어체에만 사용되며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은더’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체로 감탄형으로 보아 왔으나 특정 예(15나)에 대해서는 의문형으로 파악하는 경우(이현희, 1994)도 있다. 의문형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구결에 대한 연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결의 양상을 보면 음독구결에는 의문형으로 볼 만한 ‘-은더’의 예가 보이나 석독구결에는 의문형으로 파악할 만한 예를 찾기가 어렵다. 정재영(1996)에서 석독구결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제시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가. 何ㄷ 況ㄷ 量 無ㄷ 邊尸 無 劫ㄷ 十 具ㄷ 地度乙 修ㄷ 七ㄷ 七ㄷ 諸ㄷ 功德ㄷ 口ㄷ 口ㄷ 七ㄷ ㄱ
 <화엄09:06> (어찌 하물며 헤아림 없으며 가 없는 劫에 갖추어 십지와 십바라밀을 닦은 모든 功德이라!)⁹⁾

나. 佛子ㄷ 云何ㄷ 心ㄷ 用ㄷ 心ㄷ 十 能ㄷ 支 一切 勝妙功德乙 獲尸 丁ㄷ 令ㄷ 口ㄷ 口ㄷ 尸 入ㄷ ㄱ
 <화엄02:17-18> (佛子여 무엇을 마음을 쓸 때에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16가)는 원문에 ‘하물며’의 뜻을 지니는 ‘何況’이 나오므로 정재영(1996)처럼 수사의문문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6나)는 잘못 파악된 예이다. 여기서의 ‘尸丁’은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니다. ‘尸/동명사+ㄷ/의존명사+여/감탄조사’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의문의 기능은 ‘ㄴ수口’에서 드러난다. 결국 석독구결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로 볼 만한 예는 (16가)를 제외하고는 없는 셈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고려가요에서 의문형으로 보는 ‘-은더’의 예는 음독구결 이후 문법의 반영으로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만 (16나)의 예를 고려하면 ‘-은더’가 석독구결 시기 문법의 반영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15라)는 감탄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예이다. 김지오(2012)에서는 ‘-은여’, ‘-을여’ 중에는 절과 절을 접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용례가 있는데, 이들의 의미가 ① 배경 상황 제시, ② 설명·부연, ③대립 또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은더’, ‘-을더’도 동일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은더’가 접속의 기능을 보이는 예이다.

(17) 唯ハ 涅槃乙 以ㄷ 而ㄴ 上首 爲ㄷ 唯ハ 涅槃乙 求ㄷ 唯ハ 涅槃乙 緣ㄷ 而ㄴ
 法乙 聽聞ㄷ 尸 矣 ㄱ 丁 他乙 引ㄷ 於己ㄷ 信ㄷ 令ㄷ 爲ㄷ 尸 不ㄷ 多ㄷ 利養ㄷ 恭敬
 稱譽ㄷ 尸 乙 爲ㄷ 尸 不ㄷ 多ㄷ 尸 矣 ㄱ <유가04:17-19> (오직 열반으로써 으뜸[上首]을 삼고, 오직 열반을 구하고, 오직 열반을 연하고 하여 법을 자세히 듣는 것이니, 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양(利養)이니 공경이니 칭찬[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¹⁰⁾

김지오(2012:236)에서는 여기서 ‘은더’가 후행절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상황, 즉 ‘법을 청문하

9) 김성주(2013:113)의 해석이다.

10) 장경준 외(2015:134-135)의 해석이다.

는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은/동명사어미 + -여/조사’로 분석되는 ‘은여’와 ‘-은/동명사어미 + ㄷ/의존명사 + -여’로 분석되는 ‘은더’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것은 두 구성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석독구결에서 접속의 기능을 갖는 ‘-은더’의 예가 1회밖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5라)로 돌아가 보자. 최철·박재민(2003:119-120)에서는 이 ‘-은더’를 감탄으로 이해하면서도 이 어구의 해석을 ‘지내왔지만’으로 하고 있어 기능과 해석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맥으로 볼 때, 선행절에서는 ‘낮’이 나오고 후행절에서는 ‘밤’이 대립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은더’를 ‘-지만’으로 해석하면 매우 자연스럽다. 여기서 ‘-은더’가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쓰이는 예로 인정한다면 이 예는 고려시대의 문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5. -곰

6. -다

7. 결론

이제까지의 발표로 같음

참고문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개정판: 1997, 집문당).
金星周(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87-139.
김영옥(1989), 「중세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8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완진(1996), 「고려가요의 어학적 해석」,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50-63.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58, 217-242.
남풍현(2017),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ハ/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박병채(1994), 『고려가요의 어식 연구』, 국학자료원.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5), 倒置 構文의 助詞 ‘-(이)여’에 대하여, 임흥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461-470.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國語學』 73, 375-435.
- 백두현(1995), 고려시대 석독 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ㄴ-’,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논총』 29, 경북어문학회: 45-70.
- 백두현(1996), 고려시대 석독 구결의 선어말어미 ‘-ㄴ-’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논총』 30, 경북어문학회: 93-136.
- 백두현(1997), 고려시대 석독 구결에 나타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29-95.
- 安大鉉(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41-85.
- 양주동(1947),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 이승재(1991), 향가의 遣只賜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口ハニ에 대하여, 김완진선생 회갑기념논총: 438-456.
- 이승재(1995), 「계림유사와 차자표기 자료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30, 159-184.
- 이 용(1999),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ㄴ-’에 대하여」, 『형태론』 11.1, 115-132.
- 이 용(2003),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이 용(2008), 「자료와 체계 사이」, 『형태론』 10.1, 213-225.
- 이 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141-225.
- 이현희(1994ㄱ),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1994ㄴ), 「『악학궤범』의 국어학적 고찰」, 『진단학보』 77, 183-206.
- 이현희(1995ㄱ), 「-아저」와 「-良結」, 『국어사와 차자표기』, 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411-428.
- 이현희(1995ㄴ), 「-ㅅ」와 「-沙」,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장경준(2013),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27-337.
- 장윤희(1997),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장윤희(2009), 「문법사 연구의 자료 해석 관점 - 이용(2008)에 답함-」, 『형태론』 11.2, 439-446.
- 전기량(2017), 「석독구결의 ‘-ㄴ- / -ㅁ-’ 구문에 대하여」, 제7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221-265.
- 정재영(1996가),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 정재영(1996나), 종결어미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5-214.
- 정재영(2001), 「國語 感歎法の 變化 -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293-325.
- 최철·박재민(2003), 『석주 고려가요』, 이회 출판사.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종선(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황선엽·하귀녀·이전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각.

고려시대 음운과 고려가요

김유범(고려대)

1. 머리말

10세기 초반에서 14세기 말엽에 걸친 500년 가까운 시간은 국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였던 시기로 생각된다. 조금은 아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고대국어의 언어 질서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을 주는 중세국어의 새로운 언어 질서로 개편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는 국어사에서 멀고도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鷄林類事』(1103-1104)와 『鄉藥救急方』(13세기 중엽) 및 몽골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자료와 고려시대 석독구결이 중심이 된 문법 자료는 고려시대의 언어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는 고려시대의 언어가 어휘 자료를 통해서만 중세국어(이른바 ‘후기 중세국어’)의 모습과, 문법 자료를 통해서만 고대국어의 모습과 가깝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¹⁾

한편, 비록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오래도록 구전되어 온 노래를 언문으로 정착시킨 고려가요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고려시대의 언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고려가요가에 반영된 언어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의 언급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고려가요가 불리던 시대의 언어와 국문으로 정착된 시대의 언어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접할 수 있는 고려가요는 매우 복잡한 언어학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이 고려가요가 국문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학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인 것이다(박병채 1994).

『樂學軌範』의 권5에는 흔히 高麗歌謠라고 부르는 네 편의 가요, 즉 動動, 井邑詞, 處容歌, 三眞句(鄭瓜亭)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이 성종 당대의 언어도 어느 정도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성종 당대의 중세어에 대한 문법 지식만으로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해석상 의견이 분분했던 語句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 고려가요에는 성종 이전의 語法과 성종 당대의 語法이 함께 섞여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이현희 2001).

이처럼 고려가요가 고려시대의 언어 모습과 문자로 정착될 당시의 언어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시대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장애물로 여겨지지만, 언어의 구전과 문자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 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시대의 언어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시적 언어 모습을 추출해 내는 것은 그만큼 흥미로운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어휘와 문법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음운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언어가 고

1) 필자는 이러한 양상에 대한 해명이 앞으로 고려시대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국어나 중세국어 중 어느 한쪽에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도록 한다. 그것은 고려시대가 국어 음운사에서 격동기였다고 할 만큼 굵직한 변화를 보였던 시기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대의 직접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본고는 고려시대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간접적이거나 고려시대의 언어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자료인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그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2. 고려시대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

음성 자료는 물론이고 표음 문자를 사용해 기록한 자료조차 없는 고려시대의 언어, 그 중에서도 음운을 연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적 상황에서 우리는 고려시대 음운에 대한 재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재구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1) 가. 『鷄林類事』와 『鄉藥救急方』의 어휘를 통한 재구

나. 고려시대 차자표기 자료를 통한 재구

다. 몽골어 차용어를 통한 재구

라. 고려가요를 통한 재구

(1가)는 고려시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 각각 12세기와 13세기의 언어 모습을 보여 주는 『鷄林類事』와 『鄉藥救急方』의 어휘들을 통해 고려시대 음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ㄹ/과 /ㄷ/의 존재, 격음의 성립 여부와 같은 고려시대 음운 체계 및 몇몇 음운 현상 관련 내용들을 귀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구 방법이 된다.

(1나)는 고려시대의 인명 표기나²⁾ 구결 및 이두 자료의 음독자에³⁾ 대한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의 음운 상황을 파악해 보는 방법이다.⁴⁾ 이때 음독자들이 고려시대 음운 체계의 전반

2) 최중호(2005)는 고려 대장경의 각성인(刻成人) 인명의 이표기를 통해 고려시대 음운 체계를 재구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시대는 전승 한자음의 정착기로 보아야 한다. ② 유기음과 무기음의 변별이 생성 단계에 있었다. ③ ‘慈照~慈昭’와 같은 자료를 통해 /ㄹ/과 /ㄷ/의 혼용 양상이 발견된다. ④ 인명 표기를 통해서도 /ㄷ/, /ㄹ/의 음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유모(喻母)와 의모(疑母)의 초성 자음은 영성모로 반영된다. ⑥ 운모 체계에서의 큰 특징은 없다. ⑦ 단모음 계열 /ㅏ, ㅑ, ㅓ, ㅕ/와 이중모음 계열 /ㅗ, ㅛ, ㅜ, ㅠ/가 상호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⑧ 지점(止攝) 한자음은 모두 치음 성모 아래에서 /ㄷ/로 실현된다.

3) 김무림(2011)에서는 구결과 이두에 사용된 한자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① 고려시대 구결 한자음은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모두 한어 중고음을 바탕으로 했지만 석독구결은 상고음적 성격을, 음독구결은 근고음적 성격을 지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 한자음과 관련해 석독구결의 한자음은 조정되기 이전의 한자음 체계에, 음독구결 한자음은 조정 이후의 새로운 체계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겠다. ② 이두의 한자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가 깊은 이두의 용자(用字)와 독음이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았고, 주로 중세국어의 형태와 한자음에 독음으로 정착되어 그 역사성을 담보하지 못한 까닭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인 내용을 모두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고려시대 당시의 음운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재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다)는 고려와 원(元) 사이의 관계에서 등장한 몽골어 차용어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시기적으로는 13~14세기에 걸쳐 몽골어 단어들이 고려의 언어에 차용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몽골어 차용어는 말[馬], 매, 군사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⁵⁾ 이들 몽골어 차용어에서 고려시대 음운의 특징을 면밀히 살피기란 쉽지 않지만, 음운의 전체적인 모습에 체계적인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재구 방법이 된다.⁶⁾

(1라)는 고려시대에 불렸던 세속의 노래인 고려가요를 통해 고려시대 음운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이를 통한 고려시대 음운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데, 고려가요가 기록된 것이 조선시대 성종 이후의 일이므로 이를 통해 고려시대 당대의 음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고려가요의 표기를 전후 시대의 음운 상황에 비추어 검토해 보는 일은 고려시대 음운 연구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귀납된 고려시대 음운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

(2) 가. 음운 체계

ㅅ	ㅈ	ㅊ	ㅣ [i]	ㅍ [ü]	ㅑ [u]
ㅆ	ㅊ	ㅌ	ㅅ [e]	ㅑ [ə]	ㅑ [ə]
ㅌ	ㅌ	ㅇ		ㅑ [a]	
	ㅌ [ts]				
	ㅌ [tsʰ]				
	ㅌ				
ㅌ	ㅌ	ㅎ			
	ㅌ				

ㄱ 격음 계열은 설음 및 치음에서 시작해 순음을 거쳐 아음에서 완성되었다.

4) 『鄉藥救急方』의 향명(鄉名)들도 전통적인 차자표기 자료이지만 이는 (1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5) 최근 권성훈(2017), 배영환(2016) 등 제주방언에 남아 있는 몽골어 차용어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일찍이 이기문(1964)에서는 몽골어 차용어를 통해 13세기 국어의 음운 체계를 제시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모음 체계의 제시는 국어 음운사에서 14세기 모음추이를 가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우	오
	으	으
	어	아

이에 대해 김주원(1992a·b), 고경재(2016) 등에서는 현대 몽골 방언 자료나 『元朝秘史』의 한자음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14세기 모음추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7) 이는 주로 이기문(1998), 김무림(2004)에 제시된 내용들을 필자가 종합적 시각에서 정리해 본 것이다.

- ㉑ 경음 계열은 14세기를 지나면서 자음 체계에 자리를 잡았다.
- ㉒ /ㄹ/과 /ㄷ/은 고려시대를 전후하여 음운으로 성립했다.
- ㉓ 불파음화 진행에 따른 유음 음가의 변화 ([r] > [l])을 보였다.
- ㉔ ‘ㄴ’은 [e]에 가까운 전설모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㉕ ‘ㄴ’은 후설 원순 고모음 [u]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㉖ 한어 중고음과 조선 한자음의 체계적인 성조 대응은 고려시대 언어 역시 고저 요소를 기본으로 한 성조 언어였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렵게 한다.

나. 음운 현상

- ㉑ 파열음이 고려시대에 들어 불파음화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마찰음 계열은 고려시대 후기에 와서야 불파음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경음 계열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⁸⁾
- ㉒ 격음 계열의 성립과 관련해 결합적 유기음화를 전제하게 된다.
- ㉓ ‘冬乙沙伊(*겨슬사리)’와 같은 자료를 통해 볼 때 ㄹ탈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 ㉔ 구개적 조화에 기반한 모음 조화가 조선시대보다 생산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가)는 고려시대 음운 체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 중 (2가㉑)과 관련해 /ㄹ/과 /ㄷ/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2가㉒)과 관련해서도 ‘ㄴ’의 음가는 당시에 [o]였기 때문에 14세기 모음추이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려시대 음운 체계 연구에서 관건이 되는 것으로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시대의 국어 음운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나)는 고려시대 음운 현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록 편린(片鱗)적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 음운 현상 전반을 살펴볼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매우 귀중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2나㉑)에서 볼 수 있듯이 마찰음의 불파음화가 갖는 국어 음운사적 의미는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나㉒)에서 언급된 ㄹ탈락 현상은 이것이 국어의 역사에서 언제쯤 나타나게 된 현상인지를 두고 고려시대의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다.⁹⁾ 남아 있는 자료들이 고려시대의 음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탐구가 다각도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음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고려시대의 음운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실증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15세기 이전 국어에 대한 논의가 갖는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법이나 어휘 분야와는 다른, 음운 분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소리의 연구가 문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문자로 기록된 자료 또한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당시의 음운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를 둘러싼 전후 시대의 음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고려시대의 음운 상황을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비록 후대에 기록된 자료이긴 하지만 고려가요에 대한 탐색 역시 고려시대 음운 상황을 밝히는 데 일

8) 일찍이 이기문(1972:85)에서는 『鄉藥救急方』의 자료를 검토해 13세기 중엽에 있어서는 음절말 내지 어말에서 평음과 유기음의 중화는 일어났으나 ‘ㄷ’과 ‘ㅅ’의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ㅎ’도 제대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9) 이승재(1999)에서는 『舊譯仁王經』의 구결자 ‘-ㄹ[고]’의 ‘ㄹ’이 ‘ㄴ, ㄷ, ㄹ, ㅅ’ 등의 설단 자음 앞에서 탈락해 ‘-ㄹ[고]’로 실현된 사실을 언급한 바 있고, 이동석(2000, 2005)에서는 향가의 ‘ㄹ体(*부터) 표기를 들어 ㄹ탈락 현상이 적어도 10세기 무렵에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3. 고려가요에 나타난 음운론적 특징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당대의 언어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고려가요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나타난 언어 사실은 중세국어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서 합리적인 분류와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정확히 고려시대의 언어 특징인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특징이 표기될 당시의 언어 특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적 연구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고려가요에 나타난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려가요의 표기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¹⁰⁾ 비록 당대의 표기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고려가요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음운론적 특징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는 작업은 흥미롭게 생각된다. 먼저 각각의 특징을 보여 주는 고려가요 자료들을 일괄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해 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붕/의 존재 가능성

고려시대 /붕/이 음운으로서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된다.

(3) 가. 酒曰 酥亨(*수불), 袴曰 珂背(*ㄱᄃᆞᆫ) (계림유사)

나. 麩 只火乙(*기불), 𩑦 多里甫伊/里(*다리보리) (향약구급방)

후대에 그 형태가 ‘오/우’로 변화된 (3)의 단어들이 고려시대에 분명하게 /붕/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단어가 적어도 ‘ㄴ’과 관련된 형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 이들 단어 속에 /붕/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가요에는 ‘붕’ 표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후대형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표기를 통해 고려시대 /붕/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4) 가. 구은 밤(정석가), 누어(만전춘별사), 누워(동동), 고온(한림별곡), 미와(청산별곡)

나. 잡스와니(청산별곡), 잡스와(가시리), 그리스와(정과정), 여히와지이다(정석가), 가온디(동동)

다. 술(쌍화점), 강수를(청산별곡), 그 짓 아비(쌍화점)

(4가)를 통해서는 ‘꺠-, 늣-, 꺠-, 뭇-’과 같은 형태의 용언 어간을, (4나)를 통해서는 ‘-습/습-’, ‘가ᄃᆞᆫ’과 같은 형태의 어형을 재구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4다)의 ‘술(쌍화점)’, ‘강수를(청산별곡)’과 같은 예들은 ‘*수불 > 수울 > 술’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결과를 보여 주

10) 본고에서는 고려가요의 표기를 살피기 위해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들을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樂章歌詞』, 『樂學軌範』, 『時用鄉樂譜』의 다양한 이본들의 원본 이미지 자료들을 참조했다. 이에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오민석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는 예가 된다. 또한 ‘그 짓 아비(쌍화점)’에서의 ‘짓’은 명사 ‘집’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된 형태로 ‘ㅅ’에 의해 ‘ㅂ’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일찍이 김완진(1974)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의 발음이 ‘빙’이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특이성을 이해해 볼 수 있을 듯하다.¹¹⁾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려시대 당시에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했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2] /△/의 존재 가능성

고려시대 /△/이 음운으로서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된다.

- (5) 가. 四十日 麻刀(*마순), 弟曰 丫兒(*아스)(계림유사)
나. 蚯蚓 居兒乎(*경회), 漆姑 漆矣於耳(*웃이어시)(향약구급방)

(5)에 쓰인 차자 ‘刀, 兒, 耳’는 모두 일모(日母)에 해당하는 한자들로 이들이 우리의 전통 한자음에서 초성에 ‘△’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¹²⁾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에 (5)의 어휘들이 /△/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려가요에는 ‘△’ 표기가 나타나는데, 판본에 따라 ‘△’이 표기된 것과 표기되지 않은 것이 함께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 나타난 것은 물론,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까지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 (6) 가. 즈시/이삿다(동동), 즈슬/을(동동), 즈시여(처용가)
나. 나스/으라(동동), 나슬/을(동동), 깁/깁어신(처용가), 오슬/올어신(처용가), 지서/어(처용가)
다. 므르습/읍노이/이다(동동), 비습/읍노이/이다(동동), 보내읍노니(가시리), 그리스와(정과정), 여히으와지이다(정석가)
라. 나거시아(정석가), 혈어시아(정석가), 뽕거시아(정석가), 머거아(정석가), 듣고아(한림별곡), 熱病神이사/아(처용가)

(6가)는 명사 ‘증[貌]’에서, (6나)는 용언 어간 ‘낱-[進]’, ‘깁-[棲]’, ‘오슬-[全]’, ‘짚-[作]’에서, (6다)는 선어말어미 ‘-슬-’(> -읍/으 오-)에서, (6라)는 연결어미와 강세 보조사 ‘-ㅅㅅ’에서 각각 고려시대 /△/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 15세기의 어형과 같아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6나)의 ‘오슬/올어신(처용가)’은 고려시대의 색다른 어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¹³⁾ 그것은 15세기 ‘오올다’의 어간 ‘오올-’이 좀 특이한 음소 연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흥미롭게 생각된다. 즉, ‘오슬->오올->올-’이라는 어간 형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상정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15세기 ‘오올다’의 어간 형태에 대한 이

11) 이것은 중세국어 음운론에서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가 되어 오는 것인데, ‘집’의 발음이 ‘빙’이었다고 가정한다면 $\beta \rightarrow \emptyset / _s [C, \#]$ 와 같은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짓’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선행 시기에 ‘빙’ 발음을 가진 그런 명사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의 세계에 있어서의 ‘ᄚ’ <涯>에 비견될 존재인 것이다(김완진 1974).

12) 刀 · 놀 :신(훈몽자회_초간 하:7b), 兒 아히 스(훈몽자회_초간 상:16b), 耳 · 귀 :시(훈몽자회_초간 상:13b)

13) 참고로 16세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예들도 ‘오슬-’의 어간 형태를 보여 준다.

흐마 열 가지 히미 오슬샤(已全十力訖沙)(1567몽산화상육도보설 19a)

道는 本來 生을 오슬오미라(道本全生 | 라)(1569선가귀감 49b)

해를 높이는 동시에 15세기와는 달랐던 고려시대 어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 /ㅅ/의 존재와 분포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으)이-’가 고려시대 석독구결이나 그 이전의 향가에 보이지 않고 고려 말 음독구결에 와서야 나타난다는 사실은 국어 문법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 중 하나이다. 이는 또한 음운사적으로는 연구개 비음 /ㅅ/이 초성에 위치했던 역사가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고려가요에서 /ㅅ/을 초성에 가졌던 선어말어미 ‘-(으/으)이-’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7) 오소이/이다(동동), 반죽노이/이다(동동), 좃니노이/이다(동동), 비습/읍노이/이다(동동), 업스니이/이다(사모곡), 좃니노이/이다(서경별곡), 것고리이/이다(서경별곡), 밋요이/이다(한림별곡), 이숯호요이/이다(정과정), 아루시리이/이다(정과정), 업소이/이다(정과정), 여희으와지이/이다(정석가)

(7)의 선어말어미 ‘-(으/으)이-’ 외에도 이와 연관된 어말어미 ‘-잇가’, ‘-잇고’ 역시 고려가요에서 연구개 비음 /ㅅ/이 초성에 위치했었던 양상을 보여 준다. 음운의 분포와 관련해 어떤 음운이 어두에 등장할 수 있을 때 해당 음운은 음운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ㅅ/의 경우는 어중 초성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체를 알렸고 그 또한 오래지 않아 중성 위치로 자신의 자리를 굳혔다. /ㅅ/의 분포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시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4] ㄱ탈락 현상

15세기 국어에서 ㄱ탈락은 형태소 경계를 전제로 선행 요소가 ‘ㄹ’이나 활음 ‘j’라고 하는 음운론적 조건과 더불어 계사 뒤라고 하는 형태론적 조건 뒤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형태음운론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유범 2008).¹⁴⁾ 그런데 15세기 자료들에 나타나는 ‘몰애, 울애, 술워, 중의’ 등과 같이 특수한 표기를 보이는 단어들의 존재와 더불어 16세기 이후 이 현상이 점차 소멸되어 간 사실을 고려할 때, ㄱ탈락은 15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임을 생각해 보게 된다.

실제로 이승재(1996)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ㄱ탈락 현상¹⁵⁾ 12세기경에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수의적인 규칙이었던 것이 13세기와 14세기의 교체기에 의무적인 규칙이 되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 현상의 동화주가¹⁶⁾ 고려 중기에는 특정 형태의 /y/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고려 후기 이후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y/와 /r/로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으로 다시 검토되고 내용의 정밀화도 추구해야 하겠지만, ㄱ탈락 현상의 발생과 변화를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4)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ㄱ탈락 현상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칙화해 볼 수 있다.

[[음운] ㄹ]
 ㄱ → ∅ / { [(j)] + ____ V
 [[형태] 계사]

15) 이승재(1996)에서는 “‘ㄱ’ 약화·탈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 현상을 ‘ㄱ’의 약화로 볼지 아니면 탈락으로 볼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이 현상을 탈락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때의 ‘동화주’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면 고려시대에 ㄱ탈락 현상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가요에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가. 혈어시아(정석가), 살어리랏다(청산별곡), 우글어신(처용가), 웅곡어신(처용가), 어위어신(처용가), 늘의어신(처용가), 길어신(처용가), 기울어신(처용가), 말/마오(처용가), 밀오시라(한림별곡), 비취 오시라(정읍사)

나. 놀히언마르논(사모곡), 어이어신마르논(사모곡), 나리어다(처용가), 내해어니와(처용가), 뉘해어니오(처용가)

다. 스식옴(동동), 아니웃(처용가), 아비웃(처용가)

라. 글위(한림별곡), 멀위랑(청산별곡), 슬웃브/븐더(정과정), 얼이노니(동동)

(8가)는 어간 말음 ‘ㄹ’이나 반모음 ‘ㅣ’ 뒤의 어미 ‘-거(-)’와 ‘-고(-)’에서, (8나)는 계사 뒤의 어미 ‘-거-’, ‘-고’에서, (8다)는 반모음 ‘ㅣ’나 모음 ‘이’로 끝난 단어 뒤에 온 보조사 ‘-곰’, ‘-곳’에서, (8라)는 한 단어의 내부 요소 중 ‘ㄹ’ 뒤에 온 요소에서 각각 ㄱ탈락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 중 음운론적 환경을 보았을 때 (8다)의 ‘아니웃’, ‘아비웃’은 모음 ‘이’를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 달라 보인다. 이것은 보조사 {-곳}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의 말음이 모음일 때 실현되는 형태인 ‘-웃₁’과, 선행 요소의 말음이 ‘ㄹ’일 때 ‘-곳’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인 ‘-웃₂’를 구분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¹⁷⁾ 즉 ‘아니웃’, ‘아비웃’에 결합된 ‘웃’은 ‘-웃₂’가 아닌 ‘-웃₁’인 것이다.

(8라)의 경우는 고려가요가 기록될 당시 이전의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서의 ㄱ탈락을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단어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로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되었지만, 단어 내부적으로는 두 형태소의 결합 과정이 있었고 이때 ‘ㄹ’ 뒤에서 ‘ㄱ’이 탈락한 것이 16세기에 ‘ㄹㅇ’의 형식으로 분철 표기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단어가 고려시대를 포함해 실제로 언제까지 ‘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진다.

한편, 고려가요에서 ‘뵈거시아(정석가)’와 같은 예는 ㄱ탈락의 예외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사 어간 ‘뵈-’에 결합된 어미 ‘-거(-)’에서 ㄱ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8가)의 예들을 참조할 때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보기 어렵다. 이것이 16세기 이후 ㄱ탈락이 소멸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든지, ‘ㄱ’이 더 이상 반모음 ‘ㅣ’를 가진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다른 용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5] ㄹ탈락 현상

앞서 (2나㉔)에서 언급했던 ㄹ탈락 현상은 고려가요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가. 노니^ㄹ와지이다(정석가), 노니다가(처용가), 우니노라(청산별곡), 우니다니(정과정), 미나거신(처용가), 도셔(가시리), 구조개랑(청산별곡)

나. 어저(동동)

1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역 조사 {-과}의 이형태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김유범(2007b:143-145)를 참고할 수 있다.

(9가)는 합성 동사의 어간 ‘노니-(놀- + 니-)’, ‘우니-(울- + 니-)’, ‘미나-(밀- + 나-)’, ‘도셔-(돌- + 셔-)’와 합성 명사 ‘구조개(굴 + 조개)’에서, (9나)는 동사 ‘얼다’의 활용에서 ㄹ탈락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9가)의 ‘구조개’는 『鄕藥救急方』의 ‘屈召介(*굴조개)’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屈召介’가 ㄹ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정확한 어형이라면 우리는 13세기 중엽에서 16세기 사이에 이 단어에서 ㄹ탈락이 일어났을 것임을 추정하게 된다. 참고로 ‘녀닛景(만전춘별사)’에 대해 이등룡(2010)에서는 ‘녀니- + -ㄹ(동명사 어미) + -ㅅ(관형격 조사)’로 분석했는데, 이와 같은 분석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ㄹ탈락 현상을 상정해 보게 된다.

한편, 『용비어천가』에만 나타나는 ‘호불샤(<*호불 + 샤)’를 비롯해 15세기 중엽에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말들에서 ‘ㄹ’이 탈락된 모습을 보여 주는 예들을 감안할 때, ㄹ탈락은 늦어도 고려시대 말기인 14세기에는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일 듯하다. 현재로서는 ㄹ탈락의 발생을 더 이른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다 확실한 자료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출현은 『鄕藥救急方』의 자료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뒤로하고 ㄹ탈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6] 기타

고려가요에는 이 밖에도 고려시대 음운 및 16세기 표기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예들이 있다.

(10) 가. 몰아(정석가), 몰라셔(서경별곡), 올라셔(청산별곡)¹⁸⁾

나. 뉘러시니잇가(정과정), 膾々 가시로다(처용가)

다. 바늘(<바늘>(처용가), 고외마른(<마른>(서경별곡), 깃어신 눈썹에(처용가)

(10가)는 어간 2음절에 ‘으/으’를 가진 용언들의 활용으로서 이른바 ‘ㄹㅇ’형 또는 ‘ㄹㄹ’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단어가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활용했는지 궁금하지만, 고려가요는 15세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므로 그 이전 시대의 모습을 추정하기는 힘들다.

(10나)는 계사 뒤에서 선어말어미 ‘-더-’와 ‘-도-’가 각각 ‘-러-’와 ‘-로-’로 형태를 바꾼 모습을 보여 준다. 고려시대 구결 자료들에 나타나는 문법형태소들의 전후 형태와 더불어 ‘모란(<牡丹>), 차례(<次第>), 도량(<道場>), 보리(<菩提>’와 ‘바를(<*바들(海)), 흐르(<*흐들(一日)), 가를(<*가들(脚)), 마리(<*마디(頭))’와 같은 단어들에서 관찰되는 ‘ㄷ>ㄹ’ 변화는 13세기 후반 이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추정케 한다.¹⁹⁾ 고려가요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만을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10다)는 고려가요가 기록될 당시의 특징을 보여 주는 예들로서 ‘바늘’과 ‘고외마른’에서는 2음절 이하에서 ‘· > ㅡ’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깃어신 눈썹에’의 경우는 16세기 이후 나타

18) 참고로 ‘길라(쌍화점)’의 경우는 ‘길-[汲]+-으라(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기르라’가 되었어야 했지만 운울 등 다른 이유로 ‘길라’의 형태가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19) 이에 대해서는 김유범(2001)에서 상세하게 논의된 바 있고, 남풍현(2003:17-18)에서도 ‘t>r’의 변화가 석독구결에서 순독구결 시대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을 언급하였다.

난 분철 표기의 경향을 용언의 활용과 체언의 곡용에서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4. 맺음말

이제까지 고려시대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간접적이거나 고려시대의 언어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자료인 고려가요를 대상으로 그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2)에서 살펴보았던 고려시대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들을 고려가요를 통해 하나하나 검증해 볼 수는 없었지만, 고려가요를 음운론적 시각으로 살피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는 데에 본고가 갖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음운 체계에서 언급된 모음의 음가나 여러 음운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검증해 볼 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기회가 되었다.

국어사 연구자에게 고려시대 언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15세기를 중심으로 국어사의 중요한 뼈대가 세워졌다면 고려시대 언어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뼈대를 놓고 그 이전 국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따져볼 때 맞추듯 신중하고도 흥미롭게 다가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문법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고려가요의 낯선 언어 모습은 우리가 고려시대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늘 잊지 않고 챙겨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문법사와 어휘사의 연구 성과가 음운사 연구와 접목될 때 우리는 보다 믿음직한 국어 음운사를 밝혀 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姜信沆(1980),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고경재(2016), 「모음추이의 국어사적 검토와 국어교육적 의미」,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경재(2017), 「국어 모음추이의 시기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45-74.
- 권성훈(2017),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차용어」, 『동악어문학』 70, 동악어문학회, 53-67.
- 권인한(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태학사.
- 권인한(2000), 「吏讀字 ‘味’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207-224.
- 김명준(2008), 『개정판 고려 속요 집성』, 도서출판 다운샘.
- 김무림(1995a), 「고려시대의 자음체계」,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551-566.
- 김무림(1995b), 「국어사의 시대구분과 격음·경음의 발달」, 『우산이인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김무림(1997), 「경음의 음운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29-48.
- 김무림(1999),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研究」, 『구결연구』 5, 구결학회, 75-108.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림(2011), 「口訣 및 吏讀 漢字音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6, 구결연구, 55-76.
- 김완진(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05-120.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유범(1994), 「高麗建國의 國語史的 意味」, 『한국어문교육』 7,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81-113.
- 김유범(1995), 「國語 流音의 音韻史的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유범(1998), 「國語의 子音體系와 音節末 中和에 대한 通時的 照明」, 『어문논집』 38, 민족어문학회, 295-316.
- 김유범(2001),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형성에 대한 일고찰 -‘ㄷ>ㄹ’ 변화 및 ‘ㄹ’형 형태로의 변화에 의한 이형태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53-83.
- 김유범(2002), 「설음·치음과 15세기 국어 선어말어미 {-술-}의 이형태교체」,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25-43.
- 김유범(2007a),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절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73-99.
- 김유범(2007b),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 김유범(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35-55.
- 김주원(1992a), 「14세기 모음주이가설에 대한 검토」, 『언어학』 14, 한국언어학회, 53-74.
- 김주원(1992b),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국어학회, 33-56.
-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金亨奎(1968), 『古歌謠註釋』, 一潮閣.
- 南豐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 南豐鉉(2003),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2.
- 南豐鉉(2009), 『古代韓國語研究』, 시간의물레.
- 朴炳采(1968),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宣明文化社.
- 박병채(1989), 『국어 발달사』, 세영사.
-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 배영환(2016), 「제주방언 속의 몽골 차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68, 중앙어문학회, 7-36.
- 梁柱東(1949),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 이기문(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ücher 35.
- 이기문(1972),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 이기문(1991), 『國語 語彙史 研究』,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 태학사.
- 이동석(2000), 「ㄹ탈락 현상의 적용 환경과 발생 및 소멸 시기에 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237-259.
- 이동석(2005), 『국어 음운 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 이동석(2013), 「‘ㄹ’의 음가론」,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71-118.
- 이동룡(2010), 『여요석주』, 파주: KSI한국학술정보(주).
- 이승재(1994),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307-326.
- 이승재(1996), 「‘ㄱ’ 약화·탈락의 통시적 고찰 -남권회본 능엄경의 구결자료를 중심으로-」,

- 『국어학』 28, 국어학회, 49-79.
- 이승재(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音韻史的 意義」,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09-126.
- 이현희(2001), 「『樂學軌範』의 國語學的 考察」, 『樂學軌範』, 진단학회 편, 일조각, 69-112.
- 전경옥(2013), 「고려속요의 구음 ‘라리런’·‘라리라’의 관련 양상」,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57-284.
- 全圭泰(1968), 『論註高麗歌謠』, 서울: 正音社.
- 정우영(1992), 「『樂學軌範』所載 한글가사의 表記史的 考察」, 『국어학』 22, 국어학회, 271-297.
- 정우영(2007), 「순경음비음(ㄴ)의 研究史的 檢討」, 『국어사 연구』 7, 국어사학회, 133-163.
- 조운성(2013), 「‘△’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119-132.
-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 崔文吉(1990), 「高麗時代의 音韻과 語彙」, 『慧田專門大學論文集』 8, 慧田專門大學, 505-546.
- 최중호(2005), 「고려시대 음운 체계 연구 -고려대장경 각성인 이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 최철·박재민(2003), 『석주 고려가요』, 이회.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홍기문(1959), 『고가요집』,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1996 한국문화사 영인).

고려시대 어휘와 고려가요

황선엽(서울대)

고려가요 <動動>, <井邑詞>, <處容歌>, <鄭瓜亭>, <鄭石歌>, <靑山別曲>, <西京別曲>, <思母曲>, <雙花店>, <履霜曲>, <가시리>, <翰林別曲>, <滿殿春 別詞>, <維鳩曲>, <相杵歌> 등 15수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품사별로 살펴보면 부록2에 제시한 바와 같다.¹⁾ 歌意 해석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체언류가 255개, 용언류가 182개, 관형사 7개 및 부사 32개로의 수식언류가 39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 어휘 중에서는 다른 문헌에서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수 있고 또한 용례가 있는 어휘라도 어형이 독특한 예들도 많아 고려가요는 그 전체 어휘수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국어 어휘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체언류 가운데서는 물명이 많은 편이고 이 중에서도 동식물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바 이 글에서는 주로 물명을 대상으로 필자가 검토한 내용들을 기술하였다.

1. 저미연

(1) 十月에 아으 저미연 ㅼ룻 다호라

것거 ㅼ리신 後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악학궤범, 動動>

‘저미연’을 현대국어 ‘저미-’와 관련시켜 이해해 오고 있으나 ‘저미-’는 15세기 국어에서 “또湯火傷을 고류디 ㅼ리틀 데며 ㅼ티면 ㅼ르디 아니호며 알프디 아니호며 수ㅼ ㅼ느니라(又方治湯火傷 用梨割貼 不爛止痛易瘥)《1466 구방 하:151》”와 같이 ‘데미-’(削)로 나타나며 평북방언에서 ‘데미-’로 남아 있는바 이곳의 ‘저미-’는 현대국어의 ‘저미-’(削)와는 무관한 단어임. ‘저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를 참고해야 함. 문맥상 ‘削’이 아니라 ‘加, 施, 進’의 의미인 듯함.

(2) 天子大王 오시논 나래 ㅅ랑大王인들 아니 오시려

兩分이 오시논 나래 ㅅ렛 福을 저미쇼셔 <시용향악보, 大國>

2. ㅼ룻

양주동은 ‘보로쇠’(보리수나무, 보리수 열매), 박병채는 고로쇠, 김완진은 ‘머러(머령: 화살을 쏘거나 매사냥을 할 때 팔뚝에 차는 가죽 토시 혹은 손가락에 끼는 각지)’로, 신재홍은 ‘ㅼ디(화살대의 끝에 세 방향으로 꽃힌 깃털)’나 ‘화살나무(<ㅼ디회>’로 해석하였음. 최철·박

1) 감탄사 및 여음구와 <翰林別曲>에 나타나는 국어 어휘로 보기 어려운 한자어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미상으로 제시한 단어들도 품사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외하였다.

재민은 양주동의 견해를 따르되 보리수에 학명으로 ‘*Tilia miqueliana*’와 ‘*Elaeagnus umbellata*’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이곳의 ‘벗’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음.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함.

‘보리수’로 불리는 나무

명칭(학명)	서식지	분류 과	높이	명칭 유래
(인도)보리수 (<i>Ficus religiosa</i>)	인도, 동남아	뽕나무과	30m	석가모니가 이 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여 〈보디 브리쿠샤(Bodhi-vtksa,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라고 하였는데 중국에서 음역하여 보리수(菩提樹)라 함.
보리자나무 (<i>Tilia miqueliana</i>)	중국, 한국중부이남 식재	피나무과	20-30m	인도보리수가 중국에는 없으므로 잎이나 크기가 비슷하며 열매로 염주를 만들 수 있는 이 나무를 ‘보리수(菩提樹)’라 함. 이를 한국에 들여와 사찰 등에 식재함.
염주나무 (<i>Tilia megaphylla</i>)	한국(묘향산, 강원도 금강산, 경기도 일대)	피나무과	5-6m	한국 특산의 자생 식물로 보리자나무와 잎이나 열매가 비슷한 염주나무를 사찰 등에 심고 보리수라 부름.
찰피나무 (<i>Tilia mandshurica</i>)	한반도 중부이북, 중국우수리·아무르	피나무과	30m	보리자나무나 염주나무처럼 열매로 염주를 만들 수 있는 이 나무를 사찰에서 심고 보리수라 부르기도 함.
Lindenbaum(<i>Tilia miqueliana</i>)	유럽	피나무과	20-40m	피나무과에 속하는 유럽종으로 독일어로 Lindenbaum이라 하는데 뮐러의 시 ‘Der Lindenbaum’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노래가 유명해짐에 따라 이를 번역하여 ‘보리수’라 함. 중국의 보리자나무와는 차이가 있음.
보리수나무 (<i>Elaeagnus umbellata</i>)	한국(제주도, 남부지방, 중부지방, 황해도 이남), 일본, 중국, 히말라야, 인도	보리수나무과	3-5m	‘벗’이 ‘보릿/보릿’ 정도로 변화하여 ‘보리수(菩提樹)’와 음성 상사로 ‘보리수’가 된 듯함. ‘보리똥나무’로도 불리며 지역에 따라 ‘뽕똥, 벌똥/뽕똥, 뽕루똥, 포리똥, 불레, 보리화주’ 등으로 불림.

보리수나무 열매는 길이 6-8mm 정도의 다소 긴 공 모양으로 뽕나무의 오디나 앵두나무의 앵두와 비슷한 시기인 6월 초 중순이면 붉게 익으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음. 맛은 달 익은 것은 뽕은 맛이 나나, 잘 익은 붉은 과실은 앵두와 비슷하다. 근래에는 개량종의 보급으

로 그 크기가 20mm~25mm로 과육이 크고 과즙이 풍부한 종도 개발되어 있음. 보리수나무 약명 호퇴목(虎頰木), 열매는 호퇴자(虎頰子), 열매와 잎, 줄기, 뿌리를 모두 약으로 씀. 보리수나무 열매는 기침, 가래, 천식을 치료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 특효가 있음. 잎이나 잔가지는 지사나 지혈에, 줄기는 알코올 중독 해소에 쓰임. 또 잎을 달여서 티눈이나 십이지장창을 없애는 데 씀. 경남 함천군 가야면 야천리 각사마을에서는 마을 일대에 2만 주의 보리수나무를 심어 뽕뽕으로 식초와 진액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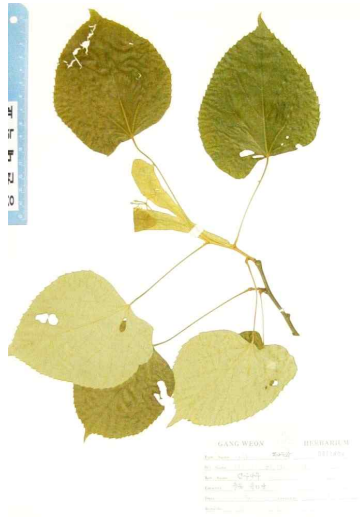


사진1. 염주나무 잎



사진2. 인도보리수 잎



사진3. 유럽보리수 잎

3. 분디나무

(3) 十二月入 분디남으로 갓끈 아으 나술 盤잇 저 다호라
니의 알피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 다 므르습노이다 <동동>

산초(난대/분디)와 초피(제피/조피/지피나무/취피나무/죄피) 구분.

산초(*Zanthoxylum schinifolium*): 김치 담을때, 가끔 신김치 방지용으로 사용도 하고, 열매는

기름을 짜 천식 치료용으로 사용하며, 산초기름을 김 구워 먹을 때 바르면 눅눅하지 않아 좋다. 가지의 가시가 서로 어긋나며 잎은 끝이 뾰족해지면서 길쭉하고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하고 있다.

초피(*Zanthoxylum piperitum*): 추어탕 국에 넣어먹는 향신료로 사용한다. 초피는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고 양념으로 쓴다. 고추같이 맵고 탁 쏘는 맛이 나기 때문이다. 가지의 가시가 서로 마주 나며 잎이 동그스름하고 가장자리가 잔잔한 물결모양이다. 중부 이남의 산에서 자생한다. 초피나무, 상초나무, 견피나무, 조피나무, 산초나무, 제피나무 등으로 불린다.



사진4. 산초나무 가지



사진5. 산초나무 가지



사진6. 초피나무 가지

4. 가재

‘소니 가재 다 브릅노이다’는 ‘손님이 가져다 옵니다.(齧)’, ‘손(手)이 가장자리로 물러납니다.’ 등의 해석이 행해져 왔으나 필자는 ‘가재’를 ‘가지(枝)’의 처격으로 보고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로 파악하여 ‘손(手)이 가지로 인해 다 물러졌습니다(爛).’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고자 함.

(4) ㅅ야미 가칠 브러 즘겻 가재 연즈니(大蛇銜鵲眞樹之揚) <용가 7장>

‘가지’의 처격이 ‘가재’로 나타난 것은 ‘가지’의 고형이 ‘갓’이었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붙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황선엽(199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미사 ‘-이’가 통합한 유정체언들의 경우 속격과 호격에서 ‘-이’가 통합하기 이전의 고형이 그대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 ‘아비, 어미’의 속격이 ‘아비, 어미’로, 호격이 ‘아바, 어마’로 나타남을 들 수 있음. 뒤에 오는 ‘다’를 ‘어느이다, 무슨다’와 같이 부사나 부사어 뒤에 붙는 첨사(이유나 원인의 의미인 듯?)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부사 ‘다(盡)’로 파악하였음.

5. 꾀꼬리

꾀꼬리에 대한 사전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5) 한자어로는 흔히 앵(鶯/鶯)이라 하는데 황앵(黃鶯), 황앵아(黃鶯兒), 황조(黃鳥), 황작(黃雀), 황리(黃鸝), 여황(鶯黃), 황금조(黃金鳥), 이황(離黃), 황백로(黃伯勞), 황포(黃抱), 금의공자(金衣公子), 창경(倉庚/鶯鶯), 박서(搏黍), 초작(楚雀) 등의 이칭이 있으며 방언으로는 꾀꿀래(강원), 꾀고리(경남), 꾀구리(경남), 꾀꼬리(경남), 꾀꾸리(경남), 꾀꾸리(경남), 꾀꾸리(경남), 꾀꾸리(경남, 함북), 꾀꾸리(경남), 꾀꿀-새(경북), 꾀꿀-새(경북), 꾀꼬리(경북), 꾀꼬래이(경북), 꾀꼬리(경상, 평안,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꾀꿀-새(경상, 전라,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꾀꿀-새(전라, 함경, 중국 길림성), 꾀꿀-새(전라), 꾀그마리(전북), 꾀꿀-새(충청, 중국 길림성), 꾀꿀(평안, 중국 요령성), 꾀꿀-새(함남, 중국 흑룡강성), 고애-새(함북), 꾀꼬리(함북) 등이 있다. 학명은 *Oriolus chinensis diffusus* SHARPE이다. 지구상에는 꾀꼬리과의 조류가 28종이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열대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유라시아대륙에는 2종만이 서식한다. 우리나라에는 단 한 종이 여름새로 도래한다. 중국 남부·인도차이나·버마·말레이반도 등지에서 월동하고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우리나라로 날아와 심산오지는 물론 농촌과 도시의 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번식한다. 몸길이는 26cm 정도이며, 온몸이 선명한 황금빛이다. 눈 앞에서 시작하여 눈 주위를 지나는 부분 [過眼線]은 검은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뒷머리에서 합해지며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른 모양이다. 날개와 꼬리는 검지만 가장자리는 노란색이다. 부리는 붉은색이며 암컷은 온몸에 초록빛이 돈다. 활엽수와 침엽수 나뭇가지에 등지를 틀며 5~7월에 보통 4개의 알을 낳는다. 봄철에는 곤충의 애벌레와 성충, 특히 송충이 등을 즐겨 먹으며, 가을철에는 식물의 열매를 많이 먹는다.

매미·메뚜기·잠자리 등의 곤충과 거미류 이외에도 버찌·산딸기·산포도 등을 두루 먹는다. 울음소리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우며, 산란기에는 ‘뻗 뻗요코 뻗요’ 하고 되풀이해서 우는 등 다양한 소리를 낸다. 《물명고》와 《재물보》에서도 피꼬리에게는 32가지의 소리 굴림이 있다고 하였다.



사진7. 피꼬리



사진8. 피꼬리 머리

우리말샘에는 피꼬리의 어형 변화를 ‘곶고리(15세기~17세기)>꿋고리(16세기~18세기)>피고리(18세기~19세기)>피꼬리(20세기~현재)’과 같이 정리하였음.

‘곶고리’의 어원은 울음소리인가, 모양인가가 문제인데 사진 7과 8에서처럼 머리에 검은 고리 모양의 띠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곶+골+이’ 정도로 보고 외형에서 기원한 명칭으로 추정해 볼 가능성을 상정함. ‘곶’은 ‘串’, ‘골’은 ‘골회, 골와라, 골왕이’ 등의 보이는 형태로 ‘圓, 環’ 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

6. 드레

이복규(2004)에서는 『고려사』 권제129 「열전」 42 <최충헌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7)의 ‘드레우물’에 대해 ‘달애우물(烺艾)’이 전승·기록 정착 과정에서 ‘드레우물’로 誤記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6) 최충헌과 최충수는 사람을 대궐로 보내서 왕을 강박하여 홀로 말을 타고 향성문을 나가게 하여 창락궁에 감금하고 중금지유 정윤후를 시켜 간수케 하였다. 그때 태자 숙은 내원 북궁에 있었는데 최충헌 형제가 사람을 보내서 독축하였으므로 태자는 비와 함께 도보로 궁문을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역마를 타고 강화도로 쫓겨갔다. 그런 후 평량공 민을 맞아다가 대관전에서 즉위케 했으니 그가 바로 신종이며 그의 아들 연을 태자로 삼았다. 최충헌과 최충수는 군사를 데리고 추밀원으로 들어가서 각 위의 장군들을 구정에 주둔시키고 최충헌이 왕에게 청하여 내시 민식 등 70여명을 내쫓았다. 그리고 세속에 임금 <달애>우물물(烺艾井)을 마시면 고자가 득세한다는 전설이 있었으므로 그 우물을 허물고 광명사 우물물을 왕이 마시는 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속어에 등리(藤梨)를 <달

애>라고 하였다.(又以俗傳 王飲烜艾井 則宦者用事 乃毀之 以廣明寺井爲御水 俚語藤梨謂之烜艾)

(7) 드레 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던 우뭇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쌍화점>

(6)의 기록은 1196년(명종 26년)에 무신난이 일어난 후 임금이 마시는 우물이 달애우물에서 광명사우물로 바뀌었다는 내용임. 아울러 등리(藤梨)를 ‘달애’라 한다 하였으니 ‘烜艾’가 ‘달애’의 음차 표기이며 이것이 <청산별곡>에 나오는 과일 ‘드레’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달애’는 용언어간 ‘들-(甘)’에 명사파생접사 ‘-개’가 붙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현대어의 ‘들착지근하다-들척지근하다’를 고려할 때 ‘달애/드래’가 ‘드레’라는 모음교체형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래 『번역노걸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 우물에 두레박이 달려 있는 경우가 드물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두레박이 달려 있는 우물을 ‘드레우물’이라 특칭 할 수 있었을 듯함. (7)의 ‘드레’는 기존과 같이 ‘汲器’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이때의 ‘드레’는 용언어간 ‘들-(入)’에 명사파생접사 ‘-개/에’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8) 高麗人: 내 기리를 비화지라. 이 드레 물 담디 아니호느다 엇디호야 구으리혀료?

漢 人: 내 너드려 ㄱㄹ츄마 드레를 드려 물 우회 띄워 배터 구으리혀 므레 맛바다 드러가면 즉재 물 먹느니라.

高麗人: 이러면 진실로 얹피 사르미 물 긴거늘 보다니 일즉 비호디 아니호니 오늘우터 알와라.

漢 人: 네 高麗人 짜해 우물 업스너 엇디오?

高麗人: 우리 뎡 우므른 이런 우물 곧디 아니니 이 우므른 벽으로 무슨 우므리라. ㄱ장 차가샤 二丈 기피움 호거니와 우리 뎡 우므른 다 돌호로 무슨 거시라 ㄱ장 기프니도 호 닷 기피 업서 다 널굽여들 잣 기피라. 우리 거기는 남지니 물기리 아니호고 다른 겨지비 물기리 호느니 동히로 머리 우회 므를 이느니 각각 물 기를 박 가지고 박 우회 호 오릿 ㄱ는 노홀 미얏느니 또 여긔 줄드레 호가지로 물 긴느니라. <翻譯老上35a-36b>

7. ㄴㅁㅈ자기

‘ㄴㅁㅈ자기’가 ‘ㄱ’ 탈락 및 ‘·’의 1단계 소실과 2단계 소실, 원순모음화, ‘ㅈ, ㅊ’ 앞에서의 ‘ㄴ’ 첨가 등을 거쳐 ‘나문재’가 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문재속에 속하는 식물은 나문재, 갯나문재, 칠면초, 방석나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바닷가에 서식하며 어린잎을 식용할 수 있고 나문재, 갯나문재는 가을로 갈수록 붉어져 칠면초(어릴 때부터 붉은 색을 띠)와 유사해지므로 구별이 쉽지 않다. 특히 갯나문재는 ‘남은재나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문재’와 ‘남은재’는 실제 발음이 거의 같으므로 표기상의 차이일 뿐인바 식물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문재’라고 할 경우 나문재, 갯나문재를 같이 일컫게 된다. 나문재와 유사하며 바닷가에 사는 식물들을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칭(학명)	분류	이칭 및 방언	특징
나문재(<i>Suaeda glauca</i>)	나문재속	갯솔나물(잎이 솔 잎처럼 좁고 가 늘), 염봉(鹽蓬), 나문재기, 해재기 (황해)	꽃자루가 있고 열매가 별모양이며 큼. 잎이 길고 가늘며 단면이 원형. 가을이 되면 아래에서부터 붉어짐.
갯나문재(<i>Suaeda maritima</i>)	나문재속	해홍채(海紅菜), 해홍나물,	꽃자루가 없고 열매가 작음. 잎의 단면 이 배부른 반원형. 잎끝이 뾰족함. 나 문재보다 빨리 붉어짐.
칠면초(<i>Suaeda japonica</i>)	나문재속		잎의 단면이 원형이나 타원형. 잎끝이 둔함. 계절에 관계없이 곧잘 붉은 색을 띤.
방석나물(<i>Suaeda australis</i>)	나문재속		잎이 길쭉하고 단면이 알팍한 반원형 임. 옆으로 퍼져 자라며 지면을 덮음.
통통마디 (<i>Salicornia herbacea</i> / <i>Salicornia europeae</i>)	통통마디 속	함초(鹹草), 해본 자(海蓬子)	잎이 퇴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음. 줄기 가 통통하고 마디마디 이어져 있음. 가 을이 되면 붉어짐.

□ 서식지 차이: 바닷물에 잠기는 빈도와 토양을 기준

○ 하루 두 차례 바닷물에 식물체가 잠기는 ‘저위간석지’: 칠면초, 해홍나물, 갯잔디, 천일사초, 세모골, 갈대 등은

○ 한 달에 한두 차례 침수되는 ‘저위간석지’와 ‘만조선’ 사이: 갯질경, 비쭉, 갯는쟁이, 갯개미자리

○ 침수는 없지만 지하로 바닷물이 들어와 표면에 염분이 쌓이는 ‘고위간석지’ 및 ‘간척지’: 나문재, 갯개미취, 갯질경이



갯벌 주변 생태계 모식도

[출처] 바다와 사랑에 빠진 식물-염생식물의 농업적 가치

<http://blog.daum.net/leejn920/1761>

‘늑막자기’의 어원을 ‘늑물(菜)+자기’로 볼 수 있을 듯함. 이때 ‘자기’는 ‘매자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됨.

(9) ‘매자기’에 대한 백과 사전 설명 정리

학명은 ‘*Bolboschoenus yagara* (Ohwi) Y. C. Yang & M. Zhan / *Scirpus fluviatilis* (Torr.) A. Gray’인데 사초과(Cyperaceae)의 여러해살이 식물임. 줄기의 단면이 세모이며, 1~2개 줄기가 모여서 바로 서서 자람. 땅속 뿌리줄기[根莖]는 가로로 길게 자라고, 끝에 굵은 덩이줄기[塊莖]가 발달하며, 4~5월에 발아함. 열매는 여원열매(瘦果)로 과실에 바늘가시(刺針)가 6개 있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물이 고인 습지에서 흔하게 관찰됨.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하천에서도 수중보 때문에 물이 고인 장소에서 삶. 덩이줄기는 오래전부터 향부자(香附子)에 버금가는 효능으로 민간에서 약재로 사용했는데 이를 한방에서는 형삼릉(荊三稜), 경삼릉(京三稜), 초삼릉(草三稜) 등으로 부름. 고려 때의 이두항명으로는 ‘結叱加次根’이라 하였고, 조선 때에는 ‘牛天月乙(쇼하늘타리/쇠하늘타리?)’²⁾이라 하였음. 『東醫寶鑑』에서는 ‘막자깃불휘’, 『鄕藥集成方』에서는 ‘每作只根(막자기불휘?)’, 『임원경제지』에서는 ‘왕고서불휘’, 『方藥合編』에는 ‘막자깃뿌리’로 기록되어 있음.

‘매자기’의 어원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매로 쓸 만한 작대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나 이는 민간어원일 뿐이며 ‘막자기’의 ‘막’은 ‘물’의 의미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모자반’을 ‘모자기’라 하기도 한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물가나 물속에 사는 식물에 ‘자기’란 명칭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식물명이나 동물명에 ‘두여머조자기[천남성], 복자기, 오분자기’ 등도 있으나 이들과의 관련은 찾기 어려움.

참고문헌

- 강헌규(2004), 『고가요의 주석적 연구』, 한국문화사,
 고창수(2008), 「<정읍사> 어구 분석의 몇 논점」, 『한성어문학』 27, 한성어문학회, pp.113-132.
 고창수(2013), 「고려가요 해석의 몇 논점」,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pp.5-21.
 김완진(1982), 「高麗歌謠의 語義 分析」, 高麗時代의 가요문학, 새문社, III-12.
 김완진(1998), 「고려가요의 物名: 국어학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21-4, pp.3-26.

2) 하늘타리 *Trichosanthes kirilowii* 하늘타리·과루등·하늘수박·천선지루라고도 한다. 산기슭 이하에서 자란다. 뿌리는 고구마같이 굵어지고 줄기는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올라간다. 잎은 어긋나고 단풍잎처럼 5~7개로 갈라지며 갈래조각에 톱니가 있고 밑은 심장밑 모양이다. 꽃은 7~8월에 피고 2가화이며 노란색이다. 수꽃은 수상꽃차례로 달리고 암꽃은 1개씩 달린다. 꽃받침과 화관은 각각 5개로 갈라지고 화관갈래조각은 실처럼 다시 갈라진다. 수술은 3개,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7cm 정도이며 오렌지색으로 익고 종자는 다갈색을 띤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왕과근(王瓜根), 열매를 토과실(土瓜實), 종자를 토과인(土瓜仁)이라고 하며 약용한다. 뿌리는 통경·이노·배농(排膿)에 쓰고 과육은 민간에서 화상과 동상에 사용하며 종자는 거담·진해·진통에 쓰거나 소염제로 쓴다. 뿌리에서 받은 녹말은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몽골에 분포한다. 잎갈래조각에 톱니가 없고 열매가 타원형인 것을 노랑하늘타리(var. japonica)라고 하며 일본에 분포한다. <두산백과>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형규(1955), 古歌註釋, 白映社,
- 남광우(1975),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 남광우(1975), 「高麗歌謠 註釋上の 問題點에 関하여」, 『高麗時代の 言語와 文學』, 형설출판사.
- 남광우(1982),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1)」, 『어문연구』 1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97-102.
- 남광우(1982),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2)」, 『어문연구』 1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52-170.
- 남광우(1982), 「고려가요 주석상의 문제점(3)」, 『어문연구』 1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8-39.
-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 박재민(2012), 「‘정석가’ 주석 재고와 문학적 향방(1) - 三同 삭삭기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2, 고전문학한문학회.
- 박재민(2012), 「‘청산별곡’의 어석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연구』 32, 한국시가학회.
- 박재민(2014), 「‘동동’의 어석과 문학적 향방」,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 박재민(2015), 「국어교육을 위한 고려가요 語釋의 연구사와 그 전망」, 『한어문교육』 3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p.113-144.
- 서재극(1968), 「여요 주석의 문제점 분석 - 동동·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어문학』 19집, 한국어문학회, pp.1-10.
- 서재극(1968), 「여요주석의 문제점 분석」, 어문학19, 한국어문학회.
- 서재극(1975), 「노래 동동에서 본 고려어」,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 서재극(1975),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 신재홍(2015), 「동동의 선어(仙語) 및 난해구 재해석」,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pp.165-202.
- 양주동(1947),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 유동석(1999), 「<정읍사> 연구-‘저재너러신고요’에 대한 어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pp.1-23.
- 유동석(1999),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한 새 풀이」, 『한국민족문화』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pp.1-24.
- 유동석(2000), 「고려가요 <정과정>의 노랫말에 대한 새 해석」,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pp.241-254.
- 유동석(2012), 「고려가요 <처용가>연구-“마아만흐니여”의 어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문학회, pp.159-175.
- 이등룡(2002), 「고려가요 어석연구」, 『인문과학』 3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23-39.
- 이등룡(2010), 『여요석주』, 한국학술정보.
- 이복규(2004), 「고려가요 난해어구 해독을 위한 민속적 관건-<청산별곡>과 <쌍화점>의 일부 어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pp.53-71.
- 전규태(1968), 『高麗歌謠』, 正音社.

지헌영(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최철/박재민(2003), 『석주 고려가요』, 이회출판사.

황병익(2007), 「동동 ‘새셔가만호애라’와 한림별곡 ‘덩쇼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정신문화연구』 109, 한국학중앙연구원, pp.117~138.

황선엽(1997),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들에 대하여」,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03-213.

<부록1> 고려가요 원문

<動動>

德으란 곰비에 반죽고 福으란 립비에 반죽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 브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를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 돌윳고지여
늑뭇 브를 즈을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니몬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일에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른 堧 長存호살 藥이라 반죽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 보실 니를 격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스 보로매 아으 百種 排호야 두고
니를 혼디 녀가져 顧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스 보로몬 아으 嘉俳나라마론
니를 피셔 녀곤 오늘날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일에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호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에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 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음 녀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스 분디남기로 갓곤 아으 나을 盤잇 저 다호라
니의 알피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 다 브르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악학궤범 권5: 8ab]

<井邑詞>

(前 腔)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
라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즈 더를 드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過 編)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
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악학궤범 권5: 10ab]

<處容歌>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¹⁾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²⁾호시란디
以是人生에 相不語호시란디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호샷다
(中葉) 어와 아비 즈시여 處容아비 즈시여
(附葉) 滿頭插花 게오샤 기울어신 머리에
(小葉) 아으 壽命長遠³⁾호샤 넘거신 니마해
(後腔) 山象 이슥 길어신 눈썹에
愛人相見호샤 오술어신 누네
(附葉) 風入盈庭호샤 우글어신 귀예
(中葉) 紅桃花마타 붉거신 모야해
(附葉) 五香 마타샤 웅기어신 고해

1) 新羅盛代 昭盛代 <악장가사>

2) 常不語 <악장가사>

3) 壽命長遠 <악장가사>

(小葉) 아으 千金 머그샤 어워어신 이베
 (大葉) 白玉琉璃ㄹ티 히여신 닛바래
 人讚福盛ᄃᆞ샤 미나거신 툃애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예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스맷길해
 (附葉) 설미 모도와 有德ᄃᆞ신 가스매
 (中葉) 福智俱足ᄃᆞ샤 브르거신 빅예
 福智具足ᄃᆞ샤<악장가사>
 紅鞵 계우샤 곱거신 허리에
 (附葉) 同樂太平ᄃᆞ샤 길어신 허뒤예
 (小葉) 아으 界面 도르샤 넘거신 바래
 (前腔) 누고 지서 세니오 누고 지서 세니오
 바늘도 실도 어뻘 바늘도 실도 어뻘
 (附葉) 處容아비를 누고 지서 세니오
 (中葉) 마아만 마아만ᄃᆞ니여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서 세온
 (小葉)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만ᄃᆞ니여
 (後腔) 머자 외야자 綠李야
 썰리 나 내 신고홀 띠야라
 (附葉) 아니웃 미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
 (中葉) 東京 불근 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리리 내히로새라
 (小葉) 아으 들흔 내헤어니와 들흔 뉘헤어니오
 (大葉) 이런 저귀 處容아비웃 보시면
 熱病神이샤⁴⁾ 膽이가시로다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
 (附葉) 千金 七寶도 말오
 熱病神를 날 자바 주쇼셔
 (中葉) 山이여 미히여 千里外예
 (附葉) 處容아비를 어여 러거져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

[악학궤범 권5: 12b-13a]

[악장가사 가사상: 14a-15a]

<鄭瓜亭>⁵⁾

(前腔) 내 님를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山접동새 난 이슷ᄃᆞ요이다
 (後腔) 아니시며 거즈르신 돌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4) 熱病大神이아 <악장가사>

5) 鄭敍. 高麗 毅宗(1151-1170)

(附葉)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三葉) 몰헛 마리신더
 (四葉) 술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ᄃᆞ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ᄃᆞ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악학궤범 권5: 14b]

<鄭石歌>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예 노니ᄃᆞ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눈
 삭삭기 세몰에 별헤 나눈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有德ᄃᆞ신 님를 여히ᄃᆞ와지이다

玉으로 蓮이고즐 사교이다
 玉으로 蓮이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ᄃᆞ요이다
 그 고지 三同이 꺾거시아
 그 고지 三同이 꺾거시아
 有德ᄃᆞ신 님 여히ᄃᆞ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有德ᄃᆞ신 님 여히ᄃᆞ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鐵草를 머거아
 그 쇠 鐵草를 머거아
 有德ᄃᆞ신 님 여히ᄃᆞ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잇든 그츠리잇가

[악장가사. 가사상: 2b-3b] [시용향악보]

<靑山別曲>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슨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곰 더렁곰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르란 또 엇디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꺾대에 올라서 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빙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헛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악장가사. 가사상: 3b-4b] [시용향악보]

<西京別曲>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마르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 더 아즐가 닷곤 더 쇼성경 고외마르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즈른 히를 아즐가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信잇든 아즐가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넌 빅에 아즐가 넌 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아렁디리

빅 타 들면 아즐가 빅 타 들면 갓고리이다 나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악장가사. 가사상: 4b-6a] [시용향악보]

<思母曲>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ㄴ티 들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텅더둥성

어마님ㄴ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ㄴ티 괴시리 업세라

[악장가사. 가사상: 6a] [시용향악보]

<雙花店>6)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던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店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ㄴ티 났거즈니 업다

三藏寺에 브를 혀라 가고신던
 그 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덜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ㄴ티 났거즈니 업다

드레 우므레 브를 길라 가고신던
 우뭇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우뭇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ㄴ티 났거즈니 업다

술 풀 지뵈 수를 사라 가고신던
 그 짓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집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식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ㄴ티 났거즈니 업다
 [악장가사. 가사상: 7a-8a] [시용향악보]

<履霜曲>

비 오다가 개야 아 눈 하 디신 나래

6) 高麗 忠烈王 때(1236-1308)로 추정

서린 석석사리 조분 곱도신 길혜
 다롱디우서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
 잠짜간 내 니를 너겨
 깃 돈 열명길혜 자라 오리잇가

종종 霹靂 生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 모미
 종 霹靂 아 生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 모미
 내 님 두습고 년피를 거로리
 이리쳐 더러쳐 이리쳐 더러쳐 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훈디 녀젓 期約이이다
 [악장가사. 가사상: 8a-8b]

<가시리>(歸乎曲)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흥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흔면 아니 올세라 위 증줄가
 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
 는 위 증줄가 太平盛代
 [악장가사. 가사상: 8b-9a] [시용향악보]

<翰林別曲>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위 詩場入 景 기 엇더히
 니잇고
 琴學士의 玉笋文生 琴學士의 玉笋文生 위 날 조차 멧
 부니잇고
 唐漢書 莊老子 韓柳文集 李杜集 蘭臺集 白樂天集
 毛詩尙書 周易春秋 周戴禮記 위 註조쳐 내 외웁 景
 기 엇더히니잇고
 太平廣記 四百餘卷 太平廣記 四百餘卷 위 歷覽入 景
 기 엇더히니잇고

眞卿書 飛白書 行書草書 篆籀書 蝌蚪書 虞世南書
 羊鬚筆 鼠鬚筆 밧기 드러 위 덕논 景 기 엇더히니잇고
 吳生劉生 兩先生의 吳生劉生 兩先生의 위 主筆入 景
 기 엇더히니잇고

黃金酒 栢子酒 松酒醴酒 竹葉酒 梨花酒 五加皮酒
鸚鵡盞 琥珀盞에 막득 브어 위 勸上人 景 記 엇더히
니잇고

劉伶陶潛 兩仙翁의 劉伶陶潛 兩仙翁의 위 醉醺 景 記
엇더히니잇고

紅牡丹 白牡丹 丁紅牡丹 紅芍藥 白芍藥 丁紅芍藥
御榴玉梅 黃紫薔薇 芷芝冬栢 위 開發人 景 記 엇더히
니잇고

合竹桃花 고온 두 분 合竹桃花 고온 두 분 위 相映人
景 記 엇더히니잇고

阿陽琴 文卓笛 宗武中琴 帶御香 玉肌香 雙伽倻人고
金善琵琶 宗智嵇琴 薛原杖鼓 위 過夜人 景 記 엇더히
니잇고

一枝紅의 빗근 笛吹 一枝紅의 빗근 笛吹 위 듣고야
좁드러지라

蓬萊山 方丈山 瀛洲三山 此三山 紅樓閣 姽婳仙子
綠髮額子 錦繡帳裏 珠簾半捲 위 登望五湖人 景 記 엇
더히니잇고

綠楊綠竹 栽亭畔에 綠楊綠竹 栽亭畔에 위 轉黃鶯 반
갑두세라

唐唐唐 唐楸子 早莢남기 紅실로 紅글위 미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 위 내 가는 디 늙 갈세라
削玉纖纖 雙手人 길헤 削玉纖纖 雙手人길헤 위 携手
同遊人 景 記 엇더히니잇고

[악장가사. 가사상: 12a-13b]

<滿殿春 別詞>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댕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덩
情 둔 오늘날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耿耿 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히니 桃花 | 發히두다
桃花는 시름 업서 笑春風히는다 笑春風히는다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景 너기다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런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히니 여흘도 도히니

南山에 자리 보와 玉山을 베퍼 누어
錦繡山 니블 안해 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맛초옵사이다 맛초옵사이다

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힐 술 모락옵새
[악장가사. 가사상: 17b-18b]

<維鳩曲>7)

비두로기 새는 비두로기 새는 우루물 우루터
버곡당이사 난 도해 버곡당이사 난 도해
[시용향악보 (속칭 비두로기)]

<相杵歌>

듣기둥 방해나 디히 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 히애
아바님 어마님의 받좁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시용향악보]

7) 高麗 睿宗(1105-1122)

<부록 2> 고려가요 어휘 목록

(한림별곡 특수 한자어 제외)

* 체언

가솔: ㄱㄹ리

嘉俳: 嘉俳나리마론, 嘉俳샷다

가슴: 가슴매, 가슴을

가온디: 가온디(부사 통용)

가지(枝): 가재다(*)

жат(妻): 가시

건넌편: 건넌편

界面: 界面

顧: 顧을

고요/고외: 고외마른 [15c 괴외ㅎ-, 16c 괴외, 고요
ㅎ-, 17c 괴요/고요]

孤枕上: 孤枕上애

고흥(鼻): 고훤

곰빅: 곰빅예

곳고리새: 곳고리새여

곶: 곶즐여, 곶지

過: 過도

광대: 광대

구슬: 구스리

九月: 九月

九日: 九日애

구조개: 구조개랑

귀: 귀예

錦繡山: 錦繡山

期約: 期約이잇가, 期約이이다

긴ㅎ: 긴히쑤/긴히쑤/긴히쑤

吉慶: 吉慶

길ㅎ: 길혜

나: 내(주격), 내(속격), 난, 나를, 날, 나도, 나와, 날리는

나리: 나릿(*) [15c 내]

난: 난ㄴ티

날(日): 나래

南山: 南山애

낫: 나즈란

너: 네(속격), 널라와

넋: 넋시라도

네ㅎ: 네히로새라

넋날: 넋나를 [‘넋 나를’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음.]

누: 뉘(속격), 누리라

누: 뉘러시니잇가

누고: 누고 [15c 누, 16c 누고/누구]

누룩: 누로기

누리: 누릿

눈(雪): 눈

눈: 누네

눈썹: 눈썹에

니마ㅎ: 니마해

니블: 니블

님: 님, 님물/니물/님을, 님은, 니미, 님하, 니미, 님과

닛발: 닛바래

ㄴㅁ자기: ㄴㅁ자기

놀ㅎ: 놀히언마르논

눔: 눔, ㄴㅁ

當今: 當今애

唐楸子: 唐楸子

大同江: 大同江

大平盛代: 大平盛代

댓님: 댓님

德: 德으란, 德이여

덜(寺): 덜

桃花: 桃花], 桃花논

독: 도괴

돌ㅎ: 돌코, 돌하

東京: 東京

되(升): 되

둘ㅎ: 둘흔

드레(灑子, 汲器): 드레

드레막: 드레마가

燈入불: 燈入불

딩: 딩아

ㄷ: 둘

ㄷ래: ㄷ래랑

돌(月): 돌하, ㄷ래

돌잇곳: 돌잇고지여

돛: 돛

디: 디, 디ㄴ티, 디톨

羅侯德: 羅侯德

錄事: 錄事니몬

綠李: 綠李야

림빅: 림빅예

滿頭插花: 滿頭插花

萬人: 萬人

滿春: 滿春

말: 마리신더, 말, 마리라

머리: 머리에

멀위: 멀위랑

몇: 머자
 몇: 몇
 모야ㅎ: 모야해
 몸: 몸하, 모미
 뵈: 뵈를
 뵈: 뵈를 [15c 뵈ㅎ, ‘년뵈<년모+이’가 단어일 가능성?]
 므쇠: 므쇠로
 물: 물, 므른, 므를
 물슴: 말슴미
 밋ㅎ(野): 밋히여
 바늘: 바늘도/바를도 [15c 바늘]
 바를: 바를래
 바회: 바회, 바회에
 盤: 盤잇
 발: 바래
 發願: 發願이샷다
 밤(栗): 밤, 바미
 밤(夜): 바므란
 밥: 바비나
 𪎭: 𪎭기/𪎭피
 방하: 방해나
 白玉琉璃: 白玉琉璃ㄹ티
 百種: 百種
 𪎭곡당/𪎭곡당이: 𪎭곡당이샤
 霹靂: 霹靂
 별ㅎ: 별해, 별헤
 보름: 보로매, 보로몬
 福: 福으란, 福이라
 봉당: 봉당(*)
 분: 부니, 부니잇고
 분디나모: 분디남ㄹ로
 블: 브를
 비(雨): 비
 비두로기: 비두로기 새논
 비올히: 비올하
 빗(梳): 빗
 𪎭룻: 𪎭룻(*)
 𪎭(腹): 𪎭에
 𪎭(船): 𪎭, 𪎭에
 사슴: 사스미
 四月: 四月
 社主: 社主 |
 麝香각시: 麝香각시
 삭(萌): 삭
 山: 山이여
 山象: 山象

山접동새: 山접동새
 三同: 三同이
 三月: 三月
 三藏寺: 三藏寺애
 三災八難: 三災八難이
 샷기: 샷기
 上座: 上座 |
 새(鳥): 새1), 새여, 새논
 生陷墮無間: 生陷墮無間
 샤공: 샤공아
 西京: 西京이
 서리(霜): 서린[서리-(蟬)의 관형사형으로 보기도 함.]
 西窓: 西窓을
 先王聖代: 先王聖代에
 설피: 설피(*)
 서울ㅎ: 서울히마르는
 세물애: 세물애
 昭聖代: 昭聖代/昭盛代
 소ㅎ: 소해, 소긋
 손: 소니
 손목: 손모글
 쇼(牛): 쇠
 쇼성경: 쇼성경(小盛京?)
 수릿날: 수릿날
 술: 술, 수를
 시름: 시름
 信: 信잇돈
 신고ㅎ: 신고홀
 新羅聖代: 新羅聖代/新羅盛代
 실: 실도
 十月: 十月애
 十二月: 十二月ㄸ
 十二諸國: 十二諸國이
 十一月: 十一月ㄸ
 스: 슬
 스맷길ㅎ: 스맷길헤
 雙花: 雙花
 아래: 아래
 아바님: 아바님, 아바님도
 아비: 아바, 아비, 아비를, 아비웃
 아춤: 아춤
 안ㅎ: 안해
 앞: 앞피
 藥: 藥은, 藥이라, 藥

1) ‘사래’의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음.

어디²⁾: 어디, 어디라
 어름: 어름
 어마님: 어마님ㄱ티, 어마님씨
 어이: 어이어신마르논 [15c 어씨]
 엇게: 엇게예
 예정지: 예정지(*)
 여홀: 여홀란, 여홀도
 蓮入꽃: 蓮入고즐
 熱病神/熱病大神: 熱病神이샤/熱病大神이야, 熱病神를,
 熱病大神的
 오늘났: 오늘났
 오늬밤: 오늬밤
 五月: 五月
 五日: 五일에
 五香: 五香
 玉: 玉으로
 玉山: 玉山을
 울히: 울하
 옷: 오시
 외얏: 외야자
 龍: 龍이
 우름: 우루를
 우믈: 우므레, 우믈, 우믈
 우흥: 우희
 읊: 우미
 遠代平生: 遠代平生에
 六月: 六月入
 이: 버기더시니, 고우닐, 덮거즈니, 들리도, 괴시리, 살
 어리, 오리도, 가리도, 피리도, 괴리도, 두어리마는
 논
 以是人生: 以是人生에
 二月: 二月入
 입: 이베
 잉: 잉(<잇) [15c 잇, 참고: 잇 무든]
 자리: 자리롤, 자리에, 자리
 殘月曉星: 殘月曉星이
 장ㄱ: 장글란 [15c 잠개, 근대국어 잠기/장기]
 적: 저괴
 店: 店에, 店
 情: 情
 正月: 正月入
 저(箸): 저
 저재: 저재
 조롱곳: 조롱곳

早莢나모: 早莢남괴
 조고맛감/조고맛간: 조고맛감(<조곰+마+入+감), 조고
 맛간 [15c 계즈 싹맛감, 微塵맛감, 십 리맛값 길,
 이맛감 양(這些羊)]
 주름: 주름
 즈믄: 즈믄
 증: 즈시샷다, 즈슬, 즈시여
 질삼비: 질삼비
 값대: 값대에
 집: 지비, 짓
 즈믄: 즈믄
 處容: 處容
 千金: 千金, 千金을
 千里外: 千里外에
 天下大平: 天下大平
 鐵絲: 鐵絲로
 鐵樹山: 鐵樹山에
 鐵草: 鐵草를
 靑山: 靑山에
 七寶: 七寶, 七寶를, 七寶도
 七月: 七月入
 털릭: 털릭을
 툅: 툅에
 八月: 八月入
 하: 해어니와, 해어니오
 汗衫: 汗衫
 한쇼: 한쇼를
 奚琴: 奚琴을
 허리: 허리에
 허믈: 허믈도
 허튀: 허튀에
 호미: 호미도
 紅글위: 紅글위
 紅桃花: 紅桃花ㄱ티
 紅실: 紅실로
 紅靽: 紅靽
 黃花꽃: 黃花고지
 膾入갓: 膾入갓가시로다
 回回: 回回
 後: 後에
 히: 히, 히를/히를

2) 부사 통용.

* 용언

가-: 가논, 가고신턴, 가리라, 가턴³⁾, 가리도, 가다가,
가다니, 가시리잇고, 가시논, 갈세라
가만호-: 가만호애라(*) [근대국어 가만호-]
가지-: 가지고
갸-: 갸곤
개-: 개야
開호-: 開호
거출-: 거츠르신
건-: 거로리
겼-: 겼거, 겼고리이다
게웃-: 게우즌(*)
게시-: 게상이다
계오/계우-: 계오샤, 계우샤
곶돌-: 곶도신
곶-: 곶우닐, 곶온
괴-: 괴시리, 괴리도, 괴시란터
괴오-: 괴오쇼셔(*) [15c 괴-]
곶-(曲): 곶거신
곶-(炙): 구은
그리-: 그리스와
곶-: 곶츠리잇가
기울-: 기울어신
간-(汲): 길라
길-: 길어신
깁-: 깁어신
나-(生): 나곤, 나샷다
나-(出): 나, 나리어다, 나명, 나거시아
나스-(獻): 나스라, 나술(*) [15c 나소-]
남-: 남거시든
내-: 내여
너지-: 너겨, 너기다니
넙-: 넙거신, 너븐디
녀-: 녀저라, 려겨져, 녀껏, 녀넛 (景), 녀신들, 녀
녀가-: 녀가져
넬-: 녀러신고요, 녀셔
노니-: 노니다가, 노니호와지이다
녹-: 녹저
농-: 노코시라, 노혼다, 노호이다
눅-: 누워/누어
늘의-: 늘의어신(*) [15c 느리-(界, 欄), 15c 느리혀
-(延, 挽) 근대국어 늘의혀-]
닐-: 니러

3) ‘갈-(耕)’의 활용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닛-: 니즈시니잇가, 니저, 닛고신터
다호-(如): 다호라
닭-: 닛곤
더디-: 더디턴
덧거출-: 덧거츠니
더러호-: 더러쳐
더리호-: 더령궁
도셔-: 도셔 [근대국어 도셔다(回動)]
돌-: 도다
돌-: 도드샤
돌-: 도람, 도라, 도르샤
同樂大平호-: 同樂大平호샤
둥-: 도해
둥-: 도호니
두-: 두습고, 두고, 둔, 두어리마느논
똥-: 두퍼
드디-: 드디올세라 [15c 드되-]
든-: 드르샤, 드로라, 듣고야
들-(擧): 드러
들-(不鈍): 들리도
들-(入): 드니, 드러, 든, 들명, 들면, 드러지라
디-(落): 디신, 디신들
디-(鑄): 디여다가
디내오-: 디내와손터
디니-: 디녀, 디니실
딕-: 딕논
뎡-: 디히(<디혀)
럼나-: 럼난디(*) [15c 넘난-]
마아만호-: 마아만호니여(만호-?)
마치-(的): 마치턴
말-: 말오/마오
맛초-: 맛초옵사이다
맞-: 마자셔
맞-: 마자셔
맡-(臭): 마트샤
먹-: 먹논, 머그샤, 먹고, 머거아, 머고리
멧-: 머즌
모도-: 모도와
모락-: 모락옵새, 몰라셔
피시-: 피셔
문-: 무든
프락-: 프락습노이다
피-: 피리도
미나-: 미나거신(*) [<밀+나-(?)]
밀-: 밀오시라
막락-(裁): 몰아

미-: 미야라, 미시면, 미요이다
 뭇-: 뭇와
 박-: 바고이다
 반갑-: 반갑두세라
 반죽-(奉): 반죽고, 반죽노이다
 發ᄃᆡ-: 發ᄃᆡ두다
 排ᄃᆡ-: 排ᄃᆡ야
 버기-: 버기더시니
 베-: 베틀(<베+어)
 보-: 보실, 보니, 보시면, 보와, 본다(보+ㄴ다)
 보내-: 보내옵노니
 福智俱足ᄃᆡ-: 福智俱足ᄃᆡ샤
 브르-: 브르거신
 블-(羨): 브를
 붉-: 붉거신
 붓-: 브어
 비취-: 비취오시라, 비취실
 빌-(祈): 비습노이다
 빗-: 빗근
 빗-: 비조라
 브리-: 브룬, 브리신, 브리고, 브리시고
 붉-: 붉근
 비브르-: 비브른
 사-(買): 사라
 사기-: 사교이다
 살-: 살어리, 살어리랏다, 살라
 相不語ᄃᆡ-: 相不語ᄃᆡ시란디/常不語ᄃᆡ시란디
 새-: 새도록, 새오시라
 선후-: 선후면(*)
 설-: 설온
 세-: 세니오, 세온
 消滅ᄃᆡ-: 消滅ᄃᆡ샷다
 笑春風ᄃᆡ-: 笑春風ᄃᆡ느다
 壽命長願ᄃᆡ-: 壽命長願ᄃᆡ샤/壽命長遠ᄃᆡ샤
 숙-: 숙거신
 식여디-: 식여딜
 시므-: 심고이다
 슬웃브-: 슬웃브더(*)
 아니-: 아니시며
 안-: 아나
 알-: 아르시리이다
 愛人相見ᄃᆡ-: 愛人相見ᄃᆡ샤
 어위-: 어위어신
 얼-(凍): 어저, 어러, 얼면
 얼이-: 얼이노니
 없-: 업소이다, 업스샷다, 업다, 업서, 업스니이다, 업

세라, 업슨
 엇더ᄃᆡ-: 엇더ᄃᆡ니잇고
 엇디ᄃᆡ-: 엇디호리라, 엇디ᄃᆡ리잇고
 에-(避): 어여(<에+어)
 여히-: 여힐 [15c 여희-]
 여히-: 여히므른, 여히ᄃᆡ와지이다
 였-: 연즌다
 열-: 여러ᄃᆡ니
 오-: 오소이다, 오실서, 오다가, 오리잇가, 오리오, 온
 다, 오리도, 올세라, 오쇼서
 오술-: 오술어신(*) [15c 오을-]
 오르-: 올라서
 외오-: 외웁
 우글-: 우글어신(*)
 우니-: 우니다니, 우니노라, 우니로라(<우니노라)
 울-: 우러라, 우러곰, 우루디
 웅괴-: 웅괴어신(*)
 有德ᄃᆡ-: 有德ᄃᆡ신
 이러ᄃᆡ-: 이러쳐
 이렇-: 이런
 이리ᄃᆡ-: 이렇곰
 이숫ᄃᆡ-: 이숫ᄃᆡ요이다(*) [15c 이섯ᄃᆡ-]
 人讚福盛ᄃᆡ-: 人讚福盛ᄃᆡ샤
 자-: 자라, 잔, 자고
 잠-: 자바
 잠-: 잠스와니, 잠스와
 長存ᄃᆡ-: 長存ᄃᆡ샷
 接柱ᄃᆡ-: 接柱ᄃᆡ요이다
 저미-: 저미연(*)
 점글-: 점글를세라
 조치-: 조쳐
 줍-: 조분
 좇니-: 좇니노이다
 좇니-: 좇니노이다
 좇-: 조차
 주-: 주리여, 주쇼서
 죽-: 주글만당
 쥐-: 주여이다(<쥐+어+이+다)
 즐-: 즐
 징-: 지셔
 징-: 지셔
 취ᄃᆡ-(醉): 취혼
 툃-: 타
 風入盈庭ᄃᆡ-: 風入盈庭ᄃᆡ샤
 꺾-: 꺾거시아 [15c 프-(發), 꺾-(燃) 16c 꺾-(發, 燃)]
 풀-: 풀

하-: 한
혈-: 혈어시아
혀-(燈): 현, 혀라
혀-(引): 혀거를, 혀고시라
호-: 호놀, 호논디, 호리라, 호야, 호고
히-(白): 히여신

* 관형사

그: 그
괴: 괴(<其?)
년: 년(<녀느)
닷: 닷 (되)
두: 두
이: 이
흔: 흔

* 부사

ㄴ득: ㄴ득
耿耿: 耿耿
고대: 고대서
노피: 노피곰, 노피
다: 다
더되: 더되
들기둥: 들기둥
머리: 머리곰
모다: 모다
므슴: 므슴다
빋기: 빋기
삭삭기: 삭삭기

석석사리: 석석사리
스식옴: 스식옴
또: 또
썰리: 썰리
아니: 아니, 아니웃
어느: 어느
어느이: 어느이다(*) [근대국어 어닉(부사)]
업시: 어빠/업시
엇디: 엇디
외오: 외오곰
이숫: 이숫
一時: 一時
적곰: 적곰
종종: 종종
죵: 죵
千萬: 千萬
하: 하
흐마: 흐마
흐올로: 흐올로
흔디: 흔디

* 미상

깃든 열명(길 흥)
몰힛 (마리신더)
새서 (가만흥애라)
설진 강수를
슬홀 스라운더
식구비가(식구바가?)
아련 (비올하)
잠짜간

고려가요의 문법(1)

— 생점이 된 고려가요 속 형태를 중심으로 —

김지오(동국대)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고려가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온 未解決 형태들과 (선행 연구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도) 국어사 기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變則的 형태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國語史的 連續性 안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고려할 때 어떤 설명이 최선의 설명일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떤 형태들이 고려시대와 그 以前 시대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반대로 어떤 것이 以後의 언어 현상에 의한 것인지, 논의된 형태들의 시대적 층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高麗歌謠는 국어사 연구에서 매우 특이한 위상을 차지하는 자료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노래이지만 조선시대 한글로 채록되었기에, 이 자료가 보여주는 言語史的인 스펙트럼은 광범위하다. 가령,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의존명사 ‘하’가 고려가요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널리 사용되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나열의 ‘-저’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에만 짧게 존재했던 2인칭 의문형 ‘-너’가 화석처럼 숨어있는 동시에, 근대국어시기로 접어들면서 객체존대에서 청자존대로 그 기능이 변형된 ‘-읍-’까지, 고려가요라는 한 범주의 자료 안에 모두 녹아있다. 그렇기에 고려가요를 다룰 때에는 고려해야 할 시대의 폭도 한층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려가요 연구자들은 15세기와 그 이전의 언어 현상만을 주목하였을 뿐, 근대국어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고려가요가 수록된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의 채록 시기를 고려해볼 때 잘못된 접근이다.

국문 정작 가요	출전	편찬 시기
정읍사(井邑詞)	『악학궤범』	『악학궤범』
동동(動動)	『악학궤범』	- 1493년(성종 24) 초간 : 봉화문고
정과정(鄭瓜亭)	『악학궤범』	- 1610년(광해군 2) 복각본 : 규장각
처용(處容)	『악학궤범』, 『악장가사』	- 1655년(효종 6)과 1743년(영조 19)에 다시 복각
쌍화점(雙花店)	『악장가사』	『악장가사』 : 미상 - 16세기 이전(조윤제) - 16세기 중종(김태준, 양주동, 김지용, 박준규) - 17세기 인조~효종 연간 (김광순) - 17세기 효종~영조 연간 (김수업) - 임란 이후 (박병채)
이상곡(履霜曲)	『악장가사』	
한림별곡(翰林別曲)	『악장가사』	
만전춘(滿殿春)	『악장가사』	
정석가(鄭石歌)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청산별곡(靑山別曲)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서경별곡(西京別曲)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사모곡(思母曲)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시용향악보』 : 미상 - 1504년 설 - 1506~1544년 설 - 연산조(1500년)~명종 선조조(16세기 후반) 설
가시리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유구곡(維鳩曲)	『시용향악보』	
나례가(離禮歌)	『시용향악보』	
상저가(相杵歌)	『시용향악보』	
성황반(城隍飯)	『시용향악보』	
내당(內堂)	『시용향악보』	
대왕반(大王飯)	『시용향악보』	
삼성대왕(三城大王)	『시용향악보』	
대국1,2,3(大國)	『시용향악보』	

『악학궤범』에 실린 4편의 작품은 15세기까지의 언어 현상만으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외 『악장가사』와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16~17세기에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대국어로의 변화까지 살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일어난 언어 현상을 아울러 고려가요 속에 나타난 특이 형태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요 문학’이라는 口語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2. 어미와 관련된 문제

2.1. 선어말어미

2.1.1. ‘-시-’

고려가요 분석에서 논란의 정점에 있는 형태는 단연 ‘-시-’이다. 문제가 되어온 대표적인 용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 (1) 가.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커시아/ 有德^호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鄭石歌>
 나. 그 고지 三^동이 꺾커시아/ 有德^호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鄭石歌>
 다. 썰리 나 내 싯고홀 미^라/ 아니웃 미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 <處容歌>
 라.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 접동새 난 이^스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
 으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鄭瓜亭:악학궤범>
 마. 여히^프론 아즐가 여히^프는 질삼뵈 브리시고 ... 괴시란디 우리^곰 좇니^노이다
 <西京別曲>
 바. 즈믄히를 아즐가/ 즈믄히를 외오^곰 녀신들 <西京別曲>
 사.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鄭石歌>
 아. 서린 석석사리 조^븐 굽도신 길헤 <履霜曲>

이런 곤혹스러운 ‘-시-’의 해결을 위한 선행 연구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ㄱ ① 古語에서는 ‘-시-’가 비존대의 대상에게도 두루 汎用되었다.
- ㄴ ② 주체존대의 ‘-시-’가 아니라 존재동사 ‘시-[有]’이다.
- ㄷ ③ ‘시’를 포함한 어간으로 분석하거나, 별도의 존대 주어를 상정한다.

①의 태도는 양주동(1947)이 대표적이고,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이 수용하고 있다.¹⁾ 그러나 이 주장은 김완진(2001)을 통해 (2)와 같이 강하게 비판되어 왔다.

- (2) ‘시’의 문법적 기능이 존경 이외의 것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터인데, ‘시’가 고려시대에 있어서 존경을 뜻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의 존재는 문법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존경을 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경의 접미사라고 불릴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야 옳다. … ‘시’에 상응하는 ‘賜’의 용례를 향가에서 검토하고 나면 그런 상념이 한갓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김완진(2000:213) 인용-

②의 입장은 양주동(1947)에서부터 시작된 후, 현평효(1975)에서 ‘-고시-’가 제주 방언의 진행상 ‘-엄시-’와 동일한 구성이며 未完了 存續相을 수행한다는 설명으로 견고하게 뒷받침된 후, 박병채(1994)에 이르러서는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된 ‘시’만 아니라면 모두 존재의 ‘시-[有]’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존재동사로 파악함으로써 쉽게 해석이 풀리는 곳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 (3) 가.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호시라 <井邑詞:악학궤범>
 나. 쏜저재 녀려신고요 어느이다 노코시라 <井邑詞:악학궤범>
 다. 므슴다 錄事니몬 넷나를 닛고신더 <動動:악학궤범>
 라. 허고시라 밀호시라 鄭少年하 <翰林別曲>

이때의 ‘고시/어시’를 ‘-고/어 있-’으로 해석해 버리면, 존칭 명사로 설정된 “달, 님, 緣事 님, 鄭少年”(노래 안에서 다른 존대 장치로 대우되고 있는 명사)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버린다. 또한 중세국어에서 ‘-어’ 뒤에서는 存在의 補助動詞 ‘시-’가 나타나지만 ‘-고’ 뒤에서는 ‘잇-’과 ‘이시-’만 확인되는 점이 문제로 남으며, 무엇보다도 (1다~아)처럼 ‘-고/어’를 선행하지 않고 동사어간에 직접 연결된 ‘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시-[有]’로 파악하는 해석이 萬能일 수는 없다.

③의 태도는 김완진(2001)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1아) <履霜曲>의 ‘곱도신’의 경우는 음상을 존경의 ‘시’와 잘못 혼동한 결과이고 실은 語幹 ‘도시-’가 합성된 형태(‘곱-#도시-+-니’)란 설명이다. 또한 (1다) <處容歌>의 ‘미시면’은 後腔의 화자와 附葉의 화자가 다른 것으로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後腔의 사설이 熱病大神의 것인 반면, 附葉의 사설은 사설자가 그 熱病大神을 위협하는 말이니 ‘미시면’의 주어가 곧 熱病大神이 됨으로써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김완진 2000:215).”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화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1) 양주동(1947:185)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는 疫神에 대한 말. 古語法에선 ‘시’가 반드시 존칭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요, 일반적 범칭에도 누누이 仍用되었으며, 자연만물 기타 모든 말에 敬語를 쓴 것은 물론, 심지어 자기에 대하여도 敬語體를 汎用하였으니, 이는 ‘시’의 原義가 ‘이시(有)’인 이상 당연한 일이요 ‘시’의 개념이 근세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안혔던 것이다.”. 반면 김형규(1968)에서는 ‘古語法 특히 高麗歌謠에는 /-시-/는 엄격한 의미의 尊待補助語幹이라기보다는 별다른 뜻이 없이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중반부터 ‘습’과 ‘읍’ 부류만(‘줍’은 청자존대로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음) 청자존대에 관련된다(김현주 2005)’는 기술들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서경별곡>, <만전춘>이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작품인 만큼 근대국어로의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습-’이 있다.

(9) 니피 알피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재 다 므릅습노이다 <動動:악학궤범>

양주동(1947)에서는 “손이 가져다가 무읍니다”로 해석했던 대목으로, ‘손이 (나를) 물다’의 구조로 1인칭 ‘나’에 대해 ‘습’을 사용한 꼴이 된다. 이런 양주동의 해석은 여러 연구자들에게서 비판을 받는데, 서재극(1990)의 비판처럼 만일 ‘므릅-’가 ‘물-(咬)’이었다면 ‘ㄴ’이 탈락되기 때문에 매개모음 ‘으’가 들어가지 않고 ‘므습-’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誤讀이다. 현재까지는 김완진(2001)의 해석대로 ‘가지+아(처격)’으로 분석해 “손님이 분디나무 가지에 다 물렸습니다(되돌려놓았습니다).”가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해독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습-’이 높이는 대상은 화자를 상징하는 ‘저[箸]’이기 때문이다(젓가락을 물리다/분디나무에게 물리다). 그리고 <動動>은 『악학궤범』에 실린 노래이므로 16세기 이후 청자존대 ‘습’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결국 김완진(2001) 해석도 완전한 해독은 아니며 다른 대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2.2. 종결어미

2.2.1. 의문형 종결어미

고려가요에서는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설명이 난해한 형태들이 나타난다.

(10) 가. 저재 내려신고요 <井邑詞:악학궤범>

15세기 ‘-ㄴ고’, ‘-ㄴ고’는 인용된 의문이나 화자의 회의 의구 등 간접의문에 사용되는 어미로, <정읍사>에서는 남편의 安寧을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아내의 內的 疑懼心を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三國遺事 <처용가>에서도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를 보면 ‘-ㄴ고’가 일찍부터 화자의 내적 사유를 표시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읍사>의 ‘-ㄴ고’가 쟁점이 된 이유는 ①의문사 없이 설명의 ‘고’가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고,⁴⁾ ② ‘-ㄴ고’ 뒤에 나타난 ‘요’의 정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

존대라는 것이 통사론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화용론적 현상이기 때문에 **시점전**이에 따라 (스토리의 정점에서) ‘-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 또한 李賢熙(1994:94)에서는 모든 위치에 ‘-습-’이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敎化 聃습디 몬흔 사르물 <月釋14:58a>”처럼 하위문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위문에서 ‘-습-’이 생략될 수 있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서경별곡>에 나타난 (8가, 나)의 경우는 두 설명과는 다른 성격의 생략이라는 판단되어, 근대국어 ‘-습-’의 분포 축소에 따른 생략 현상으로 파악한 이현규(1985)의 설명을 수용해 고려가요의 ‘-습-’ 생략 현상을 이해하였다.

①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도한 선행 연구가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반대의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가. 버기더시니 뇌러시니잇(잇)가 <鄭瓜亭:악학궤범>, <滿殿春>

나. 엇더다 別大王 들러신티/ 四百瘡難을 아니 저차실가 <大國>

(11)처럼 의문사가 있는데도 ‘-가’가 선택된 반대의 예들도 나타난다. 그러나 나진석(1958)에서는 ‘-고’가 반드시 의문사와 공기하여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반하여, ‘-가’는 그러한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안병희(1965)에서는 ‘-가’가 의문사와 공기할 때에는 대개 그 의문문이 수사의문이 되는데 이 수사의문을 표시하는 의문사는 이미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가’와는 달리 (10)처럼 의문사 없이 ‘-고’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향가에서도 <정읍사>의 ‘-고’처럼 의문사 없이 사용된 ‘고’가 나타나 고려가요의 예와 함께 고찰이 필요하다.

(12)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祭亡妹歌>

②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어 왔다. 양주동(1947)에서는 ‘요’를 의문조사로 보고 ‘이오’의 합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고요’는 ‘고 | 요’로, 근본적으로 ‘고고’形제의문형이란 설명이다. 이광호(1982)에서는 ‘요’가 의문사 없이도 ‘고’가 설명의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문학적 ‘marker’라고 설명하였다. 박병채(1994)에서는 현대국어 존대의 ‘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⁶⁾ 김완진(1998)에서는 친근성이나 친애의 정을 나타내는 침사 ‘요’가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 최선의 설명인지조차 어렵지만 의문형 종결어미 뒤에 未知의 형태가 덧붙는 현상을 高麗 鄉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만 추가로 기술해 둔다. 삼국유사 향가에서는 설명의 의문종결형이 “古<제망매가>, 故<혜성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균여전 향가에서는 “過”로 나타난 예가 있어 주목된다.

(13) 於內人衣善陵等沙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隨喜功德歌 7~8행>

‘과’는 ‘고+아’로 재분석되고, 의문의 종결어미 뒤에 ‘α’적 요소를 덧붙은 형태로 파악된다. 다음은 2인칭 의문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14) 가.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흔다 샤공아 <西京別曲>

나. 널 비에 아즐가 널 비에 연즌다 샤공아 <西京別曲>

-
- 4) 의문사 없는 ‘-고’형은 <가시리>에서도 나타난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논/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논/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논”. 1연과 2연에서는 ‘엇디’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고, 3연의 ‘엇디’를 통해 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5) 이광호(1983)에서는 간접의문문에서 존경의 어미 ‘-시-’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간접의문이라 해서 ‘-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15세기 자료에서도 “眞實로 주산 거시 尙方으로서 난 거신가 도로 疑心호노라<杜詩14:16b>”처럼 ‘-신고, -신가’형이 다수 확인된다.
- 6) 고광모(2000)와 허재영(2012)에서는 ‘-요’의 출현이 19세기 초에서 20세기에 발달한 형태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고려가요의 ‘-요’를 현대국어의 ‘-요’와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

다.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滿殿春>

라. 가던새 가던새 본다/ 물아래 가던새 본다/ 잉무든 장글난 가지고/ 물아래 가던새
본다 <靑山別曲>

마. 므슴다 錄事니몬 넷나를 닛고 신편 <動動>악학궤범>

고려가요에서는 2인칭 의문형 ‘-ㄴ다’가 여럿 확인된다. 의문형 ‘-ㄴ다’는 고려시대까지의 향가·이두·석독구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여말선초 음독구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형태이므로⁷⁾ 채록될 당시의 문법 질서에 따라 개편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반면 (14마)에서는 ‘-ㄴ더’라는 의문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古形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형태이다.⁸⁾

한편 (14라)는 재고를 요한다. 의문이 아니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 (14가~다)와는 달리 (14라)는 평서문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문장이다. 실제로 많은 해독자들이 (14가~다)는 의문형으로 처리한 반면, 유독 (14라)에 대해서만은 평서형 내지 감탄형으로 해독한 연구자들이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5) 가. 시넷물아래로 올고가는새를본다 아주鈍하게 무딘쟁기를들고 올고가는새를 본다
김태준(1939)

나. 날러가는 새를 바라본다 茫然히 바라보노라 물아래 날어간 새만 바라보노라 무딘
農器를 들고서서 짝을 찾아 물아래로 날어간 새만 바라보노라 지현영(1947)

다. 가는 새 가는 새 보네 물아래 가는 새 보네 이끼 낀 연장을 가지고 물 아래 가는
새 보네 홍기문(1959)

라.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 본다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
고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임기중(1993)

‘-ㄴ다’를 의문형이 아닌 평서형으로 볼 가능성은 없는가? 본고에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6세기부터 ‘-ㄴ가’와 ‘-너’계 어미의 세력 확대로 ‘-ㄴ다’의문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간다(장윤희 2002:323). 한편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는 독자적인 쓰임이 줄어들고 모음 어미 뒤에서는 ‘-ㄴ다’, 자음 어간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는 ‘-는다’로 쓰이게 된다(류성기: 1007:83). <청산별곡>이 실려 있는 『악장가사』는 그 상한선을 빠르면 중종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중종대(13년) 문헌인 <번역소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ㅎ느다’가 ‘ㅎ다’로 나타난다.⁹⁾ 즉, <청산별곡>이 채록될 당시라면 2인칭 의문형 ‘-ㄴ다’와 현재의 평서형 ‘ㅎ느다’의 축약형 ‘-ㄴ다’가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충분히 현재 평서형/감탄형으로 해석 가능하다.

고려가요 해독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의문문이 한 가지 더 있다.

7) 장윤희(2002:324)에서는 “佛體爲尸如敬叱乎叱乎叱等耶<恒順衆生歌>”와 같은 예를 ‘-르다’ 의문형으로 파악했지만 이것은 “부처님께 하는 것처럼/것대로 (중생을) 공경하리라”로 해독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못 파악한 경우이다. 하지만 ‘-ㄴ더’의 경우는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안민가>”의 ‘於丁’이 2인칭 의문문 ‘-ㄴ더’일 가능성이 있다.

8) “므슴다 錄事니몬 넷나를 닛고 신편 <動動>”에서 ‘-ㄴ더’에 호응하는 주어가 2인칭이 아니라 ‘녹사님’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9) ‘ㅎ느다’가 ‘ㅎ다’로 나타나는 현상은 15세기 <두시언해> 같은 자료에서도 소수 출현하기 시작하여 16세기 이후부터 널리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에서부터 출현하기 시작해서 근대국어 이후 상위문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일 <청산별곡>의 ‘-ㄴ다’가 현재 평서문이라면 내포문이 아닌 환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근대국어 이후의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6) 바르란 또 엇디 호리라 <靑山別曲>

양주동(1947)에서는 ‘라’를 의문조사로 기술하였다. 이는 서술법이 아니라 ‘엇디’에 호응한 反語的疑問法이라고 설명하였다(‘엇디 하리라?’ ‘라’는 ‘다’이며, ‘다’가 ‘-나다’처럼 의문에도 사용된다). 박병채(1994)에서도 미래시상선행어미 ‘리’와 의문형종결어미 ‘라’가 연결된 형태로 설명하였다. 즉, 어디에서도 문증되지 않는 새로운 의문형 종결어미 ‘라’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현희(2001:99 각주54)에서는 중세어에서는 피인용문 밖에 있는 상위문 동사 ‘흐-’의 활용형이 잘 생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엇디 호리라 흐느뇨’ 정도에서 상위문 동사 ‘흐느뇨’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작중 화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지내왔구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려고 하느냐). 현재로는 ‘호리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2.2.2. 미지의 종결어미 ‘히애~애’

고려가요에서는 ‘애~히애’의 형태를 지니는 未知의 종결어미가 나타난다.

(17) 가. 버곡당이샤 난 도해 버곡당이샤 난 도해 <維鳩曲>

나. 들기동 방해나 디히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히애 <相杵歌>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결어미가 균여전 향가에 나타나 주목된다.

(18) 가. 必只 一毛叱 德置 毛等 盡良 白乎隱乃兮 <稱讚如來歌 10행>

나. 皆 仏體置 然叱爲賜隱伊留兮 <常隨佛學歌 8행>

‘兮’는 향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형태로, 해독에서도 ‘혜~혀~여~히’ 등 혼란스럽게 반영되거나 아예 해독에 반영하지도 않았던 형태이다. 김지오(2012)년에는 한문에서 文終結의 기능을 담당했던 ‘之’의 쓰임이 차자표기의 종결어미 ‘ㄷ(다)’로 발전한 것처럼, ‘兮’의 감탄 종결의 용법을 그대로 살린 한문투의 종결형일 가능성 제시한 바 있다. 즉 다분히 文語體的인 종결사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가요의 ‘히애~애’의 형태들을 참고해 볼 때 口語體的 가요에서만 허용되었던 助音과 餘音을 겸한 종결어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2.3. 연결어미

2.3.1. ‘-ㄴ 돌’

연결어미 ‘-ㄴ 돌’은 대표적인 양보의 연결어미이며, ‘-ㄴ#ㄷ+을’의 통합형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어미이다. 고려가요에는 보문구성의 ‘-ㄴ돌’과 통합형 어미 ‘-ㄴ돌’이 모두 나타난다.

(19) 가. 거츠르신 돌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鄭瓜亭:악학궤범>

(20) 가.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긴히쑤 아즐가/ 긴힌쑤 그츠리잇가 나는
<西京別曲>

나.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긴히든 그츠리잇가 <鄭石歌>

다. 즈른 히를 외오곰 너신돌/ 즈른 히를 외오곰 너신돌/ 信잇든 그츠리잇가 <鄭石歌>

(20)은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모두 ‘-ㄴ돌 … 의문문’의 형식을 만족하며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뜻한다. ‘-ㄴ돌’은 고려시대까지의 자료에서도 매우 빈번히 출현하는 형태이지만 모두 ‘~하는 것’의 의미를 지니는 보문구성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재영(1996:89)에 따르면 통합형 연결어미 ‘-ㄴ돌’은 여말선초 음독구결에서부터 출현하므로, 고려가요의 (20)의 용례들은 다소 늦은 시기의 문법 현상을 반영하는 형태이다.

2.3.2. 마론

대조나 양보적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마론’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형태의 표기가 ‘마르느’, ‘마른’, ‘마느느’, ‘마르난’으로, 동일한 표기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助詞와 語尾가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混用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21) 가. 八月入 보로몬/ 아으 嘉俳니(나)리마론/ 니를 피셔 너곤/ 오늘날 嘉俳삿다

<動動:악학궤범>

나. 西京이 서울히마르느/… 닷곤 더 쇼성경 고외마른/…괴시리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西京別曲>

다. 잡스와 두어리마느느/ 선희면 아니 올세라 <가시리>

라. 호미도 놀히언마르느/ 날ᄃ티 들리도 업스니이다 <思母曲>

중세국어에서는 종결어미 뒤(-도다, -뇨, -료)와 같이 助詞로 사용될 때는 ‘마론’으로, 선언어미(주로 거/어/나)¹⁰⁾나 계사 뒤에서 連結語尾로 사용될 때에는 ‘-ㄴ마론’으로 구분되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별적으로 사용된다. 만일 중세국어의 질서를 따랐다면 (21가)은 ‘嘉俳나리언마론’으로, (21나)는 ‘서울히언마르느’와 ‘고외언마른’으로, (21다)는 ‘두어린마느느’으로 나타났겠지만 모두 助詞처럼 ‘-ㄴ’ 없는 ‘마론’이 助詞와 語尾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마론’은 신라 향가에서부터 출현하는 형태이고, 의미와 기능이 유사한 형태로 ‘而也(마리여)’가 있다.

(22)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新羅 處容7>

10) 이 외에 연결되는 선언어미로는 ‘-술-, -시-, -느-, -리-’ 등이 있다.

- (23) 가. 阿難_ㅍ 是人_ㄱ 夢中_ㅅ 豈憶靜搖開閉通塞_ㅅ ㄱ_ㅍ ㄱ_ㅍ ㄱ_ㅍ <1248楞嚴04:33b>
 나. 耳本無聞_ㅍ ㄱ_ㅍ 妄相感觸 <9594楞嚴03:2b>
- (24) 가.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 在而亦 累世私門成黨甲兵自衛爲有知乎 由以 <尙書都官貼>
 나. 生界盡尸等隱 吾衣願盡尸日置仁伊而也 衆生邊衣于音毛 際毛冬留願海伊過(중생계가 다한다면 나의 원도 다할 날이 있겠지만, 중생계가 끝이 없으므로 나의 보현행 원도 끝이 없다) <總結無盡歌>

3. 조사와 관련된 문제

3.1. 존칭의 호격 ‘하’와 비존칭의 ‘아’

호격조사에는 尊稱의 ‘하’와 非尊稱의 ‘아’와 ‘여’가 존재한다. 고려가요에서도 이런 두 체계가 확인된다.

- (25) 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鄭瓜亭:악학궤범>
 나. 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힐 술 모르^ㄴ새 <滿殿春>
 다. 아소 님하 혼 더 녀것 期約^이이다 <履霜曲>
- (26) 가. 다로러거디러 조고맛간 드레^ㅅ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雙花店>
 나. 올하 올하 아련 비^ㅅ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滿殿春>
 다.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하^ㄴ다 샤공^ㅅ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西京別曲>

‘하’는 ‘님’과 같은 존대의 대상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호쇼셔체’ 종결어미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는 ‘드레박, 올히, 샤공’과 같은 非尊稱 명사에 사용되면서 ‘호라’체 종결어미와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체계에서 벗어난 예들도 나타난다.

- (27) 가.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ㄴ라 <井邑詞:악학궤범>¹¹⁾
 나. 正月^ㅅ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호올로 널셔 <動動:악학궤범>
- (28) 딩아 돌하 當今에 계^ㅅ샹^이다(계^ㅅ샤^이다) <鄭石歌>

대체로 『악학궤범』에 수록된 가요들에서 ‘하’와 ‘아’의 정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 (27)에서는 자신의 ‘몸’에 ‘하’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 -르셔’와 같은 ‘호라’체 종결어미와 호응하고 있다. 반대로 (28)에서는 ‘아’로 부르는 대상에 대하여 ‘호쇼셔’체 종결

11) 鄉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된다. 月下 伊底亦 西方念丁 去賜里遣 <新羅 願往1-2>. 명령형에서는 주어와 칭자가 동일하므로 주체존대 ‘-시-’를 통해서도 존대가 이루어지지만, 중세국어의 ‘하’가 ‘호쇼셔’ 등급의 존대 형태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호쇼셔’가 아닌 ‘시라’로 처리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어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석독구결의 ‘하’와 ‘아/여’의 사용 양상이 참고가 된다. ‘하’와 ‘아/여’가 연결된 명사만 놓고 보면 尊待와 非尊待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大王下, 世尊下| 佛子 ㅅ/ㅅ, 善男子 ㅅ, 仁者:ㅅ) 종결어미와의 호응 양상을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29) 가. 大王下 當ハ 知^{口ハ}立 <화소10:17-18>

나. 世尊下 … 云何^ㄷ 乙 十地^ㄷ 行^乙 護^ㄴ 今^ㄷ 因緣^ㄴ | ㄴ 口^ㄷ 今^ㄷ <구인03:22-23>

다. 大王下 … 相續 假法^ㄴ 一 非^ㄷ 異 非^ㄷ ㄴ <구인14:04-07>

라. 大王下 … 十住菩薩人 諸^ㄴ 佛人^ㄷ 五眼^ㄴ 幻諦^乙 如^ㄷ 而^ㄴ 見^ㄴ ㄴ^ㄴ | ㄴ <구인14:11-13>

마. 大王下 … 一^ㄴ 而^ㄴ 二 無^ㄴ ㄴ <구인15:11-12>

바. 大王下 法輪^ㄴ | ㄴ 入^ㄴ 者 … 未曾有^ㄴ 如^ㄴ 論議^ㄴ 如^ㄴ ㄴ <구인15:22-25>

(30) 가. 佛子 何^ㄴ 等^ㄴ | ㄴ 乙 菩薩摩訶薩尸 施藏^ㄴ : ㄴ 爲^ㄴ ㄴ^ㄴ 尸入^ㄴ 此^ㄴ 菩薩^ㄴ 十尸 種^ㄴ 施^乙 行^ㄴ ㄴ <화소09:04-05>

나. 佛子 … 是^ㄴ 乙 名^ㄴ 內施^ㄴ : ㄴ <화소10-11>

다. 善男子 … 今^ㄴ 於我^ㄴ 前^ㄴ ㅅ ㅅ 大師子吼^乙 ㄴ 是 如^ㄴ ㅅ 是 如^ㄴ ㅅ 汝^ㄴ 解^ㄴ 所^ㄴ 如^ㄴ ㄴ <구인11:20-23>

라. 善 口^ㄴ 哉^ㄴ 仁者^ㄴ 諦^ㄴ 聽^ㄴ 應^ㄴ ㄴ <화엄09:02>

(29가~나)에서는 ‘大王下’에 중세국어 ‘호쇼셔체’와 동일한 ‘口ハ立’와 그보다 낮은 등급인 ‘口’를 포함한 ‘口今’이 나타난다. 그러나 (29다~바)처럼 대다수의 ‘下’는 ‘하’체에 해당하는 종결어미와 호응하고 있다. 만약 ‘ㅅ’를 존대와 관련된 형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30)처럼 호격 ‘ㅅ’에서도 ‘ㅅ’가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이런 양상을 살펴볼 때 고려시대 호격 조사 ‘하’와 ‘아’의 위계가 15세기만큼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고려가요의 (27)과 (28) 같은 예외들도 이런 양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2. 공동격 조사

고려시대 공동격조사에는 ‘과’와 ‘여’가 존재하고, 드물지만 ‘이’도 확인된다. 그러나 ‘과’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口語的 성격을 지닌 三國遺事 鄉歌와 均如傳 鄉歌에서는 사용된 예가 없어(향가에서는 ‘여’와 ‘이’만 나타남) 고려시대까지의 ‘과’는 文語的 성격이 강한 조사로 파악된다.

(31)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당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만당 <滿殿春>

(32) 가. 멀위랴 드래랴 먹고 <靑山別曲>

나. 늑막자기 구조개랴 먹고 <靑山別曲>

고려가요에서는 (31)처럼 ‘와/과’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口語的 성격이 강한 조사 ‘랑’이 사용된 점이 눈에 띈다. [동반]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랑’은 중세국어 자료에

서는 확인되지 않고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나기 출현하는데,¹²⁾ ‘랑’의 출현 역시 근대국어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靑山別曲>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3) 가. 山이여 덕이여 千里外에 <處容:악학궤범>

나. 德이여 福이라 호놀 <動動:악학궤범>

고려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조사 ‘(이)여’ 역시 고려가요에 나타난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여’는 나열된 마지막 명사구에만 붙고 아우름 동사가 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 (33가)에서는 아우름 동사 없이 사용되었다(이것은 15세기 연해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33나)는 ‘[[德이여 福]]이라 호-]’의 구조로, 명사 접속과 지정 구문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마지막 명사에 ‘이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조사 ‘여’의 쇠퇴와 맞물려 나타난 사용상의 混亂이나 破格으로 파악된다.¹³⁾

마지막으로 공동격 조사과 더불어 살펴볼 문장들이 있다.

(34) 가. 넉시라도 넌을 흔디 너저라 아으 <鄭瓜亭:악학궤범>

나. 넉시라도 넌을 흔디/ 너넛 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넌을 흔 디/ 너넛 景 너기다니
<滿殿春>

다. 니를 흔디 너가저/ 願을 비습노이다 <動動:악학궤범>

(34)에서는 ‘흔 디 너다’의 대상 ‘넌’에 [동반]의 ‘과’가 아니라 ‘은’과 ‘을’이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된다. 양주동(1947)에서는 “近世語론 ‘넌과 흔디 너가고저’이니 ‘흔디’ 우에는 조사 ‘과’를 쓰나 古語엔 목적격조사를 씀이 관례인 듯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병채(1994)에서는 ‘은’과 ‘을’이 공동격 ‘와/과’의 의미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예라고 지시하면서, ‘넌은’이나 대격형 ‘니를’ 등이 공동격적 기능으로 사용된 예들은 ‘와/과’의 발달 이전의 용법이라고 설명하였다.¹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 ①첫 번째는 <動動>에 나타난 ‘**니를 피셔 너곤**’과 같이 ‘피시다’ 정도의 타동사가 慣用的으로 省略된 표현쯤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②두 번째는 ‘흔디 너다’의 격지배 양상이 중세국어와는 달랐던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가 참고가 된다.

12) 주어 이외의 자리(목적어, 여격어, 처격어)에서 [대조]와 [배타]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으란’이 16세기부터 ‘으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연간에서는 16세기부터 그 외의 문헌에서는 17세기부터), 여기서 다루는 [동반]의 ‘랑’과는 의미와 통사적 환경이 다르므로 ‘으란’과는 다른 별개의 형태소로 파악하였다. 17세기 예 대부분이 [대조]의 ‘으란’이 변한 ‘으랑’이고,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랑’의 예는 많지 않지만 “니성원덕과 윤자랑 별실 와 돈너 가고<병자116>”와 같이 17세기 자료에서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근대국어 ‘동반’의 ‘랑’에 대해서는 음재희(1996)를 참고할 수 있다.

13) ‘여’는 고려시대까지 활발히 사용되지만 15세기부터 사용 빈도도 급속히 줄 뿐 아니라 아우름 동사도 없이 사용되는 변칙적 양상을 갖다가 16세기부터는 ‘나열, 동반’의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는다(감탄의 ‘여’는 사용됨).

14) 박병채(1994)의 근거를 좀 더 옮기면 다음과 같다. “향가에서는 공동격의 의미역이 ‘良’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격 ‘을’은 거격 ‘良’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려가요의 이러한 용법은 상당히 고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격접미사가 발생한 시기는 고려 중엽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조선 초기 문헌에 이 형태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35) 가. 衆生乙 與七 同住ㄴ(乃?) 曾ハㄴㄱ 過咎 無ㄴ <화소23:14-15>

나. 或 衆乙 與七 同居ㄴ } <유가26:05-07>

다. 彼乙 與七 共居ㄴ七七 <유가26:12-14>

중세국어에서 ‘다못[與/茲]’이 ‘와/과’를 지배했지만, 고려 석독구결에서는 대격 ‘을’을 지배했던 양상은 고려해볼 만하다.

3.3. 차등 비교의 조사 : 론/논

(36)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브리시고 <西京別曲>

양주동(1947)에서는 “動名詞形 ‘흠’에 助詞 ‘로’와 指定助詞 ‘ㄴ’을 加한 ‘흠으론’ 形”이라 규정하고, ‘ㄴ’이 添加된 結果 ‘흐므로’와는 뜻을 달리하여 ‘차라리’의 뜻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하나 하나 분리 가능한 요소이며 조사의 범주 안에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김형규(1968)·박병채(1994)에서는 ‘므론’ 전체를 연결어미로 파악하였고, ‘보다 차라리’의 의미를 갖는 형태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①‘므론’이 하나의 형태인지 아니면 더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인지, ②그 문법적 지위가 助詞인지 連結語尾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37) 가. 그 鄉과 黨과 州와 閭에 죄를 어드시모론 출하리 닉이 諫홀디니[與其得罪於鄉黨州閭 론 寧孰諫이니] <小學諺解2:22a(1588)>

나. 禮 | 그 奢흠으로 더브러론 출하리 儉홀띠오 喪이 그 易흠으로 더브러론 출하리 戚홀 띠니라[禮 | 與其奢也 론 寧儉이오 喪이 與其易也 론 寧戚이니라]

<논어1:20a(1590)>

다. 도적괴 더러이고 배 살므론 출히 의에 죽글 거시라 <東新三烈2b(1617년)>

라. 다물 그 구차히 사라시므론 혼 번 주금만 곱디 못흐다 <東新烈7:11b(1617년)>

마. 내 그 불의코 살므론 츠르리 죽음만 곱디 못흐다 <五倫忠7b-8a(1797년)>

‘앞의 내용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뒤의 사태를 선택함’의 의미를 지닌 ‘론’이란 형태는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데, <西京別曲>이 수록된 『악장가사』나 『시용향약보』의 시대적 지표를 가늠케 하는 형태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또한 口訣文에서는 한문 구절 뒤에 단독으로 ‘론’이 사용되고 있고, 諺解에서는 명사형 ‘음’ 뒤와 부사 ‘더부러’ 뒤에서 출현한다. 따라서 ‘므론’ 자체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ㄴ’과 ‘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이며, 출현 환경으로 보아 語尾가 아니라 助詞의 범주에 속함도 알 수 있다. 또한 ‘론’은 조사 ‘로’와 [대조·배타]의 보조사 ‘ㄴ’으로 재분석할 수 있는 형태이며, ‘로’는 [기준점]의 의미에서 출발한 차등비교의 [보다]의 의미를 지니는 ‘로’이다(15세기 ㄴ/록 참고).¹⁵⁾

(38) 가. 華嚴에 土地로 前엔 손지 本智를 브터 大悲를 기르고 十一地에 니르러 길은 功이 ㄴ츠시면 純히 이 大悲로 法界體 ㄴ외샤 <楞嚴6:41a>

나. 하늘히 ㅅ하로 ㅅ문져 ㅎ며 님금이 臣下로 ㅅ문져 호미 그 ㅅ디 혼 가지라 <內訓1:69b>

15) [기준점], [출발점]의 ‘로’와 차등비교의 ‘보다’의 의미를 지니는 점은 홍윤표(1994)와 하귀녀(1997)를 참고할 수 있다.

4. 체언과 관련된 문제

4.1. 의존명사

고려시대 借字表記 자료에서는 의존명사 출현은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다(𐄂), ㄷ(入), 이(‘ㅅ/ㅈ’의 재분석), 자/놈(子), ㄴ(ㅈ)’ 등이 보이고, 고려시대 이두에서는 ‘바(所), 데(第), 차(次), ㄷ(等[ㄷ]와 ㄴ[디]·읏[디]의 재분석), 디위(節), ㅄ(味)’ 등이 확인된다(이승재 1992). 그리고 균여전 향가에서는 ‘다(多), 이(伊), 바(所), 갓?(物)’만이 확인되고, 다른 借字 자료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던 ‘ㄷ’는 통합형어미에서만 간혹 나타날 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⁶⁾¹⁷⁾

이와 달리 高麗歌謠에서는 여타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의존명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의존명사는 12회나 사용된 ‘디’이고, 그 다음은 10회 사용된 ‘이’이다. 반면 고려시대의 대표적 의존명사 ‘ㄷ’는 2회 나타나고 있어, 균여전 향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 이 밖에 고려가요에 나타난 의존명사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9) 가. 중중 霹靂 生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 모미 <履霜曲>

나.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鄭石歌>

다.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動動:악학궤범>

라. 아으 들흔 내 해어니와 들흔 ㄴ 해어니오 <處容:악학궤범>

마. 아소 님하 遠代平生에 여힐 술 모르옵새 <滿殿春>

바. 熱病神(大神)이사 膾入가시로다 <處容:악학궤범>

(39가)는 장소의 의존명사 ‘곳’, (39나)는 단위의 의존명사 ‘되’, (39다)는 인물의 의존명사 ‘분’이다. 그리고 (39라)의 ‘하’는 신라 향가 <處容歌>에서부터 등장하며, “내 하를 사리라 <박변상 32>, 그 상자리전이 네 하가<노변 상:48>”와 같이 한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눈에 띄는 의존명사 중에 하나는 의존명사 ‘스’의 출현(39마)이다. ‘스’는 鄉歌나 釋獨口訣이나 吏讀에서는 보이지 않고, 音讀口訣 자료에서부터 나타나는 형태이다. 때문에 古形의 의존명사라고는 볼 수 없는, 창작 시기나 채록 시기에 단서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39바)에서는 ‘감/갓’의 의미를 지닌 ‘갓’이 확인된다.¹⁸⁾

(40) 가. 사스미 靚대에 올라셔/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靑山別曲>

나. 어느하다 노코 시라 <井邑詞:악학궤범>

16) 균여향가에 의존명사 ‘ㄷ’가 ‘等’나 ‘丁’의 일부로 나타나기는 한다. ‘等生界盡尸等隱<揚結1>’에서처럼 조건의 연결어미 ‘-을든’, 배경의 연결어미 ‘-孫丁((소)ㄴ더)’이 그 용례이다. 기원적으로는 보문구성에서 출발했지만 이들은 이미 어미화 단계로 접어들어 ‘ㄷ’의 독자적인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하게 보문명사로 사용된 ‘ㄷ’의 예가 없다고 기술한 것이다.

17) 三國遺事 鄉歌에서도 의존명사를 최대한 인정하는 해독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하(下)’, ‘디(矣)’, ‘제(第)’, 갓(物叱) 정도만이 발견되며, ‘ㄷ’는 ‘尸等’처럼 통합형 어미의 구성요소로 나타나는 예가 전부이다.

18) <雙花店>에 나타나는 ‘조그맛감~조그맛간’의 ‘감/간’도 이와 동일한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박병채(1994:234~235)에서는 ‘거’가 대격조사를 직접 취했다는 점에서 ‘명사’로 처리해야 하는 형태로 보고 의존명사 ‘거’를 설정하였다.¹⁹⁾ 그러나 (40가)가 『악장가사』에 수록된 작품인 만큼 16세기부터 시작되었던 ‘ㄴ~ㄷ’ 표기의 혼란으로 인해 연결어미 ‘-거늘’이 ‘-거를’로 표기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반면에 (40나)의 ‘어느이다’의 ‘이’는 의존명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41) 어느에다 [양주동 1947] - 방향격조사의 고형 ‘ㅣ’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있으라 [박병채 1994] - 의존명사 ‘이’(何物, 何人)

아무개(남편) 좀 다 놓아주시구려 [김완진 1998] - ‘이’를 ‘물건’ 아니라 ‘사람’으로 풀이

어느 곳에(?) 놓고 있으라 하시고 [이현희 2001]

‘이어긔, 그어긔, 더어긔’에 나타나는 장소성 의존명사 ‘ㅇ’과 관련시켜 본다면, ‘이’도 ‘곳’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존명사로 추정된다.

4.2. ㅎ말음 체언

고려가요에 사용된 ㅎ말음 체언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고[鼻]<처용가>, 긴[繩]<정석가>, 길[道]<처용가, 이상곡>, 늘[刃]<사모곡>, 네[四]<처용가>, 니마[額]<처용가>, 돌[石]<정석가, 청산별곡>, 둘[二]<처용가>, 비울[梳鴨]<만전춘>,²¹⁾ 서울[京]<서경별곡>, 소[沼]<만전춘>, 안[內]<동동, 만전춘>, 울[鴨]<만전춘>, 우[上]<만전춘, 정석가>

위의 목록들은 중세국어 ㅎ말음체언 목록과 일치한다.²²⁾ (반대로 중세국어 ‘ㅎ’말음체언으로 나타나는 명사가 고려가요에서 ‘ㅎ’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없다.) 고려가요에 나타난 ‘ㅎ’말음 체언의 양상이 중요한 이유는 향가 해독에서 불거진 ‘ㅎ’말음 체언 문제에 실마리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2) 가. 吾^하不喻慚^하伊賜等 <獻花歌>

나. 花^하折叱可 獻乎理音如 <獻花歌>

다. 千隱 手叱 千隱 目^하 <禱千手大悲歌>

라. 此^하 喰惡支 治良羅 <安民歌>

마. 際 于萬隱 德海^하 <稱讚如來歌> (海는 바르리라)

19) 양주동(1947)에서도 “현 것을 듣노라”라는 해석을 허용하였다.

20) ‘거늘’이 ‘거를’로 표기된 현상은 근대국어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위 아미라토 아니코 잇거를 큰 구게 가도고 음식 아니주더니 <三綱동경忠6a>, 또 불근 머지 여름 밋갓거를 어미 디킴여 이시라 <翻小9:25a>, 공경 ㅎ야 서르 디점홈을 손 곧티 ㅎ거를 보고 더불어 도라와 <小學4:34b>”

21) ‘비울ㅎ’, ‘울ㅎ’이 아니라 ‘비울히[梳鴨]’, ‘울히[鴨]’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럭울히와 鸚鵡와 <釋詳3:32a>. 거유 울히며 돛 가히를 만히 사 오라 ㅎ야 <月釋23:73a>”. 그러나 고려가요에서는 ‘울하’라는 형으로 나타난 ‘울ㅎ’으로 분석하였다.

22) <鄭石歌>와 <동동>에 나타나는 ‘별/벼리[厓]ㅎ’은 고려가요에 사용된 예가 유일하여 중세국어 자료와의 대조군이 없다.

향가의 대격조사에서는 ‘乙’과 ‘𢆏’이 사용된다. 그런데 ‘乙’과 같은 쉬운 글자를 놔두고 (42)처럼 ‘𢆏’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양주동(1965)에서는 古語法의 ‘ㅎ’말음체인은 중세국어와는 크게 달랐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후대 연구자들도 큰 이견 없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황선엽(2008)에서는 대격조사를 표기하는 데 ‘𢆏’은 古形의 표기, ‘乙’은 改新形의 표기일 뿐 ‘ㅎ’말음체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렇게 고려가요의 ‘ㅎ’ 말음체언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ㅎ’ 말음 목록이 크게 달랐다는 주장보다는 표기법적인 차이에서 기인된 현상이라는 해석에 좀 더 가능성이 커진다.²³⁾

4.3. 의문사(미지칭) VS 부정칭 ‘어느’

<井邑詞>에 나타난 ‘어느’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되는 형태이다.

(43) 어느이다 노코시라 <井邑詞:악학궤범>

(44) 어디에다(어느곳에다가) 노코계셔지라 [양주동 1947]

어느(어떤) 것 모두 놓으시라 [김형규 1968]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있으라 [박병채 1994]

아무개(남편) 좀 다 놓아주시구려 [김완진 1998]

어느곳에서 노시다가 [김태준 1939]

어느 것이든 다 놓아버리십시오 [전규태 1968]

어느 것이나 모두 놓고 있으십시오 [최철 1996]

어느이다 놓으소서 [최철·박재민 2003]

(45) 어느곳 어테에 놓고 계신가요? [지현영 1947]

어느 곳에 놓고 있으라 하느고 [이현희 2001]

(44)에서는 不定稱의 ‘어느’로 파악한 반면, (45)에서는 未知稱의 의문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현희(2001:101)에서는 “‘어느’가 의문사임은 확실하며, “어느이다 노코시라 흐느고” 정도에서도 상위문의 동사 ‘흐느고’가 생략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어느’가 의문사라는 확신은 이현희(199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의문사가 부정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19세기 근대국어 이후의 현상으로 파악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논의가 향가 <祭亡妹歌>에서도 나타난다.

(46) 於內秋祭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新羅 祭亡>

23) 만일 ‘ㅎ’말음 체언이 채록된 당시의 언어 현상의 압력으로 중세국어의 질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정·개편되었다면 이런 가정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주동(1965)에서 설정한 향가의 ‘ㅎ’ 말음 체언의 목록은 중세국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차이가 사실이었다면 고려가요에 일부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이라 생각한다.

박진호(2007)과 박진호(2008)의 기술대로 의문사가 비한정사로 검용된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면, 고려가요의 <井邑詞> 해석에서도 ‘어느이다’의 ‘어느’를 (44)의 해석들처럼 비한정사로 해석하는 길이 열린다.

4.4. 의문대명사 ‘누고’

(47) 누고 지서 세니오 누고 지서 세니오 바늘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處容아비를 누고 지서 세니오 <處容:악학궤범>

양주동(1947)에서는 ‘누고’를 누[誰]에 의문조사 ‘고’가 연결된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때의 ‘고’가 의문조사라면 하나의 의문사 ‘누’에 대해 의문의 종결 형태가 두 번이나 사용된 셈이 된다. 즉, ‘누 지서 세니오’나 ‘지서 세니 누고’ 정도가 되어 ‘누가 지어 세웠는가?’나 ‘지어 세운 이 누구인가?’가 되어야 하는 문장이 ‘누구인가? 지어 세웠는가?’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 버리므로 이때의 ‘고’를 의문조사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현영(1947)과 박병채(1994)에서는 ‘고’가 주격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하였다.²⁴⁾ 그러나 주격조사 ‘가’가 16세기 최초로 등장하고 근대국어 시기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가 현대국어부터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처용가>에서의 ‘고’를 주격 ‘가’와 연결시킨 분석은 잘못이다.

(47)의 ‘누고’는 기원적으로는 의문사 ‘누[誰]’에 의문조사 ‘고’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누고’ 전체가 하나의 의문 대명사로 어휘화한 형태로(현대국어 ‘누구’) 파악해야 한다. 의문대명사 ‘누구’는 근대국어에서 ‘누고고/누고오’, ‘누구느’, ‘누구를’ 등과 같이 사용되는데, 15세기에서도 한 예가 나타나 어휘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누고오 무르신대 張禹 | 이다 ㅎ야눌[上問誰對曰張禹]<1481 三綱런던忠7>

<처용가>의 ‘누고’는 (48)의 예와 더불어 ‘누구’의 발달이 15세기부터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5. 접사와 관련된 문제

고려가요 해독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형태로 ‘무슴다’가 있다.

(49) 프슴다 錄事니몬 넷나를 닛고 신더 아으 動動다리 <動動:악학궤범>

양주동(1947) · 지현영(1947) · 김형규(1968)는 ‘다’를 의문조사로 처리해 ‘-ㄴ다’의 ‘다’와 동일한 형태라고 설명하였고, 박병채(1994)는 ‘다’를 연결어미로 파악하여 동작 진행의 중단을

24) 박병채(1994:147)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누고>누가. 명사어간 ‘누(誰)’와 의문형종결어미 ‘고’의 연결형, 주격형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의미하는 ‘다가’와 이형태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무엇하다가, 무엇 때문에). 의문사에 또 의문조사가 붙는다는 설명이나 ‘다가’가 ‘다’로만 나타난다는 설명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한글 자료에서 ‘므슴다’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나 기능이 동일한 형태로 ‘므스므라, 므스므려’가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다’의 해석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50) 가. 世尊人 安否 묻좁고 니르샤더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釋詳6:3a>

나. 𐏃 글 비흔 허근 사르미 마를 므스므라 드르시리잇고 햏야놀 <三綱런던忠7>

(51) 가. 우리 아므란 밧븐 일 업거니 므스므려 일 녀리오 <翻老上30b-31a>

나. 므스므려 밧를 밧고려 햏느뇨 우리 바비 니거 잇느니 <翻老上40a>

의문사가 ‘무슴’이라는 자음으로 끝날 때는 ‘다’로 ‘므스므’라는 모음으로 끝날 때는 ‘려/라’로 교체되는 형태라면, 바로 박진호(2003)에서 밝혔던 부사파생접미사 ‘더/려/다/라’로 설명 가능한 형태들이다. 즉 ‘무슴다’는 ‘어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문부사 ‘무슴’에 다시 부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다’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6. 결론

고려가요의 특이 형태	삼국~신라	고려	여말선초	15세기	근대국어
청자존대의 ‘-습-’ (읍새)					0
의문사 없이 사용된 ‘-고’	0				
의문 종결 뒤에 덧붙는 첨사		0			
2인칭 의문 ‘-ㄴ다’			0	0	0
2인칭 의문 ‘-ㄴ더’			0		
‘느다’의 축약형 ‘-ㄴ다’				0	0
口語體 종결 ‘애~히애’		0			
통합형 연결어미 ‘-ㄴ들’			0	0	0
助詞 ‘마른’과 語尾 ‘-ㄴ마른’의 非구분	?	?	△	×	×
호격조사 ‘아/하’의 非구분		0			
공동격조사 ‘과/와’	×	口語 (×) 文語 (0)	0	0	0
공동격조사 ‘랑’					0
공동격 ‘이여’	0	0		0	
의존명사 ‘스’			0	0	0
허거를 (연결어미 거늘)					0
의문대명사 ‘누고’				0	0

파생접사 ‘다’				0	
관련 형태 출현 합계	2	5	5	8	9

참고문헌

- 가와사키 케이코(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강헌규(2016), 고려가요의 주석적 연구1, 한신문화사.
- 강성일(1965), 비존대보조어간(非尊待補助語幹) /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28, 57-66.
- 고광모(2000),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쇼’의 기원과 형성 과정, 국어학36, 259-282.
- 高永根(1983), 高麗歌謠에 나타나는 文法形態,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02-118.
- 김명준(2003), 『樂章歌詞』의 成立과 所載 作品의 傳承 樣相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 김명준(2008), 개정판 고려가요집성, 도서출판 다운샘.
- 김완진(1996), 고려가요의 어학적 해석, 새국어생활6-1, 50-63.
- 김완진(1998), 井邑詞의 解釋에 대하여, 국어학31, 1-21.
- 김완진(2001),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 출판부.
- 김지오(2012), 균여전 소재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준 편(1939), 고려가사, 학예사.
- 김현주(2005), 존대법 {-습-}의 역사적 변화, 고려대석사학위논문.
- 金亨奎(1984), 古歌謠註釋, 一朝閣.
- 김홍석(2004), 존제의 보조동사 ‘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어문연구32, 105-125.
- 남미정(2016), 중세·근대국어 보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23, 33-70.
- 梁柱東(1947),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一朝閣.
- 李賢熙(2001), 樂學軌範의 國語學的 考察, 樂學軌範-한국고전심포지엄시리즈3, 진단학회, 일조각.
- 류성기(1997), 근대국어의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55-108.
- 박병채(1994), (새로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 박지용 외 편(2011),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3: 고대국어』, 국립 국어연구원, 123-207.
- 박진호(2003), 중세국어 부상과생 접미사 ‘-더/려/다/라’에 대하여, 형태론5-1.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50, 115-147.
- 박진호(2008),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51, 313-338.
- 서재극(1990), 국어 어형론고, 계명대학교 출판부.
- 서태룡(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석주연(2004), 서술의 시점과 국어 문법 현상의 이해, 국어학43, 273-298.
- 음재희(1996), 18世紀 國語 補助詞에 대한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83), 高麗歌謠의 疑問法,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19-130.
- 이승녕(1975), 15세기 국어의 쌍형어 ‘잇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4, 1-23.
- 이승욱(1986), 존재동사 ‘시-’, 국어학신연구.
- 이승재(1998), 고대국어의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0), 鄉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口ハニ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438-456.
- 이현규(1985), 객체존대 ‘습’의 변화, 배달말10, 55-86.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효윤(2009), ‘-으란’의 역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기중(1993), 우리의 옛노래, 현암사.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전규태(1968), 논주 고려가요, 정음사.
- 정재영(1996), 의존명사 ‘드’의 문법화, 태학사.
-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 최철(1996),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철·박재민(2003), (釋註)高麗歌謠, 이화문화사.
- 하귀녀(1997), 중세국어의 ‘(아/으)롯’과 ‘(아/으)록’, 冠嶽語文研究22-1, 383-404.
- 허재영(2012),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 ‘요’의 기능과 생성·변화 과정, 韓民族語文學60, 245-270.
- 현평효(1975), 高麗歌謠에 나타난 /-고시-/ 形態에 대하여, 국어학3, 119-134.
- 홍기문(1959), 고가요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평양).
- 황선엽(2008),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鄉札 表記字 비교, 국어학51, 279-311.
- 황준연(1998), <시용향악보> 향악곡의 연대, 한국시가연구4, 99-119.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고려시대 문법과 고려가요(2)

— 문장 종결법을 중심으로 —

하정수(동국대)

1. 서론

고려 시대의 문법을 살펴보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를 기록한 자료가 가장 합당할 것이다. 석독구결 자료의 출현은 당시에 작성되어 고려 시대 언어사실을 반영한 자료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의 국어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당시의 언어를 충분히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 논의는 고려 시대 당시의 노래를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한 고려가요를 논의 대상으로 한다.

고려 시대의 국어는 향가, 이두, 석독구결, 음독구결과 같은 차자를 이용한 표기가 대부분이다. 차자 표기는 우리말의 형태를 파악해서 변환하는 단계를 하나 더 갖는다. 차자 자료와 비교해서 고려가요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어형의 파악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려가요에 나타난 언어 현상이 고려 시대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의 노래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글로 고정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정도 노래가 가지는 보수성에 기대고,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어형을 고대 국어 및 중세 국어와 비교하여 고려 시대 문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려 시대의 문법 요소는 중세 국어와 다르지 않고, 또한 현대 국어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어의 문법 요소는 문장 성분의 주어부와 술어부에 붙는 조사와 어미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고, 용언에 통합하는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장 전체에 관여하는 문장 종결법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종결어미에 의한 문장의 종결로 해석되는 예들을 될 수 있는 한 빠짐없이 정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치 구문으로 주어부가 문장의 끝에 오는 것도 논의에 포함된다. 이 논의는 종결어미가 주된 논의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부와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글의 말미에 履霜曲의 나타난 어형 ‘잠싸간’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문장 종결형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장의 종결

이 장에서는 고려가요에 나타난 문장 종결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고대 국어의 문장 종결법 전반에 대해서는 박진호(1998)과 장윤희(2002)를 참조할 수 있고,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안병희·이광호(1990), 최동주(1996), 고영근(2012)를 참조할 수 있다. 고려가요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종결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으로 구분된다. 청유형은 청자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명령형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2.1. 평서형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이다. 고려가요에 나타난 평서형으로 파악되는 예를 살펴보자.¹⁾

(1) 가. 과 잔 디ᄃᆞᆫ 닙거츰니 업다(雙花店 8)

나.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ᄃᆞᆫ다 笑春風ᄃᆞᆫ다(滿殿春 6)

(1가)는 종결어미 ‘-다’가 단독으로 결합한 예이고 (1나)는 동사 어간에 종결어미 ‘-ᄃᆞᆫ다’가 결합한 것이다. ‘-ᄃᆞᆫ다’는 이전 연구에서 예사뉘춤의 종결어미로 보아 ‘한다’로 해석하였으나 최철·박재민(2003: 262)에서는 독백적 감탄 종결어미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여 ‘봄바람에 웃네’로 해석하였다.

(2) 가.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鄭瓜亭 7)

나. 바회 우회 접두(接柱)ᄃᆞᆫ요이다(鄭石歌 8)

다. 山접동새 난 이슥하요이다(鄭瓜亭 2)

라.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鄭石歌 4)

마. 玉(옥)으로 련(蓮)ᄃᆞᆫ 고줄 사교이다(鄭石歌 7)

바.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鄭石歌 11)

사.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鄭石歌 14)

아. 紅실로 紅글위 밋요이다(翰林別曲 八-二)

자.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西京別曲 4)

차.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動動 51)

카. 즘른 힐 長存ᄃᆞᆫ살 藥이라 받잡노이다(動動 22, 23)

타. 願을 비읍노이다(動動 31)

파. 적곰 좃니노이다(動動 27)

하. 나스라 오소이다(動動 4)

(2가-아)는 ‘-습니다’로 해석되는 공손 종결어미 ‘-이다’ 앞에 ‘-오-’가 결합한 예이고, (2자-파)는 ‘-이다’ 앞에 ‘-노-’가 결합한 예이다. (2하)의 ‘오소이다’는 ‘-이다’의 앞에 ‘소’가 결합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청유형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이와는 달리 김완진(2000:208)은 동사 어간 ‘오-’와 선어말 위치의 ‘-오-’ 사이에 결합한 ‘스’를 시간 표현과 관련한 요소로 파악하여 ‘오소이다’를 ‘왔습니다’로 해석하였다. 이 구절은 최철·박재민(2003:27)에서도 ‘왔습니다’로 파악하고 있다.

1) 이 논의의 대상인 고려가요의 명칭과 행의 숫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최철·박재민(2003)에 제시된 각 제목과 그 아래 구분한 큰 숫자(1. 2. 3. ...)를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번호를 수정한 부분은 밝혔으나 구절의 앞과 뒤에 해당하는 원문 부분을 덧붙인 것은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관동별곡과 한림별곡은 양주동(1954/1995)의 한자 숫자를 따랐다.

- (3) 가. 회회아비 내 소모글 주여이다(雙花店 2)
 나. 그 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雙花店 10)
 다. 우뭇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雙花店 14)
 라. 그 짓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雙花店 21²⁾)
 마. 혼 더 녀저 期約이이다(履霜曲 10)
 바. 난 ㄴ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思母曲 2)
 사. 비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논(西京別曲 14)
 아. 덩하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鄭石歌 1)
 자. 마. 殘月曉星이 아랴시리이다(鄭瓜亭 4)

(3가-라)의 ‘주여이다’는 어간 ‘주이-/쥐-(握)’에 선어말 위치의 ‘-거/어-’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의 ‘-거/어-’를 타동사에 결합한 ‘-어-’로 볼 것인지 ‘-거’의 ‘ㄱ’이 탈락한 형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주여이다’의 목적어가 ‘손모글’인 점은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공손형 종결어미 ‘-이다’의 앞에 각각 계사 ‘이-’, 시간과 관련한 ‘-니-’, ‘-리-’, 존칭의 ‘-시-’가 결합하고 있다(3마-아). 예문 (3자)는 ‘-시-’와 ‘-리-’가 함께 순차적으로 결합한 예이다. 어말의 요소 ‘-이다’는 공손법 기능을 담당하고 시간이나 화청자에 대한 것을 그 앞의 선어말의 위치에 결합하고 있다. 결합 순서에서 현대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 (4) 가. 先王聖代에 노니 〇와지이다(鄭石歌 2)
 나. 유덕(有德)호신 님들 여히 〇와지이다(鄭石歌 6)

예문 (4)는 원망을 나타내는 종결형 ‘-지이다’가 결합한 예로 ‘-하고 싶습니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다’ 앞의 선어말 위치에 있는 ‘-지-’를 원망과 관련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 (5) 가. 선희면 아니 올세라(가시리 6)
 나. 어기야 준디를 드디올세라(井邑詞 5)
 다. 내 가논디 점그를(물)세라(井邑詞 7)
 라. 위 내가논디 늬갈세라(翰林別曲 八-四)

예문 (5)에 제시된 문장은 모두 의구형 종결어미로 파악되는 ‘-르세라’로 표현된 것이다. (5라)의 경우 ‘-르세라’에 앞에 ‘-오-’가 결합하지 않았다. 의구형 종결어미 ‘-르세라’를 ‘-르셔’에 ‘이라’가 결합으로 보면 ‘몸하 호올로 닐셔(動動 9)’,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動動 17)’, ‘고우닐 스식옴 닐셔(動動 47)’에 나타나는 감탄의 종결어미 ‘-르셔’에 계사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6) 가.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雙花店 4)
 나. 죠고맛간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雙花店 12)

2) 최철·박재민(2003:184)에 순서가 16.으로 되어 있으나 ‘우뭇 용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다음부터 ‘술풀 지비 수를 사라 가고신던’으로 바로 이어져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5행(조음구 제외)이 빠져 있어 실제는 21.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숫자를 바꾸었다.

다. 다로러거디러 조고맛간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雙花店 17)

라. 다로러거디러 조고맛간 식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雙花店 23)

현대 국어 ‘네 말이라 하리라’에 해당하는 구절로 모두 같은 작품의 동일한 구조에 나타내는 예로 인용을 표현한 구절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6가-라).

(7) 가. 귀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雙花店 6)

나. 아니웃 밋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處容歌 30)

다. 남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相杵歌 4)

라. 소곳 얼면 여홀도 도흐니 여홀도 도흐니(滿殿春 11)

마.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靑山別曲 1, 2)

바.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靑山別曲 22, 23)

사. 버곡당이샤 난 도해 버곡당이샤 난 도해(維鳩曲 4)

(7가)의 예문은 문장을 ‘-리라’로 종결하여 해라할 자리에서 화자의 다짐과 같은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7나)는 문맥으로 ‘날 것입니다. 나쁜 말’의 의미로 파악되어 예정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리-’와 ‘-거-’가 결합한 ‘-리거-’가 ‘-리어-’로 변화한 형태이다. 종결형 ‘-으리’의 앞에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오-’가 결합한 (7다)는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하계체의 독백에 가까운 종결어미 ‘-(으)니’가 결합한 것도 나타난다(7라). 양주동(1954/1995)에서 추측으로 해석되어 미래적인 의미로 파악되었던 (7마바)는 최철·박재민(2003:105)에서는 과거에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파악하였다. 과거를 나타내는 기능과 관련하여 (2하) ‘오소이다’의 ‘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7사)는 현대 국어의 반말 ‘좋아’의 뜻으로 해석되며 ‘-애’가 반말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다.

(8) 가. 四海를 년글 주리라 ㄹㄹ매 비 업거늘 일우시고 또 노기시니(龍歌 20)

나. 祥瑞도 하시며 光明도 하시나 ㄹ 업스실썻 오늘 몬숯너(月釋 2:45)

예문 (8)은 최동주(1996:165)에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시가에서는 평서문이 종결어미 없이 끝나는 표현을 ‘반말’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이다. (8가, 나)의 종결형은 (7다, 라)의 ‘머고리’, ‘도흐니’와 유사하다. 고려가요에 반말 형태가 나타난 것 또는 ‘-니이다’의 ‘-이다’가 절단된 것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2.2. 의문형

의문형 종결어미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명의문과 관정의문에 나타나는 형태 차이일 것이다. 고려가요의 의문형 종결법은 대체적으로 중세 국어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나 예외적인 것도 나타난다.

(9)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가시리 1, 2)

나. 위 試場入景 귀엇더흐니잇고(翰林別曲 一一四)

- 다. 내 엇디 흐리잇고(靑山別曲 33)
- 라.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翰林別曲 一-六)
- 마. 어되라 더디던 돌코(靑山別曲 18)
- 바. 누리라 마치던 돌코(靑山別曲 19)
- 사. 아으 들흔 내 헤어니와 들흔 님 헤어니오(處容歌 33)
- 아. 處容 아비를 누고 지셔 세니오(處容歌 24)
- 자. 누고 지셔 세니오 누고 지셔 세니오(處容歌 22)
- 차. 耿耿高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滿殿春 4)
- 카.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靑山別曲 17)

(9)의 예들은 모두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구성 요소가 ‘-고’ 또는 ‘-오’로 나타난다. (9가-라)는 ‘-잇고’에 ‘-리-’, ‘-니-’, ‘이-’가 선행한다. (9마-바)는 명사에 의문형 종결어미 ‘-고’가 직접 결합한 것으로 계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사)는 ‘-거니오’가 ‘ㅣ 모음’ 뒤에서 ‘ㄱ’이 탈락한 ‘-어니오’로 표현된 것이다. (9아-차)는 동사 어간에 의문 종결어미 ‘-고’가 직접 결합하고 ‘ㄱ’이 탈락하여 ‘-오’로 나타난 예들이다. (9카)는 의문사 ‘엇디’가 있으므로 ‘호리오’를 예상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호리라’로 나타난 것이다. 박진호(2008:33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문사가 비한정사로 겸용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의문사 ‘엇디’가 비한정적으로 쓰였다면 ‘호리라’는 ‘밤이란 또 어떻게 하는구나!’의 감탄의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된 문맥을 살펴보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정도의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고려가요에 의문사가 비한정적으로 쓰여 (9카)가 감탄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 (10) 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鄭石歌 16)
- 나.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눈(西京別曲 6)
- 다. 즘흔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잇든 그츠리잇가(鄭石歌 17)
- 라. 즘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잇든 그츠리잇가(西京別曲 7, 8)
- 마. 열명길헤 자라 오리잇가(履霜曲 5)
- 바.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鄭瓜亭 10)
- 사.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滿殿春 8)
- 아.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鄭瓜亭 6)
- 자. 이러쳐 더러쳐 期約이잇가(履霜曲 9)
- 차. 내 님 두습고 년 피를 거로리(履霜曲 8)

(10)의 예들은 판정의문의 예들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공손의 의문을 나타내는 ‘-잇가’에 선행하여 시간 표현과 관련한 ‘-리-’(10가-마), ‘-니-’(10바-아), 또는 계사 ‘이-’(10자)가 나타난다. (10차)는 ‘거로리잇가’의 후행 요소인 ‘-잇가’가 생략된 형태로 파악하였다(최철·박재민, 2003:285). 이는 문맥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7다)의 ‘머고리’에 나타난 종결어미 ‘-리’일 가능성도 있다.

- (11) 가. 여흘란 어되 두고 소해 자라 온다(滿殿春 10)

- 나. 비내여 노흔다 샤공아(西京別曲 10)
 다. 널빅에 연즌다 샤공아(西京別曲 12)
 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靑山別曲 10)
 마. 물아래 가던 새 본다(靑山別曲 11)

(11)은 동사 어간에 ‘오-’, ‘엿-’, ‘보-’, ‘놓-’ 각각에 공통적으로 ‘-ㄴ다’가 결합하여 2인칭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ㄴ다’는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에 구별이 없이 나타난다. 고려가요에서는 판정의문의 예만 보여 중세 국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 (12) 가. 쏜저재 녀려신고요 어귀야(井邑詞 4)

나. 千金을 주리여 處容 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 아바(處容歌 36)

(12가)의 ‘녀려신고요’의 ‘-ㄴ고’를 의문형 종결어미로 파악하면 의문사가 없는데 설명의문의 형태인 ‘-ㄴ고’가 선택된 예가 된다. 이는 앞의 의문사가 있는 (9가)의 경우와 예외의 짝이 된다. 또한 마지막에 결합한 ‘요’는 현대 국어의 ‘요’와 같은 부가적 요소로 볼 수 있다.

2.3. 명령형, 청유형

고대 국어의 명령형은 ‘-셔’, ‘-(거)라’, ‘-고볼라’ 등이 있다(박진호, 1997:129). 고려가요의 명령형은 ‘-셔’를 포함하는 ‘-쇼셔’와 ‘-라’를 포함하는 ‘-고시라’, ‘-아라’로 나타난다.

- (13) 가. 가시느듯 도셔 오쇼셔(가시리 8)

나. 千金 七寶도 말오 熱病神을 날 자바 주쇼셔(處容歌 37)

다.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鄭瓜亭 11)

- (14) 가.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井邑詞 2)

나.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井邑詞 6)

다. 헝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하(翰林別曲 八-三)

라. 情둔 오늬범 더되 새오시라 더되 새오시라(滿殿春 3)

(13가, 나)는 동사 어간에 ‘-쇼셔’가 직접 연결된 예이고, (13다)는 ‘-쇼셔’의 앞에 ‘-오-’가 선행한 것이다. 이때의 ‘-쇼셔’는 현대 국어의 ‘-소서’와 유사한 존칭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14가-라)의 ‘-고시라/오시라’는 ‘~하여 주십시오’의 뜻으로 어말에 선행하는 ‘-고시-’가 ‘소망-존칭’의 기능 즉 원망형 명령을 나타낸다. 향가와 구결에서 동일 형태로 추정되는 ‘-遣(只)賜-’와 ‘-口ハッ(ㄷ)-’가 나타난다.³⁾ 예문 (14가-라)는 모두 동사 어간에 ‘-고시라’만 결합하여 중간에 다른 요소가 끼어 있지 않다. ‘-고시-’의 분리 불가능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다.

3) 향가와 구결의 예는 ‘-遣(只)賜立’와 ‘-口ハッ(ㄷ)’의 예로 ‘-(쇼)셔’와 관련된 형태로 나타나서 ‘고시라’와 직접 연결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쇼’를 ‘-시고-’>‘-시오-’의 변화로 보면 ‘-시고시-’의 형태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석독구결에서 ‘-口ハㄷ’의 형태가 같이 나타난다.

(15) 가. 썰리 나 내 신고홀 미야라(處容歌 29)

나.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니러 우리라 새여(靑山別曲 6, 7)

다. 위 듣고아 줌드러지라(翰林別曲 六-六)

(15가나)는 현대 국어의 명령형 ‘-아라/어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15다)는 청원의 명령법 ‘-지라’의 앞에 ‘-아/어-’가 선행한 것이다.

(16) 가. 藥든 가슴을 맛초옵사이다 마초옵사이다(滿殿春 14)

나.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혈슬 모록옵새(滿殿春 15)

다. 녀시라도 님은 혼더 녀저라 아으(鄭瓜亭 5)

고려가요에서 찾을 수 있는 청유형 문장 종결은 (16)의 예뿐이어서 명령형에서 같이 다룬다. (16가)는 하쇼서체의 청유형 ‘-사이다’의 이형태이고, ‘-옵-’이 선행하고 있다. (16나)는 (16가)와 동일한 ‘-옵사이다’의 ‘-다’가 떨어져나가고 ‘-스이-’가 축약되어 ‘-새’로 나타난 것이다. (16다)는 공동법의 종결어미 ‘-저’와 명령법의 ‘-라’가 결합하여 권유하여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저라’의 형태가 나타난다. ‘녀저라’는 ‘같이 가고 싶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2.4. 감탄형

중세 국어의 감탄법은 ‘-도-’와 ‘-다’가 결합하여 ‘-도다’로 나타난다. ‘-도다’는 계사 뒤에 서 ‘-로라’로 나타난다. ‘-에라’, ‘-게라’는 선어말 위치에 ‘-아/어-’와 ‘-거-’에 계사의 설명법 ‘- | 라’가 연결된 것이다.

(17) 가.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靑山別曲 26, 27)

나. 奚琴을 허거를 드로라(靑山別曲 29)

다. 설진 강수를 비조라(靑山別曲 31)

라. 熱病神이야 膾炙가시로다(處容歌 35)

마. 자고 니러 우니로라(靑山別曲 10)

바. 마자서 우니노라(靑山別曲 21)

사. 아으 노피 현 燈入불 다호라(動動 11)

아. 아으 별해 브론 빗다호라(動動 25)

자. 아으 저미연 브롯 다호라(動動 41)

차. 아으 나슬 盤잇 저다호라(動動 49)

(17가-다)는 동사 어간에 ‘-오라’가 결합하여 감탄을 나타낸 것이고, (17라-바)는 계사와 동사 어간에 ‘-노(로)라’가 결합한 것으로 문법적 기능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17사-차)는 동일한 노래(動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답구나’의 의미를 나타낸다. (17가-다)와 어미와 동일한 어미 ‘-오라’가 동사 어간 *다흐-에 결합한 ‘다호라’로 나타난다.⁴⁾

4) 如의 의미를 갖는 “다흐-”는 문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사형으로 볼 수 있는 ‘다히’, ‘다이’가 존재하고 있고, ‘-호라’라는 어미를 설정할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7가-다)의 ‘-오라’의 어미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다흐-”를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미 ‘-호라’가 연결된다고 할 때에도 ‘다

- (18) 가. 몸하 ㅎ올로 ㄴᆞ셔(動動 9)
 나. 고우닐 스식옴 ㄴᆞ셔(動動 47)
 다. 아으 오실셔 ㄴᆞ고리새여(動動 17)

- (19) 가. 나즈란 디내와손더(靑山別曲 15)
 가'. 나스라 오소이다(動動 3)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靑山別曲 1, 2)
 나. 넷 나를 ㄴᆞ고신더(動動 19)
 다. 물헛 마리신더(鄭瓜亭 8)
 라. 슬흘 스라운더(動動 46)
 마. 슬웃븐더(鄭瓜亭 9)

예문 (18)은 동사 어간에 ‘-르셔’가 바로 붙거나 그 앞에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감탄을 나타낸 예이다. (19가, 나, 다, 라, 마)는 감탄을 나타내는 ‘-ㄴᆞ더’가 결합한 형태로 그 앞의 선어말 위치에 ‘-아소-’, ‘-고시-’, ‘-시-’, ‘-라오-’, ‘-브-’가 나타난다. (19가)의 ‘-ㄴᆞ더’ 앞에 결합한 ‘-아소-’는 (19가', 가")의 ‘-소-’와 ‘-랏-’에서 파악되는 ‘ㅅ’과 같이 과거(완료) 의미의 동일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 (20) 가. ㄴᆞ미 브를 즈슬 디너나샷다(動動 15)
 나. 디니실 ㅎ 부니 업스샷다(動動 43)
 다. 三災八難이 一時消滅ᆞ샷다(處容歌 3)
 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動動 12)
 마.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處容歌 40)
 바. 오ᆞᆯ날 嘉俳샷다(動動 35)

위의 예문은 감탄형 ‘-샷다’로 종결되는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20가-다)는 동사 어간 ‘나-’, ‘없-’, ‘消滅ᆞ-’에 ‘-샷다’가 직접 결합한 것이다. (20라-마)는 명사 ‘중, 發願’에 붙은 계사 뒤에 ‘-샷다’가 결합한 것이다. (20바)는 ‘嘉俳’가 모음 ‘ㅣ’로 끝나 계사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샷다’는 자체에 존칭의 의미 기능을 갖는 ‘-시-’가 포함된 ‘-이시도다’로 해석할 수 있다.

- (21) 가. 새셔가만ᆞ애라(動動 39)
 나. 어마님ᆞ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ᆞ티 괴시리 업세라(思母曲 5, 6)
 다. 西窓을 여러ᆞ니 桃花ㅣ 發ᆞ두다(滿殿春 5)
 라. 處容 아비를 어여러거져(處容歌 39)
 마.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處容歌 32)
 바 위 嘯黃鸞 반갑두세라(翰林別曲 七-六)

(21가, 나)는 동사 어간 ‘~ᆞ-’와 ‘없-’에 어말의 ‘-어라’와 선어말 위치의 ‘-아/어-’가 결합한

-’가 동사 어간이 되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것으로 ‘~하구나’와 ‘없구나’의 의미로 파악된다. (21다)는 감탄형 어미 ‘-두다’가 결합한 것으로 현대의 ‘-도다’와 같다. (21라)는 최철·박재민(2003:250)에서 ‘너거저’로 파악하고 ‘다니고 싶구나’의 감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21마바)의 ‘-로새라’와 ‘-두세라’는 ‘-새(세)라’ 앞에 ‘-도/두-’가 결합하여 감탄을 나타낸 종결형으로 ‘-이로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3. ‘잠짜간’

(22) 잠짜간 내님을 너겨(履霜曲 4)

(22)의 ‘잠짜간’은 양주동(1954/1995:351)에서 ‘자(寢)의 名詞形’으로 ‘ㄱ’을 명사형 어미로 파악하고 있다.⁵⁾ 그러나 명사 ‘잠’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명사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문장의 시작인 첫 단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사적 구성에 해당하는 명사형 어미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사한 의미를 갖는 명사 ‘잠’이 존재하는 것도 풀어야 할 문제이다. ‘잠’을 명사로 파악하면 후행하는 ‘짜간’을 용언으로 파악해야 한다(최철·박재민(2003:279)).⁶⁾

3.1. ‘잠짜간’의 구조

‘잠짜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가요에 나타난 동사 ‘자-’와 명사 ‘잠’을 살펴보자.

(23) 가. 줄 드리지이다(翰林別曲 六-六)

나. 어느 즈미 오리오(滿殿春 4)

(24) 가.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雙花店 6)

나. 그 잔디 7티(雙花店 8)

다.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靑山別曲 7)

라. 자고 니러 우니로라(靑山別曲 9)

마. 소해 자라 온다(滿殿春 10)

(23가나)는 명사 ‘잠’이 주격으로 실현된 예로 (23나)의 경우 ‘어느’의 수식을 받고 있다. (24)는 동사 ‘자-’의 어간에 연결어미 ‘-아’, ‘-고’와 통합한 것과 관형사형 ‘-은’과 결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가요에는 명사 ‘잠’과 동사 ‘자-’가 구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잠’을 명사 ‘잠’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⁷⁾. 김완진(2000:341)에서는 ‘잠짜간’을 ‘자고

5) 김명준(2002:185)에 정리된 기존의 어석은 ‘잠을 따간(박병채, 양주동), 슬그머니 잠겼다가 간(지현영), 자고 있다 간(김완진), 자고서 가신(김사엽)’이고, 최철·박재민(2003)은 ‘잠 앓아간’이다.

6) 최철·박재민(2003:279)에서는 ‘잠’을 현대어 ‘잠(寢)’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관련한 예문으로 ‘寢은 잘씨라<월석 서01:17a>’와 ‘耿耿孤寢牀에 어느 즘미 오리오<만전춘, 악장가사>’ 둘을 제시하였다. 앞의 예는 동사 ‘자-’이고, 뒤의 예는 명사 ‘잠’으로 둘을 같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7) 양주동(1995:245)은 잠은 ‘寢의 訓은 ‘자’가 正綴이니 그 名詞形은 ‘잠’이 正常하나 ‘睡・眠’의 訓은 ‘즈오’이때 그에 影響되야 ‘잠’으로 綴한 것이다.’로 ‘잠’과 ‘즈’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있다 간'으로 해독하고 '잠짜'의 '잠'을 '자-'를 어간으로 'ㄱ' 또는 '음'을 지속태의 접미사로 파악하고 '-다'를 어미로 파악하였다.中间的 'ㅅ'은 경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ㄱ'을 향가에 나타나는 다음의 '音'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25) 가. 執音乎手母牛放教遺(獻花歌)

나. 火條執音馬(廣修供養歌)

(25)는 김완진(2000)에서 'ㄱ'과 관련하여 제시한 향가의 예이다. 향가 구절 중 '執音乎手', '執音馬'의 '音'을 'ㄱ'으로 파악하고 '자뵤몬 손', '자뵤마'로 해독하였다. 이때 '잠짜간'의 'ㄱ'을 (25가)의 '자뵤몬'의 'ㄱ'과 동일하게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있는 구성 요소로 파악하였다. 향가에서 '音'이 어간과 어말어미의 사이에 통합하는 예는 '-音叱如(多)'의 예에도 나타난다. '잠짜간'의 '잠'을 '자-'와 'ㄱ'으로 파악하고 통사적 결합 관계에서 '-따' 즉 향가에 나타나는 '-音叱如(多)'의 '音'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音叱如(多)'는 석독구결에서는 '-ㅅㅈㅣ'로 나타난다.

(26) 가.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安民歌)

나.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惡寸習落臥乎隱三業(懺悔業障歌)

다.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常隨佛學歌)

라.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獻花歌)

(27) 가. {爲}[三] 何 {等}ㅣ 說 ㅅㅈㅣ ㅅㅅㅅ ㅅㅅㅅ<화소18:19>

나. 十方七 一切 諸 ㅅ 如來 ㅅ 悉 ㅅ 共 ㅅ 僞揚 ㅅㅅ 乃 盡 ㅅ 尸 不(ㅅ)能 ㅅ ㅅㅅㅅ ㅅㅅㅅ ㅅㅅㅣ<화엄09:07>

다. 吾 ㅅ 今 ㅅ 先 ㅅ 諸 ㅅ 菩薩 {爲} ㅅ 佛果 ㅅ 護 ㅅㅅ ㅅ 因緣 ㅅ 十地 ㅅ 行 ㅅ 護 ㅅㅅ ㅅ 因緣 ㅅ ㅅ 說 ㅅㅅㅅ ㅅㅅㅣ<구인03:18-19>

라. 唯 ㅅ 佛 ㅅ 與 ㅅ 佛 ㅅ ㅅ ㅅ 乃 ㅅ {斯} ㅅ 事 ㅅ 知 ㅅㅅ ㅅㅅㅣ<구인11:24>

마. 云何 ㅅ ㅅ 十方 ㅅ 諸 ㅅ ㅅ 如來 ㅅ 一切 菩薩 ㅅ ㅅ ㅅ 文字 ㅅ 離 不 ㅅ ㅅ ㅅ 而 ㅅ 諸 ㅅ 法相 ㅅ ㅅ 行 ㅅㅅ ㅅㅅ ㅅㅅㅅ ㅅㅅㅅ ㅅㅅㅅ<구인15:21-22>

바. 敬禮 ㅅㅅㅅ ㅅㅅㅅ ㅅㅅㅣ 譬喻 ㅅ ㅅ ㅅ ㅅ 無 ㅅ ㅅ 深無相義 ㅅ 說 ㅅㅅㅅ ㅅ ㅅ ㅅㅅ<금광13:04>

사. 諸 行法 ㅅ 說 ㅅㅅ ㅅ 去來 ㅅ ㅅ 所 無 ㅅㅅ ㅅㅅㅣ<금광14:21>

(28) 가. 爲(良)音可

나. 爲良音可爲在

다. 爲良音可爲在乙

라. 爲良音可爲在旻

마. 모로매 降訶요려커든 내 알피서 주거 뵈웁다(성종관 삼강행실도 충신 6b)

박진호(2008:321-322)에서는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ㅅㅈㅣ(따다)'를 종결 표현으로 보고 당 위/의무 또는 가능성/능력,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형태는 향가에도 나타나는 고대 국어의 문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화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ㅁ다’의 앞에 ‘-오/우-’가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석독구결의 (27다)와 (27바)는 ‘ㅅㅌㅅㅌ’ 앞에 각각 ‘ㅅ’와 ‘ㅌ’가 통합되어 있다. ‘잠ㅅㅌ’의 ‘-ㅁ다’는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셈이 되어 향가의 (26라)와 석독구결의 (27가)의 예와 비슷한 구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7라)는 주체 존재를 나타내는 ‘ㅅ’에 바로 ‘ㅅㅌㅅㅌ’가 결합되어 있다. (28가-라)의 예는 강영(1998:180-183)에서 설명하고 있는 ‘ㅅㅌ’이 포함되어 소위 가치법을 나타내는 대명를 직해 이두의 예이다. 이들은 ‘함직한, 함직 하거을, 함직 하며’ 등으로 해석되고 ‘ㅎ+아+ㅅㅌ+ㅌ’으로 분석된다. 석독구결과 관련하여 ‘ㅌ’이 선어말 위치의 어미로 쓰인 예로 볼 수 있다. (28마)의 예는 한글 문헌에 나타난 ‘의’ ‘-ㅁ다’를 화자인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요소로 파악하였다(이현희(1995), 박진호(2008)의 재인용).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잠ㅅㅌ간’의 구조를 ‘잠ㅅㅌ’와 ‘간’으로 나누어 ‘잠ㅅㅌ’의 ‘ㅌ’은 선어말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3.2. ‘잠ㅅㅌ간’의 의미

(29) 가. 나도 자라 가리라(雙花店 6)

나. 소해 자라 온다(滿殿春 10)

다. 자고 니러(靑山別曲 7, 9)

(30) 잠ㅅㅌ간 내님을 너겨/깃든 열명길해 자라 오리잇가(履霜曲 4)

(29가, 나)는 ‘자러 가-’와 ‘자러 오-’가 서로 대칭되어 쓰이는 용례를 보여 준다. (29다)는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동사 ‘자-’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미상의 대칭과 관련하여 (30)의 ‘자라 오리잇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구절을 ‘잠ㅅㅌ 간’으로 분절하여 해석하였을 때 뒤에는 ‘자라 오리잇가’로 동사 ‘자-’ 뒤에 ‘가다’와 대응하여 ‘가다’와 ‘오다’로 대칭적 관계를 이루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동사 ‘자-’와 관련하여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요소로 본다면 ‘자러 가다’와 ‘자러 오다’의 대칭적 구조와 잘 맞는다. 이 구절에 대한 기존 현대역과 해시(解詩)를 살펴보자.⁸⁾

(31) 가. 잠ㅅㅌ간 내님을爲해서/ 그처럼 險흔 열(?)命길해 지려고오릿가(김태준, 1939)

나. 슬그머니 잠겼다가 간 우리임을 생각하여/기다리 相思戀情의 나날을 실어 가리
이까! (相思戀情의 길을 찾아 자라고 오리이까)(지현영, 1947)

다. 자고서 가신 내 입을 생각하오니, 아마 다시는 十明길에(무시무시한 길에) 자러
오시겠는가 오시지는 앓으시겠지(김사엽, 1945)

라. 잠을 뺏어 간 우리 입만 여기여/장차고 무서운 길에 자러 오리카(홍기문, 1959)

마. 잠을 따간(잠 못이루게 한) 내 님을 생각하오니/그러한 十忿怒明王(처럼 무시무
시한) 길에, 자려고 오시겠는가?(전규태, 1968)

바. 잠 앓아간 내 님을 생각하여(내님 위해 守節하여)/그 따위 무시무시한 길에 (내
가·누가) 자려고 오겠습니까?(이임수, 1981)

사. 잠 빼앗아 간 내님을 그리워 하여도/그 같은 열명길(十忿怒明大王) 같은 무서운
길에 자러 오겠습니까?(장효현, 1981)

8) 김명준(2008:184-192)에 제시된 履霜曲의 해당 부분의 어석 및 현대역과 해석을 모아서 제시하였다. 의역된 부분은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만 제시하였다.

- 아. 우리곁에 머물다간 내 님 불타를 생각하여/지옥에 떨어지는 별을 받을 많은 잘못을 저지른 곳으로 내가 다시 자리 오겠습니까?(전수연, 1993)
- 자. 깊은 잠을 따간 야속한 님을 그리어/그런 무서운 길에 자러오겠습니까?(임기중, 1993)
- 차. 잠따간 내 임을 생각하지만/그이야 열명 길에 자러올까나(박병채, 1994)
- 카. 잠을 앗아간 내 님을 생각하지만/그러한 저승길에 자리 오시겠습니까?(최철, 1996)
- 타. 넌즈시(슬며시) 너우지 잠 빼앗아간 내 님을 생각하였는데 열명 길에 자러 오겠습니까.(최용수, 1996)
- 파. 내 잠을 빼앗아간 님을 생각하니 그러한/지옥길에 (누가) 자리 오겠습니까(박한진, 1998)
- 하. 슬며시 잠 앗아간 (당신을) 내 님을 생각해서/그러한 어둡고 무서운 길에 내가 자려고 오겠습니까?(강명혜, 2002)
- 거. 잠 앗아간 내 님을 생각하여 깃든/열명길에(님이 설마) 자러 오겠는가?(최철 · 박재민, 2003)

위에서 제시된 해석 대부분은 ‘내 님이 ‘잠을’ 따가거나(31가, 마, 자, 차), 앗아가거나(31바, 카, 하, 커), 빼앗아간(31라, 사, 타, 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기의 어석인 양주동(1954/1995)의 ‘摘去’와 박병채(1998)의 ‘따간’ 영향이다. 이와 다른 해석으로는 ‘슬그머니 잠겼다가 간’(31나), ‘자고서 가신’(31다), ‘머물다가 간’(31아)이 있다. (31)의 예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후행하는 요소인 ‘간’을 동사 ‘가-’의 관형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용에 관한 해석은 ‘잠짜간’을 ‘잠짜’와 ‘간’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는 데 무리가 없음을 보여 준다.

위의 논의의 결과는 향가와 구결 및 한글 자료에 나타나는 ‘-따다’는 주어(화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예정)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잠짜간’은 ‘가-’에 ‘-口짜’가 직접 결합한 ‘감짜’는 주어(화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예정)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분석 방법은 ‘잠짜’의 ‘-다’를 종결어미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잠짜’의 ‘-다’로 문장이 종결된 후 종결된 문장에 다시 동사 ‘간’이 결합하는 통사적 파탄이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거친 방법이긴 하지만 ‘잠짜’와 ‘간’의 사이에 인용의 기능을 하는 ‘하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는 ‘간’이 ‘잠짜’에 직접 결합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더 타당할 수 있다.

(32) 가. 잠짜간 내님을 너겨/깃든 열명길헤 자라 오리잇가(履霜曲 4)

나. 자겠다(자야 한다)고 간 내 님을 (생각하여)/그러한 열명길에 자러 오겠습니까?

‘잠짜 간’을 양태 의미를 가지는 ‘자겠다고 간/자야 한다 하고 간’의 의미로 분석한다면 (32가)의 구절은 (32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결국 履霜曲에 나타난 ‘잠짜간’은 양태 의미와 관련한 ‘-따다’의 형태가 유지된 고려시대의 문법 형태를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참고문헌

- 강영(1998),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말어미 연구, 국학자료원.
- 고영근(2010),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창수(2013), 고려가요 해석의 몇 논점,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5-21면.
- 김명준(2008), 개정판 고려 속요 집성, 도서출판 다운샘.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응모(2011), 고려가요의 낱말발 연구, 박이정.
-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원, 121-205쪽.
-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313-338면.
- 안병희·이광호(1992),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주동(1954/1995), 여요전주(정보판, 을유문화사), 양주동 전집 2, 동국대학교 출판부.
- 윤영옥(1991), 고려시가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등룡(2010), 여요석주, 한국학술정보.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이승재(1998), 고대국어 형태<<국어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원, 41-75쪽.
- 이현희(1995), 국어 문법사 기술의 연속성과 관련된 한두 문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창과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논문.(박진호 2008 재인용)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국어학회.
-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제25집, 국어학회, 221-265면.
- 최동주(1996), 중세 국어 문법<<국어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중세국어>>, 국립국어원, 152-209쪽.
- 최미정(2017), 고려가요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확산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제35호, 국문학회, 7-35면.
- 최철(1996)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 최철·박재민(2003), 석주 고려가요, 이회문화사.

고려가요의 해석과 문학적 저변

박재민(숙명여대)

1. 들어가며

모든 대상은 다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쪽 측면에서 보면 꼭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저쪽 측면에서 보면 꼭 저렇게 생긴 것만 같다. 문학 작품에 구사된 언어의 의미도 또한 마찬가지라서 이쪽 측면을 보면 꼭 이런 듯한데, 저쪽 측면을 보면 꼭 저런 듯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고려가요의 어휘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견고한 어학적인 위치에서 본다면 꼭 A로 해석되어야 할 것들이, 신축성 있는 문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꼭 B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 적지 않다. 본고는 고려가요의 시어 중 어문학적 주목을 받았던, 그러나 대립된 결과를 내었던 어휘 2건에 대한 문학·문화적 견지의 검토이다.

필자는 그간 고려가요의 해석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당대의 향유 정황을 보다 적절히 파악하는 데 몰두해 왔는데, 이번 발표를 맞아 어문학적 논쟁이 일어난 것 중, 문학적 저변을 고려할 때 함의가 보다 더 잘 보이는 어휘를 추려 보았다. 기왕의 논의를 다시 꺼낸다는 주저함이 있으나, 그간 논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도 삼고, 학문이 세분화됨에 따라 어문학적 소통이 드물게 된 현재 상황에서 어학의 현장에서 직접 고견을 듣는 기회도 되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본다.¹⁾

2. 본론

2.1. ‘딩’과 ‘돌’, 그리고 문화적 低邊

‘딩·돌’은 鄭石歌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 구절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 〇와지이다 <악장가사>

양주동이 이른 시기에,

「딩」은 「鉦」, 「돌」(石)은 「磬」. ... 「딩아 돌하」는 金·石 樂器를 擬人的으로 呼格化한 것. 本條의 「딩·돌」은 本歌名稱에 「鄭·石」으로 記寫되었는데 「鄭」은 「鉦」의 戲借이다.²⁾

1) 본고의 ‘딩·돌’에 대한 해석은 「정석가 주식 채고와 문학적 향방」(『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학회, 2012)에서, ‘곰비·님비’에 대한 해석은 『석주고려가요』(최철·박재민, 이회, 2003)에서, ‘분디나무’에 대한 해석은 「동동의 어석과 문학적 향방」(『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4)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2) 양주동,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335면.

라고 ‘딩’을 軍樂器의 하나인 ‘징’, ‘돌’을 宮中樂器의 하나인 ‘경쇠[磬]’로 해석한 후, 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기도 하고, 반박되기도 하며 어석의 주요 논쟁처가 되었다. 특히 어학적 견지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그 중 두 어학자의 새로운 해석을 들면 다음과 같다.

鄭石은 사람의 성명이라고 본다. 즉, 정석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이요, 이 노래는 그이를 위해서 읊은 것으로, ‘딩’은 ‘鄭’의 한자음을 오기한 것이고, ‘돌’은 그의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³⁾

필자는 먼저 ‘딩아 돌아’의 ‘딩’과 ‘돌’을 각각 독립된 두 인물로 상정함으로써 종래의 해석자들과 방향을 달리한다. ...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귀한 우상으로 간직되어 오는 현인, 성자 또는 영웅급의 사람들인 것이다.⁴⁾

이 두 설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해당 구절을 “人名”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아마 ‘딩’과 ‘돌’에 호격조사가 붙어 있는바, 호격조사가 접속되는 어법 환경으로는 人名이 가장 보편적이기에 그 점에 이끌리지 않았던가 한다. 또 만약 이 어휘들이 ‘鉦’과 ‘磬’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라면 직접 ‘鉦磬歌’라고 하면 그만이지 우회하여 이를 어렵게 표기하지는 않았을 것⁵⁾으로 어학자 특유의 간결한 언어감각도 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문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이 어휘들이 ‘악기들을 호칭한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풀이에는 어학자들이 간과한 중요한 문화적 저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바로 정석가라는 노래가 지어진 시대적 배경이 악기를 정비함으로써 先王의 시대를 구가하고자 했던 조선 초기라는 점과, 정석가가 임금의 앞에서 공연되던 노래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왜 여기에 나타난 ‘딩’과 ‘돌’이 ‘악기’⁶⁾일 수밖에 없는지 (1) 악기와 先王聖代, (2) 쇠종과 돌종의 대응, (3) 종소리와 ‘딩’의 대응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1.1. 악기와 先王聖代

먼저 이 구절의 첫 머리를 “두 악기의 호칭”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악기’와 後句에 나타난 ‘先王’이 지닌 강한 문화적 친연성 때문이다. 정석가가 지어진 조선 초는 전면적인 유교질서의 정비 시대로서, 정비 중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는 ‘樂’이었다. 그들은 음악을人間과 神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보았으며 그것을 통하여 현재와 과거, 地上과 天上이 소통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 즉, 음악이 울리면 그 공간은 현재의 공간이자 과거의 공간이고,

3) 김형규, 『고가요주해』, 일조각, 1971, 329면.

4)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73-274면.

5) “‘징’이나 ‘경’을 나타낼 목적이면 정직하게 ‘鉦’과 ‘磬’을 써서 ‘鉦磬歌’라고하면 될 것” <김완진 상계서 269면.>

6) 악기임을 최초로 언급한 이는 양주동이다. 전술했듯이, 그는 ‘딩’을 ‘징’, ‘돌’을 ‘編磬’일 것으로 보았다. 악기로 읽어 낸 것은 탁견이나, 다만 악기의 종류로까지 세분해 본다면 약간의 착오가 있다. 문헌을 살펴 볼 때 정석가의 두 악기는 ‘(編)鐘[딩]’과 ‘(編)磬[돌]’이다. 양주동의 지목한 ‘징’은 일반적으로 鼓와 짝이 되는 악기로, 이 둘은 옛 문헌에서 “鉦鼓”로 관용된다. 鉦鼓는 전쟁터에서 주로 군사의 進退를 알리는 용도로 쓰이는 軍樂器들이다.

7) “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가 명령을 받들어 서문을 짓기를 “음악은 聖人의 性情을 기르고, 神과

지상의 세계이자 천상의 세계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문헌에는 “음악을 정비함으로써 先王들의 제도와 세계를 재현하자”라는 내용의 표현들이 다음과 같이 자주 나타난다.

(1) 先王이 음악을 만들 적에 12律로써 … 하였으니, 하늘의 도리[天道]인 것이다. 그렇다면, 12辰으로써 鐘磬과 樂懸의 위치를 바르게 한 것이 어찌 다른 이유이겠는가? 〈세종실록 권128〉⁸⁾

(2) 음악의 제도는 원래 12辰을 본받은 것이니, 一辰마다 編鍾 하나와 編磬 하나를 설치하고, 그 편종과 편경의 사이에 鍾 하나와 磬 하나를 설치하되, 子의 위치에는 黃鍾音으로 하고, 丑의 위치에는 大呂音으로 하고 … 나머지도 다 이러하니 이것은 先王의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軒架樂은 一位마다 다만 編鍾과 編磬만을 설치하고 位에 따라 本律에 해당하는 鍾은 없으니, 先王이 법을 취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를 갖추어 주조하여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⁹⁾

인용한 (1)의 첫 머리에 음악과 관련되어 ‘先王’이라는 말이 나타난다. 여기서의 선왕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堯舜 시대의 요순 등을 칭하는 말인데, 이로 그들이 믿었던 음악, 하늘의 도리, 선왕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한 (2)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음악에 정통했던 박연의 말인데, 지금 우리의 음악제도는 선왕의 뜻에서 어긋난 바 있으므로 악기를 갖추으로써 선왕의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역시 음악을 선왕의 태평성대로 들어가게 해 주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석가 첫 머리는 본격적인 노랫말들이 오기 전의 序詞¹⁰⁾로서, “악기들이 구비되었습니다. 선왕의 성대에서 노닐고 싶습니다”라고 아뢰는 말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1.2. 쇠종[鍾]과 돌종[磬]의 대응

그렇다면 왜 악기를 칭함에 북도 아니고, 거문고도 아닌, ‘당’과 ‘돌’이 호명된 것일까? 그 까닭은 물론 ‘당’과 ‘돌’로 표상된 악기가 당시 악기를 대표할 자질을 지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과 ‘돌’이 표상하는 악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위 (1), (2)의 인용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위를 다시 보면, 先王의 제도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鐘과 磬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 거듭 나타나고 있다. (1)의 ‘鐘·磬’, (2)의 鍾과

사람을 화합하고, 하늘과 땅을 순조롭게 하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후략)…”(雅樂譜成. 鄭麟趾奉教序曰“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 …(後略)…”)” 〈世宗實錄 卷5권, 12年 閏12月 1日 丁酉〉

8) “先王作樂, 以十有二律 …天之道也. 然則以十有二辰正, 鐘磬樂懸之位, 豈他故哉!”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編鐘〉

9) “堯又云 樂懸之制, 本取法於十二辰, 每一辰, 設編鍾一架, 編磬一架, 又編鍾編磬之間, 設一鍾一磬. 子位則黃鍾聲, 丑位則大呂聲 … 餘位如之. 此先王之制. … 我朝軒架, 每一位只設編鍾編磬, 而無逐位本律之鍾, 有違先王取法之意. 願備鑄以復古制.” 〈世宗實錄 卷47, 12年 2月 19日 庚寅〉

10) 動動의 첫머리와 같은 역할이다. 즉, 본격적인 노래들이 시작되기 전에, 악공들이 나와서 “德은 금박에서 받고, 福은 림비에서 받아 덕과 복이란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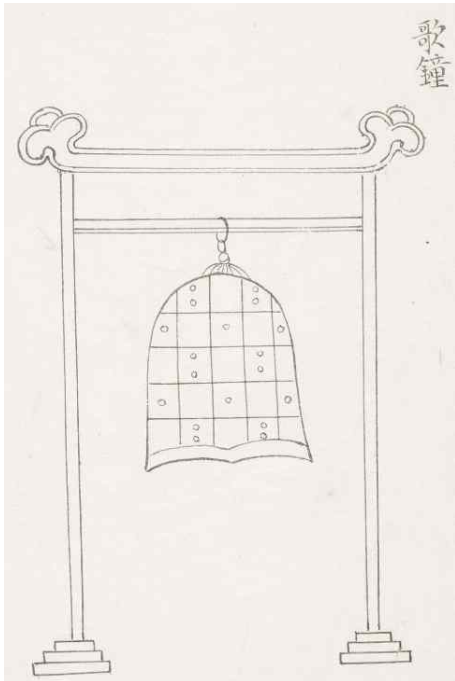
磬 또는 編鐘과 編磬이 모두 그 악기들로서, 우리말로 바꾼다면 쇠종과 돌종이라 할 수 있다. 쇠종[編鐘], 돌종[編磬]이 악기 편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은 雅樂譜에 나타난 정인지의 다음 서문에서도 볼 수 있다.

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가 명령을 받들어 서문을 짓기를
“음악은 聖人이 性情을 기르고, 神과 사람을 화합하고, 하늘과 땅을 순조롭게 하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40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雅樂을 갖추지 못하였다. … 마침내 신 등에게 명하시어 옛 음악을 고치게 하였다. 지금 奉常寺에 보존된 악기는 고려 예종 때에 송의 휘종이 준 編鐘과 공민왕 때에 고황제가 준 鍾과 磬 수십 개가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 또 태종 문황제가 준 鍾과 磬 수십 개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編鐘을 만들고, 좋은 돌을 南陽에서 얻어 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새로워졌다.¹¹⁾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12월 1일 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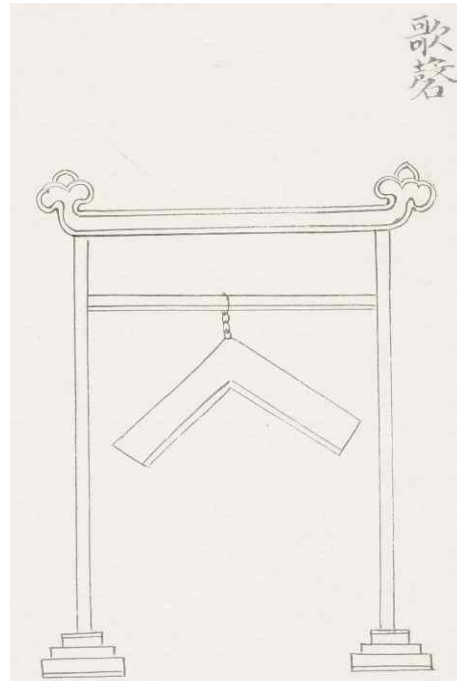
쇠종과 돌종이 당시 음악 편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그림으로도 여러 번 강조되어 나타난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악기들은 樂隊의 버리[綱]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악기 배치의 기준이 되어 주고 있는데, 아래는 세종실록에 나타난 그에 관련된 그림들이다.

11) “雅樂譜成. 鄭麟趾奉教序曰 “樂者, 聖人所以養性情, 和神人, 順天地, 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垂四十年, 而雅樂尙有未備. … 乃命臣等, 釐正舊樂. 臣等竊觀今之奉常寺所存樂器者, 在高麗睿宗時, 宋徽宗所賜編鐘 恭愍王時, 高皇帝賜與鍾磬, 共數十枚, 及我朝, 又有太宗文皇帝賜與鍾磬數十枚而已. 今因其聲, 以鑄編鐘, 得美石於南陽, 以造編磬, 樂器俱新.”)” 〈世宗實錄 卷5권, 12年 閏12月 1日 丁酉〉

(1) 歌鐘과 歌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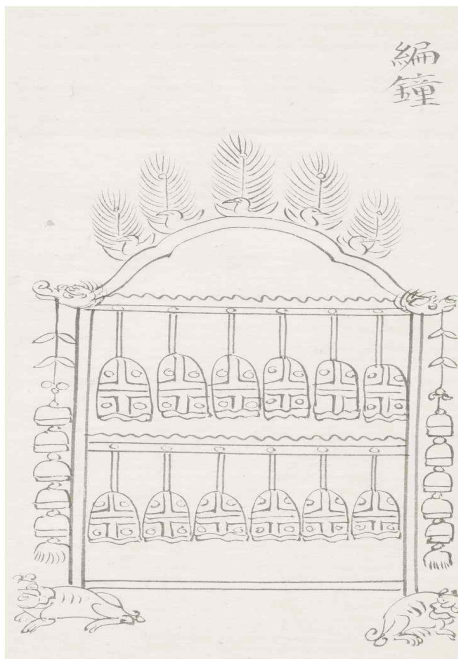


歌鐘 〈世宗實錄 卷128, 樂器圖說, 歌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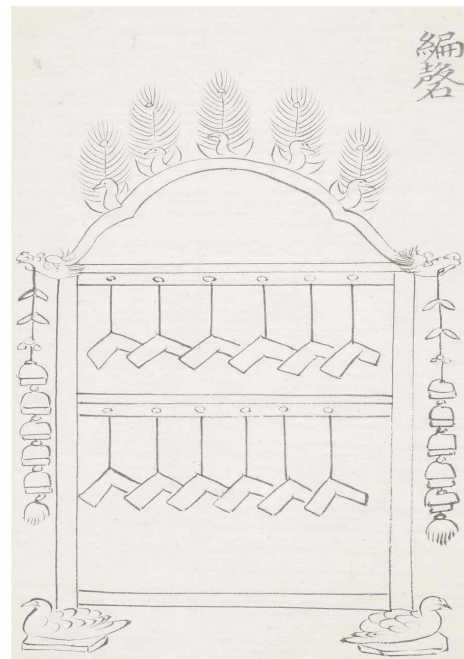


歌磬 〈世宗實錄 卷128, 樂器圖說, 歌磬〉

(2) 編鐘과 編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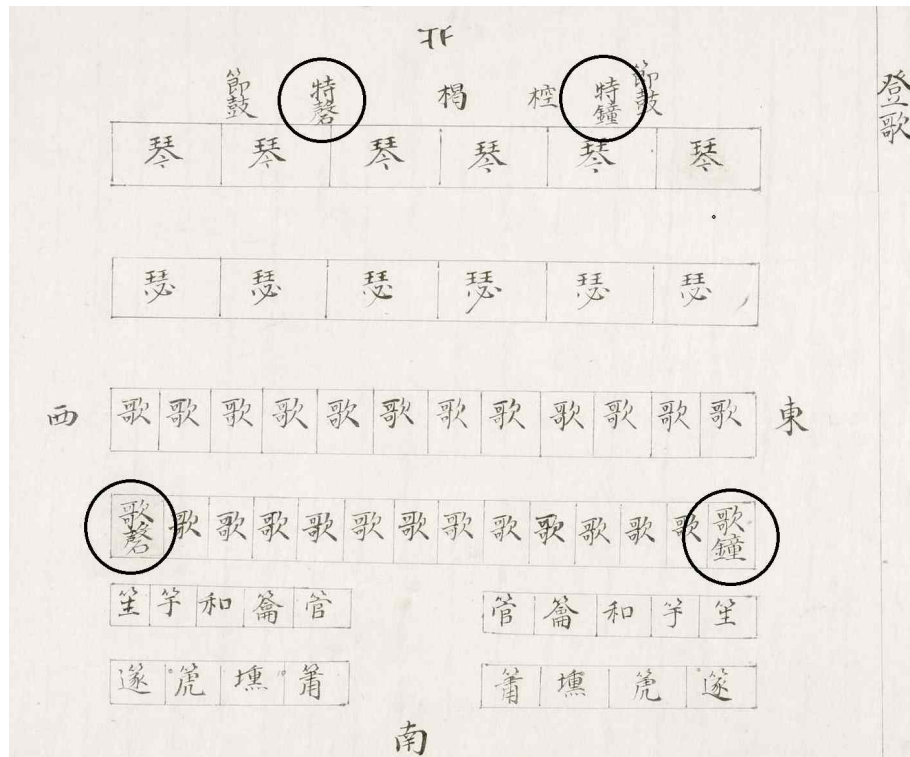


編鐘 〈世宗實錄 卷128, 樂器圖說, 編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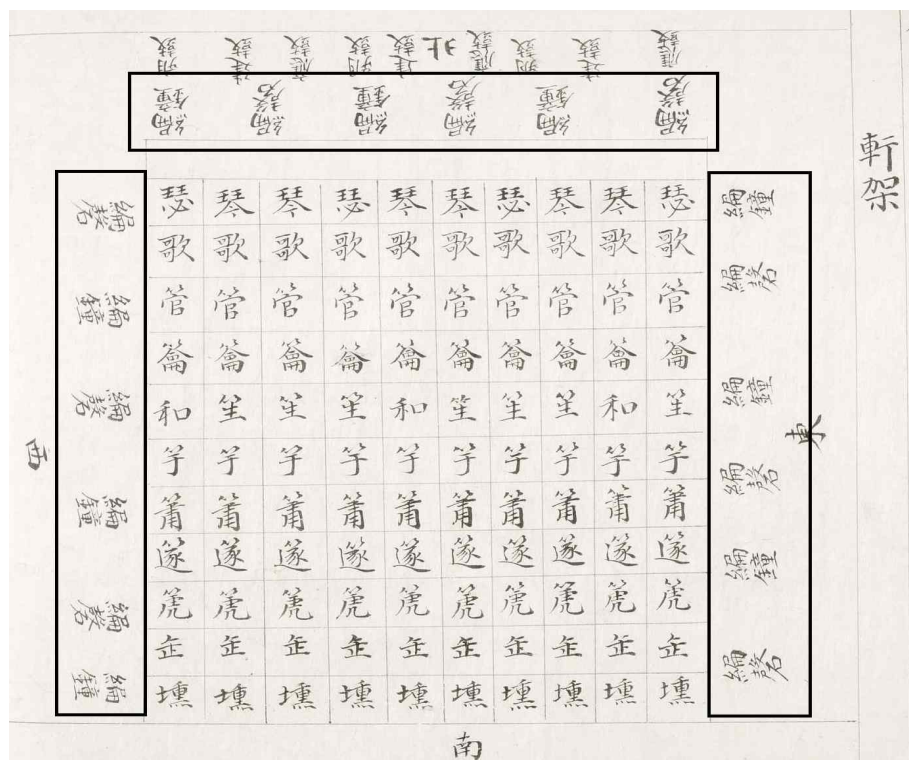
編磬 〈世宗實錄 卷128, 樂器圖說, 編磬〉

(3) 악기의 배치 1. (登歌, 동그라미는 필자)



編鍾과 編磬의 배치 <世宗實錄 卷132, 五禮 嘉禮 序例, 악현도>

(4) 악기의 배치 2. (軒架, 네모들은 필자)



編鍾과 編磬의 배치 <世宗實錄 卷132, 五禮 嘉禮 序例, 악현도>

(1)은 歌鐘과 歌磬에 대한 그림이다. 노래를 위한 鍾이므로 이름을 ‘歌鐘’이라 하였고, ‘歌磬’이라고 하였다. 鍾은 字形에서도 드러나듯이 쇠로 된 악기이고, 磬 또한 字形에서 보이듯이 돌로 된 악기이다. 그러니 歌鐘은 “노래를 위한 쇠로 된 종”인 것이고, 歌磬은 “노래를 위한 돌로 된 종”인 것이다. (2)는 編鐘과 編磬에 대한 그림이다. 쇠종을 여러 줄로 엮어 두었으므로 ‘編’이라는 말을 넣어 ‘편종’이라 칭하였고, 돌종을 여러 줄로 엮어 두었으므로 ‘編磬’이라 하였다. (3)과 (4)는 등가와 헌가의 악기 배치에서 鍾과 磬이 하는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등가의 경우 北面 즉, 임금의 방향에 가장 가까이 좌우로 배치된 후, 후방에서도 東西의 가장 기둥이 되는 부분에 위치해 전체적인 악기 배치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헌가의 경우 또한 (필자가 표시한) 네모 위치들에 번갈아 놓임으로써 전체 악단의 버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정석가의 서사 “딩아 돌하”는 악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악기 “쇠종[鍾]”과 “돌종[磬]”을 대유적으로 부른 말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2.1.3. 종소리와 ‘딩’의 대응

그런데 여기서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만약 노래의 서두에서 쇠종(歌鐘이나 編鐘)과 돌종(歌磬이나 編磬)이 구비되었음을 알리고자 했다면 왜 ‘鍾이여’ ‘磬이여’라든가, ‘쇠여 돌이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일 터인데.

이 점에서 고려가요의 완전한 해독은 어학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의 양 날개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어학적 표현이 선호하는 것은 지시적이고 간명한 표현일 테지만, 문학적 표현이 선호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환기적인 표현인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다양한 의미를 환기시키며 의미 이외의 여운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적으로 본다면 대유법과 같은 것이 後者の 대표가 될 것이다.

당시, 혹은 동양의 언어생활에서 그러한 대유법은 적지 않게 보인다. 그중, 악기들을 ‘金石’이라고 부른다는가, ‘絲竹 · 管絃’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습화된 대유법 중의 하나였다. 악기의 재료로써 그 악기를 환기시키는 기법인 것이다. 다음 사례들은 ‘金石’이라는 어휘로써 악기를 총칭하던 그들의 언어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1) 돌을 치고 돌을 어루만지자, 온갖 짐승들이 모두 따라서 춤을 추다. (於予擊石拊石, 百獸率舞) 〈書經, 益稷〉
- (2) 대를 불고, 실을 타고, 쇠를 두드리고, 돌을 때리는 것을 듣다. (聽吹竹彈絲敲金擊石) 〈한유(韓愈, 768~824), 代張籍與李浙東書, 唐大家韓文公文抄 卷3, 書〉
- (3)聲調가 모두 맞고 환하게 윤품이 도는 가운데 쇠와 돌의 운율이 있었다. (故其聲調諧協, 色澤朗潤, 有金石之韻) 〈溪谷先生集 卷7, 芝峯集序〉

(1), (2), (3)에 나타난 ‘쇠(金)’와 ‘돌(石)’은 모두 악기의 재료를 칭함으로써 그 소재로 된 악기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정석가에 나타난 ‘돌’ 역시 이러한 언어적 관습의 반영으로 보아 무리 없을 것이다. 즉, 돌로 된 악기를 칭하는 말 ‘石’이 바로 정석가의 노랫말에서 ‘돌’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딩과 돌’의 ‘돌’이 당시 악기의 편제상으로 보나, 언어적 관습으로 보나 돌종인 ‘磬’을 칭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할 때, 앞의 ‘딩’ 또한 쇠종 ‘鍾’을 칭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럴 때 다음 용례들은 ‘鍾’소리와 ‘딩’음의 일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 (1) 夜中睡覺，臥聞丁東響。始謂後菴鐘聲。： 밤중에 잠이 깨어 누워 있노라니 “丁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뒤의 암자에서 나는 종소리라고 생각했다. <김창업(金昌業, 1658~1721), 燕行日記 卷9, 癸巳年 3月>
- (2) 鼓鐘鏘鏘： 종을 치니 그 소리 “鏘鏘”하다 <成宗實錄, 4年 癸巳 1月 9日>
- (3) 淒音廖亮金錚錚： 처량한 음 쓸쓸하여 쇠 소리 “錚錚”하네 <김성일(金誠一, 1538~1593), 鶴峯全集, 鶴峯逸稿 卷1, 詩, 有聖畫>
- (4) 鏗鏗晚鐘動： “鏗鏗” 저녁종이 울리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茶山詩文集 卷5, 詩, 滯寺六月三日值雨>

위의 용례들에는 모두 鍾소리의 의성어가 나타나 있다. (1)의 덩동(丁東)¹²⁾, (2)의 장장(鏘鏘)¹³⁾, (3)의 징징(錚錚)¹⁴⁾, (4)의 킁킁(鏗鏗)¹⁵⁾ 이 그것인데, 이들의 음은 대체로 “혀끝소리 ~ 경구개음 ~ 연구개음 + 끝소리 ㅇ”의 음역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석가의 첫머리에 나타난 ‘딩’도 ‘쇠종 소리’의 음역에 부합하는 것¹⁶⁾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종소리의 형용으로도 쓰이던 ‘鏗’은 현악기의 높고 맑은 소리를 형용할 때도 쓰였는데, 그 현악기의 소리를 형용할 때, 우리말 ‘딩’으로도 표현되기도 하였으니, 이 추정은 역사적 흔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如聽琴瑟聲鏗鏗： “鏗鏗”하는 금슬의 소리 듣는 듯하네 <변계량(卞季良, 1369~1430), 春亭先生詩集 卷1, 詩, 次陽谷韻>
- (2) 琴…其制猶屬古雅，音韻鏗越，若金石聲： 거문고…모양은 古雅하였고, 소리는 “鏗” 울려 퍼져 마치 쇠와 돌소리 같다. <홍대용(洪大容, 1731~1783), 湛軒書外集 卷10, 燕記>
- (3) 姜允元氏 스크렝 “딩”소리 듯괴야 줌 드로리라 <김구(金絿, 1488~1534), 自菴金先生文集 卷2, 別曲, 火田別曲>

소결하자면, ‘딩, 돌’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저변을 고려해서 볼 때 ‘악기의 대유’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쇠악기 소리를 ‘딩’이라 대유적으로 표현하고, 돌악기를 ‘돌’이라 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다시 의인화한 결과가 바로 ‘딩아 돌하’인 것이다. 어학적인 견지에서는 경제적이지 않은, 균형이 맞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될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는 ‘鍾 = (쇠) = 딩’, ‘磬 = 돌’이 성립하기에 문학적 견지에서는 문학적 함의를 지닌 흥미로운 표현 중의 하나라 평가된다.

12) “丁 손 덩” <훈몽자회(1527) 中:2a>, “東 동녘 동” <훈몽자회(1527) 中:4a>

13) “鏘 첫 소리 장” <신증유합(1576) 下:55a>

14) “錚 징 징” <칠장사판 유합(1661):18a>

15) “鏗 첫 소리” 킁 <신증유합(1576) 下:55a>

16) 쇠종소리를 나타내는 음은 때로는 거문고 소리를 형용하는데 쓰이기도 하였는데,

2.2. “곰비 · 림비”의 해석과 문화적 低邊

『악학궤범』 권5에 수록된 〈動動〉은 님에 대한 송도의 마음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의 白眉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난해어구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본장에서 다룰 곰비 · 림비 또한 그런 어휘 중의 하나가 된다. 이 어휘가 나타나는 문맥은 다음과 같다.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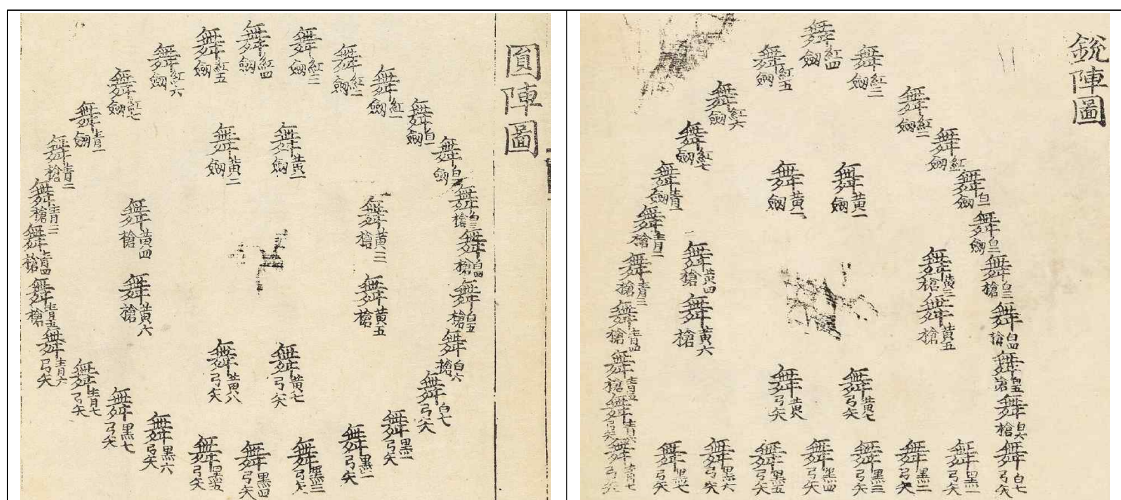
이 어휘에 대한 주요 해석자들의 견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양주동(1947, 72-74면) : 「곰비」 아마 「後杯」의 義, 「림비」 아마 「前杯」의 義
박병채(19768, 66면) : 「곰」은 뒤 또는 神靈을 뜻하는 명사, 「비」는 名詞에 붙는 語幹形成 接尾辭, 「림」은 「앞」 또는 「임 · 임금」을 뜻하는 名詞.
김완진(2001, 354면) : 곰비 - 물건을 안기 위하여 팔을 안으로 굽혀 고정시킨 자세, 림비 - 福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유한 자세, 또는 특정한 부위 자체의 이름.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모두 어형의 분석을 통한 어학적 견지에서서의 제안들이 된다. 하지만, 문학적 정황을 다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곰비 · 림비’는 모두 仙界의 공간으로 ‘德의 발원과 관련한 곳’, ‘福의 발원과 관련한 곳’으로 추정된다. 동동은 춤과 노래가 뒤섞인 畵才의 하나인데 이러한 정재의 특성을 살피다 보면 ‘곰비’와 ‘림비’가 仙界의 특정 공간인 듯한 단서가 희미하게나마 포착된다. 이하에서는 정재로서의 동동을 살펴 序詞를 재해석한 후, 이를 통해 ‘곰비, 림비’의 의미가 선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문증한다.

2.2.1. 畵才로서의 동동과 序詞의 성격

문학하는 이들에게, 동동이 고려시대와 조선초의 畵才에서 불리던 노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종묘 제례나 연희의 현장에서 그들은 노래와 춤의 결합체인 畵才를 향유했는데, 동동은 유명한 정재곡 중의 하나였다. 아래는 악학궤범에 소개된 정재의 대열들이다.



〈樂學軌範(1494) 卷5, 時用鄉樂呈才圖儀〉에서 보이는 정재 형태들

동근 형태로 춤을 추기도 하고, 방추형의 형태로 춤을 추기도 하고, 네모난 형태로 춤을 추기도 했는데, 동동 역시 그러한 문화의 磁場 속에서 향유되던 작품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재들에는 대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致語’라는 짧은 시가 있다. 기녀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공연을 올리겠다고 임금께 아뢰는 말인데,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을 지닌다.

【포구락(抛毬樂)】

기녀 2인이 竹竿子를 받들고 앞에 선다. 음악이 멎으면 “致語”를 외친다. [두 기녀의 입장]

음악이 고운 경치에 울려 퍼지고,	雅樂鏗鏘於麗景	
妓童은 향기로운 섬돌에 늘어섰습니다.	妓童部列於香階	
아리따운 자태를 올리고	爭呈婬妲之姿	[치어]
빙빙 돌면서 함께 춤을 드리웁니다.	共獻蹁躑之舞	
무대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셔서	冀容入隊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주옵소서.	以樂以娛	

마치면 좌우로 나누어 선다. 악관이 절화령을 연주하고 … 연주가 끝나면 折花令三臺詞를 부른다.¹⁷⁾ [장면 전환과 본사의 시작]

〈高麗史 卷71, 志25, 樂2, 唐樂, 抛毬樂〉

한편, 동동도 정재의 하나이므로 위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두 기녀가 앞으로 나와 공연의 목적을 아뢰는 “起句(序詞)”를 부르고, 이것이 끝나면 장면을 전환하여 本詞로 진입하는 것이다. 『악학궤범』에 소개된 동동의 정재 진행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動動】

음악이 동동 만기를 연주하면 두 명의 기녀는 머리를 약간 들어 “起句”를 부른다. [두 기녀의 입장]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起句]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마치면 무릎을 꿇고 아박을 들어 허리에 꽂는다. 손을 모으고 일어나 발을 구르면, 모든 기녀가 노래한다. 正月入 나릿 뜨른…¹⁸⁾ [장면 전환과 본사의 시작]

〈樂學軌範 卷5, 牙拍〉

17) “妓二人奉竹竿子，立于前。樂止，口號致語曰，雅樂鏗鏘於麗景，妓童部列於香階。爭呈婬妲之姿，共獻蹁躑之舞。冀容入隊，以樂以娛。訖，左右分立。樂官又奏折花令 … 樂止，唱折花令三臺詞。” 〈高麗史 卷71, 志25, 樂2, 唐樂, 抛毬樂〉

이런 대비로 본다면, 동동의 서사에는 임금(혹은 관람자)께 공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이 감지된다.

2.2.2. 序詞의 재해석과 “곰비·림비”의 성격

정재로서의 동동을 감안할 때, 그간 동동의 서사에 대한 해석은 未盡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해석을 유심히 보면 청자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발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잘 그려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보인다. 많이 알려진 해석들을 골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양주동 : 德으란 後杯에 드리고, 福으란 前杯에 드리고
德이여 ! 福이여 ! 한 것을 드리러 옵시다¹⁹⁾

박병채 : 德을랑 神靈에 바치웁고 福을랑 임금에 바치웁고
德이나 福이라 한 것을 進上하러 오십시오.²⁰⁾

김완진 : 德으란 곰비(팔을 굽힌 자세)에 반죽고 福으란 림비(복을 담아 받들기 위한 자세)에 반죽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왔습니다.²¹⁾

양주동과 박병채의 해석의 첫 번째 문제는 청자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어구가 공히 “오십시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致語가 불리는 공간을 상기할 때, 적절한 해석은 될 수 없다. “드리러 옵시다”를 공연 현장에 대입시키면 함께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되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치어는 기녀 두 명이 앞으로 나와서 임금께 공손히 아뢰는 말인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청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완진의 “왔습니다”는 자연스럽게 현장 상황에 적용됨을 본다. 두 기녀가 앞으로 나와 “덕과 복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노래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보아 손색이 없는 것이다.²²⁾

이 해석들의 두 번째 문제는 발화자의 행동 흐름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정재에서는, 기녀 둘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임금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동동의 해석들에서는 받는 과정은 없고, 前句에서도 드리고, 後句에서도 거둬 드리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결국 종래의 해석은 김완진에 의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공연의 정황이 선명히 그려진 해석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18) “樂秦動動慢機，兩妓小學頭唱起句。德으란곰비에반죽고福으란림비에반죽고德이여福이라호놀나스라 오소이다아으動動다리. 訖，跪取牙拍，掛插於帶間，斂手起立足蹈，諸妓唱詞 正月入” 〈樂學軌範 卷5, 牙拍〉

19) 양주동(1947) 상계서, 71-78면.

20) 박병채(1968) 상계서, 65-73면.

21) “오소이다”는 김완진 상계서(2001) 278-281면), “곰비·림비”는 같은 책 345-352면.

22) 김완진은 어학적 분석을 통하여 “오소이다”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공연의 정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관련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오소이다”는 ‘왔습니다’의 뜻이고, 이 문장 즉 서장의 주체인 ‘나’는 ‘동동’이라는 연회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인물이다. 어느 제3자에게 덕과 복을 진상하러 오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의 주관자가 관중들에게 선사할 덕과 복을 가져왔노라고 무대에 나서며 선언하는 장면인 것이다.” 상계서 280면.

그렇다면 동동 서사의 정황을 보다 선명이 파악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발표자는 문학 언어끼리의 비교를 통해 하기를 제안한다. 정재라는 공통점, 치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대의 공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치어들끼리 유사한 점들이 있을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볼 때, 다음의 정재 <헌선도>의 치어는 동동의 서사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한다. 임금의 福을 받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동동의 서사와 상당히 유사한 일면이 있기 때문이다.

【헌선도(獻仙桃)】

두 명이 먼저 춤을 추면서 들어와 좌우로 나누어 선다. 음악이 멎으면 “致語”를 외친다. [두 기녀의 입장]

머나먼 龜臺에 있다가	邈在龜臺	
鳳闕에 왔습니다.	來朝鳳闕	
千年의 아름다운 열매를 받들고	奉千年之美實	[치어]
萬福의 좋은 祥瑞를 드리고자,	呈萬福之休祥	
감히 龍顏을 뵈옵고	敢冒宸顏	
삼가 口號를 올리나이다.	謹進口號	

마치면 좌우로 마주보고 선다. ... 왕모는 쟁반을 받들고 獻仙桃를 부른다.²³⁾ [장면 전환과 본사의 시작]

〈高麗史 卷71, 志25, 樂2, 唐樂, 獻仙桃〉

이 치어는 기녀 두 명이 스스로를 선녀로 설정하고 “귀대에 있다가 궁궐로 왔음”을 고한 후, 귀대에서 가져온 “두 가지 좋은 것 - 천년의 아름다운 열매[千年之美實]와 만 가지의 복[萬福之休祥]”-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이 동동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를 구조화하여 비교하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포구락도 유사하므로 참조를 위해 넣음)

23) “二人先舞蹈而入, 左右分立. 樂止, 口號致語曰. 邈在龜臺 來朝鳳闕 奉千年之美實 呈萬福之休祥 敢冒宸顏 謹進口號. 訖, 左右對立. ... 王母奉盤, 唱獻仙桃” 〈高麗史 卷71, 志25, 樂2, 唐樂, 獻仙桃〉

	현선도	동동	포구락
누가	妓女二人	舞妓二人	妓女二人
어디에서	귀대(龜臺)에서	곰비 · 림비에서	×
무엇을	천년의 과일(千年之美寶), 만복의 조짐(萬福之休祥)	德 · 福을	아리따운 자태(倬妁之姿) 춤(蹁躚之舞)
어떻게	×	받습고(受)	×
왜	奉하고, 모하러	나스라(進上)	모하고 獻하러
기타	용안을 뵈습니다	오소이다(왔습니다)	놀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도표는 동동 서사의 전체적인 흐름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곰비’, ‘림비’의 성격 추정에도 큰 암시를 준다. 즉 동동 서사의 문맥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교정될 수 있으며,

德으란 곰비에 받습고 福으란 림비에 받습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덕은 곰비에서 받고 복은 림비에서 받고 덕과 복이란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²⁴⁾

이럴 때, ‘곰비 · 림비’는 “德과 福을 보유한 장소”를 칭하던 死語일 수 있다는 강한 시사를 하는 것이다.

2.2.3. 곰비 · 림비와 仙界

우리는 이상의 문학적 비교를 통하여 서사의 문맥을 바로 잡고, ‘곰비 · 림비’가 덕과 복의 발원과 관련된 공간어임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덕과 복과 관련된 곳이란 어디일

24) “-에”를 처격조사 “-에서”로, “받습다”를 “받다”의 공손형으로, “오소이다”를 현재완료형 “왔습니다”로 풀이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처격조사, ~에서】

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정석가>, 중의 房^애 자노라(宿僧房) <두시초간 9:34b>

【받다, 受】

부텨 密音을 받^츠와 <능엄경언해 7:27a>, 아름다운 일란 받^츠와 순종^호고(將順其美) <소학언해 2:42b>

【오소이다, 현재완료, 왔습니다】

“오소이다”는 ‘왔습니다’의 뜻 <김완진 상계서, 280면>

그^씩 또 遮^頗國과 羅^摩伽^國과 毗^留提^國과 迦^維衛^國 釋^種과 毗^舍離^國과 摩^竭王 阿^闍世^와 다 四^兵 니르^바다 와 香^姓엿 婆^羅門^을 拘^尸城^에 브려 安^否^호고 닐^오디 如^來 그^릿 나라^해 와 滅^度^호실^뿐당 實^엔 우리^들토 울^위습^논 전^초로 舍^利 언^즈바^다가 塔 일^어 供^養^호스^보려 ^호야 머^리서 오^소이다 <석보상절 23:52b-53b>

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아직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몇 가지 흔적들은 天上界, 보다 구체적으로는 仙界를 일관되게 향하고 있다.

우선, 천상계와 연관시킬 여지를 주는 것은 동동 서사 그 자체이다. 선녀를 서정적 자아로 하는 정재 공연에서의 화자가 어딘가에서 德과 福을 받아서 궁궐로 왔다면 그것은 속된 지상계라기보다는 거룩한 천상계의 어느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기록에서, 동동에는 ‘仙語’를 본뜬 말이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사에는 동동의 노랫말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動動 놀이는 그 가사에 송도의 말이 많은데, 대개 신선의 말[仙語]을 본떠 지은 것이다.(動動之戲, 其歌詞, 多有頌禱之詞, 蓋效仙語而爲之) <高麗史 卷71, 志25, 樂2, 俗樂, 動動>

인용에 나타난 “동동놀이[動動之戲]는 바로 동동 정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놀이의 말에 송도의 말이 많았고, 이는 신선의 말을 본떴기에 생긴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의 말이 바로 임금께 드리는 德과 福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런 말이 바로 신선의 말 - 신선모티프가 들어간 말²⁵⁾ - 을 본떴기에 생긴 것이라는 건, ‘곰비 · 림비’ 역시 신선모티프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다음 시조들에 나타나는 ‘림비 · 곰비’도 天上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본다.

天寒코 雪深흔 날에 님 츠즈라 天上으로 갈 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천방지방 지방천방 흔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진본청구영언 542번곡>

天寒코 雪深흔 날에 님 츠즈라 天上으로 갈 지
신 버서 손의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𑖇𑖇𑖇𑖇 天方地方 地方天方 흔

25) “仙語”라는 말은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고려사에서만 2회 나타나는 말이다. 동동과 자하동에 대한 평 가운데서만 나타나는데, 아래의 노랫말을 仙語라고 하고 있음을 본다. 이로 볼 때, 仙語는 구름, 안개, 연수주, 천년의 수명 등 신선모티프 용어들이 자주 구사되는 말들을 칭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자하동
송산의 자하동에 있는 집,
구름과 안개 속의 중화당.
오늘 기영회 있다는 기쁜 소식 듣고는
찾아와서 延壽의 술 한 잔을 올리네.
한 잔에 족히 천년의 수명을 얻을 것이니,
원컨대 그대들은 한 잔에 또 한 잔을 마시시오.

紫霞洞
家在松山紫霞洞,
雲烟相接中和堂.
喜聞今日耆英會,
來獻一杯延壽漿.
一杯可獲千年算,
願君一杯復一杯,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것이다. … 이 노래를 짓고는 여종에게 부르게 하였다. 가사는 모두 “仙語”로서 자하동의 신선에 빗댄 것이다.(蔡洪哲所作也. … 作此歌, 令家婢歌之, 詞皆仙語 蓋托紫霞之仙)
洞>

<高麗史 卷71, 樂2, 俗樂, 紫霞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악학습령 1076번곡>

이 시조의 화자는 그리운 님을 찾아 天上으로 올라가는 旅路에 있는데, 거치는 곳들이 님 뵈, 곶뵈, 천방, 지방 등임을 본다. 명사와 부사의 애매한 겹겹에 있어 부사로 볼 때는 “허둥지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천방지방”이 그러하듯 기원적으로는 일정한 공간지칭어였던 흔적이 완전하다고 하겠다.

3. 결론

이상 두 개의 큰 장으로 구성하여 하나는 정석가의 ‘딩아 돌하’를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동동의 ‘곰뵈, 림뵈’를 다루었다. 이 둘은 그간 문학자들과 어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관심만큼 결과도 다양하여 어학적인 견지에서는 어학적인 결론을 내고 있고, 문학적인 견지에서는 문학적인 결론을 내고 있었다. 여전히 미흡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고는 최대한의 자료를 반영하여 해석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학적인 저변보다는 문학적인 저변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필자가 어학자들에게 하나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우리는 어석을 할 때 대부분 어학 자료를 활용하여 견고한 결론을 내려왔다. 그 효율성과 장점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학적 자료가 자료의 절벽에 다다를 때가 있다. 한 글자, 반 글자의 형태소를 따라 분석해 나가지만, 불운한 어휘의 경우 흔적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 문학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뜻밖의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문학의 저변에 있는 자료들은 정확히 그 뜻을 지목해주지는 않아도 은유적으로, 비교적으로 해당 어휘의 의미를 추정할 다리를 놓아 주기도 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다. 어학적 사고의 견실함이 비록 국어학적 지식의 견실함을 담보해 주고 있지만, 문학의 언어를 볼 때는 보다 넉넉한 태도로 볼 필요가 있다. ‘딩아 돌하’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두 어휘의 대응은 넉넉하게 보면 종과 돌의 대유라 보아 충분하다. 그런데 대유를 함에 왜 전자는 소리로, 후자는 재료로 했는가, 그리니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하는 짝이 아니므로 둘의 대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경직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어학과 문학의 시각은 참으로 다른 점이 많다. 어학은 촌철의 맛이 있고, 문학은 함축의 맛이 있다. ‘오소이다’라는 어휘 하나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냄으로써 동동 머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 어학 연구자의 힘이라면, 약간의 어긋남 정도는 변수로 넣고 보다 큰 틀의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의미망을 좁혀가는 것은 문학 연구자의 힘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전자문헌>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국립국어연구원 제공 21세기 세종프로젝트

<논문 및 저술>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형규, 『고가요주해』, 일조각, 1971.

박병채,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이우출판사, 1968.

박재민, 「정석가 주석 채고와 문학적 향방」,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2.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최철·박재민, 『석주고려가요』, 이회문화사, 2003.

<초청 발표 및 특강>

日本古辞書雑考

— 古辞書と日本語 —

大槻 信(京都大学)¹

1. ■はじめに

本発表では、日本の平安時代（9 世紀から 12 世紀）に成立した古辞書を中心に、それらの辞書の基本的な性格と、我々がそれらの古辞書を研究に使う場合の注意点について考える。その過程で、辞書と漢文訓読との関係についても若干の考察を行う。本発表で扱う問題は、以下の二つに集約される。

- (1) 1 古辞書に日本語が登載されるのはなぜか。
- 2 古辞書に載る日本語を研究材料としてどのように使用するべきか。

2. ■古代日本における辞書

はじめに、以下で言及する平安時代の辞書を年表の形で示す。あわせて、日本の辞書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中国の辞書や、平安時代以前の動きも示しておく。

(2) 【年表】

543 年	<中国>『玉篇』(梁・顧野王)
601 年	<中国>『切韻』(隋・陸法言)
650 年頃	<中国>『一切経音義』(唐・玄奘)
720 年頃	『楊氏漢語抄』(逸書、養老年間成立か)
835 年頃	『篆隸万象名義』(空海)
900 年頃	『新撰字鏡』(昌住)
935 年頃	『和名類聚抄』(源順)
1100 年頃	原撰本系『類聚名義抄』(図書寮本類聚名義抄)
12 世紀後半	改編本系『類聚名義抄』(観智院本類聚名義抄など)
1180 年頃	『色葉字類抄』(橘忠兼、三卷本)

日本における多くの文化的事象と同様、日本の辞書もまた、その源流を中国に上っている。日本人が編纂した現存最古の辞書に『篆隸万象名義』がある。これは中国の辞書『玉篇』を日本の僧・空海(774-835)が抄録したものであり、日本語は一切含まない。完存しない原本『玉篇』の代替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それほどに、最初期の辞書は中国製辞書の強い影響を受けていた。

日本語を含むものとして現存最古の辞書『新撰字鏡』も、主たる材料は中国製の辞書『一切経音義』『玉篇』『切韻』である。和訓(日本語)は全項目の 15 パーセント程度に付されているにすぎない。日本における辞書の歴史は、中国製辞書の移入から始まった。

しかし、ここで重要なのは、日本の辞書が中国製辞書の強い影響下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それは当然のことである。むしろ、そこにとどまらなかったという事実の方がより重要だ。『篆隸万象名義』も『新撰字鏡』も、中国製辞書に基づくとはいえ、決してそ

¹ ootsuki@bun.kyoto-u.ac.jp

のままではない。平安時代の辞書が『玉篇』『切韻』『一切経音義』などを材料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の意味は、そのような中国製辞書を手元に置きながら、それとは異なったものを生み出す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中国から漢字を借用して以来、長く日本において正式な文字・文章は漢字・漢文であった。そのような中であれば、中国製の辞書がそのままに使用されてもよいはずである。実際、辞書をはじめとする小学書は中国から舶載され続け、さかんに利用された。中国に失われ、日本にのみ残るものもあ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製の辞書は、かなり初期から「日本化（日本語化）」している。日本の辞書が、中国辞書の移入・改編にとどまらず、日本化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理由はどこにあったのだろうか。

3. ■訓読み・訓読と辞書

3.1 ●訓読みと訓読

ふるく日本人は文字を持たなかった。はじめて触れた文字は中国の漢字である。使用できる文字・文章が漢字・漢文しかないという状況のもと、日本人には、その後の文字生活のあり方に、二つの選択肢があった。

- (3) 1 中国語を習得する。
- 2 漢字・漢文と日本語とを結びつける。

漢字・漢文の完全な使用のためには、本来、1が望ましい。日本語・中国語のバイリンガルとなるか、使用言語を中国語に切り替えるのである。しかし、言語の切り替えに抵抗が大きいことはもちろん、口頭では日本語を使いながら、文字を読み書きする時には中国語を使うという状態も不自然で負担が大きい。そもそも、古代の日本にあって、口頭言語としての中国語を使用する必要性はそれほど高くなかったであろう。ほしいのは読むため・書くための文字と文章であって、言語としての中国語ではなかった。日本人は2を選択した。個々の漢字と日本語とを結びつける営みが「^{くんによ}訓読み」、漢文と日本語文とを結びつける営みが「^{くんによ}訓読」である。

中国語は孤立語²であり、漢字は表意文字である。語と文字とが基本的に一対一で対応することから、単位はきわめて明瞭である。そのような中、それぞれの漢字に対して、同様の意味を持つ日本語がその漢字の読み方として定着していく（訓読み）。それらの単位を日本語の文法規則に従って並べ替え、助詞・助動詞などの付属語を補ってやればひとまず日本語文となる（訓読）。

3.2 ●漢字と日本語

日本人は、中国語という外国語を言語として習得する道は選ばず、漢字・漢文の力を借りながら、読むことも書くことも日本語を中心に行うことを選択した。漢文を訓読することは、漢文を中国語として理解する回路を断ち、理解や思考は日本語で行うことを意味する。書く時には、たとえできあがり漢文体であったとしても、日本語で内容・文章を考えた上でそれを漢文に改めている³。考えること自体には、外国語である中国語は基本的に介在しないという方法を選んだのである⁴。

² 文法的要素をあまり示さず、実質的な意義を持つ単語だけを連続させる言語類型。

³ もちろん、そこに立ち現れる日本語は漢文訓読の影響を大きく受けた日本語である。また、中国文献の典拠や成句に従い文章を構成する場合や、四六文にする、平仄を整えるといった場合には、日本語を経由しない、あるいは中国語の方が前面に出ることもある。

⁴ 訓読み・訓読については、大槻（2015a）、大槻（2016）を参照のこと。

「訓読み」は、漢字を定常的に日本語化するために、漢字と日本語とを固定的に結びつけたものである。その結びつきが強まると、漢字の背後には必ず日本語があるはずだ、あるいは、日本語であれば漢字で書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にまで人々を導く。

漢字は元来、日本語にとって完全に外来的な要素に過ぎないのだが、漢字使用の初期段階から現在に至るまで、漢字を持たない日本語の姿が想像できないほど、日本語内部に深く取り込まれている。漢字は和訓と結合した形で日本語の一部をなしているのである。

漢字・漢文を読み書きしながらも、日本人の頭の中は基本的に日本語である。漢文は訓読した上で、日本語として理解する。書く際には、日本語で考えた中身を、漢字・漢文で書く。このような営みのためには、漢字・漢語と日本語とを「変換する道具」が必要になる。

4. ■古辞書と日本語

4.1 ●漢語抄

先の年表に戻ってみよう。現存最古の日本製辞書としてあげた『篆隸万象名義』の前に、『楊氏漢語抄』の名が見える。『楊氏漢語抄』は逸書だが、『和名類聚抄』の序文によると養老年間（720年頃）に成立していたらしい⁵。「楊氏」は『養老律令』撰修にも関わった陽胡真身（やこのまみ）ではないかと言われる⁶。「漢語抄」は日本語の辞書というよりも、「中国語—日本語」対照の簡便な語彙集・用字字書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各人各家の必要に応じて作成された実用書であった。

平安時代初期には複数の漢語抄が並び立つ状態であったため、それらを整理・集大成して成ったのが『和名類聚抄』である。『和名類聚抄』は漢語抄を多く引用し、『弁色立成』『楊氏漢語抄』といった書名が伝わる。『新撰字鏡』の和訓も主としてこれら漢語抄によ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⁷。

このように、古代の日本製辞書には大きく分けて「二つの流れ」があった。中国製辞書の移入と平行して、日常の必要をみたす道具としての対訳辞書が生み出されていたのである。

4.2 ●『新撰字鏡』『和名類聚抄』

その二つの流れが合流するのが『新撰字鏡』である。中国製辞書の記述を集成した上で、漢語抄等から和訓を登載している。

辞書は未知のものを既知のもので説明するものである。例えば、見出語が漢字や漢語である場合、それに対応する既知の日本語をあげることが、説明としてはもっとも簡便である。訓読み・訓読のように、漢字・漢語を日本語に置き換えて理解するという背景の中、漢字・漢語の説明として和訓が選択されたことはよく理解できる。日本人の意識の中で、和訓が漢字の一部を成していたとすると、和訓こそが漢字・漢語の説明としてもっとも適当なのである。

一方で、『和名類聚抄』は、事物名を列举した、意義分類体の百科事典である。上に述べたように、漢語抄を主たる材料とするが、それ以外に、『日本紀私記』や『本草和名』などからも和訓を収集している。『本草和名』は中国の本草書をもとにした薬用百科事典である。薬用である以上、見出漢語が何に当たるのかを正確に示す必要がある。『本草和名』では、

⁵ 『和名類聚抄』序文「養老所伝楊説纔十部」。

⁶ 滝川政次郎『律令の研究』1931：202。

⁷ 加えて、天治本『新撰字鏡』末尾にある「臨時雑要字」は漢語抄類の一つがそのまま掲載されたと言われている。

漢語の別名を列挙し、末尾に和名を加えている。和名をあげることで、それが日本の何に当たるのかを示している。事典類における和訓は、物や事柄を同定する機能を持つ。

4.3 ●読むための辞書 書くための辞書

学問は「読むこと」から始まり、「書くこと」に至る。日本における「読むこと」「書くこと」は、結局、「漢字・漢語・漢文 ⇄ 日本語」の変換作業を繰り返すことに他ならない。ある漢字をどのような日本語で訓むか、ある日本語をどんな漢字で書くかが常に問われる。

『新撰字鏡』も原撰本系『類聚名義抄』も基本的には漢漢辞書である。漢文注の末尾に和訓が添えられるスタイルを持つ。そこで日本語はいまだ従属的な位置にとどまっている。

それに対し、改編本系『類聚名義抄』は、原撰本系にあった漢文注や出典注記を取り去り、和訓を追補したもので、漢字を和訓で説明するというスタイルを確立している。「読むための辞書」の一つの突き詰めた形といってよい。

一方、『色葉字類抄』は、漢字をキーに検索するそれまでのあり方をあらため、日本語をキーにして漢字を探すように出来ている。「書くための辞書」の第一歩である。

改編本系『類聚名義抄』および『色葉字類抄』に至り、日本の辞書はひとまずの日本化をおえた。その後の辞書の歴史は、基本的に、この平安時代に作り上げられたスタイルのバリエーションとして展開する。

4.4 ●古代日本の辞書

このように、日本の辞書は、成立初期から和訓（日本語）を利用し、次第にその利用を拡大していった。それは、日本の辞書が、「文字は漢字、言葉は日本語」という複層性の中で必要とされた、両者をつなぐための道具だったからである。

詮ずるところ、古代日本の辞書は、純粋な意味での「日本語の辞書」ではなかった。それは、漢字・漢語と日本語とを変換するための道具であって、日本語そのものを一覽したり、日本語の意味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道具ではなかった。そのような古辞書を、現在の我々は、古代日本語の意味を調べるために利用している。古辞書の本来の性格と現在の我々の利用方法との間には、根本的な相違と大きな乖離があるのだが、我々は平素それを十分に認識していない。

5. ■古辞書を使うということ

5.1 ●古辞書を使う

古辞書はさかんに利用されながらも、かえってその本質を問われることが少ない。十分な理解と反省なしに、古辞書が「辞書」として利用され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かつて次のように述べたことがある。

- (4) とにかく使えることがかえって害をなす場合がある。古辞書はしばしばそれに該当しよう。古辞書を使えば、ひとまずの解答を引き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ケースは多い。しかし、「ひとまず」に安住し思考を停止することほど、学問の本質から遠いことはない。学問というのは、簡単に分かったこととはしないという手続きに他ならないからだ。

辞書は、それとして興味深い研究対象である。しかし、筆者について言えば、なにも辞書を研究したくて、その研究を始めたというわけではない。国語学国文学の世界では、何を研究するにせよ、古辞書のお世話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辞書を使いこなすイロハを身につけることが、研究の第一歩といってよい。

そのようにして、古辞書を使用する中で、筆者にはぬぐい去れない違和感があった。それ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本当の意味で辞書が使えているのだろうか。自らの研究に都合よく辞書の記述を利用しているだけではないか。

辞書は語彙だけでなく、文字、音韻等の研究資料としてさかんに利用される。古典文学の注釈に用いられることも多い。しかし、研究に必要な部分をつまみ食いするだけでは、辞書の総体的な理解は望めない。全体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なければ、部分も有効に活用できないはずである。辞書自体の性格に目をつぶったまま、部分利用を繰り返しても、本当の意味で辞書が使えた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

我々が資料に臨む場合、「利用できるから利用する」となってしまうがちである。だが、利用に先立ち、その資料がいったいどのような性格のものか、その資料がある研究目的に利用できるとはどういうことか、また、資料全体の中でその利用可能な部分は一体どのような位置に立つものか、といった問いかけを欠いては、むしろ逆に資料に使われることになる。古辞書を使いながら、時に、辞書を使っているのか、辞書に使われ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感ずることがあった。そのような違和感から、辞書そのものについて研究せざ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のが実情である。(大槻 2005b)

5.2 ●『今昔物語集』の「繚」

12世紀成立の説話集『今昔物語集』巻第二十七の「人妻、死後会旧夫語第二十四」に、

(5) 其ノ妻、万ノ事ヲ繚テ出シ立ケレバ、其ノ妻ヲ具シテ国ニ下ニケリ。

とある。新日本古典文学大系『今昔物語集』は、その「繚テ」を「あつかひテ」と補読した上で、「万ノ事ヲ繚テ出シ立ケレバ」に対して、

(6) 赴任のためのすべての準備を整えて旅立たせたので。「繚 アツカハシ」(名義抄)を参考に読む。(新日本古典文学大系『今昔物語集』五：135)

と注をつけている。『今昔物語集』の最古本である鈴鹿本では、本文に「繚テ」とのみあって、傍訓がないため⁸、「繚」字を「アツカフ」と訓む根拠として、院政期に編まれた古辞書『類聚名義抄』が引か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こで、動詞「アツカフ」ではなく形容詞「アツカハシ」を持ち出しているのは、「繚」字に対して動詞「アツカフ」の和訓を示した適当な資料がないためである。「くゆ—くやし(悔)」、「こふ—こほし・こひし(恋)」のような「動詞—形容詞」の対応は他にもあるから、次善として形容詞形を引くことはやむをえないだろう。ただし、「繚」字に対応するものとしてあげた形容詞「アツカハシ」が、『類聚名義抄』においてどのような意味であり、それが動詞「アツカフ」とどのよう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は十分に説明されない。また、それ以前の問題として、「繚 アツカハシ」は本当に『類聚名義抄』に存在するのだろうか。

新大系が引く「名義抄」は観智院本『類聚名義抄』のことであろう。観智院本の項目「繚」を見ると、

(7) 繚 音了 イトヨル モトル モトホル シハル
メグル^{ラス} マツハル ヒハル ユフ (観智院本『類聚名義抄』、法中、57ウ7)

とあって、どこにも「アツカハシ」の訓が見えない。「繚 アツカハシ」は『類聚名義抄』に存在しないのである。和訓「アツカハシ」が見えるのは、別項目「結繚」に対してである⁹。

⁸ 『今昔物語集』に「繚」字は複数あらわれるが、そのいずれにも傍訓がない。

⁹ 項目「結繚」は、「繚」とその異体字三文字の後に置かれている。

(8) 結繚 マツハル アツカハシ (観智院本『類聚名義抄』、法中、57ウ8)

これによって、「アツカハシ」は「結繚」という「熟語」に対する和訓であること、「アツカハシ」は「マツハル」という和訓と併置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新大系の注では、「繚」一字に対する和訓として引かれている上に、「マツハル」というもう一つの和訓の存在が見えなくなっている。

さて、この「マツハル」「アツカハシ」という和訓は一体どこから来たものだろうか。「アツカハシ」を「類聚名義抄の」和訓として引く前に、その点について確かめておく必要がある。

『類聚名義抄』の諸本には原撰本系と改編本系とがあり、原撰本系を増補改編して改編本系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原撰本系の現存写本は図書寮本のみであり、法部前半の零本である。改編本系を代表するのが完本の観智院本である。いま問題とする「結繚」項は観智院本の「法中」にあった。「法中」であれば、対応する部分が原撰本（図書寮本）に存在する。図書寮本には、

(9) 結^(繚) マツハル アツカハシ^異 (図書寮本『類聚名義抄』、三二一6)

とある¹⁰。観智院本は原撰本の記述を、末尾の「異」だけを省いて、そのままに引き継いでいることがわかる。

それでは、「アツカハシ」右下の「異」は何をあらわしているのだろうか。図書寮本『類聚名義抄』は注文の出典を明示することで知られる。それは和訓についても同様で、多くの和訓に対してその出典が示されている。「異」は図書寮本で最も多く使用されている和訓出典の一つで、『文選』を指す¹¹。つまり、この記述は、『文選』にあらわれる文字列「結繚」に対して「アツカハシ」の和訓を付した訓点本があるという意味である。このように、『類聚名義抄』では、漢文を訓読した訓点本が和訓の最大のソースとなっている。

しかしここで、「結繚」は『文選』にある、「アツカハシ」は文選和訓であると信じ込むのも、辞書にだまされることになる。「結繚」の文字連続、漢籍にほとんど見えず、『文選』の本文を見ても「結繚」は見いだせない。熟語「結繚」が見えるのは実は『遊仙窟』である。『遊仙窟』もまた図書寮本の和訓の出典として数多く使用されている。

出典表示に価値を見ることが多い図書寮本だが、このように出典表示が間違っていることがある。辞書においても、編纂時の誤りや誤写は避けられない。とりわけ、出典表示は、元来漢字とも訓とも直接には結びついていない。「結繚—アツカハシ—遊仙窟」というつながりは、その訓を採取した時点でのみ成り立っている。その出典名「遊仙窟」が「文選」に誤られても、誤っていることに気づかない。今回、本当の出典が『遊仙窟』であると判明したのは、念を入れて調べてみたからである。「アツカハシ^異」という記述自体に不審を抱かせる要素は何もない。

誤りはなにも出典表示に限らない。見出語に対する説明を一連の文章で行う現行の辞書とは違い、注文に諸書を引用し、和訓を併置する古代の辞書では、それぞれの記述が断片的であり、一貫した文脈をもたないことが多い。文学作品のテキストに誤写があれば、意味がとれなくなるため、誤りに気づく。一方、文脈をもたないテキストは、一度誤られると、誤られたこと自体が気づかれにくい。古代の辞書はむしろ誤りをひきおこしやすいテキストなのである。辞書は誤らないという幻想にたって古辞書を用いることは危うい。

さて、『遊仙窟』では「結繚」が、

¹⁰ 図書寮本における注文が和訓のみの項目については大槻（2005a）を参照のこと。

¹¹ 図書寮本『類聚名義抄』の和訓の出典については大槻（2001）を参照のこと。

(10) 一嚙一快意、一勒一傷心、鼻裏痠[广+帝]、心中結繚。

(醍醐寺本『遊仙窟』: 32 ウ 5)

のようにあらわれる。『遊仙窟』の古訓点本の一つである醍醐寺本(1344年書写加点)では、「結繚」の左に「ムスホフル」「アツカハシ」とあり、付された訓点に従うと¹²、「結繚とアツカハシ」のように文選読みするらしい。真福寺本(1353年写)には同じところに「マツハル」とある¹³。原撰本系『類聚名義抄』の編者が資料とした『遊仙窟』は、「マツハル」と「アツカハシ」両方の訓を持っていた本だったのであろう。出典表示は「マツハル」「アツカハシ」両訓にかかると考えられる¹⁴。

さて、『遊仙窟』の「心中結繚」はどのような意味であろうか。『遊仙窟』の古点本では「結繚」に対して「ムスホフル」「アツカハシ」「マツハル」のような訓が見られた。ここは性愛描写の場面であり、「心中結繚」は恍惚の様を表現している。先の引用部分は「口を吸うたびに快感が走り、抱きしめるたびに胸がいっぱいになる。鼻はつんと痺れ、心の中はわけがわからなくなる」といった文脈であろう。「心中結繚」は、糸が絡み合い、結ばれてまとわりつくように、わけもわからず胸がいっぱいになるような状態を表すらしい。

形容詞「アツカハシ」は「心が晴れず、わずらわしい状態。どうしてよいかわからない状態」を意味する。『遊仙窟』に見られる「結繚 アツカハシ」の訓読は「どうしてよいかわからない状態」の例としてよく理解できる。

先の新大系の注では、「繚」を「アツカフ」と読む根拠として「繚 アツカハシ」を引いていた。しかし、『類聚名義抄』があげる和訓「アツカハシ」は熟語「結繚」に対応するものであり、その訓は『遊仙窟』の訓点本に依るものであった。『遊仙窟』の「結繚」に対応する形容詞としての「アツカハシ」と、『今昔物語集』に見える「取り扱う、準備する」という意味での動詞「アツカフ」との間にはかなりの開きがある。『類聚名義抄』の「結繚 アツカハシ」をもって、「繚」を「アツカフ」と読むことに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5.3 ●おわりに

古辞書の引用は、辞書項目の全体ではなく、切り取られた部分でなされることが多い。上記の例では、『類聚名義抄』に「結繚 マツハル アツカハシ」とあるものを「繚 アツカハシ」として引用していた。熟字を単字にし、和訓を一つにしている。このように極端な変形でなくとも、部分のみが引用されると、別のコンテキストを持ってしまうことが多い。このことを裏返していうと、辞書には辞書のコンテキスト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古辞書を利用する際には、引くだけでなく読むこと。辞書のコンテキストを理解した上で利用する必要のあることがわかる。

もう一つの問題は、いったん古辞書が引用されると、それが確実な証拠に見えてしまうことである。上に挙げた古辞書引用も、自分で調べなおすと問題点に気づくが、そうでなければ妥当な根拠が引かれたものとして納得してしまう。論者が古辞書の原形をゆがめて引用していたとしても、また、論者が辞書記述の中身をよく理解しないまま引用していたとしても、外見上そうは見えない。そして、そのような錯覚は、読み手である読者を誤らせるだけでなく、引用をなしている研究者本人をもしばしば欺くのである。古辞書を引用すると、それだけで、確実な証拠をあげたかのように錯覚してしまう。古辞書は有用で強力な資料である。しかし、その強力さのゆえにかえって、論者や読者の思考停止をまねき

¹² ヲコト点「と」がある。

¹³ 陽明文庫本(1389年写)では「結繚トマツはる(＜左傍＞アツカ マ シ・ムスホハル)」(44ウ)となっている。

¹⁴ 出典表示「異」は本来「遊」(遊仙窟)とあるべきである。図書寮本『類聚名義抄』における片仮名和訓の出典標示方法については大槻(2001)を参照のこと。

やすい。

古辞書の利用にあたっては、その性格を知り、その限界を自覚して利用することが望ましい。有用で説得力を持つものは、使い方を誤ると危険である。辞書を使っているようで実は辞書に使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ないようにしたい。

■使用テキスト■

新撰字鏡は『天治本 新撰字鏡 増訂版 附享和本・群書類従本』（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臨川書店、1967）による。

和名類聚抄は『諸本集成 倭名類聚抄 本文篇』（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臨川書店 1968）による。

図書寮本類聚名義抄は『図書寮本類聚名義抄』（勉誠社、1969）による。

観智院本類聚名義抄は『類聚名義抄 観智院本（天理図書館善本叢書）』（八木書店、1976）による。

今昔物語集は新日本古典文学大系『今昔物語集』（岩波書店、1993-1999）による。

■参考文献■

- | | | |
|------|--------|---|
| 大槻 信 | 2001 | 図書寮本類聚名義抄片仮名和訓の出典標示法（国語国文、70-3） |
| 大槻 信 | 2005a | 辞書と材料 一和訓の収集—（『日本学・敦煌学・漢文訓読の新展開』石塚晴通教授退職記念会編、汲古書院） |
| 大槻 信 | 2005b | 平安時代の辞書についての覚書（『國文學』（学燈社）、第 50 卷 5 号） |
| 大槻 信 | 2015a | 古代日本語のうつりかわり——読むことと書くこと——（『日本語の起源と古代日本語』臨川書店） |
| 大槻 信 | 2015 b | 古辞書を使うということ（国語国文、84-4） |
| 大槻 信 | 2016 | The Origins of Japanese Prose: “Reading” and “Writing” (Acta Asiatica, 111) |

■追記■

本発表は大槻（2005b）、大槻（2015 b）にもとづく部分が多い。あわせ読んでいただければ幸いである。

本発表は科学研究費補助金（課題番号：15K02565、16H03422）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韓国語への翻訳については申雄哲氏（日本学術振興会 外国人特別研究員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のお世話になった。記して感謝申し上げる。

日本 古辭典 雜考

— 고사전과 일본어 —

오오즈키 마코토(교토대)¹

1. 들어가는 말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헤이안(平安) 시대(9~12세기)에 성립된 고사전을 중심으로 그 사전들의 기본적인 성격과 우리들이 그것을 연구에 이용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사전과 한문혼독의 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다룰 문제는 아래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 (1) 1 고사전에 일본어가 실려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2 고사전에 실린 일본어를 연구 재료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2. 고대 일본에서 사용된 사전

먼저 이하에서 언급할 헤이안 시대 사전들을 연표 형식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아울러 일본의 사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국의 사전과 헤이안 시대 이전의 동향도 제시해 둔다.

(2) 【연표】

543년	<중국> 『玉篇』(梁・顧野王)
601년	<중국> 『切韻』(隋・陸法言)
650년 무렵	<중국> 『一切經音義』(唐・玄應)
720년 무렵	『楊氏漢語抄』(逸書, 養老年間[717~724] 成立?)
835년 무렵	『篆隸萬象名義』(空海)
900년 무렵	『新撰字鏡』(昌住)
935년 무렵	『和名類聚抄』(源順)
1100년 무렵	原撰本系 『類聚名義抄』(圖書寮本 類聚名義抄)
12세기 후반	改編本系 『類聚名義抄』(觀智院本 類聚名義抄 등)
1180년 무렵	『色葉字類抄』(橘忠兼, 三卷本)

일본 문화의 많은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전 또한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인이 편찬한 사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篆隸萬象名義』가 있다. 이것은 중국 사전인 『玉篇』을 일본의 승려 空海(774-835)가 간략화한 것인데 일본어는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완본이 남아 있지 않은 原本『玉篇』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만큼이나 초창기 사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다.

일본어가 실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전인 『新撰字鏡』도 주된 재료는 중국 사전인 『一切經音義』, 『玉篇』, 『切韻』이다. 倭訓(일본어)이 달린 항목은 전체의 1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에서의 사전의 역사는 중국 사전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사전이 중국 사전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점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篆隸萬象名義』나 『新撰字鏡』이나 중국 사전을 근간으로 한다고는 하

¹ 京都大學 文學部 교수 ootsuki@bun.kyoto-u.ac.jp

번역: 신웅철(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 특별연구원,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지만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헤이안 시대의 사전이 『玉篇』, 『切韻』, 『一切經音義』 등을 재료로 삼았다는 것의 의미는 그와 같은 중국 사전들이 수중에 있었음에도 그것들과는 이질적인 것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된 이래로 오랫동안 일본에서 정식적인 문자와 문장은 한자와 한문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중국 사전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사전을 비롯한 많은 소학서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고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그 중에는 중국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본에만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사전들은 상당히 초기부터 「일본화(일본어화)」된 것들이었다. 일본의 사전이 그저 중국 사전을 수용하여 개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화를 꾀해야 했던 까닭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3. 訓讀み・訓讀과 사전

3.1. 訓讀み와 訓讀

오랜 옛날 일본인들은 문자를 갖지 못했다. 처음으로 접한 문자는 중국의 한자이다. 사용 가능한 문자와 문장이 한자와 한문 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향후 문자생활의 형태는 두 가지였다.

(3) 1 중국어를 습득한다.

2 한자・한문과 일본어를 결부시킨다.

한자와 한문을 완전히 구사하기 위해서는 본래 1이 바람직하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이중언어로 구사하거나 아예 사용언어를 중국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전환한다는 것에 큰 저항이 따르는 물론이거니와 입말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문자를 읽고 쓸 때에는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부담이 크다. 애당초 고대 일본에서 입말로 중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읽고 쓰기 위한 문자와 문장이었지 언어로서의 중국어가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2를 선택하였다. 각각의 한자와 일본어를 결부시키는 행위가 訓讀み(くんよみ)이고, 한문과 일본어 문장을 결부시키는 행위가 訓讀(くんどく, 훈독)인 것이다.

중국어는 고립어²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단어와 문자가 기본적으로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단위는 매우 명료하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각각의 한자에 대해서 그것과 같은 뜻을 가진 일본어가 해당 한자의 독법³으로 정착되어 간다(訓讀み). 그러한 단위들을 일본어 문법규칙에 따라 재배열하고 조사와 조동사 등의 부속어를 더하면 우선 일본어 문장의 꼴을 갖추게 된다(訓讀).

3.2. 한자와 일본어

일본인은 중국어라는 외국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한자와 한문의 힘을 빌리면서도 읽기와 쓰기를 일본어 중심으로 영위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문을 訓讀한다는 것은 한문을 중국어로서 이해하는 회로를 닫고 이해와 사고는 일본어를 통해 영위함을 의미한다. 글을 적었을 때 설령 결과물이 한문체라 할지라도 일본어로 내용과 문장을 생각한 다음 그것을 한문으로 고쳤다⁴. 사고하는 것 자체에서는 외국어인 중국어를 개제

² 문법적 요소를 나타내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만을 연속 나열하는 언어유형.

³ 역자주: 원문의 読み方[독법]는 ①字義에 대응하는 번역어로서의 측면[해독]과 ②개별 한자에 결속된 음성적 기호[字音과는 또 다른 독음]로서의 성격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⁴ 물론 거기에 나타나는 일본어는 한문훈독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어이다. 또한 중국 문헌의 典故나 成句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나 四六文에 맞추거나 平仄을 정돈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경유하지 않거나 중국어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⁵.

訓讀み는 한자를 항상적으로 일본어화하기 위해 한자와 일본어를 고정적으로 결속시킨 것이다. 그러한 결속이 강해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한자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일본어가 존재할 것이라거나 혹은 일본어라면 한자로 적을 수 있어야한다고 의식하게끔 한다.

한자는 본래 일본어에서는 완전히 외래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만 한자사용이 시작될 무렵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자가 없는 일본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어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한자는 倭訓과 결합된 형태로 일본어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자와 한문을 읽고 쓰면서도 일본인의 머릿속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통해 움직인다. 한문은 혼동하여 일본어로서 이해한다. 글을 적을 때에는 일본어로 생각한 내용을 한자와 한문으로 적는다.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해서는 한자·한자어와 일본어를 「변환하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4. 고사전과 일본어

4.1. 漢語抄

앞서 제시한 연표로 돌아가 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본 사전으로 든 『篆隸萬象名義』 앞에 『楊氏漢語抄』라는 이름이 보인다. 『楊氏漢語抄』는 逸書이지만 『和名類聚抄』의 서문에 따르면 養老年間(720년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⁶. 「楊氏」란 『養老律令』의 편찬에도 관여했던 陽胡眞身(やこのまみ)로 추정되고 있다⁷. 「漢語抄」는 일본어 사전이라기 보다는 「중국어-일본어」 대조의 형식의 간편한 어휘집 또는 한자표기 사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개인과 가문의 필요 혹은 직무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용서였다.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여러 漢語抄가 병립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완성된 것이 『和名類聚抄』이다. 『和名類聚抄』에는 漢語抄를 다수 인용되어 『辨色立成』, 『楊氏漢語抄』의 이름을 전한다. 『新撰字鏡』에 실린 倭訓도 주로 이들 漢語抄에 의거하였음이 확인되었다⁸.

이처럼 고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사전에는 크게 나뉘서 「두 갈래의 흐름」이 존재했다. 중국 사전의 수용이라는 흐름과 평행적으로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인 對譯사전이라는 흐름이 존재했던 것이다.

4.2. 『新撰字鏡』『和名類聚抄』

그 두 갈래의 흐름이 합류하는 것이 『新撰字鏡』이다. 중국 사전에 기술된 내용을 집성한 다음 漢語抄 등으로부터 倭訓을 가져왔다.

사전은 모르는 것을 이미 아는 것으로써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제어가 한자나 한자어일 경우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일본어(이미 아는 것)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설명 방식이다. 訓讀み와 訓讀처럼 한자·한자어를 일본어로 치환하여 이해하는 환경 안에서 한자·한자어를 倭訓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 倭訓이 해당 한자의 일부로 인식되었다면 倭訓이야말로 한자와 한자어를 설명하는 최적의 방편인 것이다.

한편 『和名類聚抄』는 사물의 이름을 열거한 意義分類體 백과사전이다. 앞서 말한 바와

⁵ 訓讀み·訓讀에 대해서는 大槻(2015a), 大槻(2016)을 참조.

⁶ 『和名類聚抄』序文「養老所傳楊說纔十部」.

⁷ 滝川政次郎『律令の研究』1931: 202.

⁸ 게다가 天治本『新撰字鏡』 말미의 「臨時雜要字」는 漢語抄類의 일종이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일컬어진다.

같이 주된 재료는 漢語抄이나 그 밖에 『日本紀私記』와 『本草和名』 등으로부터도 倭訓을 수집하였다. 『本草和名』은 중국의 本草書를 바탕으로 만든 약용 백과사전이다. 약용이기 때문에 표제어인 한자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本草和名』에서는 한자어의 별명을 열거하고 그 끝에 和名(倭名, 일본어 명칭)을 부가하였다. 和名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일본의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事典類에서의 倭訓은 사물이나 사항의 同定 기능을 지닌다.

4.3. 읽기를 위한 사전, 쓰기를 위한 사전

학문은 「읽는 것(讀)」에서 시작되어 「쓰는 것(書)」에 이르게 된다. 일본에서의 「읽기」와 「쓰기」란 결국 「한자·한자어·한문 ⇄ 일본어」의 변환작업을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정 한자를 어떻게 일본어로 읽을 것인가, 특정 일본어를 어떤 한자로 적을 것인가를 항상 묻게 된다.

『新撰字鏡』나 原撰本系『類聚名義抄』나 기본적으로는 漢漢 사전이다. 한문주 끝에 倭訓을 첨가하는 스타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어는 아직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반해 改編本系『類聚名義抄』는 原撰本系에 있던 한문주나 출전표기를 제거하고 倭訓을 증보한 것으로서 한자를 倭訓으로 설명하는 스타일을 확립하였다. 「읽기 위한 사전」의 일종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色葉字類抄』는 한자로 검색하던 그때까지의 양상에서 탈피하여 일본어로부터 한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쓰기를 위한 사전」의 시작이었다.

改編本系『類聚名義抄』와 『色葉字類抄』에 이르러 일본의 사전은 일정 수준의 일본화를 마쳤다. 그 후로 이어지는 사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헤이안 시대에 확립된 이들 스타일에서 파생되는 전개를 보인다.

4.4. 고대 일본의 사전

이와 같이 일본의 사전은 성립초기부터 倭訓(일본어)을 이용하였고 점차 그 쓰임을 확장해 나갔다. 그것은 일본의 사전이 「문자는 한자, 말은 일본어」라는 복층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둘을 잇는 도구로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고대 일본의 사전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일본어 사전」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자 및 한자어와 일본어를 변환하기 위한 도구였지 일본어 그 자체를 일람하거나 일본어의 뜻을 밝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한 고사전을 오늘날 우리들은 고대 일본어의 의미를 조사하는 데에 이용한다. 고사전의 본래적 성격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용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와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평소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5. 고사전을 사용한다는 것

5.1. 고사전을 사용하다

고사전은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그 본질을 따지는 일은 드물다. 충분한 이해와 성찰 없이 고사전은 「사전」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 (4) 무작정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고사전은 종종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사전을 이용하면 당장의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장」에 안주하여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만큼 학문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은 없다. 학문이라는 것은 그저 쉽게 아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는 일련의 과정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전은 그 나름대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필자의 이야기를 하자면 새삼 사전을 연구하고 싶어서 그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국어학과 국문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연구에서든 고사전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사전을 제대로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 연구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사전을 이용하던 와중에 필자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저 자기 연구에 편리할 대로 사전의 내용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사전은 어휘뿐만 아니라 문자, 음운 등의 연구자료로서 활발하게 이용된다. 고전문학의 주석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연구에 필요한 부분만 빼내어 쓰는 방식으로서는 사전의 총체적인 이해는 바랄 길이 없다.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 자체의 성격을 직시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이용을 반복한들 진정한 의미에서 사전이 활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료에 임할 때에는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하는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용에 앞서 그 자료가 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 자료를 특정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자료 전체 가운데 그 이용가능한 부분은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와 같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자료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격이 될 것이다. 고사전을 이용하면서 때로는 사전을 이용하는 것인지 사용에게 이용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사전 그 자체에 대해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이다. (大槻 2005b)

5.2. 『今昔物語集』의 「繚」

12세기에 성립된 설화집인 『今昔物語集』卷第二十七의 「人妻、死後會舊夫語第二十四(스무 네번째 이야기: 아내가 죽어서 옛 남편과 만난 이야기)」에

- (5) 其ノ妻、萬ノ事ヲ繚テ出シ立ケレバ、其ノ妻ヲ具シテ国ニ下ニケリ。

그아내가 모든 채비를 繚하여 여정에 오르게 해주었기에 그아내를 데리고 임지로 내려갔다.

라는 대목이 있다. 新日本古典文學大系 『今昔物語集』에는 그 대목의 「繚テ」를 「あつかひテ」라고 보독하고서 「萬ノ事ヲ繚テ出シ立ケレバ」에 대해서

- (6) 부임을 위한 모든 채비를 갖추어 여정에 오르게 해주었기에. 「繚 アツカハシ」(名義抄)를 참고하여 읽음. (新日本古典文學大系 『今昔物語集』 五: 135)

라는 주석을 달았다. 『今昔物語集』의 가장 오래된 전본인 鈴鹿本에는 본문에 「繚テ」라고만 되어 있을 뿐 傍訓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⁹ 「繚」를 「アツカフ」라고 읽을 근거로 院政期에 편찬된 고사전 『類聚名義抄』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동사 「アツカフ」가 아니라 형용사 「アツカハシ」를 제시한 것은 「繚」에 대해서 동사 「アツカフ」를 倭訓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くゆくやし(悔)」, 「こふこほし・こひし(恋)」처럼 「동사-형용사」가 대응하는 예는 그밖에도 존재하므로 차선책으로 형용사형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繚」에 대응하는 것으로 언급한 형용사 「アツカハシ」가 『類聚名義抄』에서 어떠한 의미로 실려 있는 것이며 그것이 동사 「アツカフ」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그 이전의 문제로 「繚 アツカハシ」는 정말 『類聚名義抄』에 존재하는 것일까?

위 주석에서 인용한 「名義抄」는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를 가리킬 것이다. 觀智院本の

⁹ 『今昔物語集』에서 「繚」는 여러 번 나오지만 모두 傍訓이 달려 있지 않다.

항목 「繚」를 보면

- (7) 繚 音了 イトヨル モトル モトホル シハル
 メグル^{ラス} マツハル ヒハル ユフ(觀智院本『類聚名義抄』, 法中, 57뒷면7)

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도 「アツカハシ」라는 훈은 보이지 않는다. 「繚 アツカハシ」는 『類聚名義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倭訓「アツカハシ」가 보이는 것은 별개의 항목인 「結繚」이다¹⁰.

- (8) 結繚 マツハル アツカハシ (觀智院本『類聚名義抄』, 法中, 57뒷면8)

이것을 통해 「アツカハシ」는 「結繚」라는 「속어」에 대응하는 倭訓이라는 것, 「アツカハシ」는 「マツハル」라는 倭訓과 함께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新日本古典文學大系の 주석에서는 「繚」라는 한 글자에 대응되는 倭訓처럼 인용된 데다 「マツハル」라는 또 하나의 倭訓이 있음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マツハル」「アツカハシ」라는 倭訓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アツカハシ」를 『類聚名義抄』의 倭訓으로서 인용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類聚名義抄』의 諸本에는 原撰本系와 改編本系로 나뉘는데 原撰本系를 증보 및 개편하여 改編本系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原撰本系의 현존하는 사본은 圖書寮本뿐으로 法部 前半[역자주: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만 남은 零本이다. 改編本系를 대표하는 것이 완본으로 전하는 觀智院本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結繚」항목은 觀智院本の 「法中」에 실려 있다. 「法中」이라면 대응하는 부분이 原撰本(圖書寮本)에 존재한다. 圖書寮本에는

- (9) 結^(繚)一 マツハル アツカハシ^異 (圖書寮本『類聚名義抄』, 三二一6)

라고 되어 있다¹¹. 觀智院本은 原撰本の 내용에서 끝의 「異」만 생략하고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アツカハシ」의 오른쪽 아래에 달린 「異」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圖書寮本『類聚名義抄』는 注文의 출전이 명시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것은 倭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다수의 倭訓에 대해 출전을 명기하였다. 「異」은 圖書寮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倭訓 출전 가운데 하나로 『文選』을 지칭한다¹². 즉 이 내용은 『文選』에 나타나는 글귀인 「結繚」에 「アツカハシ」라는 倭訓이 달린 훈점본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類聚名義抄』에서 倭訓의 가장 큰 출처는 한문을 훈독한 훈점본이다.

그러나 여기서 「結繚」가 『文選』에 존재하며 「アツカハシ」는 文選의 倭訓이라고 선불리 믿는다면 사전에게 속고 마는 것이다. 「結繚」라는 글귀는 漢籍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으며 『文選』 본문을 보아도 「結繚」는 보이지 않는다. 속어 「結繚」는 사실 『遊仙窟』에서 찾을 수 있다. 『遊仙窟』 또한 圖書寮本에 실린 많은 倭訓의 출전으로 사용된 문헌이다.

출전 표시의 큰 가치로 정평이 난 圖書寮本이지만 이처럼 잘못된 출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일지라도 편찬 당시의 오류나 誤寫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출전 표시는 본래 한자나 훈과는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 아니다. 「結繚-アツカハシ-遊仙窟」라는 연결고리는 그 훈을 채집한 시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의 출전명인 「遊仙窟」이 「文選」으로 잘못 기입되더라도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이번에 정확한 출전이 『遊仙窟』임을 알게 된 것은 주의 깊게 조사해 보았기 때문이다. 「アツカハシ^異」라는 기술 내용 자체

¹⁰ 항목 「結繚」는 「繚」와 이체자 셋 뒤에 위치한다.

¹¹ 圖書寮本에서 注文에 倭訓만 실린 항목에 대해서는 大槻(2005a)를 참조.

¹² 圖書寮本『類聚名義抄』수록 倭訓의 출전에 대해서는 大槻(2001)를 참조.

에는 수상함을 느끼게 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다.

오류는 출전 표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표제어를 일련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오늘날의 사전과는 달리 注文에 여러 서적들을 인용하고서 倭訓을 늘어놓은 고대의 사전에서는 각각의 기술 내용들이 단편적이며 일관된 문맥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학작품의 텍스트에 오사가 있으면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알아차리게 된다. 한편 문맥이 없는 텍스트는 한번 잘못 옮기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고대의 사전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텍스트인 것이다. 사전은 틀리지 않는다는 환상에 입각하여 고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遊仙窟』에서는 「結縵」가

(10)一嚙一快意、一勒一傷心、鼻裏痠[广+帝]、心中結縵。(醍醐寺本『遊仙窟』: 32뒷면5)

와 같이 나타난다. 『遊仙窟』의 고훈점본의 일종인 醍醐寺本(1344년 서사 가점)에서는 「結縵」의 원편에 「ムスホナル」「アツカハシ」라고 적혀 있으며 가점된 훈점에 따르면¹³ 「結縵とアツカハシ」와 같은 文選讀み¹⁴를 한다. 眞福寺本(1353년 서사)에는 같은 곳에 「マツハル」라고 되어 있다¹⁵. 原撰本系『類聚名義抄』의 편찬자가 자료로 활용한 『遊仙窟』은 「マツハル」와 「アツカハシ」라는 두가지 훈이 실린 책이었을 것이다. 출전 표시는 「マツハル」「アツカハシ」 두가지 훈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⁶.

그렇다면 『遊仙窟』의 「心中結縵」는 어떤 의미일까? 『遊仙窟』의 훈점본에서는 「結縵」에 「ムスホナル」「アツカハシ」「マツハル」와 같은 훈을 볼 수 있었다. 이 대목은 성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心中結縵」는 황홀한 모습을 표현한다. 앞서 인용한 부분은 「입을 맞출 때마다 쾌감이 흐르고 끌어안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른다. 코끝이 찡하게 아리고 마음 속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문맥이다. 「心中結縵」는 실이 서로 얽혀 묶여서 뒤엉키는 것처럼 알 수 없이 가슴이 벅차 오르는 상태를 표현한다.

형용사인 「アツカハシ」는 「마음이 개운치 않고 번잡스러운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遊仙窟』에 보이는 「結縵 アツカハシ」의 훈독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의 예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新日本古典文學大系の 주석에서는 「縵」를 「アツカフ」라고 읽는 근거로서 「縵 アツカハシ」를 가져왔다. 그러나 『類聚名義抄』에 실린 倭訓 「アツカハシ」는 속어인 「結縵」에 대응되는 것이며 그 훈은 『遊仙窟』 훈점본에 의거한 것이었다. 『遊仙窟』의 「結縵」에 대응하는 형용사인 「アツカハシ」와 『今昔物語集』에 보이는 「다루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アツカフ」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類聚名義抄』의 「結縵 アツカハシ」를 가지고 「縵」를 「アツカフ」로 읽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3. 마치는 말

고사전의 인용은 사전 항목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발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에서는 『類聚名義抄』에 「結縵 マツハル アツカハシ」라고 되어 있는 것을 「縵 アツカハシ」로 인용하였다. 속어를 單字로 고치고 倭訓은 하나만 취하였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변형이 아니더라도 부분만을 떼어 인용하게 되면 별개의 맥락을 지니게 되는 경우

¹³ 오코토점 「と」가 달려 있다.

¹⁴ 역자주: 文選讀み(もんぜんよみ)란 「結縵(けつれう)-と-あつかはし[음-접속조사-훈]」와 같이 한 단위의 한자어를 각각 음과 훈으로 두 번에 걸쳐 읽는 특수한 훈독방식.

¹⁵ 陽明文庫本(1389년 필사)에는 「結縵トマツハル (<左傍>アツカマシ・ムスホナル)」(44뒷면)라고 되어 있다.)

¹⁶ 출전 표시 「巽」은 본래 「遊」(遊仙窟)이어야 한다. 圖書寮本『類聚名義抄』에 가타카나로 기입된 倭訓에 대한 출전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大槻(2001)를 참조.

가 많다. 이 사실을 뒤집어 말하면 사전에는 사전의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고사전을 이용할 때에는 인용만 할 것이 아니라 숙독하여 사전의 문맥을 이해하고서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일단 고사전이 인용되고 나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처럼 보여지고 마는 점이다. 위에서 든 고사전의 인용례도 스스로 재조사해 보면 문제점을 알게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타당한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남득하게 된다. 논자가 고사전의 원형을 왜곡해서 인용하였더라도 또는 논자가 사전에 기술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용하였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은 독자들을 그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용을 하는 연구자 자신조차 종종 속이게 되는 것이다. 고사전을 인용하면 그것 만으로도 마치 확실한 증거를 낸 것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고사전은 유용하고 강력한 자료이다. 그러나 그 강력함으로 인해 도리어 논자와 독자의 사고 정지를 쉽게 초래할 수 있다.

고사전은 그것의 성격을 알고 한계를 자각하고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용하고 설득력을 갖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다. 사전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전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일이 없고자 한다.

■사용 텍스트

新撰字鏡는 『天治本 新撰字鏡 増訂版 附享和本・群書類従本』(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臨川書店, 1967)에 의거.

和名類聚抄는 『諸本集成 倭名類聚抄 本文篇』(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臨川書店, 1968)에 의거.

圖書寮本 類聚名義抄는 『圖書寮本類聚名義抄』(勉誠社, 1969)에 의거.

觀智院本 類聚名義抄는 『類聚名義抄 觀智院本(天理圖書館善本叢書)』(八木書店, 1976)에 의거.

今昔物語集는 新日本古典文學大系 『今昔物語集』(岩波書店, 1993-1999)에 의거.

■참고문헌

大槻 信	2001	圖書寮本類聚名義抄片假名和訓の出典標示法(國語國文, 70-03)
大槻 信	2005a	辭書と材料—和訓の収集—(『日本學・敦煌學・漢文訓讀の新展開』石塚晴通教授退職記念會編, 汲古書院)
大槻 信	2005b	平安時代の辭書についての覺書(『國文學』(學燈社), 第50卷5號)
大槻 信	2015a	古代日本語のうつりかわり—讀むことと書くこと—(『日本語の起源と古代日本語』臨川書店)
大槻 信	2015b	古辭書を使うということ(國語國文, 84-4)
大槻 信	2016	The Origins of Japanese Prose: “Reading” and “Writing” (Acta Asiatica, 111)

■追記

- 본 발표는 大槻(2005b)와 大槻(2015b)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 많다. 함께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본 발표는 과학연구비 조성금(과제번호: 15K02565, 16H03422)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이다.
- 한국어 번역은 신웅철 씨(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サ行拗音－開拗音と合拗音のあい－

肥爪 周二(東京大學)

一 開拗音と合拗音の非対称性

日本語には、伝統的に「拗音」と呼ばれている音がある。現代共通語においては、「キヤ (kya)」「キユ (kyu)」「キョ (kyo)」のように、イ段の仮名に小さい「ヤ」「ユ」「ヨ」を組み合わせて書かれるもので、「カ (ka)」「ク (ku)」「コ (ko)」等と同じ重さ (1 モーラ) で発音される。現代共通語では失われてしまったが、過去の日本語には、「クワ (kwa)」「クヰ (kwi)」「クヱ (kwe)」のような拗音もあった。これらを区別するときには、前者は「開拗音」、後者は「合拗音」と呼ぶ。

これらの拗音は、古くは中国語からの借用語である漢字音にのみ見られたもので、(大幅に単純化してしまうならば) 中国語の音節構造を IMVE/T と捉えたとき、M (介音) に /i-/ の要素があれば開拗音として、/u-/ の要素があれば合拗音として、日本漢字音に反映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も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日本漢字音においては、開拗音と合拗音の分布は非対称的であり、また、その後の日本語への定着の仕方にも大きな差があった。

開拗音 すべての子音において見られる。

室町時代には固有日本語にまで浸食。

近代以降の外来語にも用いられる。

キャンディ (candy) ・ キュート (cute) ・ チャンス (chance) ・
チョコレート (chocolate) etc.

合拗音 /k-/、/g-/においてのみ見られ、他の子音では、/u-/の要素は脱落する。

歴史的に、/k-/、/g-/とも結び付かなくなってゆく。

kwi > ki, kwe > ke (鎌倉時代)、kwa > ka (江戸時代以降)

固有日本語には原則として波及しなかった。

近代以降の外来語では、/CwV/のような要素は2モーラに分割される。

クイズ (quiz) ・ クォーター (quarter) ・ スワン (swan) ・ スイム (swim)
・ ツイッター (Twitter) etc.

表記の歴史においても、開拗音と合拗音とには明確に差があった。

開拗音は、平安時代初期 (9 世紀) から仮名 2 字を組み合わせる表記 (ア行表記・ヤ行表記) があった。

溺 (ミ^{アウ}悪) 嬰 (イ^{アウ}) 歴 (リ^{アウ}ア) 壤 (ニ^{アウ}) 桀 (チ^{アウ}悪)

[聖語藏本央掘魔羅經]

釈 (シ^{アウ}ア) 弱 (ミ^{アウ}悪) 扱 (チ^{アウ}ア) [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

敵 (チ^{アウ}ア) 逆 (キ^{アウ}ア) 捨 (シ^{アウ}) 遮 (シ^{アウ}) 壤 (ニ^{アウ})

若〈ニヤ〉 渚〈シヨ〉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
渚〈チヨ〉	〔聖語藏本願經四分律〕
	〔小川本願經四分律〕

合拗音は、平安初期にも仮名による表記の例が皆無ではない（ア行表記「𑖦𑖪〈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の1例のみが知られる）ものの、それが継承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当初は、以下のような類音表記・拗音仮名表記が用いられた。

醯 ^{クエ} 〈化〉 血 ^{クエチ} 〈決〉 活 ^{クワ} 〈果チ〉	〔聖語藏本央掘魔羅經〕
関 ^{クエン} 〈犬〉 毀 ^{クキ} 〈貴〉 觸 ^{クエ} 〈化イ〉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

「クワ」「クキ」などのように、仮名2字を組み合わせて表記する方式が広まっていくのは、11世紀ごろからで、平安時代初期から仮名表記のあった開拗音に大きく遅れる（近年の研究では、10世紀から合拗音を仮名2字で表記した例がある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が（小林2012:137~）、稀な例であることは確かである）。

二 開拗音の受容

一般的に、言語を構成する様々な要素の中でも、音声・音韻は言語接触による影響を受けにくく、新しい要素に対して、もっとも保守的であるとされる。たとえば、英語のrとlの区別は、これだけ英語からの借用語の氾濫する現代においても、日本語に定着する気配はない。英語からの借用語は、旧来の日本語の音節構造や子音・母音体系に影響を与えない形に変形するなどして、受け入れられ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新しい要素を受け入れることも皆無というわけではなく、新しい外来語音を受容が可能となる、いくつかの類型が指摘されている。

/ ta, 〇, 〇, te, to, 〇, 〇, 〇 /
タ テ ト
/ 〇, ci, cu, 〇, 〇, cja, cju, cjo /
チ ツ チャ チュ チョ

日本語のチ〔ti〕・ツ〔tu〕は、16世紀に破擦音化して、それぞれチ〔tʃi〕・ツ〔tʃu〕へと変化した。その結果として、子音音素/t-/と、母音音素/-i/・/-u/の組み合わせが「あきま」となり、この音素結合の「あきま」を埋めることになる、ティ/ti/・トゥ/tu/は、外来語音として比較的容易に定着できたと説明されている（パーティ party・トゥ モロー tomorrow など）。同じく音素結合の「あきま」に相当する/ca/ツァ・/ce/ツェ・/co/ツォの例が外来語にほとんどないのは、たまたま英語にこれに該当する音が原則として存在しないからであ

り、「ピッ ツア pizza」「カン ツォーネ canzone」など、英語以外を起源とする外来語には、いくつかの語例が指摘できる。「そい つぁー困った（そいつは困った）」「ごっ つおーさん（御馳走さん）」のように、和語や漢語でも、くだけた発話において、ツァ・ツォなどに相当する音が出現することがあるのは、これらの音が、もともと現代日本語に居場所の用意された音であるからであろう。

これに対して、英語の[si]に対応するスイ[si]、[hu]に対応するホウ[huu]のような音は、子音・母音自体はそれぞれ日本語に存在するものの、音素の結合として見た場合、すでに/si/の位置は「シ」[ei]、/hu/の位置は「フ」[φu]で埋められており、「あきま」が存在しないため、[si]・[hu] ([huu]) は、「シ」[ei]・「フ」[φu]と区別する形では、日本語には受け入れられにくいと説明される。

サ	シ	ス	セ	ソ	シャ	シュ	ショ
/ sa,	si,	su,	se,	so,	sja,	sju,	sjo /
[sa,	ei,	su,	se,	so,	ea,	eu,	eo]
ハ	ヒ	フ	ヘ	ホ	ハヤ	ヒュ	ヒョ
/ ha,	hi,	hu,	he,	ho,	hja,	hju,	hjo /
[ha,	ci,	φu,	he,	ho,	ca,	cu,	co]

以上のような〈音素結合の「あきま」〉による説明が一定の有効性を持っている一方で、現在では外来語音としてかなり定着している、ファ [φa]・フィ [φi]・フェ [φe] などは、音素結合の「あきま」に入ったとは見なせず、フ [φu] の「音声」として存在する子音 [φ] を流用したものと説明せざるを得ない。シェ [ce]・ジェ [dze~ze]・チェ [tce] についても、それぞれ/sje/・/zje/・/cje/と音韻論的に解釈すると、定着している理由を「あきま」を埋める結合であったからとは説明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外来語音受容の可否に関しての〈音素結合の「あきま」〉による説明は、万能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開拗音が、日本語に安定的に受け入れられたことに対する従来の説明としては、音素結合の「あきま」に入ったとする考え方も、「キ [ki]」における [k] のような口蓋化した子音音声流用されたとする考え方も提示されているが、いずれも十分な説得力を持たない。いくつかの問題点があるのだが、特に問題となるのは、日本漢字音にはウ段開拗音の分布に大きな偏りがあり、短いウ段開拗音は、原則としてシュ・ジュしか存在しないことである。現代日本語では、九（キュー）・牛（ギュー）・抽（チュー）・入（ニュー）・粒（リュー）など、長く伸ばす形でシュ・ジュ以外のウ段開拗音も存在するが、これらは古く、キウ・ギウ・チウ・ニフ・リフなどであって、狭義のウ段開拗音ではなかった。このウ段開拗音の分布の偏りは、中国原音からは説明できないし、韓国漢字音と比較しても、不可思議な分布であるはずである。この分布の偏りが、音素結合の「あきま」に入ったとする考え方でも、口蓋化した子音音声流用されたとする考え方でも、十分には説明できない。

このウ段開拗音の分布の偏りは、相対的に古いア行表記の開拗音のうち、日本語の二重母音として許容された「キウ」などの「i ウ形」のみがそのまま定着し、許容されなかった「i ア形」「i オ形」が、いったんヤ行表記される形で2音節化したためと考えると、

辻褄が合う（シュ・ジュのみが存在し得た理由については後述）。

(旧) ア行表記	キア NG	キウ OK	キオ NG
	↓	↓	↓
(新) ヤ行表記	キヤ	×	キヨ

以上のような見通しのもと、開拗音の日本語への受け入れは、「分解圧縮法」によったとする解釈を提案する。分解圧縮法とは、一連の要素を二単位に分解した上で、必要に応じて圧縮する受け入れ方のことである。「star→スター/sutar/」は、英語の二重子音を二音節に分解して受け入れたものであるが、原音を特に意識する場合には「圧縮」して発音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開拗音の受容過程において、このような分解の段階を想定すれば、平安初期にア行表記の拗音が存在したことも、そのうちのウ段拗音が、結果的に2モーラで定着していることも説明しやすいであろう。ヤ行表記の開拗音は、この段階では、まだ本質的に2音節であり、場合によっては圧縮して発音することもあったと考える。これが現代のように、1モーラの重みを持つ音として完全に日本語に同化するのは、おおよそ室町時代ぐらいであったと推定する（この頃には、拗音を含んだ和語も見られるようになる）。

三 カ行・ガ行合拗音の受容

一方の合拗音は、どのような経緯で日本語に定着したのであろうか？

合拗音の表記は、類音表記・拗音仮名表記が一般的であり、仮名2字による表記の普及は、開拗音のそれに大きく遅れる。平安極初期には、前出の「契（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のような合拗音の仮名表記例もあるが、この方式（およびナ行合拗音そのもの）は定着することなく途絶えてしまった。つまり、開拗音と合拗音とでは日本語への受け入れ方が大きく異なった可能性があり、合拗音は分解圧縮法にはよらない移入のされ方をしたと考えた方が良さそうである。合拗音が分解圧縮法によらなかったとすると、どのような受け入れられ方をした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か。当然、《あきま》に受け入れる方式を候補として考えてゆくことになる。

本発表では、以下のような解釈を提案する。

上代（8世紀）の日本語は、後世とはかなり異なる母音体系を有していたとされる。後世（現代語を含む）の母音音素 /-o/ は、上代語の2種の母音に遡るのであり、万葉仮名の中国原音を手掛かりに、1つは奥舌母音 [-o]、もう1つは中舌母音 [-œ]（または [-ə]）が推定されることが多い。前者は才段甲類、後者は才段乙類と呼ばれている。この2種の母音の区別は、まず /m-/ において失われ（文献上に証拠はないが、おそらくそれに先行して /p-/・/b-/ において失われ）、最後（9世紀）まで区別が保たれたのは、/k-/・/g-/ であった。こうした、唇音から始まり、軟口蓋音に終わる、2種の母音の対立の解消順序から、また、万葉仮名に用いられている漢字音の傾向から、一つの推定として、才段甲類・乙類の区別の解消過程において、音声的に [-o] > [-wo]、[-œ] > [-o] に接近してい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が出てくる（注1）。このような対立は、唇音においては不安定

で、軟口蓋音においては相対的に安定しやすいからである。

もし、平安時代初期（9世紀）の、/k-/・/g-/においてのみ残った才段甲類・乙類の音の区別を、母音音素の対立と解釈すると、不経済な6母音体系を想定することになる。そこで、2種の音の区別を、子音の側の円唇性の有無の対立（/k^w-/ : /k-/）と解釈するならば、

ka（カ） : ki（キ） : ku（ク） : ke（ケ） : ko（コ_乙）
 （ ） : （ ） : （ ） : （ ） : k^wo（コ_甲）

のように、/k^w-/と/a, i, e/との組み合わせに「あきま」が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の音素結合の「あきま」に入り込む形で、クワ/k^wa/・クヰ/k^wi/・クヱ/k^we/（および、グワ/g^wa/・グヰ/g^wi/・グヱ/g^we/）が、漢字音として移入されたと説明できる。漢字音までを含めれば、体系上のあきまの少ない、均整のとれた体系が想定されることになる。以上のような説明は、カ行・ガ行にのみ合拗音が存在した理由も同時に説明できるので、合拗音受容の仮説の、最低限の条件をクリアしていることになろう。

開拗音：分解圧縮法により移入・定着

合拗音：《あきま》に嵌め込まれる形で移入。

以上のように、拗音の定着に別々の過程を想定することにより、ここまで述べてきた、開拗音と合拗音との表記の歴史に、厳然たる差が存在したことについても説明がしやすくなる。開拗音は早くから2単位に分割した形で書き表す方式が発達したが、合拗音は、かなり遅くまで、1単位の文字で書き表し続け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以上の説明は単なる結果論であって、開拗音と合拗音とで、なぜ顕著な非対称性が生じたのか、根本の問題は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残されている。平安極初期（810年頃）の訓点資料には、「栗〈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のような、合拗音のア行表記の例が一例だけある。結果的にこのナ行合拗音は定着しなかったが、合拗音も、分解圧縮法によって移入される可能性が十分にあったことになろう。

四 サ行開拗音の特質

ここまで棚上げしてきたが、サ行・ザ行開拗音は、開拗音の中でも特異な振る舞いをする事が知られている。それはサ行・ザ行子音の特性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そのサ行・ザ行子音の歴史は、日本語音韻史の中でも未決着な部分の多い問題であり、たとえば平安初期の「サ」の音声については、[ʃa]・[tsa]・[ja]・[sa]の4通りの可能性が提案されている（ザ行子音に関しても、平行して問題が存在するが、以下の考察では、もっぱらサ行子音についてのみ取り上げて話を進める）。

ここで、サ行開拗音の特異な振る舞いの1つを取り上げてみよう。平安時代の平仮名文献において、しばしば拗音が「直音表記」されていることは、経験的に知られていること

である。「すきやうさ（^{シユ}修行者）」「しそく（紙^{シヨク}燭）」「すらう（^{シユリヤウ}受領）」など、例は多い。大半の平仮名文学作品は、時代の下った後世の転写本であって、そのまま平安時代の様相を伝えていると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が、わずかに残っている平安時代の平仮名散文の写本（拗音は漢語に限定されるため、和歌の写本は利用できない）において、拗音の直音表記はサ行に集中す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馬淵 1959・春日和男 1960 など）。

関戸本三宝絵（1120 年写）

むらうこふ（無^{リヤウ}量劫）・せんたう（^{ヂヤウ}禅定）
ちくさう（畜^{シヤウ}生）・さか女らい（^{シヤ}釈迦如来）・すさう（^{シユシヤウ}衆生）・ほたいす院（菩
提
^{シユ}樹院）・しんす（^{シユ}神呪）・大そう経てん（大^{シヨウ}乗經典）・さいそう仙人（最^{シヨウ}勝仙人）
.....

このような事実から、当時のサ行子音が [ɟ] または [ʃ] のような口蓋性を持った子音であり、日本語のサ・ス・ソ自体が拗音的な音声で実現していたためであると推定されることがある（馬淵 1959・柳田 1993）。

しかしながら、すべてのサ行開拗音が直音表記されるわけではなく、以上の見通しとは矛盾する推定も、上代の万葉仮名の研究から出てきている。かつては、サ行音の表記に用いられる万葉仮名は、あまりに雑多なものが混在しているため、当時のサ行子音の音価推定には利用できないと考えられていたが、森（1991）により、日本書紀α群の万葉仮名が、万葉仮名資料の中でも突出して高い純度で中国原音に依拠し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上代語の音韻史料として、最優先で参照すべきもの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日本書紀α群を利用した、森の推定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サ [ˈsa] ・シ [ˈʃi] ・ス [su] ・セ [ˈʃe] ・ソ_甲 [so] ・ソ_乙 [ˈsə]

閉鎖性の有無（破擦音か摩擦音か）はさておき、ア段・ウ段・オ段甲乙類ともに、口蓋性を持たない子音が推定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上代語のサ行子音の推定と、平安時代以降のサ行開拗音の問題を両立させるには、どのような歴史を想定すれば良いであろうか？

結論としては、古代のサ行子音は、調音の位置については、かなり幅のあるものであったと推定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そのサ行子音の異音 allophone の重心は、ア段・ウ段・オ段に関しては口蓋性を持たない側に、イ段・エ段は口蓋性を持った側にあったと考えることになる。

以下の表 1 は、国際音声字母（IPA）の子音の表から、歯茎音周辺の閉鎖音・鼻音・摩擦音を抜き出したものである。国際音声字母の子音の表の中では、この箇所のみが例外的な枠組みで作表されており、閉鎖音・鼻音が一系列であるのに対し、摩擦音は三系列の音で対応させられている（破擦音は子音の表に含まれないが、やはり三系統の音が区別されることになる）。

表 1 国際音声字母（一部）

	歯音	歯茎音	後部歯茎音
閉鎖音	t d		
鼻音	n		
摩擦音	θ ð	s z	ʃ ʒ

摩擦音が三系統に区別されるのは、国際音声字母がイギリスで発達してきたという歴史的な事情による部分が多いと思われるが、日本語話者の場合は、歯音と歯茎音を聞き分けるのが難しく、二系列の摩擦音のみが聴覚的・調音的に区別される。言語によっては、歯茎音と後部歯茎音の区別も持たず、閉鎖音・鼻音・摩擦音のすべてが一系列で対応する体系をなすものもある。たとえばアイヌ語の場合、歯茎音近辺は摩擦音が一系列しかなく、「姉 [sa~ja]」「鍋 [su~ju]」のように、音声的に幅を持って実現する（異音の重心には、方言差・個人差がある）。古代日本語の場合も、漢字音として拗音が借用される前の段階では、歯茎音周辺の摩擦音が一系列しかなかったはずなのだから、サ行子音も、アイヌ語のように音声的に幅を持った状態であったと考えて不自然ではなかろう。

その後、漢字音の普及とともに、漢字音における直拗の対立 (/ka/ : /kja/ など) を定着させてゆく過程で、サ行でも直拗の区別を安定させようとする体系的圧力が働き、日本語音のサ行子音の異音の幅も抑制され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エ段に関しては、漢字音に直音・拗音の対立が無かったため、かなり時代が下るまで、セ [je] の発音が維持され得たのであろう（現在でも、九州をはじめとする各地の方言に揺れとして残存している）。エ段以外に関しても、サ行音が直音的にも拗音的にも中間的にも発音されている（されていた）という方言調査の報告は散見する。共通語と同様の音声で実現されることも多いため、方言の調査報告から漏れやすいだけで、そのつもりで調査すれば、もっと多くの地域で、このように幅を持ったサ行・ザ行子音の音声を観察されるかも知れない。

なお、閉鎖の有無（摩擦音か破擦音化か）についても、異音の範囲内のゆれであったと推定する（注2）。つまり、古代日本語のサ行子音は、調音位置（口蓋的～非口蓋的）についても、調音様式（破擦音～摩擦音）についても、異音の幅の広いものであったと推定す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に、サ行子音の異音の幅を広く推定する見解は、早田（1996）にも見られたところであった。

五 サ行開拗音とカ行合拗音との相似

開拗音は分解圧縮法により日本語に受け入れたと推定したが、サ行・ザ行拗音の場合は、口蓋的な音声 [ɥ~ʃ] もサ行子音の異音の範囲内にあったため、分解を経ずに、最初から1単位のもの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も可能であったことになる。その一つの反映が、いわゆる直音表記がサ行・ザ行に集中して見られることであった。また、シュ・ジュのみが短いウ段開拗音として存在するのも、この1単位での受容に由来するものであろう。以上のような1単位での受け入れは、合拗音の受け入れ方に通じる面があり、サ行・ザ行開拗音と、カ行・ガ行合拗音には、いくつかの共通する特徴も見られる。

仮名と組み合わせて用いる「拗音仮名」は、サ行・ザ行開拗音と、カ行・ガ行合拗音に

ほぼ限定される。

観智院本類聚名義抄（鎌倉時代中期写）の拗音仮名

獲 クワ 〈火ク〉	穴 クエ 〈化チ〉	
	源 グエ 〈外ン〉	
正 シヤ 〈者ウ〉	肅 シュ 〈主ク〉	昇 シヨ 〈所ウ〉
讓 ジヤ 〈謝ウ〉	順 ジュ 〈受ン〉	承 ジョ 〈序ウ〉

つまり、表記の上で「1単位」で処理さ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点で、サ行・ザ行開拗音の把握の仕方が、カ行・ガ行合拗音に通じる一面を持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臻撮合口諄韻 (/ - iuen / [- yeñ]) ・術韻 (/ - iuet / [- yet]) の漢字は、現代の日本漢字音ではサ行・ザ行の場合のみシュン (春 etc.) ・ジュン (純 etc.) ・シュツ (出 etc.) ・ジュツ (述 etc.) のように拗音が現れる (過去の文献にはチュン・チュツの例もあるが、現在では使われない)。同韻字にリン (倫) ・リツ (律) などがあるが、これらはリユン・リュツにはならない。同じく同韻字のキン (均) ・キツ (橘) などは、キュン・キュツとはならないものの、平安時代にはそれぞれクキン・クキツのように合拗音であった。このような点にも、サ行・ザ行開拗音と、カ行・ガ行合拗音との相似関係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サ行・ザ行開拗音は、分解圧縮法による2単位での受け入れと、異音の幅を反映した1単位での受け入れが併存していたのであり、そのことが、他の開拗音と同様の振る舞いをする一方で、合拗音にも通じる特異な振る舞いをする原因となったのであろう。

注

(1) 上代語自体についても、オ段甲類-wo、乙類-o という推定がなされることがある。

日本国内では、三宅 (1933) に始まって、複数の研究者によって主張されたが、現在では一般的ではない。Lange (1973) が採用した影響で、現在でも欧米ではポピュラーな説となっている。オ段甲類・乙類の万葉仮名の中国原音は、一部分については確かに合口介音の有無の対立と解釈できるけれども、すべてをそれで通すことはできず、いわゆる有坂法則 (一つの語基に共存しうる母音の制限) において、「オ/o/」も「ワ/wo/」も、オ段甲類・乙類の対立に関して中立的であったという見通しもある (有坂 1955)。つまり、オ段甲類-wo、乙類-o とする推定とは整合しにくいのである。そもそも体系的に見ても不自然な推定である。この系統の発想を、音声であるにせよ音韻論的解釈であるにせよ、上代語そのものに適用するのは、なお慎重であるべきであろう。

(2) 現代の多くの方言において、サ行子音は摩擦音で現れるが、高知県中村方言では、

摩擦音になることもあるものの、破擦音で発音されることが圧倒的に多く、注意深い発音では破擦音、時に破裂音に近く聞こえることさえあるという（山田 1983）。また、キリシタン資料では、サ行子音は s や x で綴るのが原則であって、そのまま受け入れれば摩擦音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が、丸山（1981）は、ロドリゲスの二つの文庫の記述から、「16 世紀から 17 世紀初頭の日本語の中に軽い閉鎖を伴った破擦音のサ行子音が存在したであろう」と結論した。以上のような中村方言・キリシタン資料、そして先述の日本書紀 α 群の万葉仮名をも勘案すると、摩擦音から破擦音への変化は相対的に起こりにくい以上、古代日本語のサ行子音は破擦音（閉鎖がごく軽いこともあり、異音として摩擦音が実現することも排されない）であったと考えるのが穏当であろう。

参考文献

- 有坂秀世（1955）『上代音韻攷』（三省堂）
- 春日和男（1960）「続三宝絵詞東大寺切管見一字音語の表記について」（『国語国文』29-1）→春日和男（1975）
- 春日和男（1975）『説話の語文—古代説話文の研究』（桜楓社）
- 春日政治（1938）「聖語藏本央掘魔羅經の字音点」（『文学研究』23）→春日政治（1956）
- 春日政治（1939）「聖語藏本唐写阿毘達磨雜集論の古点について」（安藤教授還暦記念会編『安藤教授還暦祝賀記念論文集』三省堂）→春日政治（1956）
- 春日政治（1942）『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国語学的研究』（岩波書店）→春日政治著作集別巻（勉誠社 1985）
- 春日政治（1956）『古訓点の研究』（風間書房）→春日政治著作集第六巻（勉誠社 1984）
- 小林芳規（2012）『平安時代の仏書に基づく漢文訓読史の研究 IV 中期訓読語体系』（汲古書院）
- 築島裕（1985）「正倉院聖語藏大智度論古点及び央掘魔羅經古点について」（『正倉院年報』7）
- 早田輝洋（1996）「上代日本語の音韻をめぐって（上・下）」（『月刊言語』平成 8 年 9・10 月号）
- 馬淵和夫（1959）「上代・中古におけるサ行頭音の音価」（『国語と国文学』36-1）→馬淵（1963）
- 馬淵和夫（1963）『日本韻学史の研究Ⅱ』（日本学術振興会）→増訂版（臨川書店一九八四）
- 丸山徹（1981）「中世日本語のサ行子音—ロドリゲスの記述をめぐって—」（『国語学』124）
- 三宅武郎（1933）「仮名遣の研究」（明治書院『国語科学講座』ⅩⅢ）
- 森博達（1991）『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大修館書店）
- 柳田征司（1993）『室町時代語を通して見た日本語音韻史』（武蔵野書院）
- 山田幸宏（1983）「土佐方言サ行子音と上代サ行子音」（『国語学』133）
- Lange, Roland A. (1973) *The Phonology of eight-century Japanese*. Tokyo: Sophia University.

引用文献資料

○阿毘達磨雜集論平安初期点／聖語藏本：春日政治（1939）による。○央掘魔羅經平安初期点／聖語藏本：春日政治（1938）、築島（1985）による。○願經四分律平安初期点／聖語藏本：大矢透『願經四分律古点』。小川本：大坪併治「小川本願經四分律古点」（『訓点語と訓点資料』9）。○金光明最勝王經平安初期点／西大寺本：春日政治（1942）。○三宝絵／関戸本、保安元年（1120）写：小泉弘・高橋伸幸『諸本対照三宝絵集成』（笠間書院）、『三宝絵 名古屋市博物館蔵』（名古屋市博物館）。○類聚名義抄／観智院本『類聚名義抄 観智院本』（八木書店・天理図書館善本叢書）、正宗敦夫編『類聚名義抄』（風間書房）。

サ(sa)행요음 - 개요음과 합요음의 경계 -

히즈메 슈지(도쿄대)¹⁾

1 개요음과 합요음의 비대칭성

일본어에는 전통적으로 ‘요음(拗音)’이라고 불리는 음이 있다. 현대 공통어에서는 「キヤ(kya)」 「キユ(kyu)」 「キョ(kyo)」와 같이, イ段(역주: 모음이 (-i)인 글자. イ(i), キ(ki), シ(si) 등)의 가나에 「ヤ(ya)」 「ユ(yu)」 「ヨ(yo)」를 조합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カ(ka)」 「ク(ku)」 「コ(ko)」 등과 같은 길이(1박자)로 발음된다. 현대 공통어에서는 사라졌지만, 과거의 일본어에는 「クワ(kwa)」 「クヰ(kwi)」 「クヱ(kwe)」와 같은 요음도 있었다. 이 양자를 구별할 때, 전자를 개요음(開拗音), 후자를 합요음(合拗音)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요음은 과거에는 중국어로부터 차용된 한자음에서만 보였던 것으로, (극히 단순화해서 말하면) 중국어의 음절구조를 IMVE/T라고 할 경우, M(개음)에 /-i-/요소가 있으면 개요음으로써, /-u-/요소가 있으면 합요음으로써 일본 한자음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 한자음 내의 개요음과 합요음의 분포는 비대칭적이며 또한 후대에 일본어로 정착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개요음 모든 자음에서 나타난다.

무로마치시대(1336-1573)에는 일본어 고유어에까지 파급되었다.

근대 이후의 외래어에도 사용되었다.

キャンディ(candy), キュート(cute), チャンス(chance),
ショコレート(chocolate) etc.

합요음 자음이 /k-/ , /g-/인 경우에만 나타나며, 다른 자음에서는 /-u-/요소가 떨어진다.

역사적으로는 /k-/ , /g-/인 경우에도 사라진다.

kwi > ki, kwe > ke(가마쿠라시대(1192-1333)),

kwa > ka(에도시대(1603) 이후)

일본어 고유어에는 원칙적으로 파급되지 않았다.

근대 이후의 외래어에서 /CwV/와 같은 요소는 2박자로 분할되었다.

クイズ(quiz), クオーター(quarter), スワン(swan), スイム(swim),
ツイッター(Twitter) etc.

표기의 역사에서도 개요음과 합요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개요음은 헤이안시대 초기(9세기)부터 가나 두 글자를 조합한 표기(ア(a)행 표기 및 ヤ(ya)행 표기)가 있었다.

1) 번역: 정문호(북해도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溺<ミ^{アク}惡> 嬰<イ^{アウ}> 歷<リ^{アク}> 壤<ニ^{アウ}> 桀<チ^{アク}惡>
 [聖語藏本央掘魔羅經]
 釋<シ^{アク}> 弱<ミ^惡> 擇<(チ) ^{アク}> [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
 敵<チ^{アク}> 逆<キ^{アク}> 捨<シ^ア> 遮<シ^ア> 壤<ニ^{アウ}>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
 若<ニ^ヤ> 渚<シ^ヨ> [聖語藏本願經四分律]
 褚<チ^ヨ> [小川本願經四分律]

합요음은 헤이안시대 초기에도 가나를 사용한 표기한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ア행 표기「冥<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1예만이 알려져 있다), 이 표기가 계승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아래와 같은 유음(類音) 표기 및 요음가나(拗音假名) 표기가 사용되었다.

醯<ク^エ化> 血<ク^{エチ}決> 活<ク^ワ果チ> [聖語藏本央掘魔羅經]
 關<ク^{エン}犬> 毀<ク^キ貴> 觸<ク^エ化イ>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

「クワ」「クキ」와 같이 가나 두 글자를 조합하여 표기하는 방식이 퍼진 것은 11세기경부터로, 헤이안시대 초기부터 가나 표기가 존재했었던 개요음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최근의 연구에서는 10세기부터 합요음을 가나 두 글자로 표기한 용례가 보고되고 있으나(小林 2012: 137~), 확실히 흔하지 않은 예이다).

2 개요음의 수용

일반적으로 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음성 및 음운은 언어접촉에 의한 영향을 받기 어렵고, 새로운 요소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r과 l의 구별은, 영어로부터 차용한 단어가 범람하는 현대에도 일본어에 정착하려는 김새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로부터 차용한 단어는 종래의 일본어 음절구조나 자음 및 모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변형되는 등의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요소를 수용하는 일도 전무하지 않으며, 새로운 외래어의 음을 수용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유형이 지적되고 있다.

/ ta, ○, ○, te, to, ○, ○, ○ /
 タ テ ト
 / ○, ci, cu, ○, ○, cja, cju, cjo /
 チ ツ チャ チュ チョ

일본어의 チ[ti]와 ツ[tu]는 16세기 파찰음화하여 각각 チ[ʧi]와 ツ[ʧu]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로 자음음소 /t-/와 모음음소 /-i/와 /-u/의 조합에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이 음소결합의 빈틈을 메우는 ティ/ti/와 トゥ/tu/는 외래어음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된다(バーティ party, トゥモロー tomorrow등). 마찬가지로 음소결합의 빈틈에 해당되는 ツァ/ca/, ツェ/ce/, ツォ/co/의 용례가 외래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히도 영어에 이에 해당하는 음이 원칙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ピッツァpizza」 「カンツォーネcanzone」와 같이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에서 몇 가지 예를 지적할 수 있다. 「そいつあ一困った(そいつは困った/역주: 그 일 때문에 곤란하게 됐다)」 「ごっつおーさん(御馳走さん/역주: 잘 먹었습니다)」와 같이 일본어나 한자어에서도 친근한 관계 사이의 발화 내에서 ツァ, ツォ 등에 해당하는 음이 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음이 원래부터 현대일본어에 있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영어의 [si]에 대응하는 スィ[si], [hu]에 대응하는 ホゥ[hw]와 같은 음은 자음 및 모음 자체가 각각 일본어에 존재는 하지만, 음소결합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si/의 위치는 「シ」[ci], /hu/의 위치는 「フ」[ɸu]로 메워져 있어서 ‘빈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i]·[hu]([hw])는 「シ」[ci], 「フ」[ɸu]와 구별되는 형태로는 일본어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サ シ ス セ ソ シャ シュ ショ
/ sa, si, su, se, so, sja, sju, sjo /
[sa, ci, sw, se, so, ɕa, ɕu, ɕo]
ハ ヒ フ ヘ ホ ヒャ ヒュ ヒョ
/ ha, hi, hu, he, ho, hja, hju, hjo /
[ha, ci, ɸu, he, ho, ɕa, ɕu, ɕo]

위와 같이 <음소 결합의 ‘빈틈’>에 의한 설명이 일정한 유효성을 가지는 한편, 현대에는 외래어음으로서 정착한 ファ[ɸa], フィ[ɸi], フェ[ɸe]등은 음소결합의 ‘빈틈’에 들어갔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フ[ɸu]의 ‘음성’으로서 존재하는 자음[ɸ]을 유용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 シェ[ɕe], ジェ[ɕe~ze], チェ[ɕe]에 대해서는 각각 /sje/, /zje/, /cje/와 같이 음운론적으로 해석하면, 정착하게 된 이유를 ‘빈틈’을 메우는 결합이기 때문이었다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외래어음 수용의 가부에 관한 <음소 결합의 ‘빈틈’>에 의한 설명은 만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개요음이 일본어에 안정적으로 수용된 것에 대한 종래의 설명으로는 음소 결합의 ‘빈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キ [kʲi]」내의 [kʲ]와 같이 구개화된 자음의 음성이 유용되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으나, 어느 것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한자음에는 ウ段(역주: 모음이 (-u)인 글자. ウ(u), ク(ku), ス(su) 등) 개요음의 분포에 큰 편향이 있고, 짧은 우단 개요음은 원칙상 シュ·ジ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九(キュー)·牛(ギュー)·抽(チュー)·入(ニュー)·粒(リュー)등, 장음화되는 형태로 シュ·ジュ 이외의 우단 개요음은 존재하지만, 이들은 과거에는 キウ·ギウ·チウ·ニフ·リフ

등이어서 협의의 우단 개요음은 아니었다. 이 우단 개요음 분포의 편향은 중국어의 원음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한자음과 비교해도 불가사의한 분포일 것이다. 이 분포의 편향은 음소결 합의 ‘빈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으로도 구개음화된 자음의 음성이 유용되었다는 주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 우단 개요음 분포의 편향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행 표기 개요음 중에 일본어의 이중모음으로 허용되었던 「キウ」와 같은 「i 우형」만이 그대로 정착하였고, 허용되지 않았던 「i 아형」「i 오형」이 일단 야행 표기된 형태로 2음절화했다고 생각하면 이치에 맞다(シュ・ジュ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舊) 아행표기	キア ^{NG}	キウ ^{OK}	キオ ^{NG}
	↓	↓	↓
(新) 야행표기	キヤ	×	キヨ

위와 같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어의 개요음 수용은 ‘분해압축법’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안한다. 분해압축법이란 일련의 요소를 2단위로 분해한 후에, 필요에 따라 압축하는 수용법이다. 「star→スター/sutaR/」는 영어의 이중자음을 2음절로 분해하여 수용한 것이지만, 원음을 특히 의식한 경우에는 ‘압축’하여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요음의 수용과정에서 이와 같은 분해의 과정을 상정하면, 헤이안시대 초기에 아행 표기의 요음이 존재했던 것과 그 중에 우단 요음이 결과적으로 2박자로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용이해질 것이다. 야행 표기의 개요음은 이 단계에서 아직 본질적으로는 2음절로, 상황에 따라서 압축하여 발음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것이 현대와 같이 1박자의 길이를 가진 음으로 완전히 일본어로 동화되는 것은 대략 무로마치시대 정도로 추정된다(이 당시에는 요음을 포함한 일본 고유어도 보이기 시작한다).

3 카행·가행 합요음의 수용

한편 합요음의 경우는 어떠한 경위로 일본어로 정착했던 것일까?

합요음의 표기는 유음 표기와 요음가나 표기가 일반적으로, 가나 두 글자를 사용한 표기의 보급은 개요음에 비해서 크게 뒤쳐진다. 헤이안시대의 극히 초기단계에는 앞에서도 예를 들었던 「𑖙<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과 같은 합요음가나 표기의 예도 있으나, 이 방식(및 ナ(na)행 합요음 자체)은 정착되지 않고 명맥이 끊어졌다. 즉 개요음과 합요음은 일본어로 수용되는 방식이 크게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합요음은 분해압축법에 의하지 않고 이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합요음이 분해압축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연히 ‘빈틈’으로 이입되는 방식을 후보로써

염두에 두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제안한다.

上代(8세기)의 일본어는 후세와 상당히 다른 모음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후세(현대를 포함)의 모음 음소 /-o/는 上代語의 2종류의 모음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으로 만요가나(萬葉假名)의 중국어의 원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는 후설모음[-o]와 다른 하나는 중설모음 [-ə](혹은[-ɐ])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ㄷ단의 甲類, 후자는 ㄷ단의 乙類로 불린다. 이 2종류의 모음의 구별은 우선 /m-/에서 소실되었고(문헌상의 증거는 없으나 아마도 그에 앞서 /p-/·/b-/에서 소실되었고), 마지막(9세기)까지 구별이 잔존한 것은 /k-/·/g-/였다. 이와 같이 순음으로부터 비롯하여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2종류의 모음 대립의 해소순서와, 또한 만요가나에 사용되었던 한자음의 경향으로부터 추정하건대, ㄷ단의 甲類과 乙類 구별의 해소과정에서 음성적으로 [-o]>[-wo], [-ə]>[-o]로 접근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생겨난다(주1). 이와 같은 대립은 순음에서는 불안정하고, 연구개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헤이안시대 초기(9世紀)의 /k-/·/g-/에만 남았던 ㄷ단의 甲類와 乙類 구별을 모음 음소의 대립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이지 못한 6모음체계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2종류의 음의 구별을 자음의 측면의 원순성의 유무의 대립(/k^w-/:/k-/)으로 해석한다면

ka (カ) : ki (キ) : ku (ク) : ke (ケ) : ko (コ乙)

() : () : () : () : k^wo (コ甲)

와 같이 /k^w-/와 /a, i, e/와의 조합에는 ‘빈틈’이 존재하게 되어, 음소결합의 빈틈에 들어가는 형태로, クワ/k^wa/·クヰ/k^wi/·クヱ/k^we/(내지는 グワ/g^wa/·グヰ/g^wi/·グヱ/g^we/)가 한자음으로써 이입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자음까지 포함한다면 체계상으로는 빈틈이 적은 균형잡힌 체계가 상정된다. 위와 같은 설명은 ㄷ행 및 ㄱ행에만 합요음이 존재한 이유도 동시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합요음 수용 가설에 대한 최저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것이다.

개요음: 분해압축법에 의한 이입 및 정착.

합요음: ‘빈틈’에 끼워 맞춰지는 형태로 이입.

위와 같이 요음의 정착에 서로 별도의 과정을 상정함으로써 여기까지 서술해왔던 개요음과 합요음의 역사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용이해졌다. 개요음은 일찍이 2단위로 분할된 형태로 표기하는 방식이 발달되었으나, 합요음은 상당히 늦게까지 1단위의 문자 표기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설명은 단지 결과론으로, 어째서 개요음과 합요음 사이에서 현저한 비대칭성이 생겨났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헤이안시대의 극히 초기(810년경)의 훈점자료에는 「稟〈ヌアニ〉[聖語藏本阿毘達磨雜集論]」과 같은 합요음 ㄷ행 표기의 예가 1예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ㄷ행 합요음

은 정착되지 않았으나, 합요음도 분해압축법에 의해서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4 사행 개요음의 특징

여기까지 미해결 상태로 보류해 왔지만, 사행·자행 개요음은 개요음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행·자행 자음의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행·자행 자음의 역사는 일본어 음운사 중에서도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 문제로, 예를 들어서 헤이안시대 초기의 ‘サ’의 음성에 대해서 [ʃa] · [tsa] · [ʃa] · [sa] 이 4가지 가능성이 제안되어 왔다(자행 자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하의 고찰에서는 오로지 사행 자음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사행 개요음의 특이한 형태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겠다. 헤이안시대 히라가나 문헌에서 자주 요음이 ‘직음(直音)표기’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すきやうさ(修行者)」「しそく(紙燭)」「すらう(受領)」등 예는 많이 있다. 대부분의 히라가나로 쓰여진 문학작품은 시대가 늦은 후세의 전사본으로 헤이안시대의 양상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근소하게 남아 있는 헤이안시대의 히라가나로 쓴 산문의 사본(요음은 한자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和歌(역주: 일본에서 만들어진 31음으로 구성된 정형의 短詩)의 사본은 이용할 수 없다)에는 요음의 직음표기가 사행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馬淵1959·春日和男1960 등).

關戸本三寶繪 (1120년 서사본)

むらうこふ(無量劫)·せんたう(禪定)
 ちくさう(畜生)·さか女らい(釋迦如來)·すさう(衆生)·ほたいす院(菩提樹院)
 しんす(神呪)·大そう經てん(大乘經典)·さいそう仙人(最勝仙人)
 ……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당시의 사행자음이 [ʃ] 혹은 [ʃ] 와 같이 구개성을 가진 자음으로, 일본어의 サ·ス·ソ 자체가 요음적인 음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설이 있다(馬淵1959·柳田1993).

그러나 사행 개요음이라고 해도 모두 직음으로 표기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관점과는 모순되는 추정도 上代 만요가나의 연구에서 나오고 있다. 일찍이 사행음의 표기에 사용된 만요가나는 너무나도 잡다한 것이 혼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행 자음의 음가 추정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森(1991)에 의해서 일본서기 a군의 만요가나가 만요가나 자료 내에서도 특히 높은 순도로 중국어의 원음에 의거했던 것이 지적되어, 上代語의 음운자료로서 최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것으로 고려되게 되었다. 일본서기 a군을 이용한 森의 추정은 아래와 같다.

サ [ˈsa] ·シ [ˈʃi] ·ス [su] ·セ [ˈʃe] ·ソ_甲 [so] ·ソ_乙 [ˈsə]

폐쇄성의 유무(파찰음 혹은 마찰음) 여부는 차치하고, ア단·ウ단·オ단의 甲乙類는 모두 구개성을 갖지 않는 자음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上代語의 ㅅ행 자음의 추정과 헤이안시대 이후의 ㅅ행 개요음의 문제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를 상정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대의 ㅅ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이 넓은 것이었다고 추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ㅅ행 자음 내의 異音(allophone)의 중심은 ア단·ウ단·オ단에 관해서는 구개성을 갖지 않는 쪽에, イ단·エ단은 구개성을 갖는 쪽에 속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하의 표1은 국제음성기호(IPA)의 자음표에서 치경음 주변의 폐쇄음, 비음, 마찰음을 발췌한 것이다. 국제음성기호의 자음표는 이곳만이 예외적인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폐쇄음, 비음은 한 가지 계열이 있는 것에 반해, 마찰음은 세 가지 계열의 음으로 대응되게 만들어져 있다(파찰음은 자음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세 가지 계통의 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다).

표 1 국제음성기호(일부)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폐쇄음	t d		
비음	n		
마찰음	θ ð	s z	ʃ ʒ

마찰음이 세 가지 계통으로 구별되는 것은 국제음성기호가 영국에서 발달했다는 역사적인 사정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어 화자의 경우에는 치음과 치경음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두 가지 계열의 마찰음만이 청각적, 조음적으로 구별된다. 언어에 따라서는 치경음과 후치경음의 구별이 없이 폐쇄음, 비음, 마찰음이 모두 하나의 계열과 대응하는 체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누어는 치경음 부근에는 마찰음이 한 계열 밖에 없어서, 「누나 [sa~ʃa] 」 「넴비 [su~ʃu] 」와 같이 음성적으로 폭이 있는 상태로 실현된다(이음의 중심에는 방언차 및 개인차가 있다). 고대 일본어의 경우에도 요음이 한자음으로 차용되기 전 단계에는 치경음 주변의 마찰음이 한 계통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ㅅ행 자음도 아이누어와 같이 음성적으로 폭을 가진 상태였다고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한자음의 보급과 함께 한자음 내의 직음과 요음의 대립(/ka/ : /kja/등)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ㅅ행에서도 직음과 요음 사이의 구별을 안정시키려는 체계적인 압력이 작용하여, 일본어의 음에서 ㅅ행 자음의 異音의 폭이 억제되었다고 생각된다. エ단의 경우 한자음에는 직음과 요음의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후세로 내려오기까지 세[ʃe]의 발음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현재에도 규슈지방을 비롯한

각지 방언에 잔존하고 있다). ㄷ단 이외에서도 ㅅ행음이 직음으로도 요음으로도 혹은 중간적으로도 발음된다는(혹은 발음되었다는) 방언조사에 대한 보고가 여럿 보인다. 공통어와 같은 음성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언의 조사보고에서 누락되기 쉬운 것일 뿐이고, 확실한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폭을 갖는 ㅅ행·ㅈ행 자음의 음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쇄의 유무(마찰음 혹은 파찰음화)에 대해서도 異音의 범위 내에서의 병존이었다고 추정한다(주2). 즉, 고대일본어의 ㅅ행 자음은 조음위치(구개음~비개구음)와 조음방법(마찰음~파찰음)에서 異音의 폭이 넓은 것이었다고 추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ㅅ행 자음의 異音이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견해는 早田(1996)에도 보인다.

5 ㅅ행 개요음과 ㄷ행 합요음의 유사점

개요음은 분해압축법에 의해서 일본어로 수용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 ㅅ행·ㅈ행 요음의 경우에는 구개적인 음성[ɸ~ʃ]도 ㅅ행 자음의 異音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분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단위로 수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이 반영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직음표기’가 ㅅ행·ㅈ행에 집중되었던 점이다. 또한 シュ·ジュ만이 짧은 ㄹ단 개요음으로 존재하는 것도 1단위로 수용된 점에서 유래하는 것일 것이다. 위와 같이 1단위로 수용된 점은 합요음의 수용방식과 통하는 측면이 있으며, ㅅ행·ㅈ행 개요음과 ㄷ행·ㄱ행 합요음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가나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요음가나’는 거의 ㅅ행·ㅈ행 개요음과 ㄷ행·ㄱ행 합요음에 한정된다.

觀智院本類聚名義抄(가마쿠라시대 중기 서사)의 요음가나

獲 クワ 〈火ク〉		穴 クエ 〈化チ〉
		源 グエ 〈外ン〉
正 シヤ 〈者ウ〉	肅 シュ 〈主ク〉	昇 シヨ 〈所ウ〉
讓 ジヤ 〈謝ウ〉	順 ジュ 〈受ン〉	承 ジヨ 〈序ウ〉

즉 표기상으로는 1단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ㅅ행·ㅈ행 개요음의 파악방식이 ㄷ행·ㄱ행 합요음과 통하는 측면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臻攝合口諄韻(/-iuen/[-ye~n]), 術韻(/-iuet/[-ye~t])의 한자는 현대 일본한자음에서는 ㅅ행·ㅈ행의 경우에만 シュン(春 etc.)·ジュン(純 etc.)·シュツ(出 etc.)·ジュツ(述 etc.)와 같이 요음으로 표기된다(과거의 문헌에는 チュン·チュツ와 같은 예도 있으나,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同韻字로 린(倫)·릿(律) 등이 있으나 이들은 리운·리윅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同韻字 중 킨(均)·킅(橘) 등은 킨·키윅으로 표기되지만 헤이안시대에는 각각 クシン·クキツ와 같은 합요음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ㅅ행·ㅈ행 개요음과 ㄷ행·ㄱ행 합요음 사이에는 서로 유사한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ㅅ행·ㅈ행 개요음은 분해압축법에 의해서 2단위로 수용된 예와 異音의 폭을 반영해서 1단위로 수용된 예가 병존한 것이고, 이것이 그 외의 개요음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한편 합요음과도 통하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원인일 것이다.

注

(1) 上代語 자체에 대해서도 ㄷ단의 甲類를 -wo, 乙類를 -o와 같이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三宅(1933)으로부터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반적이지 않다. Lange(1973)가 채용된 영향으로 현재에도 서양에서는 유력한 설이 되었다. ㄷ단의 甲類과 乙類의 만요가나의 중국어 원음은 일부분에 한해서는 확실히 ㄱ口介音의 유무의 대립이라고 해석하지만, 모든 예를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른바 有坂法則(한 개의 어기에 공존할 수 있는 모음의 제한)에서 「オ/o/」와 「ヲ/wo/」 양쪽이 ㄷ단의 甲類·乙類의 대립에서는 중립적이었다는 관점도 있다(有坂1955). 즉 ㄷ단의 甲類-wo와 乙類-o로 추정하는 설과는 부합하기 어렵다. 애당초 체계적으로 보아도 부자연스러운 추정이다. 이 계통의 발상을 음성이 되었든, 음운론적 해석이 되었든 上代語 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현대의 많은 방언에서 ㅅ행 자음은 마찰음으로 나타나는데, 고치현(高知縣)의 나카무라 방언(中村方言)에서는 마찰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파찰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신중하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파찰음, 때로는 파열음에 가깝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山田 1983). 또한 기리시탄 자료(역주: 16-17세기 예수회가 일본 국내에서 인쇄소를 설치하여 간행한 활자본의 총칭)에서 ㅅ행 자음은 s나 x로 적는 것이 원칙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찰음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丸山(1981)은 로드리게스의 두 가지 文典(역주: 『日本大文典』(1604-1608)와 『日本小文典』(1620))의 기술에서 “16세기부터 17세기 초의 일본어에는 가벼운 폐쇄를 동반한 파찰음인 ㅅ행 자음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위와 같이 나카무라 방언과 기리시탄 자료, 그리고 앞에서 다루었던 일본서기 a군의 만요가나를 감안하면, 마찰음에서 파찰음으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고대일본어의 ㅅ행 자음은 파찰음(폐쇄가 극히 가벼운 경우도 있어 異音으로서 마찰음이 실현되는 것도 배제되지 않는)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參考文獻

- 有坂秀世 (1955) 『上代音韻攷』 (三省堂)
 春日和男 (1960) 「続三宝絵詞東大寺切管見一字音語の表記について」 (『国語国文』 29-1) →春日和男 (1975)
 春日和男 (1975) 『説話の語文—古代説話文の研究』 (桜楓社)
 春日政治 (1938) 「聖語蔵本央掘魔羅經の字音点」 (『文学研究』 23) →春日政治

(1956)

春日政治 (1939) 「聖語藏本唐写阿毘達磨雜集論の古点について」 (安藤教授還暦記念会編『安藤教授還暦祝賀記念論文集』三省堂) →春日政治 (1956)

春日政治 (1942)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国語学的研究』 (岩波書店) →春日政治著作集別卷 (勉誠社1985)

春日政治 (1956) 『古訓点の研究』 (風間書房) →春日政治著作集第六卷 (勉誠社1984)

小林芳規 (2012) 『平安時代の仏書に基づく漢文訓読史の研究 IV 中期訓読語体系』 (汲古書院)

築島裕 (1985) 「正倉院聖語藏大智度論古点及び央掘魔羅經古点について」 (『正倉院年報』 7)

早田輝洋 (1996) 「上代日本語の音韻をめぐって (上・下)」 (『月刊言語』 平成8年9・10月号)

馬淵和夫 (1959) 「上代・中古におけるサ行頭音の音価」 (『国語と国文学』 36-1) →馬淵 (1963)

馬淵和夫 (1963) 『日本韻学史の研究Ⅱ』 (日本学術振興会) →増訂版 (臨川書店一九八四)

丸山徹 (1981) 「中世日本語のサ行子音ーロドリゲスの記述をめぐってー」 (『国語学』 124)

三宅武郎 (1933) 「仮名遣の研究」 (明治書院『国語科学講座』 XII)

森博達 (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柳田征司 (1993) 『室町時代語を通してみた日本語音韻史』 (武蔵野書院)

山田幸宏 (1983) 「土佐方言サ行子音と上代サ行子音」 (『国語学』 133)

Lange, Roland A. (1973) The Phonology of eight-century Japanese. Tokyo: Sophia University.

引用文献資料

○阿毘達磨雜集論平安初期點 / 聖語藏本: 春日政治(1939)에 의거. ○央掘魔羅經平安初期點 / 聖語藏本: 春日政治(1938), 築島(1985)에 의거. ○願經四分律平安初期點 / 聖語藏本: 大矢透『願經四分律古點』. 小川本: 大坪併治「小川本願經四分律古點」(『訓点語と訓点資料』 9). ○金光明最勝王經平安初期點 / 西大寺本: 春日政治(1942). ○三寶繪 / 關戸本, 保安元年(1120)서사본: 小泉弘・高橋伸幸『諸本對照三寶繪集成』(笠間書院), 『三寶繪 名古屋市博物館藏』(名古屋市博物館). ○類聚名義抄 / 觀智院本 『類聚名義抄 觀智院本』(八木書店・天理圖書館善本叢書), 正宗敦夫編『類聚名義抄』(風間書房).

번역: 鄭門鎬(北海道大學 文學研究科 博士課程)

當代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문제*

백두현(경북대)

1. 차자법의 원리와 한자 변용의 유형

1.1. 들어가기

차자 표기의 발달 과정에서 훈독법과 우리말 문법형태를 표기한 차자의 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훈독법이 언제 생성되었으며, 문법형태를 표기한 차자가 출현한 시기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훈독법의 발생 시기에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아왔다. 본고의 초점은 當代 자료를 중심으로 훈독법의 존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탐색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대 자료는 금석문, 목간, 필사본 고문서 등과 같이 당대에 생성된 자료를 가리킨다. 후대의 역사서나 문집 등의 문헌에 편입된 것은 당대 자료가 아니다. 예컨대 大矩和尚이 편찬한 「삼대목」은¹⁾ 당대 자료이지만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른바 ‘遺事향가’는 당대 자료가 아니다.²⁾ 차자 표기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당대 자료는 압도적 권위를 가진다.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에 속하는 당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자료인 사서의 기록(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을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當代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2차 자료 중에서 당대성이 뚜렷한 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훈독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1.2. 차자법(借字法)의 원리와 용어

훈민정음이 나오기 이전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방법 일체 묶어서 우리는 ‘차자표기법’(줄여서 ‘차자법’)이라 부른다. 고유 문자를 갖지 못했던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이 차자법이다. 차자 텍스트는 그 목적에 따라 이두, 향찰, 구결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이두는 각종 실용문서 작성에 사용된 것이고, 향찰은 향가 표기에 사용된 것이다. 구결은 한문에 우리말 토씨를 삽입하여 한문 학습용 보조 수단으로 만

* 이 글의 초고를 사독해 주신 주보돈 교수님과 이장희 박사께 감사드린다.

1)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진성여왕 2년의 다음 기록이 삼대목 편찬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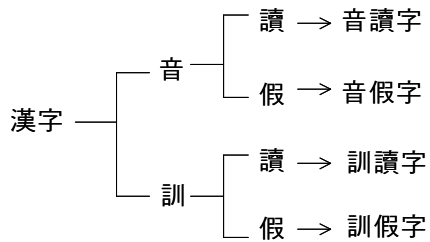
二年 春二月 少梁里石自行. 王素與角干魏弘通 至是 常入內用事. 仍命與大矩和尚 修集鄉歌 謂之三代目云. 及魏弘卒 追諡爲惠成大王. (三國史記 卷 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2) 자료의 구분은 연구 분야나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당대 자료를 1차 자료라 하고, 그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 등을 2차 자료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쓰는 1차, 2차 자료의 뜻은 또 다르다. 본고의 용어와 무관하게 국어사 연구자의 관점에서 필자는 자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차 자료: 원전자료(고문헌, 역사서, 원본과 그 이본들). 2차 자료: 원전을 분석하여 체계화 한 자료(사진, 디지털화한 텍스트 말뭉치와 이미지 자료). 3차 자료: 1,2차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저 자료(연구논문과 저서 등). 4차 자료: 논저 목록집, 문헌 목록집 등.

든 것인데 약체자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자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찍이 양주동(1942/1965)은 향가 해독을 위해 향찰 문자에 나타난 한자 사용 원리를 유형화했다. 남풍현(2000:16)은 한자의 음과 훈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讀’과 ‘假’의 원리를 적용하여 양주동의 분류를 더욱 체계화하여 진일보시켰다. 그는 아래의 표와 같이 차자법 원리를 세우고 차자를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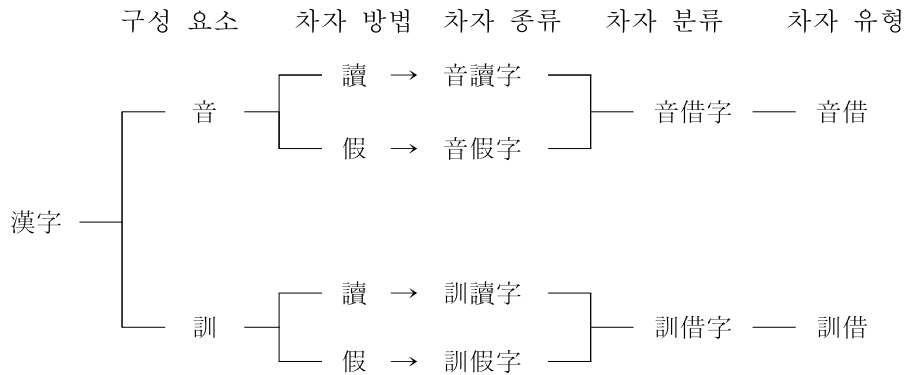


‘讀’은 한자의 원의를 살려서 읽는 것이고, ‘假’는 원의를 버리고 음을 빌려 쓴 방식이다. 음가자는 한자 육서법의 假借와 같다고 보면 된다.³⁾ 남풍현의 이러한 분류는 간명하면서도 논리적이어서 학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필자는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는 용어를 고려하여 한자의 음을 이용한 음독자와 음가자를 묶어서 ‘음차자’라 부르고 그 방법을 ‘음차’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음차자는 한자의 원래 뜻을 살린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음가자와 음독자로 나누어지고, 이 방법 자체를 지시하는 용어가 ‘음차(音借)’이다. 마찬가지로 위 표의 훈독자와 훈가자를 묶어서 ‘훈차자(訓借字)’로 부르고, 이 방법 자체를 지시하는 용어로 ‘훈차(訓借)’를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⁴⁾ 音借는 音を 讀과 假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묶어서 지시하며, 이 방법에 의해 사용된 문자가 音借字인 것이다. 訓借는 訓을 讀과 假의 원리로 이용하는 것을 묶어서 지시하고, 이 방법에 의해 사용된 문자가 訓借字이다. 이런 관점을 남풍현 선생의 표에 보완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3) 차용 방법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音假字는 ‘음가차법’(音-假借法), 訓假字는 ‘훈가차법’(訓-假借法)이라고 부를 수 있다.

4) 讀과 假의 구별에 따른 네 가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뜻을 살려 음으로 읽는 ‘음독법’을 ‘훈차’(혹은 훈독)라 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위의 구별에 따르면 강수의 이름 ‘牛頭’를 ‘우두’로 읽으면 음독에 해당하고, ‘소머리’로 읽으면 ‘훈독’에 해당한다. 전자를 ‘훈차’라고 보면 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主’를 ‘님’으로 읽으면 훈독이고, ‘주’로 읽으면 음독이 된다.



[표 19] 차자법 분류 체계

음가(音假)의 원리는 중국 한자의 육서법에 있는 假借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한반도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다. 음독법 역시 모든 한자의 본질에 속한 것이어서 독창적 활용과 거리가 멀다. 한자음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음차법(음독자와 음가자)과 한자 훈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훈차법(훈독자와 훈가자)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훈독자이다. 훈독자는 훈독법에 의해 생성된 차자이다. 훈독법은 중국 한자와 한문에 없는 한반도 고유의 차자 원리이다. 고대 한반도에서 훈독법의 등장은 차자법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훈독법은 한반도에서 창안되어 고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훈독자 생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音假와 訓讀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音譯字’와 ‘訓譯字’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強首’의 원래 이름이었던 ‘牛頭’의 예를 들어 訓譯字와 音譯字란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신라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이 강수를 불러 그의 이름을 물으니 ‘牛頭’라고 대답했다.⁵⁾ ‘牛頭’는 ‘쇠머리’를 한자화 시켜 적은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강수를 부르던 이름은 고유어 ‘쇠머리’였고, 史書 집필자가 강수의 이름을 ‘牛頭’로 번역하여 적은 것이다. ‘牛頭’는 고유어 ‘쇠머리’를 한자어로 訓譯한 것이 된다. ‘쇠머리’를 ‘牛頭’로 적으면 이것은 훈역이 되고, 적어 놓은 ‘牛頭’를 ‘쇠머리’로 읽으면 훈독이 된다. 강수 이름을 표기한 최초 단계에서 일어난 과정적 행위를 고려하여 訓譯과 訓讀을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훈역에 이용된 한자는 훈역자가 된다. 훈역자도 한자의 원의를 살려 쓴 것은 훈역 독자(讀字)이고, 원의와 무관히 쓴 것은 훈역 가자(假字)라 칭할 수 있다. ‘쇠머리’를 훈역하여 ‘牛頭’라는 한자로 적고, 이 ‘牛頭’를 ‘쇠머리’로 읽으면 訓讀이 된다. 그러다가 ‘牛頭’라는 한자어가 점점 익숙하게 되어 이것을 ‘우두’라고 읽으면 이는 곧 음독이 된다. 훈역법과 훈독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울진봉평비(524)에 등장한 ‘居伐牟羅’라는 인명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입말로 쓰던 고유어 지명을 한자로 音譯한 것이다. ‘居伐牟羅’의 각 글자는 한자 원의와 무관하게 쓰였기 때문에 적확히 말하면 音譯 假字가 된다. ‘音假字’라는 용어는 ‘音譯 假字’를 줄인 셈이다. 고대의 고유명사 표기에는 音譯 假字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경주의 옛 이름 ‘徐伐’은 음역 가자이고, 이것을 ‘東京’으로 표기하면 음독자가 된다. 이런 용어의 구별은 백제 무녕왕의 인명 표기 ‘斯麻’과 ‘元曉’의 이름을 논하는 자리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5) 三國史記 卷 第四十六 列傳 第六 強首 崔致遠 薛聰.

1.3. 한자 변용의 유형

고대의 한반도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⁶⁾ 우리말을 적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중국 한자를 받아들여 이것으로 우리말을 적어낼 때 일어난 여러 유형을 묶어서 ‘한자의 變用’이라⁷⁾ 부른다. 한자 변용의 유형은⁸⁾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의 예시는 당대 자료(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등)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 한자의 음을 빌린 음차법의 유형과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①음가자, 음가법으로 우리말을 어휘를 표기한 것: 牟盧城, 彌沙城, 阿旦城, 古利城, 鄒牟王, 斯盧, 節居利.

②음독자, 음독법으로 우리말 한자어를 만든 것(고유 한자어=한국 한자어): 百殘, 新羅, 韓國, 平穰城,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太山韓城(광개토왕릉비). 丁女・助子・追子(新羅帳籍 755). 번역어에 해당함.

③차용 한자어, 중국 한자어를 차용하여 우리말로 음독한 것: 世子, 屬民, 黃龍, 永樂五年, 辛卯年, 倭人, 東海. 신라 자료: 公主, 大師, 華嚴經, 塔, 차용어에 해당함.

위의 ①②③은 모두 음차법에 속한다. 음가와 음독의 방법은 중국의 한자 운용법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어 온 것으로 한국 차자법 고유의 것은 아니다.

①에서 음가법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한자를 음가자(적확한 용어는 音譯 假字)라 부른다. ①의 4개 성 이름에서 우리말 고유어를 표기한 음가자는 ‘城’자 앞에 놓인 글자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牟盧’ 등은 모두 한자의 음을 가차하여 우리말을 적은 음가자이다. 광개토왕릉비(414년)의 인명표기 ‘鄒牟’, 국명표기 ‘百殘’, 지명 표기 ‘古牟婁城’, ‘彌鄒城’, ‘掃加城’ 등은 우리말 어휘를 음역한 음가자 표기례들이다. 이러한 음가자 표기례는 연대가 확실한 신라비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영일냉수리비(503)의 주인공 ‘節居利’는 음가자 인명 표기례이다.

②에서 음독법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한자를 음독자라 부른다. ②③에 들어간 한자어 ‘世子’, ‘平穰城’ 등은 음독자에 해당한다. 讀과 假의 원리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이 한자어들을 ‘훈차’(혹은 훈독)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②의 앞 6개 한자어들은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에 등장한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의 비문의 이 지명 예들은 우리말을 한자어화하여 표기한 것으로서 가장 연대가 빠른 당대 자료의 예들이다. 여기에 ‘新羅’라는 국명이 등장하여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⁹⁾

신라의 초기 국호 ‘斯盧’와 ‘斯羅’는¹⁰⁾ 음가자이고, 나중에 고친 ‘新羅’는 음독자로 본다. 그

6) 고대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된 과정은 황위주(1996, 2000)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7) ‘變容’이라 쓰지 않고 ‘變用’이라 한 것은 ‘바꾸어서 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8) 이준석(1998:63~89)은 한자와 한문의 도입 과정을 이식(移植), 수용, 토착이라는 세 가지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자와 한문이 이식되는 단계(이식단계), 한자와 한문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수용 단계, 우리말의 문법형태까지 정밀하게 표기해 내는 변용 단계로 구분하였다. 수용 단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변용’의 개념을 특정화시켜 ‘수용’과 구별한 점이 특징적이다. ‘변용’의 대립어를 찾기가 어려워 ‘수용’이란 용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변용’을 ‘수용’의 하위 범주로 본다.

9) ‘斯盧’, ‘新羅’, ‘斯羅’ 등의 신라 국명 이표기들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권인한(2008)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斯盧’는 기원후 3세기의 중국 사서(三國志, 魏書, 北史)에 나타나고, ‘新羅’는 기원후 307년에 처음 등장하여 5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권인한 2008: 189~191). 그러나 당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新羅’가 등장한 최초 자료는 광개토대왕비(414년)가 된다.

10) ‘斯羅’는 영일냉수리비(503)의 제1행 첫머리에 나타난 것이 당대 자료로서 가장 빠른 예이다.

러나 ‘斯羅’에 쓰인 ‘斯’의 상고음 *si가 존재했던 사실(이장희 2002: 174~175)을 고려하면 ‘斯羅’와 ‘新羅’는 그 음가를 ‘시라’로 볼 수 있어서 서로 비슷한 것이 된다. ‘新羅’라는 국명에 “德業日新 網羅四方”(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智證麻立干 4年)라는 뜻풀이를 가하여 온전한 한문식 한자어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음가로 보면 ‘新羅’는 ‘斯羅’의 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뜻을 새롭게 한 것이다. ‘斯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한문식 한자어 ‘新羅’로 바꾼 것이다. ‘新羅’라는 한자어 국명을 만들면서 이미 써오던 고유어 국명 ‘斯羅’의 음가를 새 국명이 반영한 것이다.

둘째, 한자의 훈을 빌린 훈차법의 유형과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④訓讀法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것 : 大舍:韓舍, 爲尼(히니)

⑤訓假法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것 : 종결어미로 쓰인 如(-다), 구격조사 표기에 쓰인 以(-로)

④의 訓讀法이란 ‘차자표기로서의 훈독법’을 뜻하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차자표기로서의 훈독법’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한자 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뜻하는 ‘訓讀’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차자표기로서의 훈독법’이란 한자의 훈으로 우리말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¹¹⁾

⑤의 訓假法은 한자의 원의를 버리고 음만 빌려 쓰는 음가법을 訓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의 훈을 원의와 무관하게 전용하여 쓰는 訓假法은, 한자의音を 原義와 무관하게 轉用한 음가법의 창의적 변용이라 볼 수 있다. ④⑤를 묶어서 훈차자 혹은 훈차라 부른다. 훈차의 방법은 음차에 해당하는 음가와 음독의 방법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음가법과 음독법은 중국의 한자 운용법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훈독법과 훈가법은 중국 한문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창안된 고유의 방법이 훈독법과 훈가법이다. 훈독법과 훈가법은 차자법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신이어서 차자법의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성중(2005: 54-57)은 한문 훈독의 개념을 일본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놓았다.

①~⑤에서 논한 한자의 변용 유형과 예시를 도표로 요약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유형	음독법	음가법	훈독법	훈가법
설명	한자의 원의를 살려 중국 한자어를 수용한 것	한자음을 가차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	한자의 원의를 살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	한자의 뜻을 가차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
예시	永樂. 大王. 恩澤. 財物.	忽本. 古牟婁 寐錦. 節居利	成在. 罪敎事. 了作事之	寫在如 入內如

[표 20] 한자의 변용 유형

11) ‘天地’를 ‘턴디’로 읽으면 음독이 되고, ‘하늘짜’로 읽으면 훈독이 된다. 훈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성중(2005)을 참고.

셋째, 한자의 자형(字形) 및 어순(=문법)과 관련된 변용 유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¹²⁾

⑥한자의 자형을 크게 줄여서 약체자를 만든 것 : 한문 학습을 위한 약체 구결자

⑦중국 한자에 없는 한자를 새로 만든 것(고유 한자=한국 한자(韓字) : 棕(창고), 沓, 喙, 桀.

⑧우리말 어순에 맞춘 한문 문장. 중국 한문 문법과 달리 한국어 문법에 맞도록 어순을 배열하거나 새로운 구절을 만들어 낸 것. 이것은 ‘변격 한문’, ‘변체 한문’, ‘속한문’, ‘韓化 한문’(김영옥 2008a) 등의 이름으로 불려 왔다. 임신서기석, 영일냉수리비, 울진봉평비 등.

⑥은 한문 학습을 위해 사용한 약체(略體) 구결자를 가리킨다. 약체 구결자의 형성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어느 시대에 약체 구결자가 만들어졌으며, 어떤 인물이 여기에 작용했을까? 흥미로운 연구 주제지만 접근이 쉽지 않다. 약체 구결자를 사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殘本『구역인왕경』 등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고바야시 등에 의해 일본에 傳存된 신라 寫經에 약체 구결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⑦은 중국 한자에 없는 글자를 한반도에서 새로 만든 것인데 흔히 고유 한자, 助字, 韓字 등으로 불려 왔다. 신라 금석문 자료에 이러한 글자가 여러 개 있다. 창녕진흥왕척경비에 나오는 ‘沓’과 같은 글자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창녕인양사비에 나온 ‘石’(섬)의 이체자¹³⁾, 백제 궁남지 출토 목간, 고구려 명문토기와 평양성 석각문, 백제와 신라 목간에 공통적으로 쓰인 ‘口’(部)도 생획자(省劃字) 혹은 약체자에 해당한다.

⑧은 우리말 문법에 맞도록 한문의 문장 구조를 변용한 것이다. 이른바 변체 한문 혹은 俗漢文이라 불려왔던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석문 자료로서 우리말 어순으로 된 것은 임신서기석(552년 혹은 612년)이 가장 잘 알려진 예이며,¹⁴⁾ 영일냉수리비와 울진봉평비의 비문 역시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한문 문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표현한 한문 문장은 ‘變用’이 아니므로 위의 유형 분류에서 제외했다. 학자 간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예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광개토대왕비문의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置 黃(?)龍負(?)昇天”의 ‘於’가 목적격 조사이고, 이 문장의 어순이 순한문이 아닌 우리말 표현 요소가 있다는 견해가 홍기문(1957: 28) 이래¹⁵⁾ 여러 학자들의 논저에 나타나 있다. ?표를 단 끝 구절은 ‘履龍負昇天’으로 수정 판독되어 ‘우리말 어순’ 운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於’는 처소 표시어로 한문의 어법에 맞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비문에 나오는 “以道興治”는 ‘도로 다스림을 흥하게 했다’는 순한문이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우리말 어순 및 이두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이용(2007)에 자세하고, 여호규(2011)도 참고할 수 있다.

12) ⑥의 약체 구결자는 음가●훈가●훈독의 방법을 모두 내재하고 있지만 한자 자형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크게 바꾼 것이어서 한자 자형을 새로 만든 ⑦과 가까이 두었다.

13) ‘石’자의 상부 획(一)을 없앤 자형이다.

14) 이 금석문에 나오는 ‘天前誓’(하늘 앞에서 맹서하다), ‘忠道執持’(충도를 잡아 지키다) 같은 구절이 우리말 어순의 대표적 예이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사마왕 왕비의 은팔찌[銀釧] 명문 “庚子年二月多利作”(경자년 2월에 다리가 지었다.)을 우리말 어순 자료로 보기도 한다(남풍현 1998/2000: 32). 그러나 이 문장 뒤에 이어진 “大夫人口二百世主耳”에서 ‘大夫人口’이란 명사가 동사 ‘作’의 목적어일 수도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口에 팔찌를 뜻하는 한자가 놓일 수도 있다.

15) 홍기문(1957: 28)은 순수 한문식인 이 비문에도 “리두적 어순의 혼입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置 黃龍負昇天”에서 ‘王於忽本東置’의 王은 보통 한문의 어순으로 보면 바로 뒤의 ‘黃龍負昇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분의 어순이 이두적임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黃龍負昇天’는 구절의 판독 자체에 문제가 많음이 드러난바, 이용(2007)에서 탁본 간의 대비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위에서 정리한 한자의 변용 유형 중에서 국어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은 ①음가법, ④훈독법, ⑤훈가법, ⑥약체 구결자 관련 자료이다. 이 유형들은 모두 우리말을 더 ‘진하게’ 반영한 것이어서 국어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1.4. 독법의 적용 방법 문제

국어사 연구자가 이두적 성격이 뚜렷한 남산신성비, 무술오작비, 화엄경사경조성기 등의 문장을 대할 때 이것을 읽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남풍현(2000)에 제시된 해석 문장에는 이런 고심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이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이승재(2008)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한 이두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세운 바 있다. 한국어 특유의 고유명사나 물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어순이 한국어 어순(SOV)일 것. 한국어의 문법형태(조사나 어미)가 있을 것이 그것이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세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 하여 이두문 텍스트의 글자 하나하나를 당시 사람들이 우리말로 읽었을까?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남산신성비(591)의 “辛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 作後 三年 崩破者 罪教事爲 聞教令 誓事之”라는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자.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을 음독하고 어느 것을 훈독할 것인가? 훈독한다면 어떤 어형으로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辛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 부분은 ‘신해년 이월 이십육일 남산신성’이라고 음독했을 듯하나 과연 그리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作節’은 과연 ‘지을 때’와 같이 훈독했을까? ‘如法以’에서 ‘以’는 구격조사 ‘-로’를 표기한 것일까?¹⁶⁾ ‘如法以’를 ‘만약 법대로’로 풀이한다면, 뜻이 더 명료한 ‘若’을 두고 왜 ‘如’를 가져다 썼을까?¹⁷⁾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 作後 三年 崩破者”를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作 後三年 崩破者”로 끊을 수는 없는가? 전자로 분절하면(아래 표의 A) “남산신성을 지을 때에, 만약 법으로 지은 후 삼년에 붕파하면”으로 번역된다(남풍현 2006: 20). 후자로 분절하면(아래 표의 B) “남산신성을 지을 때에 법대로 지었다. 후 삼년에 붕파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다. A와 B의 차이는 두 가지이다. ‘如’를 부사 ‘만약’으로 본 점과 ‘作後’를 어떻게 끊었는가 하는 점이다.

A	南	山	新	城		作	節		如		法	以	作	後		三	年		崩	破	者
B	南	山	新	城		作	節		如	法	以	作		後	三	年		崩	破	者	

위 구절에서 ‘三年 崩破者’를 ‘삼년 붕파자’와 같이 음독했을까, 아니면 ‘세 해 (안에) 무너지고 깨어지게 한 사람은’으로 훈독했을까?

‘罪教事爲聞 教令 誓事之’에 마주치면 더욱 난감해진다. 이 문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래 표의 A처럼 분절하면 “죄 있는 일(罪教事)로 함을 듣고 教令을 맹서한 일이다”라

16) ‘如法以’를 번역할 때 ‘以’를 구격조사 ‘-로’로 풀이함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以’가 구격조사 ‘-로’를 표기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조사 표기자 전반의 표기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2017: 125)이 정리한 구격조사 정리 도표에는 이 예에 ‘△’(불분명하거나 오기일 수 있는 것)이라 표시해 놓았고, 각주 16)에서 한문의 ‘以’의 용법이 이두문의 조사 표기자로 쓰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이용(2017)은 삼국시대 이두자료부터 조선 전기의 이두 자료를 망라하여 조사 표기자를 정리하고 출현 양상을 논하였다. 이두 자료의 당대적 성격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그의 자료 접근 방식은 본받을 만하다.

17) 영일냉수리비에 는 조건 구문에 ‘若’을 썼다. “別教節居利 若先死後 令其弟兄斯奴 得此財 教耳”[別教로서, 節居利가 만약 먼저 죽은 후에는 그의 아우 斯奴로 하여금 이 재물을 얻게 한다는 판결(지시)을 내린다.] (남풍현 2000: 80)

고 번역된다. 아래 표의 B처럼 분절하면 “죄 있는 일(罪敎事)이라는 敎令을 들려주고 맹서한 일이다”로 번역된다. 아래 표의 C처럼 분절하면 “죄 있는 일(罪敎事)이라는 敎를 듣고 맹서하게 한 일이다”라고 번역된다.¹⁸⁾ A와 B의 분절은 의미상 대동소이하지만 C는 ‘敎令’을 분리하여 ‘敎’는 왕명을, ‘令’는 사동사 ‘시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즉 C처럼 분절하면 ‘敎令’이란 한자어가 없어지고, ‘令’자는 사동사 ‘-게 하다’를 뜻하는 훈독자가 된다.¹⁹⁾ 남산신성비가 세워지던 6세기 말에 신라의 율령에 ‘敎’와 ‘令’의 구별이 있었으며 성을 지을 때 내린 왕명은 敎인가? 令인가?

A	罪	敎	事		爲	聞		敎	令		誓	事	之
B	罪	敎	事		爲	聞	敎	令		誓	事	之	
C	罪	敎	事		爲	聞		敎		令	誓	事	之

위 세 가지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남산신성비의 위 문장은 성벽 공사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한 글이지, 실제로 이 문장을 음독 혹은 훈독으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罪敎事爲聞 敎令 誓事之’와 같은 이상한 문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신라선림원종명과 같은 경우 좁은 공간에 여러 정보를 넣기 위해 생략 표기한 예가 있다(남풍현 2000: 325). 글자를 넣어야 하는 금석의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금석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을 금석문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금석에 기록한 문장을 당시의 언어로 字句 하나하나 모두 읽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우리가 대하는 금석 이두문을 字句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말로 읽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의 이두 연구자가 금석의 이두문 중 어떤 것은 우리말로 풀이해 읽고, 어떤 것은 읽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여 문제 제기를 해 둔다.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국어학자가 고민해 온 이두문의 독법과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내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듯하다. 문장의 내용만 파악하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 문법에 맞는 독법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언어 자체를 다루는 국어사 연구자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차자로 표기된 낱말과 문장에 음독법과 훈독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대의 국어 문법에 맞는 문법형태와 어휘는 어떤 것을 끌어와서 독법을 정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가장 타당한 답을 찾아야 국어학자들이 추구하는 고대국어의 ‘언어적 실상(實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사학자들이 차자 표기 자료를 연구하는 목적은 당대의 ‘언어적 실상’을 밝히는 데 귀착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방법을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18) 남풍현(2000: 158)은 이 구절을 ‘罪주실 일로 삼아 奏聞하라는 敎令에 따라 맹서하는 일이다’라고 풀이했다. ‘敎令’을 하나의 명사로 보고 사동구문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罪敎事’를 ‘죄 주실 일’로 풀이한 것도 주목된다.

19)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서 ‘令’은 약체자 ‘ㄴ’로 쓰였고, ‘ㄱ’(이)와 결합한 ‘令ㄱ’(=ㄴㄱ)은 사동사 ‘히-’(또는 ‘히-’)를 나타낸 것이다. ‘令’은 ‘시키다’와 같은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사동의 의미가 우리말의 사동 표현에 이용된 것이 ‘令ㄱ’이다.

2. 당대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유형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한자의 뜻으로 우리말을 적은 훈독법이다. 훈독법은 차자법 발달사에서 음독법의 틀을 뛰어넘은 비약이라는 점에서 한자 변용의 새로운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한자의 원래 뜻(原義)을 살려 이용한 훈독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의와 무관하게 한자를 이용한 訓假法으로 진화한다. 훈가법의 적용이 우리말 어휘 표기는 물론 문법형태를 표기하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차자에 의한 우리말 문장 표현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훈독법은 훈가법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은 고구려에서 먼저 발달하여 이것이 신라에 전파되어 신라에서 더욱 진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강전섭 1963, 이기문 1980, 남풍현 2006). 이 점을 고려하여 고구려 언어 자료를 통해 훈독법의 생성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백제와 신라 자료를 검토한다.²⁰⁾ 차자로서 우리말을 표기한 자료 중에서 훈독법을 보여주는 당대 자료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불가피한 경우 당대적 성격을 띤 2차 자료의 예도 끌어와서 함께 논한다.

2.1. 고구려 자료

2.1.1. 금석문 자료

광개토왕릉비에는 한자를 이용해 고구려 권역의 인명과 지명을 표기한 어휘들이 다수 등장한다. 인명 ‘鄒牟王・儒留王・大朱留王’, 국명 ‘百殘・新羅・任那加羅’, 산천과 지역 이름 ‘奄利大水・沸流谷・忽本・加太羅谷’, 城 이름 ‘白模盧城・各模盧城・碑利城・也利城・男居城’ 등이 그 예이다. 이 고유명사의 표기자에는 음독 혹은 음가의 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많은 고유명사 어휘 표기가 등장하지만 훈독법이 이용된 예를 찾기 어렵다.²¹⁾ 이 비문의 말미에는 수묘인(守墓人)을 지역별로 할당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 ‘平穰城・太山韓城’과 같이 음독된 듯한 성 이름이 있고, 이와 함께 ‘百殘南居韓’(百殘의 남쪽에 사는 韓), ‘舍蔦城韓穢’²²⁾(사조성에 사는 한과 예), ‘巴奴城韓’²³⁾(파노성에 사는 한)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이 구절들에 쓰인 ‘韓’과 ‘穢’는 고구려가 복속시킨 지방민[족명]을 뜻하는데 이들이 훈독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의 주인 광개토대왕의 시호 표기를 두고 훈독법의 존재를 논한 견해가 있다. 윤선태(2011)와 김영옥(2011a)은 광개토대왕의 시호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근거로 고구려에서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광개토대왕의 시호는 이 비문에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호우명(壺杆銘)(415)에 ‘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5세기 중반경)에 ‘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이 칭호들이 음독이라면 ‘광(廣)/대(大)’나 ‘경(境)/지(地)’와 같은 표기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한

20) 훈독법을 포함한 고대 초기(上古)의 차자법의 발달은 남풍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21) 광개토왕릉비문에 우리말 어순을 포함한 이두적 요소가 있다고 본 홍기문(157: 28) 등의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용(2007)과 여호규(2011)의 정밀한 검토에 의해 부정되었다.

22)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

23) 巴奴城韓九家爲看烟

다”(윤선태 2011: 143-144)라고 하였다. 김영옥(2011a: 302)에서도 이 시호를 언급하며 “광(廣), 대(大)는 동일 인명 표기이므로 음가도 동일해야 한다.”고 하고, “중국식으로 음독했다면 이와 같은 이표기(異表記)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서 신라 관직명 ‘大舍’와 ‘韓舍’의 대응을 들며 ‘廣’과 ‘大’의 훈을 *han으로 추정했다. 이 추론을 그대로 따른다면 ‘廣開土’의 ‘廣’과 ‘大開土’의 ‘大’의 훈독 어형은 모두 [한]이 된다.

광개토대왕의 시호에 나타난 이표기를 근거로 고구려에서 훈독법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한자의 전래와 수용으로 보면 고구려가 앞선 것이 분명하여, 훈독법이라는 새로운 변용도 고구려에서 먼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 시호에 이표기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훈독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표기 시호들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 이들을 표에 넣어 대조해 보자.

광개토대왕릉비	國	岡	上	廣	開	土	境	平	安	好	太		王
호우명	國	岡	上	廣	開	土	地			好	太		王
모두루묘지	國	岡	上	大	開	土	地			好	太	聖	王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세 이표기에서 차이점은 네 가지이다. ‘廣:大’의 차이, ‘境:地’의 차이, ‘平安’의 있고 없음, ‘聖’의 있고 없음이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훈독의 증거로 삼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平安’의 유무와 ‘聖’의 유무는 이 시호가 음독되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이 시호의 표기 맥락에서 이 글자들을 훈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境:地’의 차이도 한자를 바꾸어 표기한 것이지 이 차이가 훈독의 증거라 하기 어렵다. ‘境’은 ‘地’보다 국가 영토의 개념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기에 글자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셋째, ‘大’의 훈은 ‘한’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을 ‘廣’의 훈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의 여러 자서(字書)에 ‘廣’의 훈은 ‘너르-’, ‘넓-’으로 나오지 ‘한’ 혹은 ‘큰’으로 나온 예가 없다.²⁴⁾ 넷째, 모두루묘에 쓰인 글이 전형적 한문이라는 점이다. 전형적 한문 속에 표기된 왕의 시호가 당시의 고구려어로 훈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다섯째, ‘廣開土境’과 ‘大開土地’의 대비에서 어느 글자가 훈독되고, 어느 글자가 음독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廣開土境’과 ‘大開土地’에서 ‘廣:大’를 훈독하여 [한]으로 읽는다면 뒤에 붙은 ‘開土境(地)’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광개토대왕 시호의 이표기들은 광개토대왕의 위엄과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기록문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쓴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²⁵⁾

「중원고구려비」(5세기 중후반)의 문장은 「광개토대왕릉비」의 그것보다 이두적 요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이기문 1980, 남풍현 2000/2006, 김영옥 2007b 등).²⁶⁾ 이 비문에 나타난

24) 김영옥(2011a: 303)은 백제 지명이었던 ‘廣津’이 漢江의 나루이므로 이에 ‘廣’을 “*han”으로 재구한 도수희(2005: 37)의 견해를 인용하여, 廣開土의 ‘廣’을 “*han”으로 재구하였다. ‘廣津’이 漢江에 있는 나루이므로 ‘廣:漢’을 직접 대응시킨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25) 대왕의 시호를 기록문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6세기 신라 금석문에서 동일인의 인명 표기에 다른 한자가 사용되기도 했으며, 국왕의 이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주보돈(2002: 148)의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주보돈(2009: 392~393)에서는 法興王의 이름 표기가 울주천전리서적 追銘(539)에 ‘牟卽智’로 나오고 중국 사서 『梁書』에 ‘募秦’로 기록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런 예를 광개토대왕 시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참고 자료가 됨은 분명하다.

26) 중원고구려비의 이두적 요소에 대한 집중적 논의는 남풍현(2000b), 정광(2003), 김영옥(2007b)를

‘五月中’의 처소 표시 ‘中’, ‘守天東來之’와 ‘受教跪營之’의 종결사 ‘之’, ‘節敎賜’와 같은 이두식 표현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런 이두적 요소들이 훈독법의 존재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호규(2011: 112,115)에서 예시한 고구려 묘지 목서명, 불상 명문, 와당 명문, 평양성 석각문 등의 여러 가지 고구려 당대 자료에도 종결사 ‘之’, 처격 표시 ‘中’, 이두식 한자 ‘節’ 등이 모두 나타나지만 이들 역시 훈독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1.2. 역사서 자료

연대가 확실한 고구려 금석문 당대 자료에서 음차자(음독자와 음가자)의 용례는 확인되지만 훈차자(훈독자와 훈가자) 존재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구려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은 2차 자료에 수록된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인이 직접 기록한 당대 자료는 아니지만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삼국사기 지리지(권 37)에 나타난 고구려 지명을 분석하여 고구려어에 훈독법이 존재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다.

노태돈(1996: 200)은 일본인 학자 池内宏(1949)를 인용하여, 압록강 이북의 성 이름을 적은 삼국사기 권37의 ‘目錄’은 667년 2월~9월 사이에 당군(唐軍)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권37(志6 地理4)에 ‘鴨渚以北逃城七’이라 하여 압록강 이북에 있는 도망성[逃城城, 逃城] 이름 7개도 그 일부이다. 도망성 이름 중에 이기문 선생이 언급하여 잘 알려진 예가 있다. 7개 중의 첫번째 성이 ‘鉛城本乃勿忽’이다. 이 명칭에서 ‘鉛:乃勿’ 및 ‘忽:城’이 각각 서로 대응한다. ‘鉛:乃勿’의 대응에서 ‘납’을 뜻하는 고구려어가 ‘*namər’(나물)’임을 알 수 있고²⁷⁾, ‘城’을 뜻하는 고구려어 ‘*kor~hol’(골~홀)을 얻을 수 있다.²⁸⁾ ‘鉛城:乃勿忽’의 대응에서 한자 ‘鉛’의 고구려어 훈 ‘*namər’이 대응한다.

그런데 문제는 ‘乃勿忽’을 한자어화한 ‘鉛城’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는지,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고구려에서 지명을 한자화했다는 역사 기록은 없지만 장수왕 대에 ‘平壤’으로 천도했다고 하는 기록에서 한자화된 지명 ‘平壤’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지명은 고구려 지명의 한자화가 고구려 당대에 진행되었음을 증언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鉛城’도 고구려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鉛城’은 압록강 이북에 있는 도망성이면서 통일 후에도 신라의 통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의 지명을 신라가 바꾸었다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鉛’을 뜻하는 신라어가 ‘납’이고 ‘*namər’(나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런 판단을 지지해 준다. 신라어를 기반으로 한 중세국어 문헌에 ‘납’은 쓰였지만 ‘*namər’은 흔적도 없다. 고구려어의 소멸과 함께 ‘*namər’이 사라진 것이다. ‘납’과 ‘나물’의 차이는 압록강 이북의 지명이 고구려 고유의 것임을 뒷받침한다.

고구려 지명에서 연관된 예를 더 검토해 보자. 삼국사기 권37(志6-地理4)에는 압록강 이남의 漢山州에 속한 고구려 지명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음훈 대응이 분명한 다음과 같은 지명 표기가 존재한다.²⁹⁾

文峴縣一云斤尸波兮

文:斤尸(글). 峴:波兮(바회)

참고할 수 있다. 남풍현(2000), 중원고구려비문의 해독과 이두적 성격, 『고구려연구』 10호.

27) 이기문(1972:35) 선생은 이 어형이 고대 일본어 namari(鉛)와 일치함을 지적하였다.

28) 이기문(1972:33) 참고.

29) 아래 예에서 *를 단 재구형은 이기문(1972:33~35)을 참고한 것이고, 한글 어형 표기는 필자가 한 것이다.

狴川郡一云也尸買	狴:也尸(여쓰~야시). 川:買(*mai~*mie).
母城郡一云也次忽	母:也次(어디). 城:忽(골)
七重縣一云難隱別	七:難隱(*nanən)
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	泉:於乙(*er)
鐵圓郡一云毛乙冬非	鐵:毛乙(*tər). 圓:冬非(*tarpi)
買忽一云水城	買:水. 忽:城
水谷城縣一云買旦忽	水:買(*mai~*mie). 谷:旦(*tan). 城:忽(골)
水入縣一云買伊縣	水:買. 入:伊(*i-)
三峴縣一云密波兮	三:密(*mir). 峴:波兮(*paxə).

‘一云’ 앞은 한자어화한 지명이고 ‘一云’ 뒤는 고구려 고유어를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다. 각각 한자어와 고구려 고유어의 대응을 보여 준다. ‘文峴縣一云斤尸波兮’에서 보듯이 한자 ‘文’의 고구려어 훈 ‘斤尸’(글)이 음가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峴’의 고구려어 훈 ‘波兮’(바회)가 음가자로 표기되어 있다. 문제는 ‘一云’ 앞에 놓인 한자어 지명이 고구려 당대의 것인지 통일 신라 시대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자로 보면 고구려에 ‘斤尸’(글)을 ‘文’으로 바꾼 훈역법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이 예들은 신라에서 훈역한 것이 된다.

삼국사기 권37 漢山州 지명의 나열이 끝난 말미에 “右 高句麗 州郡縣 共一百六十四 其新羅改名及今名 見新羅志”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 지명의 나열이 끝난 뒤에도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 나타나 있다. 한산주 지명에 대한 이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구려 한산주에 속한 주군현 164개 지명은 신라가 改名하여 ‘지금’(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이르고 있는 것이 된다. 인용문 끝에 나온 ‘見新羅志’에는 이 지명들이 「신라지」라는 사료에 나와 있음을 의미한다. 삼국사기 편찬자가 「신라지」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이루어진 지명 개정 당시의 신라에 ‘斤尸’(글)과 같이 ‘尸’를 말음첨기자로 이용한 방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斤尸’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표기라고 가정한다면 말음첨기자로 사용된 ‘尸’(ㄹ)이 고구려어에 존재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한산주라는 지역이 백제 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앞에서 본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 뒤에는 ‘新羅改名’ 운운이란 기록이 없다. 따라서 ‘鉛城本乃勿忽’ 등의 존재는 고구려에 훈독법(=훈역법)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과 한산주에 속한 고구려 지명 기록에 나타난 한자어 지명과 고구려 고유어휘의 대응 관계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지명의 한자어화가 신라 경덕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서 고구려에서도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427년) 고구려의 제도가 재정비되었고 지명의 한자어화 작업도 병행되었을 듯하다. 고구려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지명의 한자어화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과 한산주의 고구려 지명 속에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산주 지명 말미에 나온 “其新羅改名及今名”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어도 한산주 고구려 지명을 근거로 고구려에 훈독이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시행된 한문 교육과 역사서 편찬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고구려에서 이미 훈독법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다.

남풍현(2006: 17)에서 언급되었듯이 ‘연개소문’의 이름 표기자를 고구려의 훈독법 존재 여

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蓋蘇文或云蓋金”(삼국사기 권49)에서³⁰⁾ ‘蘇文’과 ‘金’이 대응하지만 이 둘의 관계를 음차 혹은 훈차의 측면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蘇’의 음 ‘소’와 ‘金’의 훈 ‘쇠’를 서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³¹⁾ ‘蓋金’의 ‘金’이 ‘쇠’를 표기한 ‘蘇’의 훈역자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로 남는 것은 ‘蘇文’의 ‘文’이다. 그런데 『일본서기』(권24)에서³²⁾ 淵蓋蘇文을 ‘伊梨柯須彌’(iri kasumi)로 적은 것은³³⁾ 훈독 여부의 판단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여기서 ‘淵:伊梨’와 ‘蓋蘇文:柯須彌’의 대응관계를 분석해 낼 수 있다. ‘淵:伊梨’에서 ‘伊梨’는 한산주에 속한 지명 ‘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의 ‘於乙’(*er=泉)과 그 음상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淵:伊梨’의 대응은 고구려어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지지한다. ‘蓋蘇文:柯須彌’에서 ‘蘇:須’가 대응한다. ‘蘇’와 ‘須’쇠를 표기한 음가자이다. ‘蓋金 : 蓋蘇 : 柯須’는 같은 이름을 달리 표기한 것이 된다. 이 셋의 대응에서 ‘쇠’의 음가자 ‘蘇’와 ‘須’를 훈역자 ‘金’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의 고구려 사람들이 ‘淵蓋蘇文’을 [iri kasumi]에 가까운 발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대 일본인이 이 발음을 듣고 ‘伊梨柯須彌’로 가차 표기한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연개소문의 이름을 史書에 적을 때 ‘淵蓋蘇文’으로 한자어화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말하자면 [iri kasumi]를 訓譯 및 音譯한 것이 ‘淵蓋蘇文’과 ‘蓋金’이다. ‘淵’과 ‘金’이 훈역자이다. ‘伊梨柯須彌’[iri kasumi]와 ‘淵蓋蘇文’(蓋金)의 대응은 연개소문이 활동하던 7세기 전기의 고구려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사실상 이때보다 앞선 시기의 고구려에 훈독법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2.2. 백제 자료

2.2.1. 금석문 자료

백제의 금석문 자료에서 훈독법의 존재를 말해주는 예는 찾기 어렵다. 523년에 죽은 백제 무령왕지석(百濟武寧王誌石, 525)에 ‘斯麻王’이란 왕명이 나오지만 훈독의 예는 아니다. 칠지도명에서도 훈독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2.2. 역사서 자료

그런데 백제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은 훈독법의 존재를 암시해 준다. ‘斯麻王’과 관련하여 훈독의 존재를 말해 주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나타나 있다. 『일본서기』는 전하지 않는 백제의 역사서 『百濟新撰』을 인용하여 ‘斯麻’란 이름이 붙게 된 연유를 기록해 놓았다.³⁴⁾

30) ‘蓋金’이 쓰인 가장 빠른 연대의 1차 자료는 「泉男生墓誌銘」(679년)이다. 이 비문은 당나라 왕덕진(王德眞)이 찬(撰)하고, 구양통(歐陽通)이 쓴 것이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북교(北郊)에서 출토되었다.

31) 위에 언급한 「泉男生墓誌銘」에 천남생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쇠를 잘 다루고(良冶) 활을 잘 다루었다는 집안 내력이 나와 있다. “父蓋金 任太太對盧 乃祖乃父 良冶良弓 並執兵鈴”. ‘蓋金’의 ‘金’이 쓰인 연유를 쇠를 잘 다루는 집안 내력과 연관지은 것이다. 이 기록은 ‘蓋金’의 ‘金’이 ‘쇠’의 훈역자임을 지지해 준다.

32) 『일본서기』는 680년경에 편찬을 시작하여 720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이기문(1972: 33) 참고. 김영옥(2011: 302-303) 참고.

34) 日本書紀 雄略 5年(461년) 6月條 기사에 武寧王이 筑紫의 各羅島에서 출생한 관계로 이름을 島君이라 하고 百濟人들은 그 섬을 主島라 부른다고 하며 斯麻에 シマ(shima)라고 註를 달았다.

武寧王立 諱斯麻王 是琨支王子之子 則末多王異母兄也 琨支向倭時 至筑紫嶋 生斯麻王 自嶋還送 不

개로왕의 동생 곤지(昆支)가 아내를 데리고 왜국으로 가던 중 축자도라는 섬에서 사마를 낳았다. 아이가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斯麻’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사마를 ‘嶋君’(도군) 혹은 ‘嶋王’으로 칭하였다. ‘嶋’은 섬에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한자어 이름이다.³⁵⁾

일찍이 Karlgren(1966: 243)은 ‘斯’의 상고음을 *sie로 재구했고, 이장희(2001: 179)는 斯麻와 斯羅 등의 예를 근거로 ‘斯’의 음가를 *si로 추정하였다.³⁶⁾ 권인한(2005: 173~174)에서 논했듯이 ‘斯’는 *si로 재구되며, 이것은 고대 일본어의 sima와 일치하고 중세국어의 ‘섬’으로 이어졌다.³⁷⁾ 『일본서기』의 인용 문헌으로 등장한 『백제신찬』에 백제어를 표기한 ‘斯麻’(sima)와 이를 한자화한 ‘嶋’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을 근거로 김영옥(2003)은 백제어에 혼독법이 존재했다고 추정했다

한자 변용의 유형 분류에서 언급했던 音譯과 訓譯의 개념을 여기서 다시 끌어와 백제의 혼독법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백제어에 존재했던 고유어 sima를 ‘斯麻’라는 한자로 표기한 것은 音譯字(적확히 말하면 音譯 假字)이고, 고유어 sima를 ‘嶋’ 혹은 ‘島’로 표기한 것은 고유어의 訓譯字(적확히 말하면 訓譯 讀字)이다. 달리 표현하면 ‘嶋’을 sima(중세국어 ‘섬’의 백제어형)로 읽으면 혼독이고, sima를 ‘嶋’로 적으면 혼역이 된다. 용어를 이와 같이 엄격히 구별해서 5세기 후기의 백제에는 고유어를 음역하는 방법은 물론 혼역법도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혼역법은 혼독법과 표리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5세기 후기의 백제에 혼독법이 존재했을 듯하다.

요컨대 고구려와 백제의 당대 자료에서 음가자 혹은 음독자가 확인되지만 훈가자 혹은 혼독자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고구려와 백제의 당대 자료에서 혼독법의 증거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와 일본 사서의 인명 표기에 혼독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지만 이들 사료는 당대인이 기록한 당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한계이다. 이런 한계점을 목간 자료가 보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3. 신라 자료

2.3.1. 금석문 자료

① ‘喙’과 ‘梁’의 경우

혼독법의 발달 과정을 밝힘에 있어 8세기 이전의 당대 자료에서 혼독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일냉수리비에 나오는 ‘喙’과 ‘沙喙’ 그리고 울진봉평비의 ‘喙部’와 ‘沙喙部’는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표기들이다. ‘喙’을 ‘둘’로 읽었음을 보여주는 史料의 이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喙’과 ‘沙喙’은 고려 중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梁

至於京 産於嶋 故因名焉(日本書紀 卷第十六)

35) 이 내용은 이장희(2001:179) 및 이한상(2004: 152~154)을 참고하여 필자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36) 이장희(2001:179)는 차자 표기에 쓰인 ‘斯 師 史 賜’는 中古音에서 止攝 3等 開口音으로 그 음가가 동일함을 지적하고, ‘賜’가 无盡寺鐘(745) 이래 淨兜寺形止記(1031)에 이르기까지 주체존대 선언말어미 ‘-시-’를 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5세기 대의 차자 ‘叱’도 그 음가가 *si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37)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사는 권인한(2005)에 자세하며, ‘斯’의 고대 한자음을 *si로 재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김방한(1983)은 『일본서기』에 나타난 sema가 백제어일 가능성을 제기한 점이 필자의 관심을 끈다. 김영옥(2003)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部’ 혹은 ‘沙梁部’로 다르게 표기되었다.³⁸⁾ 『훈몽자회』에 ‘梁’의 훈을 ‘돌’이라 해 놓았다. 삼국사기에 ‘喙部’를 ‘梁部’로, ‘沙喙部’를 ‘沙梁部’로 표기한 것은 ‘喙’을 ‘돌’ 혹은 ‘돌’로 읽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이다.³⁹⁾ ‘梁’의 훈 ‘돌~돌’이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나므로⁴⁰⁾ ‘沙梁部’는 ‘사돌부~사돌부’로 읽을 수 있고, ‘沙喙部’도 이와 같거나 ‘사닥부~사독부’로 읽을 수 있다. ‘沙喙部’는 ‘喙部’에서 새로 독립하여 나온 부의 이름일 것이다. ‘沙喙部’의 ‘沙’는 15세기 중세국어 어형 ‘새’를 표기한 음가자이다. 15세기 한국어 발음에서 ‘새’는 [sai] 혹은 [saj]였다. ‘沙’는 음절 부음(副音) i(j)가 탈락된 [sa]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⁴¹⁾

‘梁’의 훈이 ‘돌’과 관련하여 주목되어 왔던 예가 삼국사기에서 가야어로 기록된 ‘旃檀梁’이다. “斯多含領五千騎 先馳入梅檀門 立白旗”(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5, 진흥왕 23년 7월 기사)와 “旃檀梁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삼국사기 권44 열전 제4, 斯多含)이 그것이다. 전자에는 ‘梅檀門’, 후자에는 ‘旃檀梁’으로 표기하고 협주에서 “旃檀梁은 성문의 이름인데 가라어로門을 梁이라 이른다”고 풀이해 놓았다. 그런데 지명 자료에서 ‘梁’을 ‘돌’로 읽은 증거, ‘窄梁: 손돌’(용비어천가 6:59b)이 있다. 이 ‘손돌’은 강화도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에도 ‘손돌목’으로 쓰이고 있다. 지명에 쓰인 ‘梁돌’은 남해 해남과 진도 사이의 지명인 ‘鳴梁울돌’에서도 확인된다. ‘梁’을 ‘돌’로 읽은 지명이 대가야 지역, 전라도 남쪽 해안, 강화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梁돌’을 근거로 가라어는 신라어와 다르고 부여계어와 친근한 것이라는 가설을 의심케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旃檀梁 : 梅檀門’ 대응 표기와 협주의 풀이에서 보듯이 여기에 쓰인 ‘梁’(돌)은 그 뜻이 ‘門’이다. ‘喙部’와 ‘沙喙部’의 ‘喙’은 ‘닭’과 관련된 표기여서 ‘門’이란 뜻의 ‘梁’과 거리가 멀다. ‘喙部’를 ‘梁部’와 같이 ‘喙’를 ‘梁’으로 교체 표기한 것은 원래의 뜻과 무관하게 ‘喙’의 음가와 상통하는 훈을 가진 ‘梁’을 끌어와서 쓴 결과로 짐작된다. ‘喙部’의 ‘喙’은 음차자이고, ‘梁部’의 ‘梁’은 훈차자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喙部 : 梁部’의 대응 표기에서 훈독법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喙部’는 6세기 금석문에 나타나고 ‘梁部’는 11세기의 삼국사기에 출현한다는 점이다. ‘梁部’라는 표기가 11세기 이전의 어느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② ‘玼(珍)’의 경우

훈독법의 존재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어 온 차자가 ‘玼’자이다. 이 글자는 ‘珍’의 俗字로 본다. ‘玼’자는 신라의 관등명(波玼)과 백제의 지명에 두루 쓰여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관등명 ‘波玼’은 당대 자료인 『울주천전리추명』(525)과 『단양적성비』(540)에 ‘波玼干支’로 기록된 것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

이기문(1972: 65)은 삼국사기에 신라 관등명으로 등장한 ‘波玼浪或云海干’을 근거로 신라의

38) ‘喙’을 ‘梁’으로 바꾼 까닭은 ‘喙’이 신라 초기에 만든 造字이어서 보편적 한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39)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계림유사』의 ‘鷄曰喙音達’이다. 이 예는 ‘喙’를 ‘돌’로 읽었음을 잘 보여준다.

40) 『훈몽자회』(1527)에는 “梁 돌 량”(전경각본 上 5a)으로 나오지만 이보다 앞선 『월인석보』(1450)의 협주에는 “梁은 드리라”(21, 77a)로 나온다. ‘鷄’를 뜻하는 15세기 어형은 ‘둘’이므로 적어도 ‘喙部’의 ‘喙’은 ‘돌~돌’로 읽음이 적절하다. 받침의 교체로 ‘닥~독’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羊이며 겨유 올히며 둘 가히를 만히 사(1459월인석보23:73a).

41) 필자의 고향(경북 성주)에서는 때 삼촌이 장가를 들어 새로 분가하면 그 집을 ‘새집’(혹은 ‘작은 집’)이라 불렀었다. ‘沙喙部’는 ‘喙部’에서 새로 분과한 것으로 보인다. ‘새집’의 조어법은 ‘沙喙部’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생각한다.

‘波珍’을 *pator(海)로 읽고, ‘珍’의 훈이 나타낸 어형의 음가를 tur 혹은 tor로 설정했다. 그는 또한 백제 지명 “石山縣本百濟珍惡山縣”과 “馬突縣一云馬珍”에서 ‘石:珍:突’의 대응관계를 지적하면서 ‘珍’의 釋을 *tur로 재구했다(이기문 1972:37).

그런데 이보다 앞서 ‘珍’의 훈을 ‘돌’로 본 견해가 있었다. 양주동(1942/1965: 707~709)은 균여항가 『稱讚如來歌』에 나오는 ‘海等’의 해독을 논하는 자리에서 15세기 한글 문헌에 쓰인 ‘바룰’의 예를 들고 ‘바룰’의 고형이 고대국어에서 ‘바달’이고, 신라의 관명 海干이 波珍干(浪) • 波珍浪(바들한 • 바들찬)으로 記寫됨을 지적하였다. 그는 ‘珍’의 훈이 ‘돌’이라 하고 “波珍은 ‘바들’의 속음 ‘바돌’에 不外한다”라고 했다. 바로 이어서 그는 고려사에 나온 지명 표기의 ‘珍’의 예(無等山一云武珍岳)를 들고 이것이 ‘돌’로 읽힘을 논하였다.

남풍현(2000: 127)은 단양적성비의 ‘波珍干支’를 논하면서 지명 표기와 일본서기의 전사 자료로 보아 ‘珍’의 훈을 ‘돌’로 판단했다. 그는 ‘波珍’의 ‘珍’이 ‘돌’로 읽히는 것은 삼국시대의 어휘표기에 나타난 訓假字이며, 이것은 토 표기에 쓰인 훈가자보다 앞서는 것이라 했다. 남풍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波珍干支’의 등장은 차자표기법의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 남아 있다. ‘珍’의 훈을 ‘돌’로 볼 수는 있지만 ‘珍’의 훈이 중세국어 때부터 ‘보배’의 뜻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 첫째 문제이다.⁴²⁾ 양주동(1942/1965:708)은 “珍(俗 • 玢)의 羅訓이 ‘돌’임은 경주 부근에 산출되는 玉石을 ‘돌’이라 仍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백제 지명에 “馬突縣一云馬珍”이 존재하므로 ‘珍:돌’의 대응은 신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와 공유한 언어재임이 분명하다. 둘째 문제는 ‘波珍’의 ‘珍’을 훈가자로 간주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波珍’을 나란히 쓰고, 앞 글자는 음가자로 읽고, 뒷글자는 훈가자로 읽은 것이 된다. 백제 지명의 ‘馬突:馬珍’의 대응 표기에서 ‘珍’자만 훈가자로 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처럼 고유명사 표기에 훈가자를 쓴 예를 달리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珍’의 고훈이 ‘돌’임은 지명 표기에서 추리 해석한 것이고 그 근거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한자의 상고음과 중고음에 ‘돌’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珍’의 중세국어 조선 한자음은 ‘딘’이다.⁴³⁾ 삼국시대에 쓰인 ‘珍’의 고음이 ‘돌~돌’에 가까운 음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중국 한자음 연구에서 밝혀진 ‘珍’의 상고음은 tien 혹은 tian에 가까운 음으로 재구되어 있다.⁴⁴⁾ 이 재구음을 ‘돌~돌’과 비교해 보면 중성 및 중성에서 차이가 크다. 한자음 재구에서도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鐵과 金의 훈을 구별하지 않고 ‘쇠’라고 했듯이 珍과 石의 훈을 모두 ‘돌’이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珍의 고훈 ‘돌’이 施檀梁 등의 梁의 고훈 ‘돌’(門)과 무관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珍을 ‘돌~돌’로 읽은 것은 분명하지만 ‘돌~돌’을 珍의 훈독으로 단정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③ ‘大:韓’의 경우

신라의 경위 관등명 ‘大舍:韓舍’의 교체 표기는 훈독법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남풍현 2006: 18). ‘大舍’가 등장한 가장 빠른 예는 울주천전

42) 珍은 보비오<1459월인석,12,27b>. 珍 구슬 딴<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中:31b>

珍 그르 딴<1575광주천자문,3b>. 珍 그르 딴<1575천자문(대동궁기념문고본),3b>

珍 玢 보비 딴<1576유합초,上26a>. 珍 玢 보비 딴<1711신증유합(중간본)上:26a>

43) 珍 구슬 딴<1527훈몽자회(존경각본)中:31b>. 珍 그르 딴<1575광주천자문,3b>

44) 周法高 • 張一昇 • 徐芷儀 • 林潔明 편저(1974), 『漢字古今音彙』, 中文大學 出版社. 198쪽 참고.

리원명(525)이다.⁴⁵⁾ 이어서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706)에⁴⁶⁾ ‘韓舍’만 3회, ‘韓奈麻’가 1회 나타나 있다. ‘大舍’와 ‘大奈麻’를 각각 ‘韓舍’와 ‘韓奈麻’로 표기한 이 예들은 ‘大’가 ‘한’으로 훈독되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 하나의 문헌에서 ‘大舍’와 ‘韓舍’가 이표기로 공존하여 쓰인 것은 화엄경사경조성기(755)이다.⁴⁷⁾ 이 조성기의 ‘義本韓奈麻’에 ‘韓奈麻’가 확인된다. 화엄경사경조성기에 ‘大奈麻’가 보이지 않지만 창녕진흥왕척경비에 ‘大奈末’이 등장한다.⁴⁸⁾ ‘大:韓’의 대응 표기에서 755년경에 ‘大’가 ‘한’으로 훈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울주천전리원명의 ‘大舍’도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大舍’가 앞 글자 ‘大’가 ‘한’으로 훈독되었다면 뒷글자 ‘舍’ 역시 훈독되었을 것이다. ‘舍’의 훈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4세기 자료 『조선관역어』에 나타난 ‘隣舍 以本直’(12a)이다. ‘以本直’은 ‘*이북집’의 가차 표기로 본다. 조선시대의 자훈서(字訓書) 『훈몽자회』(1527), 『광주천자문』(1575), 『신증유합』(1576) 등에 ‘舍’의 훈은 모두 ‘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大舍’와 ‘韓舍’는 ‘*한집’(=큰집)으로 훈독되었을 것이다. ‘大舍’는 세력과 규모가 큰 주인을 섬기며 ‘큰집’에서 행정 실무를 맡은 직급이고,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인 ‘小舍’는 ‘大舍’를 도우는 직급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1395)에 처음 보이는 ‘舍人’은 ‘大舍’ 등의 후대형일 것이다.⁴⁹⁾

④ ‘尺’의 경우

6세기 신라비에는 碑文의 문장 작성자를 가리킨 직명 표기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⁵⁰⁾

書人：鳳坪新羅碑(524) 川前里原銘(525)
 丹陽신라赤城碑(551?)⁵¹⁾, 昌寧 眞興王拓境碑(561)
 文作人：戊戌塙作碑(578?)
 書寫人：明活山城作成碑銘(551)
 文尺：南山新城碑(591) 제1,2,3,9비⁵²⁾
 書尺：南山新城碑(591) 제4비

문장 작성자를 가리킨 위의 이표기들에서 6세기 초기부터 한문 서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이 사람에게 부여된 직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6세기의 신라에서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정 서류를 처리한 인물로 판단된다.

45) 悉得斯智大舍帝智 <525 川前里原銘> 作書人慕乙尔智大舍帝智 <525 川前里原銘>.

‘大舍’는 단양적성비(540), 남산신성비(1비, 3비), 감산사 미륵보살조성기(719), 감산사 아미타여래조성기(720), 평창상원사종명(725) 등에 걸쳐 나타난다.

46) 1942년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慶州九黃里三層石塔)을 수리할 때 2층 옥개석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에 새겨진 銘文이다.

47) 奈麻異純韓舍 今毛大舍 義七大舍<755 華嚴經寫經造成記>

48) 大等沙喙春夫智 大奈末喙就舞智大舍<561 眞興王拓境碑>

49) 포항중성리비, 울진봉평비 등 신라비에 자주 등장한 ‘使人’은 이와 구별되는 직무명으로 여겨진다.

50) 문장 작성자 직명을 가리킨 이표기들의 존재는 6세기 초기 신라에는 한문 서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 직명들은 고대인의 문자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51) 단양신라적성비 21행에 ‘石書立人’이란 (임시) 직명도 나온다. 이것은 ‘돌에 글을 새기고 세운 사람’이란 뜻을 우리말 어순으로 표현한 구절로 생각된다. 울진봉평신라비에는 ‘立石碑人’이라는 직명이 나온다. 이 명칭들은 모두 비석을 세우는 일 전체를 총괄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52) 제1비와 9비에는 ‘文尺’이 각각 2회씩 출현한다.

훈독법의 존재를 찾으려 할 때 당대 자료에서 문서 작성자의 직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³⁾ ‘文作人’은 ‘글 지은 사람’, ‘書寫人’은 ‘글 쓴 사람’으로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산신성비의 ‘文尺’과 ‘書尺’도 흥미로운 존재이다. 남산신성비 비문은 이두문 성격이 뚜렷한 문장이다. 여기에 쓰인 이두어들은 당시의 신라말로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文尺’과 ‘書尺’에 붙은 ‘尺’은 ‘尺’은 원래 길이 측정 도구인 ‘자’의 뜻이다. ‘大工尺’과 ‘文尺’ 등에서는 전문 기능인을 뜻하는 접미사처럼 쓰였다.⁵⁴⁾

‘尺’의 古訓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계림유사』(1103)의 ‘尺曰作’(제249항)이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爲尺’(25장), 『석보상절』(1446)과 『용비어천가』 등에는 ‘자ㅎ’로 표기되어 있다. 匠人을 뜻하는 접미사 ‘尺’은 『이두편람』의 ‘水尺무자이, 刀尺칼자이’에서 ‘자이’로 표기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이장희(2000:251, 255)는 “길이 단위에 쓰인 尺은 훈민정음 제정 당시까지 ‘자(ㅎ)’였고, 직능인의 표기에 쓰이는 尺은 조선시대에는 ‘-자이’로 확인되지만, 고려시대에는 두 가지 모두 ‘tsa(h)’로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尺’의 음가는 『鷄林類事』까지 tsa(h)였으며, 신라 관명에 쓰인 ‘尺’의 음도 이와 같은 것이라 보았다. 이 해석에 따르면 ‘文尺’을 음독하면 ‘문자(ㅎ)’, 훈독하면 ‘글자(ㅎ)’이 된다. ‘文尺’의 ‘尺’은 음과 훈이 동일한 것이 된다. 음과 훈이 같아진 이런 특성은 외국어(여기서는 중국 漢語)를 차용하면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文’의 훈 ‘글’은 ‘契’의 중국 상고음을 차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이기문 1991: 227-233)⁵⁵⁾. 고구려 지명 “文峴縣一云斤尸波兮”에서 文을 뜻한 ‘斤尸’(*글)이 확인되므로 ‘글’은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로 차용되었을 듯하다. 『계림유사』의 “讀書曰乞鋪”(*글 보-)(311항), “寫字曰乞核薩”(*글그스-)(312항)에서도 ‘글’이 확인된다.⁵⁶⁾

그런데 무술오작비에는 전문 기능인을 뜻하는 ‘大工尺’과 ‘道尺’도 나온다. ‘大工尺’과 ‘道尺’을 훈독했는지 음독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남산신성비 제3비와 4비에는 위의 ‘文尺’과 함께 돌을 다루는 기능인을 뜻하는 ‘石捉上人’이 보이고, ‘匠尺’(4비)도⁵⁷⁾ 나온다.

신라 금석문에서 인명 표기 방식은 <직명-출신지명-인명-관등명>의 순서로 되어 있다. 직명과 출신지명이 앞 사람과 동일한 경우 이들이 생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⁵⁸⁾ 이 순서가 모두 표기된 예는 남산신성비 제9비의 “文尺伊同村□次兮阿尺”⁵⁹⁾이다. 남산신성비 제1비에는 “文尺□文知阿尺”과 “文尺竹生次一伐”과 같이 ‘文尺’ 뒤에 출신지명이 생략되고, 인명 ‘文知’⁶⁰⁾와 ‘竹生次’가 나온다.⁶¹⁾ 이들의 관등명은 각각 ‘阿尺’과 ‘一伐’로 되어 있다.

한문 글쓰기를 담당한 이들의 관등 등급은 대체로 낮은 하위직에 속해 있다.⁶²⁾ 『울진봉평

53) 아래 예시들은 대부분 남풍현(2000: 128~130)에서 언급된 바 있다.

54) 삼국사기(권 32) 樂條에 신라시대에 창작된 여러 악곡 이름을 나열하고, 古記를 인용하여 政明王九年에 설행된 奏樂의 악공 구성원을 기술해 놓았다. 여기에 箏尺, 舞尺, 琴尺, 舞尺, 歌尺 등의 직명이 등장하고, 이 기록 말미에 “羅時樂工皆謂之尺”이라 해 놓았다. 가무 전문 직명에도 ‘尺’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술된 고구려와 백제 음악의 주악 구성원 직명에는 ‘尺’이 사용되지 않았다. 전문 직명 표기의 ‘尺’은 신라 특유의 것으로 보인다.

55) 『국어어휘사연구』(이기문, 1991) 제17장에 실린 “글’에 관한 단상” 참고. 이 글은 『지현영선생 고회기념논문집』(1980)에 먼저 실렸던 것이다. ‘契’의 상고음은 Karlgren이 *k'iad로, 周法高는 *kear로 再構하였다. 이 중에서 이기문은 *kear를 취하여 ‘글’의 발음 ㄹ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56) 『계림유사』에서 ‘契’의 이체자로 보이는 글자는 중세국어의 ‘히’를 표기하였다. 日曰契(2항).

57) 박방룡(1988: 74)은 ‘匠尺’은 축성 공사의 기술 책임자나 감독자를 가리키고, 그 밑의 기술자나 인부는 ‘工人, 工尺, 大工尺’으로 표기되었다고 하였다.

58) 그러나 관등명은 생략되지 않는다.

59) 文尺=직명. 伊同村=출신지명. □次兮=인명. 阿尺=관등명. 글장이는 이동춘의 □次兮이며, (그의 관등은) 아척이다.

60) 인명 ‘文知’는 ‘글 아는 이’의 뜻이 되어 직명 ‘文尺’에 썩 잘 어울리는 인명이다.

61) 이 사람들 앞에 기재된 사람과 출신지가 같은 경우 출신지 표기가 생략된다.

비, 「울주천전리원명」, 「창녕진흥왕척경비」처럼 왕이 직접 나서서 행한 일을 기록한 비문에서는 書人의 관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울진봉평비」의 書人은 奈麻(京位 11등), 「천전리원명」과 「창녕진흥왕척경비」의 書人은 大舍(京位 12등)로 경위의 중하 등급에 속한다.⁶³⁾ 왕의 행차와 무관하게 작성된 「무술오작비」의 文作人 壹利兮의 관등은 一尺(外位 9등), 「남산신성비」 제1비의 文尺 文知의 관등은 阿尺(外位 11등), 같은 비의 文尺 竹生次의 관등은 一伐(外位 8등)이고, 제2비의 文尺 美叱□之의 관등도 一伐이다. 「남산신성비」 제3비의 文尺 仇□□의 관등은 小舍(경위 13등)로 상대적으로 높다. 제4비의 書尺인 夫次의 관등은 그 앞에 놓인 사람의 관등이 一尺(외위 9등)인 것으로 보아 같은 관등일 것이다. 글쓰기 직무를 맡은 사람의 관등으로 보아 이들은 행정 실무 문서를 담당하 하위 관리임이 분명하다.⁶⁴⁾

2.3.2. 불교 문헌 자료

확실한 훈독의 증거는 8세기 중엽의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 다수 등장한다. 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入內如(넣는다), 爲內弥(흐며), 爲內賜(흐느시), 寫在如(쓰거다),
成賜乎(이루시온), 成內之(일는다), 用弥(쓰며), 散尔(쓰리며), 爲弥(흐며)

이 예들에서 첫 음절의 동사어간 한자어 ‘入’, ‘爲’, ‘成’⁶⁵⁾ 등은 後接한 차자의 존재로 보아 훈독되었음이 확실하다. 특히 ‘寫在如’의 ‘如’는 문장종결어미 ‘-다’를 표기한 것으로 훈가자(訓假字)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차자법 발달사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훈가자의 출현은 훈독법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기의 외형상으로 훈독법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거하는 장치는 말음첨기자의 출현이다. 예컨대 ‘心音’의 ‘音’은 이 어형 표기를 ‘*ㅁ슴’으로 읽으라는 지시 부호 역할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말음첨기자 앞에 놓인 한자가 훈독되었음을 가장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훈독자+말음첨기자’라는 표기 방식의 출현은 훈독법의 존재를 확실히 뒷받침한다. 삼국유사의 신라 향가 표기에 말음첨기자가 다수 나타나서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2차 자료이다. 2차 자료에 기록된 향가는 그것의 창작과 채록 시기가 확실하지 않아서 훈독법의 생성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향찰의 훈독법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⁶⁶⁾ ‘훈독자+말음첨기자’라는 표기 방식이 나타난 당대 자료

62) 이용현(2007: 216)은 문서를 담당한 직위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63) 단양신라적성비 20행에 ‘書人喙部’가 나오지만 그 뒷글자가 결락되어 관등명을 알 수 없다.

64) 노태돈(1989: 185)은 “大舍나 小舍(舍知)라는 관등은 원래 왕이나 각급 귀족 예하에서 실무 행정을 맡고 있던 사람들의 직명이었는데, 중앙집권체제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이를 관등 체계 속에 흡수해 하위 관등의 일부분을 이루게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사나 소사는 관등인 동시에 관직명으로 뒷날까지 쓰였던 것이다. 大鳥나 小鳥도 왕이나 귀족 하의 하급 실무행정요원이 검은 옷을 입었던 데서 비롯한 명칭으로서, 뒤에 관등 체계에 하위 관등으로 흡수되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고구려 왕실과 여러 大加들의 예하에 각기 소속되어 복무하던 使者, 皂衣, 仙人 등이 뒤에 14등 관등체계의 하위 관등으로 편제되어졌음과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65) 신라시대 금석문 등 당대 자료에 쓰인 ‘成’자의 용례는 남풍현(2011: 142~143)에 잘 정리되어 있다.

66) 처용가에 ‘東京’이 등장함을 근거로 삼국유사 소재 향가의 轉寫가 고려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양희철(1994)에서 신라 말기인 神行禪師碑(813) 비문에 ‘東京’이란 지명이 나타나기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최홍조(2013: 226)가 신행선사비에 나온 ‘東京’은 당나라의 황제가 있는

가 확인된다면 훈독법 생성의 중요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⁶⁷⁾

고바야시(2003)와 김영옥(2004)(2008b: 178)⁶⁸⁾은 말음첨기자를 보여 주는 당대 자료를 소개하였다. 일본 大谷大學 박물관 소장 『判比量論』은 원호의 저술인데, 이 책 ‘根’字의 右下段部에 角筆로 새겨진 ‘ㄷ’⁶⁹⁾이 그것이다. 각필이 기입된 연대는 장서인⁷⁰⁾ 등 서지적 검토를 통해 7세기말에서 8세기 전반 사이로 판단되었다.⁷¹⁾ 고바야시(2003)와 김영옥(2004)은 각필로 새겨진 이 글자를 ‘ㄷ’로 전사하고 ‘火是’로 읽었다. ‘ㄷ’가 ‘根’자를 풀이한 것이니 ‘火是’는 중세국어 ‘불휘’와 관련되며, ‘*불이’ 정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옥 2004). 이 주장이 확정된다면 약체 구결자의 발생 시기를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2.3.3. 역사서 자료

이 절에서는 후대의 2차 자료인 역사서에 나타난 훈독법의 존재를 논한다. 왕호 표기와 인명 표기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개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왕호 표기>

고대 삼국의 왕호에 나타난 공통점을 찾아내어 훈독법이 세 나라에 모두 존재했을 가능성을 묶어서 논한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관직명으로 나오는 ‘莫離支’는 신라 왕호 ‘麻立干’과 유사하다.⁷²⁾ ‘首長’을 뜻하는 ‘*마리’가 고구려와 신라에 공존했음을 보여 준다. 신라 왕호 ‘赫居世’와 ‘居西干’에 쓰인 ‘居世’와 ‘居西’는 고구려에서 왕처럼 행세한 ‘淵蓋蘇文’의 ‘蓋蘇’와 이것의 일본식 표기인 ‘伊梨柯須彌’(iri kasumi)의 ‘柯須’와 음상이 아주 비슷하다. 왕과 권력자 이름에 쓰인 이 표기들은 백제 왕호로 周書(636년)에 기록된 ‘靺吉支’⁷³⁾의 ‘吉支’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왕호 ‘近仇首’의 ‘仇首’와도 비슷하다. 또한 이 표기들은 고조선을 세운 왕 ‘箕子’와 그 음가가 상통한다. 『광주천자문』에서 ‘王’의 훈을 ‘기즈’라고 한 것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⁷⁴⁾ ‘居世’,⁷⁵⁾ 居西, 蓋蘇, 柯須, 仇首, 箕子’는 고대 한반도에서 지도자를 뜻하는 낱말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414)의 ‘太王’, 중원고구려비의 ‘大王’, 양주 진흥왕 순수비의 ‘眞興大王’ 등

‘帝京’에 대비하여 신라의 서울을 가리킨 말로 신라 당대에 쓰인 지명임을 밝혔다. 따라서 처용가에 나온 ‘東京’을 근거로 삼국유사 향가의 轉寫가 고려시대로 볼 수 없다.

67) 신라 목간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한다.

68) 김영옥(2004), 判比量論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김영옥(2008). 한국어表記의 기원과 전개과정. 한국문화, 42, 171-191.

69) 김영옥(2004)은 각필로 새겨진 이 글자를 ‘ㄷ’로 전사하고 ‘火是’로 읽었다.

70) 일본 聖武天皇의 부인 光明王后(701~760)의 藏書印이다.

71) 小林芳規(2003가: 15~6). 김영옥(2004).

小林芳規(2003가),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京都·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尹幸舜 譯), 口訣研究10: 5~30, 口訣學會.

72)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의 왕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居西干’, ‘尼師今’, ‘麻立干’, ‘次次雄’ 등의 다양한 명칭이 쓰였다는 점이다. 신라 초기에 다양한 왕호가 존재한 것은 신라 초기에 운영된 육부 체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지증마립간(500~514) 때 ‘마립간’이란 왕호를 버리고 ‘王’으로 개칭하였다(503년).

73) 王姓夫餘氏 號於羅暇 民呼爲 靺吉支 夏言 王也 <周書 異域傳 百濟條>

74) 이런 추정을 끌어와 ‘箕子’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또한 ‘箕子’가 조선으로 올 때의 복식이 조선 사람의 것과 같았다는 이야기도 이 지점에서 동원되곤 한다.

75) ‘赫居世’의 경우에는 ‘弗矩內’라는 이표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世:內’의 대응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赫居世’의 ‘居世’는 제외할 여지가 있다.

에 쓰인 ‘太王’과 ‘大王’은 어휘 구성으로 보면 ‘近仇首’와 ‘韃吉支’를 뜻을 살린 음독 한자어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고유어 왕호를 한자어 ‘王’(혹은 大王)으로 바꾼 시기에는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당대 자료인 비문을 근거로 할 때, 훈독법의 존재 시기는 늦잡아도 5세기 초기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부명(部名),⁷⁶⁾ 지명, 관직명 등을 한자어로 바꾼 시기를 밝혀내고, 여기에 담긴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대응 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王’의 훈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설이 있어서 소개해 둔다. 노중국(2010: 27~28)은 문경현(1990) 및 강종훈(1999)의 설을 참고하여 『영일냉수리신라비』의 ‘此七王等’에 표기된 ‘王等’을 ‘님들’(等은 복수접미사)로 훈독하였고, 『울주천전리서석추명』의 ‘妹王’을 ‘누이님’으로 훈독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누이라도 ‘누이왕’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그의 의견에는 공감은 가지지만 여타의 수많은 금석문에 등장한 ‘王’을 훈독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들을 모두 ‘님’으로 훈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천전리 추명에 나온 ‘妹王’을 관독함에 있어서 서동요의 ‘善化公主主隱’(선화공주님은)을 고려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妹王’을 ‘妹主’로 관독하고 이것을 ‘누이님’ 정도로 해독하는 방법이 그것이다.⁷⁷⁾

<인명 표기> (강수와 원효의 이름)

7세기의 신라 금석문은 거의 없기에 이 시대의 당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자료(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7세기의 인명 표기를 통해 이 시기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논한다.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 7세기 중엽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는 ‘强首’의 이름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⁷⁸⁾ 신라 태종 무열왕이 즉위하던 해(654년)에 당나라에서 황제의 조서를 보냈다. 그 문장이 어려워 읽어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강수가 읽어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그에게 이름을 물으니 ‘牛頭’라고 대답했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경은 머리에 높은 뺨이 있으니 강수선생(强首先生)이라 칭함직하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그의 이름은 ‘우두’(牛頭)에서 ‘강수’(强首)로 바뀐 것이다. ‘우두’(牛頭)를 훈독하면 ‘쇠머리’가 된다. ‘牛頭’는 당시 사람들이 강수를 부르던 ‘쇠머리’를 訓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강수가 왕 앞에서 자기 이름을 음독형 ‘우두’로 말했을까? 아니면 고유어 ‘쇠머리’라고 말했을까? 그의 이름을 들은 무열왕은 짐승 이름이 들어간 ‘우두’(牛頭, 혹은 고유어 ‘쇠머리’)가 학덕이 높은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강수’(强首)라는 한자어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 ‘强’의 훈은 ‘세-’이므로 ‘강수’(强首)를 훈독하면 ‘센머리’가 된다. ‘센머리’로 풀이되는 ‘강수’(强首)나 ‘쇠머리’로 풀이되는 ‘우두’(牛頭)는 음상(音像)이 서로 비슷하다. 훈독으로 읽는 ‘牛頭 쇠머리’와 ‘强首 센머리’는 그 음상이 서로 비슷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보면 무열왕 앞에서 강수는 본인의 이름을 당시의 신라어 ‘쇠머리’로 말했을 듯하다. ‘쇠머리’라는 고유어 이름을 후세 사가들이 한문으로 적을 때 ‘牛頭’로 훈역한 것이다.

인명을 훈독으로 읽었던 당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삼국유사

76)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고구려의 고유어 부명으로 보이는 “沸流那部, 椽那部, 桓那部, 貫那部”가 보이고, 중국 사서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조에는 이 부명들이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한자어화된 ‘東部, 西部, 南部, 北部’ 등의 方位部 명칭이 2세기 말 이후에 등장하였다.(여호규, “고구려 문자 자료의 해독원리와 실제”, 제2기 문자학특강 2강 2009.4.10., 성균관대학교.)

77) 이 방안은 본고를 사독해 주신 이장희 박사의 아이디어임을 밝혀 둔다.

78) 三國史記 卷 第四十六 列傳 第六 强首 崔致遠 薛聰

권4 「元曉不羈」에는 “元曉亦是方言也，當時人皆以鄉言稱之始旦也”라는 기록이 있다. 원효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當時人]이 당시의 ‘鄉言’(서라벌 말)으로 ‘元曉’를 ‘始旦’이라 불렀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이 비록 고려시대에 찬술된 삼국유사에 실린 것이기는 하지만 ‘當時人’이 모두 향언으로 ‘始旦’이라고 칭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은 ‘당시인’이 ‘元曉’라는 한자 이름을 말하지 않고 향언 즉 신라 고유어로 그의 이름을 말했다는 증언이다. 당시의 서라벌 사람들이 그를 칭하던 향언 ‘始旦’에 신라 고유어가 담겨 있다. 그런데 鄉言이라 한 ‘始旦’은 ‘元曉’와 마찬가지로의 한자어 구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始旦’이 당시의 신라말을 音借한 표기로 볼 수는 없다.

필자는 ‘始旦’은 ‘설’이라는 당시 신라말을 번역 표현한 한자어 즉 훈역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 기사에는 원효의 俗姓이 ‘薛氏’라고 명기되어 있다. ‘始旦’을 직역하면 ‘시작 아침’이 되는데 이 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설’에 해당한다. 그냥 ‘旦’으로만 적으면 ‘아침’의 뜻이 되니까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旦’ 앞에 ‘始’를 붙여 ‘始旦’이라 표기한 것이다. ‘始旦’의 첫 글자 ‘始’에 어두음 ㅅ이 있는 것은 ‘설’의 초성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원효의 兒名인 ‘誓幢’(서당)과 ‘新幢’(신당)은 ‘始旦’(시단)과 음상이 비슷하면서, 동시에 각 음절 초성에 ㅅ과 ㄷ을 공유하고 있다. 음상의 상통으로 보면 ‘誓幢’과 ‘新幢’은 둘 다 ‘시단’(始旦)의 이 표기(異表記)라 할 수 있다. 새해 첫날을 한자어로 ‘元旦’이라 한다. ‘元曉’라는 법명에 이미 ‘元’자가 들어가 있다. ‘元曉’의 뜻도 ‘첫 새벽’(=첫날)이니 이 이름의 뜻은 사실상 ‘始旦’과 비슷하다. 원효의 아들 이름 ‘薛聰’에 들어간 ‘薛’은 그의 아버지 이름 ‘설’을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다.

강수에 관한 기사는 654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617~686)에 그의 이름을 당시 사람들이 모두 ‘始旦’(설)이라고 칭했다고 했다. 이 두 기록을 근거로 늦어도 7세기 중엽의 신라에는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판단한다. 강수와 원효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찬술된 史書에 나온 2차 자료의 것이지만, 立傳된 인물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7세기 당대 자료로 간주한다.

2.5. 목간 자료

고구려의 목간은 알려진 것이 없고, 백제와 신라의 목간은 다수 발견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목간 자료는 나라별로 나누어 다루지 않고 함께 묶어서 논한다. 목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훈독자로 다루었던 자료를 여기에 가져와 훈독의 증거를 당대 자료인 목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⁷⁹⁾

먼저 신라 목간의 경우를 살펴본다. 6세기 중엽경의 자료로 보는 함안 성산산성목간 221번 제4면의 “不行遺乙白”⁸⁰⁾에서 ‘白’은 타동사로서 ‘쏟-’을 표기한 것이어서 훈독자로 보았다(이승재 2013: 15. 19).⁸¹⁾ 586년으로 추정된 월성 석축해자 목간(2번)의 “敬呼白遣”에 ‘白遣’

79) 목간에서 훈독(혹은 釋讀)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김영옥(2007a), 이승재(2009) 등 여러 학자들의 논문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선행 연구 성과에 기대어 아래 내용을 서술하였다.

80) 이 구절을 『목간자전』에서 ‘不行遺乙’로 판독했으나 주보돈 외 재판독팀은 ‘不行遺之’로 읽었다. 후자로 봄이 적절하다.

81) 이승재(2013a: 28)는 이 목간의 판독에서 학자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六十巴’로 판독하고, 이것을 ‘육십’으로 읽었으며, ‘巴’를 ‘십’의 발음 ㅂ을 첨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발음첨기자의 일반적 용법에 어울리지 않은 해독이다. 발음첨기자는 선행 한자가 훈독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쓴 예가 많

은 ‘숯견’으로 읽을 수 있다.⁸²⁾ ‘白遭’의 ‘白’은 동사 ‘숯-’으로 훈독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목간은 훈독법의 존재는 물론 이두식 문법형태 표기의 출현을 6세기 후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당대 자료이다.

이승재(2009:185)는 6세기 중엽의 자료 함안 성산산성목간(06-w6, 07-w23, 07-w24)을⁸³⁾ 대상으로 여기에 나온 ‘文尸’을 ‘글’로 읽으면서, ‘文’은 인명 표기에 쓰인 훈독자이고 ‘尸’는 말음첨기자로 보았다.⁸⁴⁾ 6세기 중엽의 신라 목간에 훈독법과 말음첨기법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이므로 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7세기 말로 추정된(윤선태 2005)⁸⁵⁾ 경주 월성해자목간 149호는⁸⁶⁾ 가치가 높은 문서 목간이다.⁸⁷⁾ 이 목간의 “大鳥知郎足下万拜白 |”에 쓰인 ‘白’은 ‘숯-’으로 훈독되었을 것으로 본다(김영옥 2007: 181). ‘|’는 ‘之’의 초서체로서 종결어미 ‘-다’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월성해자목간 149호 제3면의 “牒垂賜教在之”에 쓰인 ‘垂賜’(내려 주시-/내리시-) ‘在之’(거다)도 훈독자로 간주된다. 이 예들은 훈독법과 이두 문법형태 표기를 보여주는 7세기의 당대 자료라는 점에서 소중한 존재이다. 이 목간은 이두식 문법형태 표기의 출현을 7세기 후기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도 하지만 ‘賜’와 ‘在’를 동사 어간으로 보느냐 혹은 선어말어미로 보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⁸⁸⁾

월성해자목간 149번의 ‘使內’는 전형적 이두어이다. 이 ‘使內’는 영천청제비 정원명(貞元銘 798)의 ‘使內之’와⁸⁹⁾ 함께 신라의 당대 자료에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박성중(2007: 151.156)에서 지적한 바처럼 문종결 위치에 쓰인 ‘使內’는 『양잠경험촬요』(1415)⁹⁰⁾

다. ‘六十’과 같이 뜻이 분명한 한자어에 말음첨기자를 붙인 사례를 달리 찾기 어렵다. 석독구결자료 『화엄경소』권 35의 ‘五卽’을 ‘*다슴’으로 읽는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卽’자의 독법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승재(2013a: 10)에서 언급했듯이 ‘六十巴’은 ‘六十日’ 혹은 ‘六十口’로 읽은 학자들도 있다. 판독상 논란이 있는 글자를 최초의 말음첨기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82) 이 목간은 2017년 5월에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白遭목간’이라 칭한다.

83) 『한국목간사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53)에는 이 목간들의 번호가 148번, 149호이며, 각 목간의 본문은 及伐城文尸伊稗石(148번) 및 及伐城文尸伊鳥伐尺稗石(149)으로 판독되어 있다.

84) 이승재(2009: 182)는 함안 성산산성목간 127번의 ‘益丁’을 “더덩”으로 읽고 ‘益’을 훈차자로 추정했다. 이 목간의 전문은 “太一缸尔十二村 尔廿二益丁四村”이다. 太(쿵), 尔(마?), 益丁(?)의 분량과 수를 표현한 내용이다. ‘益丁’이 식물명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목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85) 윤선태(2005: 118)은 월성해자목간이 출토한 연못형 해자의 폐쇄 시기를 문무왕 19년(679)을 상한선으로 보고, 이 목간을 7세기말~8세기초기의 자료로 보았다.

86)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I』(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에 이 목간의 번호가 2번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고대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에는 149호로 붙여 놓았다. 『한국목간사전』(손환일 편저, 2011)은 전자의 번호를 따랐다.

87) 이 목간의 문장 판독과 해석에 대한 논의는 윤선태(2005), 정재영(2008), 김영옥(2010), 권인한(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8) 여러 논저에서 이 목간의 제2면 문장을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로 판독하였다. 이 판독문에서 논란이 되어 온 글자는 종이[白不雖紙]의 수량을 ‘个’로 표기한 것이다. ‘个’자를 ‘斤’, ‘个’로 달리 판독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권인한(2013)에 의해 ‘个’임이 확정되었다.



89) 郡各人余起使內之 (永川菁堤碑 貞元銘 798).

90) 1416년의 원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16세기 중간본이 전해진다.

와 『농서집요』(1517)⁹¹⁾ 등 조선 초기 이두 자료에 가셔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使內’가 7세기 후기의 월성해자목간에 출현한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주 안압지목간 188번(8세기 추정)에 나온 ‘加火魚 助史’의 ‘加火’가 ‘가불~가브리’로 읽을 수 있다(이용현 2007: 213, 김영옥 2007a: 175). 이 판독과 해독이 옳다면 ‘加火’의 ‘火’(불)는 훈가자가 된다. 이승재(2009: 182)는 이 목간의 ‘助史’를 ‘젓’(醢, 鮓)으로 읽고 ‘史’를 末音添記字로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助史’는 음가자가 된다. 8세기 목간에 훈가자와 음가자가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제3의 증거 혹은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어서 백제 목간에서 훈독법의 존재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부여능산리사지목간(538~567)⁹²⁾ 25번⁹³⁾ 제3면에 기록된 “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⁹⁴⁾의 ‘猪耳’를 ‘돛귀/돌귀’로 훈독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 적이 있다(김영옥 2007a: 184~185).⁹⁵⁾ 엄밀히 말하면 ‘猪耳’는 당시 백제인이 부르던 이름 ‘돌귀’를 訓譯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훈역한 ‘猪耳’를 이 목간의 문장 속에서 訓讀했는지 음독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목간의 문장이 순수 한문 문장으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쓰인 ‘猪耳’만 훈독자로 읽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백제어 “*돌귀”를 ‘猪耳’로 훈역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훈역과 훈독의 표리 관계를 고려하여 이 목간이 작성된 6세기의 백제에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완진(2005: 25)은 부여 능산리사지목간 11번의 “上拜白來”를 ‘절 올이 솔보라’로 네 글자를 모두 훈독하였으나 이 목간의 문장을 향가처럼 읽어도 되는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요약

필자는 금석문과 목간 등 당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역사서에서 당대적 성격이 뚜렷한 사료를 이용하여 훈독법의 생성 과정을 나라별, 자료별로 나누어 논하였다. 위에서 논한 내용을 당대 자료 및 2차 자료로 나누어 나라 별로 요약한다.

고구려의 당대 자료에서 훈독법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두적 성격이 비교적 뚜렷한 중원고구려비에서 훈독법의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확정적 증거는 없다. 고구려 지명의 2차 자료인 삼국사기 권37의 압록강 이북의 성 이름은 역사학계에서 신라가 개명한 지명이 아니라 고구려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설을 받아들여 도망성 이름에 나타난 ‘鉛:乃勿’ 및 ‘忽:城’의 대응에서 7세기 이전의 고구려에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서

91) 1517년의 간본을 필사한 필사본이 전해진다.

92) 부여능산리사지목간의 연대 추정은 박중환(2002: 229)와 윤선태(2004)를 참고하였다. 여기서 나온 목간 목서와 유물로 미루어 백제의 부여 천도(538년)부터 30여년간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 목간의 문자와 내용을 근거로 백제의 사비 천도(538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209~210). 능산리 사지의 사찰 목탑지에서 발굴된 백제 창왕명 석조사리감(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에 창왕[威德王] 13년(567년)에 公主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명문이 확인되어 이 절이 백제 왕실의 기원사찰(祈願寺刹)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체로 보아 이 목간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경으로 보면 무방하다.

93) 부여능산리사지목간의 번호는 『한국목간자전』에 매겨진 것을 따랐다. 25번 목간은 ‘支藥兒食米記’로 시작되는 문서 목간의 하나이고 4면 목간이다.

94) 『한국목간자전』(262쪽)에는 이 구절이 “小治耳其身者如黑也”로 판독되어 있다.

95) 김영옥(2007a: 184~185)에서는 ‘猪耳’를 “*돌+耳”로 재구하고 ‘猪’는 ‘耳’는 말음첨기자로 보았다. 그 후 김영옥(2011b: 177~178)에서는 ‘猪耳’를 ‘돛귀/돌귀’로 훈독할 수 있다는 권인한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였다.

기』(권24)의 ‘伊梨柯須彌’(iri kasumi)는 고구려인이 淵蓋蘇文을 [iri kasumi]라 부르는 발음을 가차 표기한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이것을 史書에 기록할 때 ‘淵蓋蘇文’으로 적은 것은 훈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연개소문이 활동했던 7세기 전기에 고구려에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4세기 초기의 광개토왕릉비문과 같은 뛰어난 한문 능력으로 볼 때 고구려에서 훈독법은 이미 이 시기에 존재했을 듯하지만 1차 자료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백제의 당대 자료로서 훈독법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은 6세기 전기 이전 자료로 추정된 부여 능산리사지목간의 인명 표기자 ‘猪耳’이다. ‘猪耳’는 백제 고유어 ‘돛귀/돌귀’를 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세기 전기의 백제에 훈독법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백제의 관한 2차 자료 『일본서기』는 백제의 역사서 『百濟新撰』을 인용하여 무녕왕의 이름 ‘斯麻’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斯麻’를 한자로 훈역하여 ‘嶋君’으로 표기했다고 기록하였다. ‘嶋’와 백제어 ‘斯麻’(sima)의 대응은 훈독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신라의 당대 자료로서 훈독법을 존재는 6세기 신라 금석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울주천천리추명」(525)과 「단양적성비」(540)에서 관등명 ‘波珠’은 *pator(海)을 적은 것이며, ‘珍’의 훈은 ‘*돌’로 볼 수 있다. 백제 지명에 ‘石:珍:突’의 대응관계가 나타나는 사실도 ‘珍’의 훈을 ‘*돌’로 보는 증거가 되어 왔다. ‘珍’을 ‘돌~돌’로 읽은 것은 분명하지만 ‘돌~돌’을 ‘珍’의 훈독으로 확정하기 위한 근거가 더 필요하다.

이두문 성격이 뚜렷한 6세기 금석문에서도 또 다른 훈독법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무술명요작비의 ‘文作人’은 ‘글 지은 사람’, 남산신성비의 ‘文尺’은 ‘글자(訖)’로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산신성비의 ‘作節’과 ‘如法以’도 훈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일냉수리비의 ‘喙’과 ‘沙喙’, 울진봉평비의 ‘喙部’와 ‘沙喙部’라는 部名에서도 훈독법의 존재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부명에 쓰인 ‘沙’는 고유어 ‘새’(新)를 적은 음가자이다. 음가자 ‘沙’에서 新을 뜻하는 훈 ‘새’를 추리해 낼 수 있다. 신라의 초기 국호 ‘斯羅’를 ‘新羅’로 고친 것은 ‘沙’와 동음인 ‘斯’를 ‘新’으로 훈역한 것이다. ‘斯羅→新羅’라는 국명 변경은 훈독법의 존재를 보여 준다.

8세기의 당대 자료인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706)의 ‘韓舍’와 ‘韓奈麻’,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 공존하는 ‘大舍’와 ‘韓舍’는 ‘大’를 ‘한’으로 훈독한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8세기 초기 혹은 직전 시기의 신라에 훈독법이 존재했음은 확실하다.

함안 성산산성목간에 나타난 ‘文尸’는 6세기 중엽의 신라에 훈독법과 말음첨기법이 존재했음을 암시하지만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하다. 7세기 자료 월성해자목간149호의 ‘白’(畚-), ‘在’(거-)는 훈독자로 추정된다.

당대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신라에 훈독법이 존재한 시기는 6세기로 볼 수 있다. 6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신라의 당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시기의 훈독법에 대한 고찰은 2차 자료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 2차 자료 역사서에서 신라 왕호 풀이에서 훈독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赫居世’와 ‘弗矩內’, ‘齒理’와 ‘尼師今’의 대응은 이른 시기의 신라 시대에 훈독법의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런 사서들이 고려시대에 편찬된 2차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차 자료에 나오기는 하지만 당대의 상황을 適實하게 묘사한 기록은 훈독법의 존재를 잘 보여 준다. 삼국사기에 나온 ‘強首 : 牛頭’의 대응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當時人’이 모두 원효의 이름을 鄉言으로 ‘始旦’이라 칭했다는 기록에서 훈독법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용중(2012), 한중 양국의 김치 관련 어휘의 비교를 통해본 우리말 ‘김치’의 어원 연구 - 김치(沈菜)의 ‘沈’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53, 한국중어중문학회, 417-446.
- 강전섭(1963), 이두의 신연구,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강종훈(1999), 울주 천전리 서석 명문에 대한 일고찰, 『울산사학』 1호, 울산대학교 박물관.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 국립부여박물관(2008), 『백제목간』,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9), 『나무속 암호, 목간』,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6), 『韓國의 古代木簡』(개정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6), 『韓國의 古代木簡』(개정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권인한 외 편(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권인한(2005), 고대국어의 I-breaking 현상에 대한 일고찰 - ‘섬’(島)의 음운사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165~182.
- 권인한(2007),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 : 新羅 俗字 ‘𐏁’의 正體 究明을 겸하여, 구결연구 18호, 구결학회, 141-172
- 권인한(2008), 동아시아 출토문자자료에 대한 이해 ; 함안(咸安) 성산산성(城山山城) 목간(木簡) 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대하여, 『사립』 31호, 수선사학회, 39-62.
- 권인한(2008), 신라국호 이표기와 고대한국어 음운현상의 전개, 『구결연구』 20집, 구결학회, 179~211
- 권인한(2008),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료의 연구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제42집, 253~275
- 권인한(2008), 咸安 城山山城 木簡 속의 固有名詞 表記에 대하여, 『東아시아 資料學의 可能性 摸索 - 出土 資料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 권인한(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국어학계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243-274.
- 권인한(2010), 목간을 통해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문화 - 한·일 초기 목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6호, 한국목간학회, 69-92.
- 권인한(2010), 목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문자문화 : 한문 어법의 선택적 수용과 변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1-13
- 권인한(2011). 廣開土王陵碑文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목간과문자, 8, 289-339.
- 권인한(2013), 목간을 통해서 본 신라 사경소의 풍경, 진단학보 119호, 진단학회, 197-217.
- 권인한(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구결연구 35호, 구결학회, 23~51.
- 권인한·김경호·이승률(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근수(1955), 이두에 관한 신고찰, 국어문학 4-1(통권8), 전북대.
- 김근수(1961), 이두연구, 아세아연구 7.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39~86.
- 김영옥(2003), 백제 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5-151.
- 김영옥(2004), 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65-97.

- 김영옥(2007a),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 鄉歌 표기법의 起源을 찾아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71-189.
- 김영옥(2007b), 중원고구려비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 김영옥(2008a), 漢字의 土着化와 韓化漢文의 成立, 『구결학회 제37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27. (2008. 8. 한밭대학교 개최)
- 김영옥(2008b), 한국어 표기의 기원과 전개 과정, 『한국문화』 42, 서울대, 171-191.
- 김영옥(2009), 和化漢文의 趣源에 關한 一考察,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179-195.
- 김영옥(2010), 고대국어의 처소격 조사에 대하여, 『국어학』 57, 국어학회, 131-151.
- 김영옥(2011a), 동아시아의 문자문화와 한문의 수용 양상,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95-312.
- 김영옥(2011b), 목간에 보이는 고대국어 표기법,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167-193.
- 김영옥(2011c), 傳仁容寺址 木簡에 대한 어학적 접근, 『목간과 문자』 7호, 한국목간학회, 67-79.
- 김영옥(2012), 古代國語의 處所格 ‘-良’에 對한 研究. 『구결연구』, 28, 구결학회, 33-50.
- 김영옥(2014), 목간 자료와 어휘.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5-22.
- 김완진(1980), 『항해해독법 연구』, 한국문화총서 21, 서울대출판부.
- 김완진(2005), 국어학 10년의 앞날을 바라본다, 『국어국문학, 미래의 길을 묻다』, 15-27, 태학사.
- 김태균(1972), 대명률직해에 있어서의 ‘在’의 용법, 논문집 6, 경기대.
- 남풍현(1975a), 한자차용표기법의 발달, 국문학논집 7.8합집, 단국대국문과.
- 남풍현(1975b), 한자 차용표기법의 「元」字攷, 국어학 3.
- 남풍현(1977/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太學社.
-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 남풍현(1985), 차자표기법 연구사, 국어학연구사(고영근(1985)편), 학연사.
- 남풍현(1989), 울진봉평신라비에 대한 어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2호, 한국고대사학회, 45-57.
- 남풍현(1990), 고려말·조선초기의 구결 연구,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 남풍현(1991), 신라시대 이두의 ‘哉’에 대하여, 김완진선생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남풍현(1995), 국어사 자료로서의 삼국사기에 대한 검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76.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1), 「설총과 차자 표기법」,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21-36
- 남풍현(2004), 시상의 조동사 ‘在/ナ/겨-’의 발달, 『국어국문학』138, 국어국문학회, pp.5-34.
- 남풍현(2006), 上古時代에 있어서 차자표기법의 발달, 『구결연구』 16, 5-26.
- 남풍현(2011), 고대한국어의 겸양법 조동사 ‘白/畚’과 ‘內/아’의 발달, 『구결연구』 26호, 구결학회, 131~166.
- 노명호·이승재(2007), 高麗 顯宗·靖宗代 釋迦塔 重修 기록의 판독・역주, 『석가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 노중국(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57호, 한국고대사학회, 5-44.
- 노태돈(1989),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2호, 한국고대사학회,

175-190.

노태돈(1996),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집,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197-259.

동북아역사재단 편(2011),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문경현(1990),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보이는 부의 성격과 정치운영문제, 『한국고대사연구』 3호, 한국고대사학회,

박방룡(1988), 명활산성작성비의 검토, 『미술자료』 41, 국립중앙박물관, 57-79.

박성중(1996), 조선초기 이두 자료와 그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성중(2002), 문자 연구 50년, 『국어학 연구 50년』, 해안. 287-325.

박성중(2005), 韓國漢字의 일고찰, 『구결연구』 14호, 구결학회, 51-96.

박성중(2007), 이두자 内の 讀法, 『口訣研究』 19, 口訣學會, 140-170.

박중환(2002), 「부여 陵山里 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209-230.

박진호(2016), 「文法」,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29-159.

박창원(1998), 한국인의 문자생활사, 『동양학』 2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57-88.

배대온(1984), 조선조초기의 이두 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대온(1997), 『이두 용언의 활용어미 연구』, 형설출판사.

배보은(2013), 문자론 용어와 문자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백두현(1997), 借字表記와 형태론,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백두현(1999), 蔚珍鳳坪新羅碑의 지명에 대한 어학적 고찰, 『한국고대사학회와 올진 지방』, 한국고대사학회.

백두현(2006),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고려시대 한국어 연구』, 한국문화사.

백두현(2016), 김치의 어원 연구, 『김치, 한민족의 흥과 한』, 세계김치연구소.

서종학(1991), 이두의 문법형태 표기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선사와 고대 목기·목간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2013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발표회 자료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小林芳規(2002),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特に‘判比量論’に書き入れられた新羅の文字と記號-, 『書香』 第19號, 大谷大學圖書館報(日本 京都), 4-6.

小林芳規(2003),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尹幸舜 譯), 『口訣研究』 10호, 口訣學會, 5~30.

小倉進平(1929/1974),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亞細亞文化社影印.

손환일 편저(2011), 『한국목간자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孫煥一(2000), 「壬申誓記石의 書體考」, 『美術資料』 64, 국립중앙박물관, 1-16.

송기호(2002), 고대의 문자생활 - 비교와 시기구분,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송일기(2013),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27-259.

송하진(1992), 국어학 자료로서의 『삼국사기』 지리지의 성격, 『호남문화연구』 21: 13-50. 송하진(2000), 『고대 지명어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 안병희(1977b), 양잠경험찰요와 우역방의 이두의 연구, 동양학 7. 『국어사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에 재수록.
-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塔出版社.
- 양주동(1942), 『朝鮮古歌研究』, 京城府 : 博文書館.
- 양희철(1994), 향가의 기록 연대와 작가명, 『인문과학논집』 11집, 청주대학교.
- 양희철(2005), 「이두 ‘良’의 연구」, 『청주대학술논집』 6집, 319-340.
- 여호규(2009), “고구려 문자자료의 해독원리와 실제”, 목간학회, 제2기 문자학특강 2강 2009.4.10., 성균관대학교.)
- 여호규(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87~126.
- 오창명(1995), 조선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 윤선태(2000),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新羅古文書와 木簡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선태(2004),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목간의 재검토, 『동국사학』 40호, 66~73.
- 윤선태(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 목간, 『역사와 현실』 56호, 한국역사연구회, 113-142.
- 윤선태(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호, 한국역사연구회, 157-185
- 윤선태(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서울 :주류성.
- 윤선태(2011a),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15-145.
- 윤선태(2011b),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127~160.
- 윤선태(2016),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호, 신라사학회, 387-421.
- 윤선태·김복순·강종훈(2007), 木簡으로 본 新羅 王京人의 文字生活, 신라문화제 학술발표 논문집 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07-143.
- 이강로(1984), 인칭매김법 「-在(-견)」에 대한 연구, 한글 184.
- 이경섭(2004),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문화 23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5-228
- 이경섭(2014), 신라·백제목간의 비교 연구, 신라문화 44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9-42.
- 이기문(1971), 한자의 석에 관한 연구, 동아문화 11.
- 이기문(1981), 이두의 기원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52.
- 이기문(1989), 고대국어 연구와 한자의 새김 문제, 진단학보 67.
- 이기문(2005), 우리 나라 文字史의 흐름.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33-251.
- 이성호(2015), 포항 중성리신라비 판독과 인명표기, 목간과문자 15, 한국목간학회, 65-86.
- 이승녕(1955/1978),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관한 試論』, 塔出版社.
- 이승재(1989),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97), 차자표기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211-246.
- 이승재(2001), 고대 이두의 존경법 ‘-在[겨]-’에 대하여, 『어문연구』1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3-70.
- 이승재(2008), 이두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승재(2009), 목간과 국어학,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111~124.
- 이승재(2012), 木簡에서 찾은 新羅 詩歌 二首, 구결학회,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46.
- 이승재(2013a),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해독, 『한국문화』 6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2
- 이승재(2013b),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169-213.
- 이영호(2010),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169~213.
- 이용(1997), ‘-乙’에 대하여, 『구결연구』 2, 구결학회, 131-160.
- 이용(2007), 광개토대왕비문의 이두적 요소,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67-85.
- 이용(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구결연구』 38, 구결학회, 109-149.
- 이용현(2006), 『한국목간 기초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 이용현(2007), 문자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호, 구결학회, 191-225.
- 이용현(2011), 목간을 통해본 한국의 문자와 언어,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5-209.
- 이우태(2005), 금석문을 통하여 본 한자의 도입과 사용, 『한국고대사연구』 38호, 한국고대사학회, 113-134.
- 이은규(2002),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표기 용자례, 『한국말글학』 19호, 한국말글학회, 291-404.
- 이장희(1994), 한자음(日母)의 수용으로 본 고대국어의 유성마찰음, 『문학과 언어』 15집, 문학과언어학회.
- 이장희(1994), 華嚴經 口訣字 ‘尸’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 이장희(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ㄷ’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집, 문학과언어학회.
- 이장희(2000), ‘-干支’系 신라관명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18집, 언어과학회,
- 이장희(2001), 신라시대 한자음 성모체계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장희(2001), 신라향가 기사 시기의 국어학적 연구(1), 『문학과 언어』 23집, 문학과언어학회.
- 이장희(2003), 6세기 신라 금석문의 인명 접사 연구, 『언어과학연구』 26호, 언어과학회, 227~252
- 이준석(1998), 국어 차자 표기의 기원 연구 - 한역 불경의 범어 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철수(1983), 『양잠경험촬요의 이두연구』, 인하대출판부.
- 이한상(2004), 지식에 새겨진 무령왕 부부의 삶과 죽음,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 임창순(1958), 무술오작비소고, 『사학연구』1, 한국사학회, 1-17.
- 전덕재(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문자 3호, 한국목간학회, 63-101
- 정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집, 구결학회.
- 정구복 외(1997), 『역주 삼국사기』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인승(1957), 이두 기원의 재고찰, 이회승선생송수기념논총.
- 정재영(1997), ‘-오-’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정재영(2000a),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 연구, 『문헌과 해석』 통권 12호, 196-214.
- 정재영(2000b),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와 그 변화, 『형태론』 2권 1호, 73-106.
- 정재영(2008a),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93-110.
- 정재영(2008b), 한국 고대 문서목간의 국어사적 의의, 『朝鮮學報』 209호, 1-18.
- 정재영(2011), 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之’,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373-406.
- 정철주(1987), 신라 금석문에 나타난 吏讀 表記字의 연구, 『한국어와 알타이 어학』 于亭朴恩用博士 회갑기념논총,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495-517.
- 정철주(1988), 이두표기의 단계적 발달, 『계명어문학』 4집, 계명어문학회.
- 정철주(1989), 신라시대 이두의 연구 :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 조동원(2009), 나의 금석문 연구를 돌아보며, 한국목간학회, 목간과 문자 3, 343-355
- 조재형(2009), ‘-에’形 부사격조사의 통시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보돈(1984),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慶北史學』 7輯, 慶北大 史學科, 1-44.
- 주보돈(1989), 울진봉평신라비와 法興王代 律命, 한국고대사연구 2호, 한국고대사학회, 115-137.
- 주보돈(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수용 과정과 불교 수용, 『영남학』 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191-224.
- 주보돈(2002), 6세기 신라 금석문과 그 특징, 『신라 금석문의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재 학술논문집 23집,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21-150.
- 주보돈(2009), 職名·官等·地名·人名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漢文字 정착,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石門 李基東教授 停年紀念論叢),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주류성.
- 주보돈(2012),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구조와 내용, 『한국고대사연구』 65집, 한국고대사학회, 117-158.
- 周法高·張一昇·徐芷儀·林潔明 편저(1974), 『漢字古今音彙』, 中文大學 出版社.
- 최광식(1989), 울진봉평신라비의 釋文과 내용, 한국고대사연구 2호, 한국고대사학회, 89-113.
- 최성규(2016),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식(2008),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105호, 진단학회, 1-35.
- 최홍조(2013),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한국목간학회, 221-260.
- 하일식(2009),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 문자 연구』3, 한국목간학회, pp.139-156.
- 홍기문(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 홍기승(2013), 경주 월성해자 · 안압지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동향, 『목간과 문자』 10호, 한국목간학회, 95-118.
- 홍순탁(1974), 『이두연구』, 광문출판사.
- 황선엽(2002), 향가에 나타나는 ‘遭’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호, 국어학회, 3-25.
- 황선엽(2006),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호, 한말연구학회, 305-328.

황위주(1996), 한문자의 수용시기와 초기 정착과정(1), 『한문교육연구』 10, 한국한문교육학회, 115-149

황위주(2000), 한문의 초기 정착과정 연구(2)-기원 이전의 상황-, 『대동한문학』 13, 대동한문학회, 89~130.

<개 인 연 구 발 표>

이두자 ‘在’과 〈동석자〉 존대 — 석가탑 중수 문서를 중심으로 —

주영민(서울시립대)

1. 머리말

이두문에서 빈번한 쓰임을 보이면서도 그 문법적 기능에 논란이 있는 형태로 ‘在’을 들 수 있다. ‘在’은 본동사의 어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선어말어미설과 조동사설이 대립하고 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시상설과 주체존대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在’의 형태와 의미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석가탑 〈중수문서〉¹⁾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작성 경위를 가진 이 두 문서가 유독 ‘在’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만은 현격한 차이²⁾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동석자〉³⁾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无垢光淨塔重修記」는 〈동석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쓰여진 데 비해 「西石塔重修形止記」는 〈동석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썼기 때문에 ‘在’의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두자 ‘在’은 〈동석자〉존대와 관련된 형태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고는 동일한 석탑에 대한 중수기인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에 나타난 ‘在’의 사용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한 연구이기 때문에 ‘在’의 사용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과정⁴⁾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은 필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화와 달리 의사소통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과정에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가탑 파손 전의 경과와 관련된 다음 구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天寶元[年] | 壬午元高麗 太祖神聖大王元(第)[八](代) 顯宗元文大王已只至乎大平四(年) | [甲]子已只引乎二百八十五年 〈王代曆良中〉⁵⁾ (无垢, 69~72, 04~ 05행)⁷⁾

1) 이 글에서 〈중수문서〉는 석가탑에 납땀된 「无垢光淨塔重修記」, 「西石塔重修形止記」를 의미하고 『중수문서』(2009)는 석가탑에서 출토된 지류와 관련해서 출간된 책을 의미한다.

2) 이승재(2009, 130)에는 선어말 어미 위치에 쓰인 ‘在’이 「无垢光淨塔重修記」의 3회 「西石塔重修形止記」의 경우 22회라고 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해석자나 판독자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문서에서의 ‘在’의 사용 빈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3) 노마(2009)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직접적 대화자가 아닌 당해 언어장에서 청자로서 존재한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4) 노마(2009)는 대우 표현이 실현되는 형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 〈입말체〉와 〈글말체〉의 구별이라고 주장한다. 또 〈입말체〉적인 문체로 쓰여진 〈쓰여진 언어〉도 있고, 〈글말체〉적인 문체로 말하는 〈말해진 언어〉도 존재한다.

5) 이 판독은 『중수문서』(2009)의 판독에 준한 것이다. 이 글에 나오는 판독과 관련해서 사용된 기호 역시 이를 준용하였다. 다만 판독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각주 등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 구절에는 ‘已只’이 두 번 나온다. 이두문에서 ‘~까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조사가 두 번 쓰인 것은 이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든 흔적이 보이는 것은 〈중수문서〉들이 한번에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 중수의 과정을 그때그때 기록하여 정리하고 추후에 편집해서 쓴 것임을 말해준다. 만약 옮겨적은 것이 확실하다면 기록을 작성할 때의 현장의 분위기가 추후에 글을 쓰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중수 문서를 통해 최초의 기록이 작성될 때의 의사소통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중수 문서는 당대의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두 문헌의 비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문헌 작성에 관여한 언어 사용자들이 특정 집단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아울러 ‘在’이 소멸해가는 시기⁹⁾였으므로 그 용법이 투식화된 것으로 볼 가능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절대 연도가 알려진 동일 언어 집단의 비교 가능한 언어 자료가 국어사에서 드물기 때문에 〈중수문서〉들의 비교 연구는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在’이 소멸해가는 시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대의 문헌인 「西石塔重修形止記」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멸 시기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독범례】

- (): 획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 거의 확실한 글자
- [] : 남은 획이 전혀 없으나 문맥상 분명하게 추정되는 글자
- ▣ : 일부 획이 남아 있으나, 판독이 어려운 한 글자
- : 일부 획도 남아 있지 않은 훼손된 글자
- : 현재로는 몇 자였는지 알 수 없게 훼손된 글자.
- _ : 공격 등에 의한 글자 중간의 빈
- { } : 원문에서 수정하여 삽입한 내용
- < > : 원문의 협주
- | : 종이가 부식되어 분리됨에 따라 한 행이 상하로 나뉜 경계

쪽 번호: 목서지편의 종이들을 접어 포개 놓은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일련 번호

- 6) 『중수문서』(2009)에서는 ‘天寶 원년 壬午부터 (기산하여) 高麗 太祖神聖大王부터 제8대인 顯宗元文大王까지 이르는 太平 4년 갑자년까지 285년이다. 王代曆에 ▣로 해석하고서 ‘元…… 已只’의 안에 ‘元…… 已只’가 다시 내포되어 있다. 즉 [元…… [元…… 已只] …… 已只]의 구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으로는 내포된 ‘元’이 생략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 7) 이 글에서는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에서 인용을 할 때, 无垢, 西重처럼 한자 두 자로 출처 문헌을 밝힌 후, 중수 문서의 촬영 번호를 쓰고, 『중수문서』(2009)에서 매긴 행수를 밝히도록 하겠다.
- 8)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보면 이승재(2009)에서 기록자의 착오로 처리한 742년부터 1024년까지의 기간이 284년으로 적힌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헛수를 셀 때, 마지막해까지 집어 넣어서 셀 두 문헌의 기록을 합치다 보니 실제 기간보다 2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 9) 이승재(2001, 68)에서는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1031년)가 ‘在’를 존경법 선어말어미로 쓴 최후대의 문헌으로 비정하다가 이승재(2009, 130)에서 「서석탑중수형지기」를 검토한 후 ‘적어도 1038년까지 존경법 선어말어미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음…… 예들이 이두 자료에서 존경법 선어말어미로 쓰인 최후의 예다’고 하여 사실상 이 문헌을 이 용법이 사용된 최후의 문헌으로 보고 있다.

3. 연구 대상의 확정

본 연구에서는 용언의 일부로 쓰이는 ‘在’을 전반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在’의 문법적 의미와 형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남풍현(2000:194)에서

助在가 그것이다. 이는 ‘돕겨-’로 읽힐 것으로 여기서는 在가 어말어미 哉의 앞에 쓰였지만, 이 鍾銘에선 동명사형을 나타낼 위치에 쓰였기 때문에 ‘견’으로 읽힌다. ‘在/겨-’는 15세기 국어의 부사형 어미와 결합된 ‘(-어)+잇-’과 같은 것이니 완료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대국어에는 없으므로 그 기능에 맞게 1대1로 대응시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이 진술에서 ‘在’의 독음과 형태론적 지위 그리고 문법적 기능에 대해 검토할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在’은 환경에 따라 달리 읽혔다, 둘째, ‘(-어)+잇-’과 같은 조동사의 기능을 한다. 셋째, 완료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첫째, 동명사형이 아닌 위치에서도 ‘在’은 ‘견’으로 읽혔을 가능성과, 둘째, ‘在’을 /ㅏ/와 /ㅓ/의 복합형일 가능성, 셋째, 존대어설과 시상설이 양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연쇄를 이루고 있어서 첫 번째 가능성이 성립해야만 두 번째 가능성이 성립하고 두 번째 가능성이 성립해야 세 번째 가능성이 성립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므로 먼저 시상설과 존대어설을 중심으로 두 학설의 양립 가능성 및 <동석자> 존대의 설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시상설과 존대어설 모두 엄청난 연구 성과들이 쌓여 있다. 더군다나, 이두와 구결의 연구가 혼재해 있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두와 구결 관련 학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두를 중심으로 시상설과 존대어설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복합형으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두 학설의 양립 가능성과 독음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4.1. 시상법설

시상설은 안병희(1977), 이승재(1992), 백두현(1997), 김영옥(1999), 남풍현(2000), 남풍현(2004)을 들 수 있다. 안병희(1977:19)에서는 “時相에서 乎가 aorist임에 비해 在는 完了를 뜻한다.”고 했고, 이승재(1992:181-182)에서는 정도사형지기 26행의 同日 三寶內庭中乙 定爲在乎 事是等以의 “‘爲在乎’의 在는 동명사 어미가 아니라 후대의 ‘爲有乎’의 有에 해당하는 선어말어미인 것으로 이해하면 결코 잘못 쓰인 이두가 아니다. 즉, ‘爲有-’에서 爲有로 굳어지듯이 ‘爲#在-’에서 ‘爲在’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在’이 선어말어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서 “‘爲有乎’의 有는 시상의 선어말 어미로서 [완료]의

의미가 강한데 위의 在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남풍현(2000:144)에서는 “통일 신라 이후의 이두에서 在는 ‘겨-’로 읽히고 시간의 완료나 지속을 나타내는 시상의 표현으로 쓰였다. 이로 보면, ‘成在’는 ‘조성을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데 이를 음독하여 한자성어로 보아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복합동사 ‘일이겨-’로 풀어 읽고 ‘이룬’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

4.1.1. 시상설에 대한 이승재의 반론

시상설에 대해 이승재(2001:69)에서는 甘山寺阿彌陀如來造成記¹⁰⁾(720년)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논거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첫째, [완료]를 나타낼 때에는 동사의 바로 앞에 ‘了’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在’은 후대인에게 원망하는 구문에도 사용되는 데, 원망하는 구문에는 시상법 형태가 통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의 ‘長逝爲□之’의 ‘□’를 ‘在’로 채울 수 있는데 ‘長逝’는 순간동사 ‘죽-’에 해당하므로 형태가 통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4.1.2. 이승재(2001)의 반론이 지닌 문제점

본고에서는 이승재(2001)의 반론 중 원망형 구문에 시상법 형태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¹¹⁾. 하지만, 첫 번째 논거인 了를 쓰는 용법의 존재가 [완료]를 나타내는 다른 문법 형태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了’는 문법적인 요소라기보다 어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어휘가 [완료]로 쓰였다는 것이 [완료]를 표현하는 다른 문법 형태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이 어휘가 남풍현(2000:147)의 해석처럼 ‘못’으로 읽히고 ‘못+짓-’과 같이 어간을 복합하는 어간으로 쓰였다면 문법 형태소를 어간의 뒤에 배치시키는 국어의 일반적인 배열 구조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 형태소의 출현을 오히려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了’의 존재가 ‘在’를 시상 관련 형태소로 해석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세 번째 논거의 경우에도 판독이 불가능한 자리에 ‘在’를 집어넣은 후 이를 다시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4.2. 존경법설

‘在’의 존경법설은 小倉進平(1929), 點貝房之進(1934), 서중학(1984), 안병희(1987)¹²⁾로 꾸준히 이어져 온 주장¹³⁾이다. 이승재(2001:59-60)은 이전의 ‘在’의 존경법설을 계승하여 ‘불보살

10) 後代 追愛人者 此 善 助在哉 金志全 重阿湊 敬生已前 此 善業 造 歲□十九 庚申年四月廿二日 長逝爲□之

11) ‘後代 追愛人者 此 善業 助在哉’(후예인 추모인이 되는 이는 이 선조를 하실 것이로다)의 경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완료’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수긍할 것이다.

12) 같은 학자가 상반되는 학설을 주장한 것은 일견 모순처럼 보이지만, ‘在’과 관련된 용례들이 시상과 존대 양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3) 존경법설에 대한 연구사는 남풍현(2004: 9~14)를 참조하였다.

만약 이승재(2001)의 주장대로 ‘在’를 주체 존대라고 보면, 이 구절에는 賜, 在가 쓰이고 있는 데다가 문맥상 주체 존대로 해석되는 敎도 보인다. 그가 주장하는 주체 존대의 삼항 대립 체계 Ø:賜:在를 적용하기 어렵다. 雨, 虹, 電 등에는 賜가 쓰이고 虹, 電, 名公和尚師 등에는 ‘在’이 쓰였다. 名公和尚師와 호응하는 敎도 보인다.

그런데, 동일 주체에게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를 가진 서술어들이 연결된 사례가 보인다. 虹에는 ‘賜’와 ‘在’이 쓰였고, 名公和尚師에는 ‘敎’와 ‘在’이 각각 쓰였다.

이승재(2009: 63)에는 이 현상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立在亦; 처음 나오는 이두다. ‘서시어’ 정도의 뜻이다. 이곳의 ‘-在-’는 존경법 선어말어미로 쓰였다. 앞의 ‘爲賜亦’과 ‘立賜乎矣’, 뒤의 ‘爲賜乎’에 나오는 ‘-賜-’와 대비하여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난다.”고 했다. 그런데 ‘賜’와 ‘在’이 동일한 대상을 주어로 하는 서술어에 쓰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인용되어 있는 이 구절에 대한 그의 해석에 기대어 보면, 무지개(虹)와 관련된 두 서술어¹⁸⁾에 각각 ‘賜’와 ‘在’이 쓰였다. 주체존대설이 성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반례로 보인다.

4.2.2. 남풍현(2004)의 반론이 지닌 문제점

남풍현(2004:9)에는 구역인왕경의 ‘ッナト | /ㅎ겨누다’에 대하여 ‘완료된 동작이 지속되는 상황을 화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김영옥(1999:149~150)에 대해 ‘필자도 이들 견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본고는 ‘ッナト | /ㅎ겨누다’가 완료로 해석되는 것이 ‘ㄴ’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문장의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를 준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영근(2004:22)에서 제시된 ‘동작상과 동작성은 구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동작성은 주로 ‘동작류로 처리되는 동사의 시간적 어휘 자질을 가리킨다. 동작성은 동사뿐만 아니라 부사나 명사 등에 의해서 표시되는 동작적인 특징을 포괄하는 의미론적 범주이다. 이두문이 대부분 과거의 일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문에 쓰인 ‘在’이 완료나 과거로 해석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작성에 의해서 결정된 의미를 동작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无盡寺鐘記’의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天寶四載乙酉 思仁大角干 爲賜 夫只山村无盡寺 鐘 成 敎 受內 成 記 時

爲賜가 과거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과거로 해석되는 것은 문법적 장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과거의 일을 기술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天寶四載乙酉’라는 명사구가 동작성으로 기능해서 이 문장을 과거로 해석하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요는 ‘在’을 과거나 완료로 해석하는 것이 ‘在’ 자체의 의미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 동작성에 의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풍현(2000:193~194)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과거로 해석한 ‘无盡寺鐘記’의 다음 구절을 보자.

18) 虹立▶賜◀乎矣, 立▶在◀亦

時 願 助在 衆 邸僧村宅方 一切檀越 并 成在

이 때에 (思仁大角干의) 願을 도운 무리는 邸僧村宅 쪽의 一切 檀越이니 함께 造成하였다.

남풍현(2000)에서는 이 문장의 서술어에 대해

“成在는 成을 ‘일이-’, 在를 ‘겨-’로 보아 ‘일이겨-’로 읽힌다. 그 어미는 문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자체로 문장이 끝난다고 보면, 이는 ‘일이건’으로 읽어 ‘이루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문장 1에서와 같이 之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成在之가 되어 ‘일이건이다’ 또는 ‘일이겨다’로 읽어 ‘이룬 것이다’ 또는 ‘이루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과거’로 해석되는 이유가 ‘在’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在’을 빼도(ㄱ), ‘在’대신 종결어미 ‘之’를 삽입해도(ㄴ) 과거로 해석된다.

ㄱ. 時 願 助在 衆 邸僧村宅方 一切檀越 并 成

ㄴ. 時 願 助在 衆 邸僧村宅方 一切檀越 并 成之

그런데 이렇게 ‘在’ 없이도 완료나 과거로 해석된다는 것만으로 ‘在’이 시상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남풍현(2000)은 본고에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일이건’으로 읽어 ‘이루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이두문에서 ‘在’를 /견/으로 읽고 이를 완료로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위에서 작성한 ㄱ, ㄴ도 ‘이룬’처럼 읽고 완료로 해석할 수 있다. ‘在’ 관련 이두문들이 완료로 해석되는 기제는 ‘在’에 화합¹⁹⁾되어 있는 /ㄱ/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在’을 화합 형태로 보면, ‘R([존대]‘ㄴ’+[완료]‘ㄱ’)=在/ㄴㄱ²⁰⁾/과 같은 실현 규칙을 세울 수 있다.

5. ‘在’을 /ㄴ/와 /ㄱ/의 결합형으로 볼 가능성

전절에서 ‘在’을 [상대존대]‘ㄴ’+[완료]‘ㄱ’의 화합 형태로 보고 그 실현 규칙을 세워 보았다. 이 와 관련해서 화합 형태의 관점에서 ‘无盡寺鐘記’을 검토해 보자.

天寶四載乙酉 思仁大角干 爲賜 夫只山村无盡寺 鐘 成 教 受內 成 記 時 願 助在 衆師
僧村方 一切檀越 并 成在 願旨者 一切衆生 苦難樂得 教受 成在 節 雀乃秋長幢主

이 구절에 대해 이승재(2001)에서는 ‘助在’, ‘成在1’, ‘成在2’에 쓰인 ‘在’이 모두 ‘一切檀越’과 ‘一切衆生’에 호응하므로 3항 대립 체계의 제2항 존자에 대한 존경법을 나타내는 형태라고

19) 김영옥(1997, 9)에서 형태소가 형태로 실현되는 규칙을 $R(M)=M'$ 로 정식화하고 그중 $R(M+\dots +M)=M'$ 의 유형을 ‘화합형태’라고 했고, 이때의 실현 규칙을 화합(amalgamation)이라 했다.

20) ‘ㄴ’과 ‘ㄱ’이 화합되어서 만들어진 ‘在’/ㄴㄱ/은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화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 전 두 형태소가 지니고 있던 문법적 의미를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5세기의 대표적인 화합 형태인 ‘-쇼셔’가 [주체존대], [상대존대], [명령], [종결어미]의 기능을 두루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였다.

그런데 남풍현(2004)에서는 “願旨는 一切衆生이 苦難樂得케 하라는 敎를 받아 이루었음’으로 해석되므로 ‘成在’의 주체는 이 종기(鐘記)를 쓴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成在’을 존경법으로 보면 이는 자기가 자기를 존대한 것이니 모순이다.”는 비판은 주체존대설에 날카로운 반례가 된다.

이처럼 ‘在’이 쓰인 문장들 중 완료로만 해석되는 것들과 존대로만 해석되는 것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완료와 존대 양측으로 해석해도 되는 문장이 다수 존재한다. 물론 존대설의 경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在’이 쓰인 문장 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존대’하는 것처럼 해석되거나, 물건이 주어진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대의 대상을 문장의 주체가 아닌 다른 대상 즉 〈동석자〉로 설정해야 한다.

〈동석자〉 존대를 활용하여 이미 제시된 ‘无盡寺鐘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다.

“이때 願을 도운 衆은 邸僧村宅方의 一切檀越이 함께 이루었습니다. 願旨는 一切衆生이 苦難樂得케 하라는 敎는 받아 이루었습니다.”

‘在’를 포함한 ‘助在’, ‘成在1’, ‘成在2’에 대해 ‘助在’는 완료로 ‘成在1’, ‘成在2’는 완료와 〈동석자〉 존대로 해석한 것이다. 언뜻 보면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겠으나, ‘在’이 /ㅈ/와 /ㄷ/의 결합형이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대화가 아닌 쓰여진 문장에서 〈동석자〉 존대를 설정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동석자〉 존대는 넓게 보아 상대존대로 볼 수 있는데, ‘15세기의 상대 존대의 ‘-이-’는 차자 표기에는 발견되지 않는다.’²¹⁾고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상대 존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문제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존대법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겠다.

5.1. ‘在’과 〈동석자〉 존대

‘在’과 〈동석자〉 존대를 연결짓기에 앞서서 차자표기와 훈민정음 표기 사이에서 존대법 체계의 계승 관계를 검토해 보자.

	차자표기	표기 방식	훈민정음
주체존대	-ㅈ-/-ㄷ-	⇔	-시-
상대존대	?	?	-이-
객체존대	-ㅍ-	⇔	-술-

표에 제시한 것처럼 주체존대와 객체존대는 차자 표기와 훈민정음 사이에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상대존대의 연속성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일까? 먼저 상대존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대화 상대자를 높이는 체계 없이 객체를 높이는 체계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왜 상대존대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상대존대는 대화체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차자표기는 주로 문어

21) 박진호(1997, 173),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필자도 상대존대가 존재하였지만,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을 담은 듯하다.

체를 바탕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상대존대의 형태가 드러나기 어렵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각주 4)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말체> 적인 문체로 쓰여진 <쓰여진 언어>’라면, 그 언어 자료에는 상대존대의 편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중수문서>가 현장 기록을 옮겨적은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수문서>를 분석하면 기록이 작성될 당시의 의사소통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상대존대>와 관련된 <동석자> 존대를 확인할 가능성이 열린다.

본고에서는 이런 전제 아래 차자표기에서도 상대존대의 일종인 <동석자> 존대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²²⁾.

전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在’을 /ㅏ/와 /ㄱ/으로 본다면 의미적으로는 상대 존대와 시상어 복합 형태 내부에서 양립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형태론적으로 보면, ‘成在1’, ‘成在2’처럼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동명사 어미로 쓰이는 용례의 설명이 용이해진다. ‘在’의 독음을 /ㅏ/로 보고 환경에 따라 /ㄱ/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ㅏㄱ/으로 설정하고 환경에 따라서, /ㄱ/이 생략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옥(1997:175)에서 제시한 다음의 결어법 조건과 관련지어 ‘在’를 논의해 보자.

- (ㄱ) 한 문장을 끝맺는 구실을 한다.
- (ㄴ) 준비법과 문체법으로 구성된다.
- (ㄷ) 준비법은 문체법에 선행한다.’

이 결어법 조건을 문장 종결 위치에 오는 ‘在’에 적용하면, 준비법에서 기원한 /ㅏ/가 시상법 내지 문체법 기능을 지닌 /ㄱ/에 선행해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无盡寺鐘記의 ‘成在1’, ‘成在2’은 문장 종결 기능을 하므로 이 설명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온 ‘助在’의 경우에는 이 설명이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時 願 助在 衆師僧村方 一切檀越 并 成在’의 해석 “이때 願을 도운 衆은 鄆僧村宅方の 一切檀越이 함께 이루었습니다.”을 잘 들여다보면, ‘衆≡一切檀越’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衆’과 ‘一切檀越’은 둘인 듯 하나인 관계인 것이다. ‘내가 하셨습니다’와 같은 자기 존대는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 함께 ~했습니다’가 허용되는 것처럼 ‘无盡寺鐘記’의 ‘在’에는 완료와 상대 존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국어의 관형사형에 완료와 상대 존대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번역으로 나타낼 수 없을 뿐이다.

22) 본고에서는 ‘在’이 형태적으로 /ㅏ/와 /ㄱ/의 결합해서 <동석자> 존대로 쓰이다가, 다시 분기되어서 ‘-이-’가 발생했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이 가설은 ‘在’이 시상설과 존대설의 간극을 메워줄 뿐 아니라, 사라진 차자표기의 상대존대 형태의 설정 가능성을 열어준다.

상대존대		<동석자> 존대		상대존대
/ㅏ/	↘	在	↗	-이-
	통합		분기	
/ㄱ/	↗	완료	↘	/ㅏ/
완료				완료

5.2. 의사소통 이론의 관점에서 본 ‘在’의 의미

본고에서는 ‘직접적 대화자가 아닌 당해 언어장에서 청자로서 존재한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물’을 설정하면 상당수의 ‘在’이 쓰인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동석자〉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논자들이 주제 존재로 설명하던²³⁾ 葛項寺石塔記의 다음 구절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 成▶在◀之
 甥者 零妙寺言寂法師▶在◀旃 姊者 照文皇太后君妃▶在◀旃 妹者 敬信太王妃▶在◀也

위의 두 문장에는 동사나 계사의 선어말어미 자리에 모두 ‘在’이 삽입되어 있다. 문제는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 成▶在◀之’의 경우 완료로 해석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甥者 零妙寺言寂法師▶在◀旃 姊者 照文皇太后君妃▶在◀旃 妹者 敬信太王妃▶在◀也’는 시주자의 신분을 밝힌 문장이므로 완료로 해석하면 다소 어색하다. 본고에서는 부처를 ‘직접적 대화자가 아닌 당해 언어장에서 청자로서 존재한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인물’인 〈동석자〉로 가정하고²⁴⁾ 문맥에 따라 완료의 의미를 더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다.

두 탑은 天寶 十七年 戊戌에 세웠습니다. 甥姊妹 삼인의 노력으로 이루었습니다.
 오라비²⁵⁾은 零妙寺言寂法師고요, 누나는 照文皇太后君妃고요, 여동생은 敬信太王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첫 행에서는 ‘在’이 완료의 의미가 둘째 행에서는 〈동석자〉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해석이 된다.

본고의 〈동석자〉 존재 개념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중수 문서에서 ‘在’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다른 것을 적절히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는 모두 석가탑의 중수와 관련한 글들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문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在’의 사용 횟수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승재(2009:13)에 따르면, 「无垢光淨塔重修記」에는 3회만 사용된 데 비해서 「西石塔重修形止記」는 22회나 사용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본고에서는 ‘관’이 주도한 중수와 ‘민’이 주도한 중수의 성격 차이에서 ‘在’의 빈도가 달라졌다고 본다.

먼저 「无垢光淨塔重修記」과 「西石塔重修形止記」의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 보자.

慶州蔚州永州等州縣▣ | ▣穀三百五十余石麻三百卅余過水[鐵]

23) 이승재(2001:59)

24) 탑을 시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탑의 봉헌을 받는 부처께 시말을 보고하는 글을 썼다면 당연히 그 대상에게 존재하는 말투를 구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는 직접적인 대화자가 아니므로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석자〉로 규정한 것이다.

25) 甥은 손위와 손아래를 가리지 않으므로 남자 형제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雜鐵合四百余斤乙集乎分工匠乙良口 | 寺成造大匠等乙界官 中白受(分)

(无垢, 56~53, 08~09 행)

國修理義无在沙余 又(前)

丹那酬恩義僧无乎等用良寺主 弥力三會棟梁

----- 寺良納入令是白良(於) 弥力三會棟梁

(西重, 82~91, 10~12행)

「无垢光淨塔重修記」의 ‘~等乙界官 中白受(分)’은 ‘~등을 界官에게 아뢰서 받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官’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官이 개입했으므로 중수 결과를官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을 것이고, <동석자> 존대 형태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无垢光淨塔重修記」는 <동석자>를 의식하지 않고 쓴 문어체에 가까운 성격을 띤 문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西石塔重修形止記」의 ‘弥力三會棟梁(乙良納入令)是白良(於) 弥力三會棟梁’에 비춰 봤을 때, 관청의 도움 없이 민간의 후원에 의지해서 중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후원에 참여한 다수인들을 대우하는 <동석자> 존대 형태인 ‘在’의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西石塔重修形止記」는 상대적으로 구어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자 언어로 적혀 있는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에 대해 구어체에 가깝다거나 문어체의 성격이 더 짙다고 말하는 것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이 용어법은 문어와 구어의 전통적인 구분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체와 양식의 개념을 전제한 것이다. McCarthy & Carter(1994:4-5)에 의하면 매체란 “송신자가 자료의 집합체를 어떤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하였는가?”의 답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해 양식이란 메시지를 ‘어떤 매체적 특질’에 맞춰 생산해 내려는 송신자의 의도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는 둘 다 문자언어라는 매체로 적혀 있지만 「无垢光淨塔重修記」는 관청에 보고하고자 의도가 강하고 「西石塔重修形止記」는 중수를 지원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중수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양식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 헛치(E. Hatch.:1992)에서는 구어와 문어의 성격적 연속체는 텍스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자나 필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주어진 맥락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아래 표(외스터만, J. Oestman., 1987:159)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각종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인 상호대화 (dyadic conversation)	전화 통화 (telephone)	강의 (lecture)	일기문 (diary)	편지문 (letter)	설명문 (expository prose)
가시성 (visibility)	+	—	+	—	—	—
상호작용 (reciprocity)	+	+	—	—	+	—
비형식성 (informality)	+	+	—	+	+/-	—
즉흥성 (spontaneity)	+	+	—	+	—	—
감정동화작용 (empathy)	+	+	+	—	—	—
비논리성 (inconsequentiality)	+	+	+	+/-	+/-	—

〈표1〉 각종 문어 양식의 텍스트적 특성

이 표에 「无垢光淨塔重修記」와 「西石塔重修形止記」를 배열해 보면, 「无垢光淨塔重修記」는 설명문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고, 「西石塔重修形止記」는 강의 즉 대중 화법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西石塔重修形止記」가 강의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다음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葛乙良僧衆乙以採取□/

--九椀²⁶⁾束繩作成是▶在◀亦早朝元-- | -- 天衆乙以助乎成是教▶在◀遂于²⁷⁾每

--■這已訖造成爲▶在◀ふ廿四日-- | -■手藝別請僧寶條料二時盤味

---■以指使內▶在◀ふ衆僧寶--- | -■已畢斫入爲▶在◀乎矣

(西重, 107~98, 15~18행)

전체적으로 공사의 과정을 묘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데 5회 ‘在’이 쓰이고 있다. 그 쓰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九椀²⁸⁾束繩作成是▶在◀亦- ‘僧衆乙以’ ‘葛’을 채취한 후 ‘束繩作成是’하게 함(사동)

天衆乙以助乎成是教▶在◀ ‘天衆乙以’ ‘助乎成是教’하게 하심(사동) .

這已訖造成爲▶在◀ふ (天衆乙以) …… 這已訖造成爲함.

-■以指使內▶在◀ふ ‘■手藝別請僧’……指使內함.(사동)

已畢斫入爲▶在◀乎矣 ‘衆僧’……已畢斫入爲함.

이 문장들에는 [완료]로도 [주체 존대]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在’이 다수 보인다. 첫째, 여기 나오는 동사들의 의미상의 주어는 공사의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주체 존대]의 대상이 되

26) 椀, 강희자전 同文書局原版, 辰集中, 木部 九畫 32에 ‘同 桼’이라 되어 있다.

27) 于로 보긴 어려운 자형이다. ‘乎’에 더 가깝다.

28) 椀, 강희자전 同文書局原版, 辰集中, 木部 九畫 32에 ‘同 桼’이라 되어 있다.

기 어렵지만 공정을 묘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완료]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 대목에서도 <동석자>를 존대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구절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

□(村)僧衆三百(余人)是遣▶在²⁹⁾◀◻//
 不得爲去乎ㄱ用 ; 奴人壯爲五十余乙(加) | □下是白乎事是▶在³⁰⁾◀◻三寶以酒□□
 進▶在◀◻下層金堂石方廣四尺◻[寸厚] | □(尺)三寸下是白內▶在◀◻二日飯喫啼初(層)
 金堂臺石四下是白遣月蓋石◻ | □◻手藝賢秀僧亦絃上等菜外時長(麥)
 供爲▶在◀◻三日飯喫啼早朝元(雨)[下 | 是](賜)ㄱ以作³¹⁾事不得四日雨下作事不得五
 日飯喫啼地臺元正是▶在◀◻

(无垢, 79~94, 86~87)

‘(村)僧衆三百(余人)是遣’ 뒤에 나오는 ‘在’의 경우 뒤따르는 어미가 보이지 않지만, 어간인遣에 붙어 있다. 三百(余人)들이 평범한 공사 관계자들인 탓에 주체 존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듯한데, 그렇다면 왜 ‘在’이 들어갔는지 해명이 필요한 구절이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下是白乎事是▶在◀◻에서는 본동사 어간 ‘在’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進▶在◀◻, 三寸下是白內▶在◀◻, 供爲▶在◀◻, 正是▶在◀◻’의 주어는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주로 다수의 공사 관계자들이다. 공정이 끝난 것에 주목해서 보면 완료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동석자> 존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西石塔重修形止記」에 쓰인 ‘在’을 텍스트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无垢光淨塔重修記」에 쓰인 ‘在’의 성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東岳嶺³²⁾頭元墨雲亦滿◻◻ | □(大動)爲 ; 余雨下爲▶賜◀亦虹立▶賜◀乎矣{(北岳))神
 筒南末梓界水出筒山霄³³⁾(着 | ;)立▶在◀亦晴化爲▶賜◀◻申時亦中電(爲)
 ▶賜◀亦▶在◀◻廿二日寶條料廿(三)[日] | (寺)上里名公和尚師 舍利齋兼衆酒
 菓進▶教◀矣◻◻舍利前供味飯長◻ | ◻羅白飯花瓶三山菓廿物供白(遣)
 右供味菓子等乙衆良中酒◻ | 并進▶在◀◻寶以赤粥大豆廿四日◻◻
 父³⁴⁾宗僧雜食(保賢僧)大豆(鹹)- | --◻◻-----

(无垢, 63~78, 82~87행)

이 대목은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신비한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는 자연물인 비, 구름, 번개 등을 신성시하여 주체 존대 ‘賜’를 주로 쓰고 있는 것도 특이하지만, 「无垢光淨塔重修記」의 다른 구절과 달리 ‘在’이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在’이 쓰인 문장의 주어는 {(北岳))神, 구름, 불특정인(2회)이다. 이들을 주체로 존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완료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申時亦中電(爲)/▶賜◀亦▶在◀◻’의 경우 ‘賜’와 ‘在’이 동사구 안에서 함께 쓰였다. 이승재(2009)에서는 ‘(爲)賜亦在◻’를

29) 이승재(2009)에서는 주체존대의 용례로 보지 않았다.
 30) 이승재(2009)에서는 주체존대의 용례로 보지 않았다.
 31)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듯.
 32) 이승재(2009:63) 嶺의 통용자인 듯.
 33) ‘霄’ 腰의 이체자
 34) 이승재(2009:63)에서는 ◻로 처리

‘(하)십이 있으며, (하)시였으며’로 읽은 후, 전체에 대해서는 ‘申時에 번개가 치시었다.’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申時에 번개가 치시었다.’라면 ‘申時亦中電(爲)賜ふ’로 표현해도 충분하다. 주격조사와 ‘在’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동사구에는 주체존대와 〈동석자〉 존대가 병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령한 자연 현상인 번개를 주체 존대로 높이는 동시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동석자〉 들을 ‘在’을 활용해 높인 것이다.

「无垢光淨塔重修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건조한 문체로 쓰였지만, 경이로운 사건을 서술하는 이 대목에서는 앞에 〈동석자〉를 두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³⁵⁾하고자 했기 때문에 ‘在’을 썼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동석자〉 존대와 완료의 시상을 반영해서 해석해 보았다. 건조한 느낌이 다소 줄어들고 상대를 앞에 두고 경과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東岳嶺 정상부터 먹구름이 가득 ■□□ 크게 움직이고 비가 내리시고, 무지개가 서시되, 北岳神/筒(경계)의 남쪽 끝에서 梓界水出의 筒(경계) 산허리에 붙었다가요, 맑게 개셨으며, 申時에 번개가 / 치셨어요. 22일의 寶의 條(이식)로 (한 끼를) 料量하였다. 23일 寺上里名公和尚師가 舍利齋와 무리에게 酒/菓를 내시되, 舍利 앞에 올리는 味飯, 長■, ■羅, 白飯, 花瓶 셋, 山菓 스무 갓을 바치셨고./ 앞의 올린 味, 菓子 등을 무리에게 酒■ 아울러 내었고요, 보로 赤粥과 大豆(를 내었다.) 24일■■/ 父宗僧이 잡과를 내고 保賢僧이 大豆, 餗---■■-----

(无垢 63~78, 82~87행에 대한 필자의 해석, 〈동석자〉 존대 관련부분에 밑줄)

6. 요약 및 제언

본고는 석가탑에 납입되었던 두 종류의 중수 문서를 검토하여 이두자 ‘在’이 〈동석자〉 존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동석자〉 존대가 사용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텍스트의 의사소통론적인 사용의 측면에서의 사용 조건의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동석자〉 개념을 ‘在’와 연결 짓는 데 급급한 관계로 연구의 짜임새가 여러모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첫째, 문헌 자료의 특성상 간접적인 증명에 그쳤으므로, 대화 참가자들의 관계가 드러나 있는 구어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직접적인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석자〉 존대를 통사론의 대상으로 포섭할지 화용론의 영역에 남겨둘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이두자 ‘在’와 구결자 /ナ/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꾸준한 천착이 필요하다. /ナ/가 ‘在’에서 기원했다고 하여도 그 통사적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꾸준한 천착이 필요하다. 또한 차자표기 시기의 상대존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35) 이와 관련해서 중수 문서들이 이미 씌여진 기록을 옮겨적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2장의 논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201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집문당.
- 김영옥(1997), 『문법형태의 연구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4), 「시상의 조동사 '在/ナ/겨-'의 발달」, 『국어국문학』 제138권, 2004.12, 5-34.
- 노마 히데키(2009), 「대우 표현과 대우법: 몇 가지 시각」, 『한국어 교육』 4, 57-103.
-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박진호(1997), 「차자표기의 통사론적 검토」,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2003)
- 안병희(1977a),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 안병희(1977b), 「양잠경험체요와 우역방의 이두의 연구」, 동양학 7.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논총17, 태학사.
- 이승재(2001), 「고대 이두의 존경법 '-在[겨]'에 대하여」, 『어문연구』 112.
- 이승재(2009), 묵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2009), 『중수문서』.
- Hatch, E.(1992), *Discourse &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niv. Press.
- Oestman, J.(1987), Implicit Involvement In Interactive Writing, in Jef Verschueren and Marcella Bercelli-Papi(ed.) 1987. 155-178.
- McCarthy, M, Carter, R(1994), *Language as Discourse: Perspectives for Language Teaching*, Longman.

구결자 ‘𠂔’에 대하여

문현수(고려대)

1. 머리말

- 본고는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 ‘𠂔’의 음가와 원자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𠂔’이 현토되는 어형은 ‘今𠂔’과 ‘餘𠂔’이 있다.
- ‘𠂔’의 원자와 그 독음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 남풍현(1993): 『詩經釋義』에 쓰인 ‘𠂔’을 토대로 ‘𠂔’의 원자를 ‘𠂔’으로 보고 그 독음을 [ㄱ/ㄴ]로 파악하였다. ‘今𠂔’과 ‘今𠂔’에서 ‘𠂔’자가 ‘𠂔’자와 교체되어 쓰임을 알 수 있으며, ‘餘𠂔’은 ‘남죽’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 백두현(1997): 남풍현(1993)의 의견에 따랐다.
- 심재기·이승재(1998): ‘今ㄴ’과 ‘今𠂔’의 대응, ‘餘ㄴ’과 ‘餘𠂔’의 대응을 토대로 ‘𠂔’의 원자를 ‘恨’으로 보고 그 독음을 [흔]으로 추정하였다.
- 김무림(1998): ‘今ㄴ’은 ‘今ㄴ’과 ‘今𠂔’의 복합형인 ‘今ㄴㄴ’에서 ‘ㅎ’이 탈락한 어형이며, ‘今𠂔’과 이표기 관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𠂔’의 독음을 [ㄱ]으로 추정하였다.
- 김무림(1999): ‘𠂔’의 원자를 ‘恨’으로 보고 그 독음을 [흔]으로 추정한 심재기·이승재(1998)의 의견에 따라 견해를 수정하였다.
- 황국정(2001): 심재기·이승재(1998)과 같이 ‘𠂔’의 원자를 ‘恨’으로 보고 그 독음을 [흔]으로 보았다. 다만 ‘今𠂔’과 ‘今ㄴ’의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𠂔’과 ‘ㄴ’의 대응관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허인영(2012): ‘𠂔’의 원자를 ‘𠂔’, 독음을 [ㄱ]으로 추정하였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ㄴ’은 [흔]이라는 음가를 나타내기 위해 매우 흔하게 현토되는 구결자 연쇄로 굳이 𠂔字를 만들 필요가 없다. 특히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는 33(/)으로 [흔]을 표상하는데, 32~33(·)과 대응하는 ‘𠂔’도 [흔]과 대응된다면 같은 언어 형식을 표상하는 구결점이 둘이라 해독의 혼란이 발생한다.
 - ② ‘今𠂔’, ‘今ㄴ’, ‘今ㄴ’은 ‘-ㄴㅈ’, ‘-ㄴㅈ’, ‘-ㄴㅈ’의 관계를 참고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보조사 ‘-ㄴ’과 보조사 ‘-ㄴ’의 통합형인 ‘ㅈ’과 마찬가지로 ‘𠂔’은 말음첨기 ‘ㄴ’에 보조사 ‘-ㄴ’의 통합형이다. 또한 ‘今𠂔’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今ㄴ’은 ‘今𠂔’에 보조사 ‘-ㄴ’이 통합한 형태로 분석 가능하다. ‘-ㄴㅈ’, ‘-ㄴㅈ’의 관계처럼 ‘今ㄴ’은 ‘今ㄴ’의 ‘ㄴ’이 약화된 형태이다.
 - ③ 자토석독구결에서 ‘今𠂔’은 대부분 부독자 ‘者’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반면, ‘今𠂔’은 그렇지 않다. 古典漢語에서 ‘者’는 대비적 강조의 표지로서 명사 뒤에서도 출현하며 ‘古者’, ‘昔者’와 같은 시간 표현에서는 화제화의 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今𠂔’이 보조사 ‘-ㄴ’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 ‘今ㄴ’의 합자는 ‘ㅈ’과 ‘𠂔’ 둘이 존재하게 되지만, ‘ㅈ’은 [ㄱ]을 표상하고 ‘𠂔’은 [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모음조화에 따른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결자는 ‘ㄴ’과 ‘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 존재한다.

- 선행연구에서는 ‘𠂔’의 원자와 독음을 대체로 ‘𠂔[ㄱ]’ 내지 ‘恨[흔]’으로 파악했다. 아래에서는 ‘𠂔’이 현토된 ‘今’과 ‘餘’를 중심으로 ‘𠂔’의 원자와 음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今'에 현토된 구결자의 검토

- ‘今’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 석독구결에서는 ‘今ハ’, ‘今支’, ‘今鼠’, ‘今ㄴ’, ‘今ハㄴ’, ‘今ㄴ’의 어형이 관찰된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1. ‘今八’

- (1) ㄱ. <구인상, 11:08>

A:如來三業德無極，我今月光禮三寶，

B:如來七 三業ヲ 徳リ 無極ノロハニヲ 我リ戸 今ハ 月光ヲ 三寶乙 禮ノ白口トヲ :

C:如來의 三業은 德이 無極하시니 나인 지금 月光은 三寶를 禮하옵는 것이다.

- $$\perp. \langle \text{유가}20, 11:04-05 \rangle$$

A:今此義中意，辯緣法光明以爲境界修光明想。

B: 今ハ 此 義ニ 中ノ 意ヲ 法ニ 緣ノ今ニ 光明ニ 以テ 境界 {爲}ニ 光明想ニ 修メ入ルニ 辯メリ

C: 지극 이 義 중에서 의미는 法을 緣하는 光明으로써 境界 삼아 光明想을 닦는 것을 辯한 것이다.

- ㄷ. <유가20, 19:22-20:01>

A:又先所說得三摩地，若中所說三摩地圓滿，及今所說三摩地自在，

B:又 先下 說ノ₁ 所₇ 得三摩地人 若 中₃ + 說ノ₁ 所₇ 三摩地圓滿人 及₇ 今ハ 說ノ₁ 所₇ 三摩地自在人乙

C: 또 먼저 말한 바인 得三摩地와 만약 중에 말한 바인 三摩地圓滿과 및 이제 말한 바인 三摩地自在를

- ‘今ハ’은 ‘이제’, ‘지금’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쓰였다.
- 今ハ은 <구인>과 <유가> 계통의 자토석독구결에서만 발견된다. <화엄> 계통의 석독구결에서는 자토와 점토를 통틀어 ‘今ハ’가 쓰인 예가 없다.

2.2. ‘今日’과 ‘今日’

- (2) $\neg$. <유가20, 08:18-19>

A:不生憂慮，謂我我今者何所在耶，

B:憂慮乙 生リヨホ 謂尸 我ヲ 我ヲ 今且{者} 何ニ 所ヨ十 在ニ去リリヨセロソ尸{耶} 不冬
ノヲリリヨセロソ尸矣分

C:우리를 내어서 말하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며,

- ²
- . <유가20, 18:13-14>

A:而我今者，於四種苦，爲脫何等。

B:而₁ 我₁ 今₁{者}₁{於}四種 苦₁+ 何₁等₁乙₁{爲}脱₁ノ₁リ₁セ₁ロ

C:나는 지금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어떤 것들을 벗어나 있는 것인가?

- $$\sqsubset. \langle \text{유가}20, 18:15-17 \rangle$$

A:我今不應爲苦隨逐，未於勝定獲得自在，中路止息，或復退屈，

B:我₁ 今 畏 隨 逐 ノ 尸 入 乙 爲 ハ { 於 勝 定 } + 自 在 ノ ヲ 入 乙 獲 得 未 ハ ン ヲ + 中 路 } + 止 息 ソ キ 或 復 退 屈 ソ キ ノ ヲ 應 セ ン ヲ 不 矢 ヲ リ ヲ セ ン }

C:나는 이제, 괴로움이 뒤따르는 바를 입어 뛰어난 정에서 자재하는 것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중도에서 그만두고 혹은 다시 뒤로 물러나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여

- ‘今’은 자토석독구결에서 <유가>에서 총5회 현토되었다(2). 이들은 모두 ‘이제’, ‘지금’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쓰였다.



<성암본 유가8 18:06>



-점토 표시



<남선사본 유가8 1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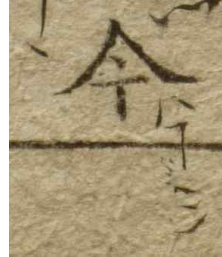
-점토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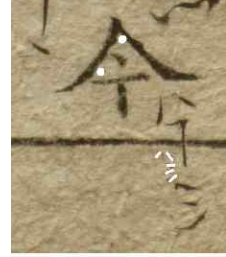
<호림본 유가3 09:18>



-점토 표시



<금광3, 06:24>



-점토 표시

(3) ㄱ. <성암본 유가8 18:05-06>

A:復次[23(·)]白品一切[33(·)]翻[33~43(/)]前[33(1),34(·),지시선(/)]應知[42(\),53(/)]所有[33(/),42(·)]差別[34(·)]我[33(·)]今[32~33(·)]當說[+51~52(·)]

B:復次[→]白品一切[1]翻[↘1 11]前[子?,乙]應知[ノㄱ七,↘1 ㄱ]所有[↘1,七]差別[乙]我[1]今[ㄹ/ハ1]當說[x1]

C:復 次→ 白品 一切1 前子乙 翻↘1 11 知ノㄱ{應}七↘1 ㄱ 有↘1 所七 差別乙 我1 今 ㄹ/ハ1 當 說x1

D:또 다음으로 白品 一切는 앞의 것을 뒤집는 줄을 알아야 하니, 있는 바의 차별을 나는 이제 반드시 말하겠다.

ㄴ. <남선사본 유가8 18:05-06>

A:復次[23(·)]白品一切翻[33~43(/)]前[33(1),34(·),43(·),지시선(/)]應知[42(\),53(/)]所有[33(/),42(·)]差別[34(·)]我[33(·)]今[32~33(·)]當說[+51~52(·)]

B:復次[→]白品一切[1]翻[↘1 11]前[子?,乙]應知[ノㄱ七,↘1 ㄱ]所有[↘1,七]差別[乙]我[1]今[ㄹ/ハ1]當說[x1]

C:復 次→ 白品 一切1 前子乙 翻↘1 11 知ノㄱ{應}七↘1 ㄱ 有↘1 所七 差別乙 我1 今 ㄹ/ハ1 當 說x1

D:또 다음으로 白品 一切는 앞의 것을 뒤집는 줄을 알아야 하니, 있는 바의 차별을 나는 이제 반드시 말하겠다.

ㄷ. <호림본 유가3 09:17-18>

A:先[54(·)]末[역독선]相續[45(·)]生[22~32(·),빼침선(23),51(·)+빼침선(51),33(1)]法[22~32(·)]今[32~33(·),24(·),경계선,구결자(ᄇ)]取初[45(·)]生是[34(·)]名[54(·)]生有爲相[53(·),+55(·)]

B:先[下]末相續[ㄱ]生[11,↘1,七1,1]法[11]今[ㄹ/ハ1,ᄇ]取初[ㄱ]生是[乙]名[下]生有爲相[ㄱ,xㄱ]

C:先下 相續ㄱ 生 未11↘1七1(ノ)1 法11 今ㄹᄇ/ハ1ᄇ 最初ㄱ 生(↘1 入乙) 是乙 名下 生有爲相ㄱxㄱ

D:먼저 相續히 生하지 않았던 法이 이제야 最初로 生하는 것을 이를 일러 生有爲相이라고

하며

ㄹ. <금광3, 06:23-06:24>

A:昔所未得[15~25(-), 22~32(·). 빼침선(23), 51(·)+빼침선(51)?, 33(\), =33~43(·), 34~35(/)]而[43(·)]
 今[32~33(·), =24(·), 구결자(ハᄃ)]始[21(·)]得

B:昔所未得[尸, ㄹ, ㄴ, ㄷ, ㄹ, ㄴ, ㄹ, ㄴ, ㄹ, ㄴ]而[ㄴ]今[ᄃ/ハㄹ, ᄃ]始[ㄴ]得

C:昔 得尸 未ㄹㄴㄷㄹㄴ 所ㄹㄴ 乙 而ㄴ 今ᄃ/ハㄹ ᄃ 始ㄴ 得(ㄴ分)¹⁾

D: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이거늘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 점토석독구결에서는 ‘今ᄃ’에 대응될 법한 구성으로 <유가> 계통에서 (3)과 같이 今[32~33(·)]이 쓰이고 있다(서민욱 2005).²⁾ 특히 (3ㄹ)에서 今[32~33(·)]과 대응되는 자토로 ‘今ハ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³⁾ 한편 <화엄>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쓰인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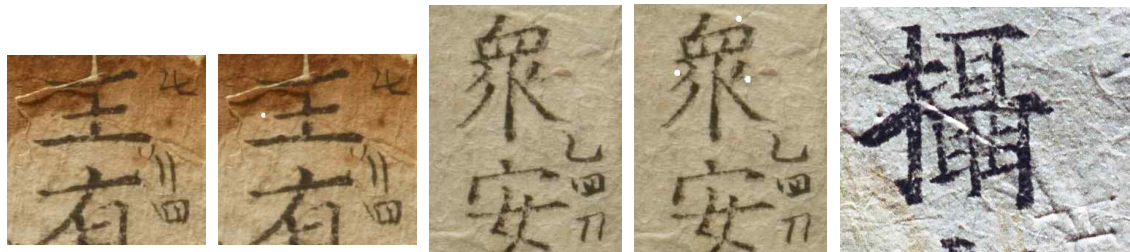


<성암 유가08 10:23>[1] <성암 유가08 10:23>[2] - 점토 표시



<성암 유가08 11:19>[1] <성암 유가08 11:19>[2]

- 1) 참고로 이와 대응하는 자토는 ‘昔尸 得尸 未ㄹㄴㄷㄹㄴ 所ㄹㄴ 乙 而ㄴ 今ハㄹ ᄃ 始ㄴ 得(ㄴ分)’이다.
 2) (3ㄷ, ㄹ)의 32~33(·)는 32(·)로 판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2(·)는 아래와 같이 ‘ㄷ’에 대응되는 구결점으로 추정되므로 (3ㄷ, ㄹ)의 해당 예는 32~33(·)일 가능성이 더 높다.



<금광3, 02:03> - 점토 표시 <금광3, 15:07> - 점토 표시 <성암본 유가8, 06:06>

- 3) (3ㄹ)에는 ‘今’에 32~33(·), 24(·), 구결자 ‘ハᄃ’가 현토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자토로 ‘ハㄹ ᄃ’가 현토되어 있기도 하다. <유가>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에서 32~42(·)가 ‘ハ’이고 24(·)가 ‘ᄃ’라는 점, 그리고 구결자로 ‘ハᄃ’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32~33(·)을 위치 변이를 일으킨 32~42(·)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32~42(·)로 보기에 구결점이 위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결점은 32~33(·)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예는 구결점, 부호로서의 구결자, 자토가 모두 일치하지 않는 예일 가능성이 높다. <금광>에 현토된 점토와 구결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예도 종종 발견되고, 점토와 자토가 일치하지 않는 예도 소수 존재한다(김지오 2010).

(4) ㄱ. <성암본 유가08 10:21-23>

A:於煞生事[44(·)]若未遠離[51(·),3자합부]者[23~33(·)]此[33(·)]顯[역독선]遇[역독선]緣[34(·),22(·),=32~33(·)]容可出離[42(/),53(/)]謂乃至[22~32(·)]未遠離[뺨침선(43)]來[34~44(·), 구결자(火)]名[54(·)]煞生[34~44(·)]者[53(·),45(\),51(:)]

B:於煞生事[+]若未遠離[]者[白ㄱ ㄱ ㄱ]此[]顯遇緣[乙, 3, 斤/ㄱ]容可出離[ㄴ ㄱ ㄱ, X+]謂乃至[]未遠離來[火?]名[下]煞生者[+, X ㄱ 乙, X]

C:{於}煞生事+ 若 未遠離(ㄱ) | {者}(ㄴ) 白ㄱ ㄱ ㄱ 此 緣乙 遇 3 斤/ㄱ 出離ㄴ ㄱ (容可) ㄱ X+ 謂 乃 至 ㄱ 未遠離 ㄴ ㄱ 來火 名 下 煞生者 + X ㄱ 乙 顯 X |

D:煞生事に 대해 未遠離라 하신 것은, 이는 緣을 만나서는/만나면 出離할 수 있는 것이니, 즉 未遠離로부터 來까지[아직 멀리 여의지 못한 동안]를 일컬어 煞生者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ㄴ. <성암본 유가08 11: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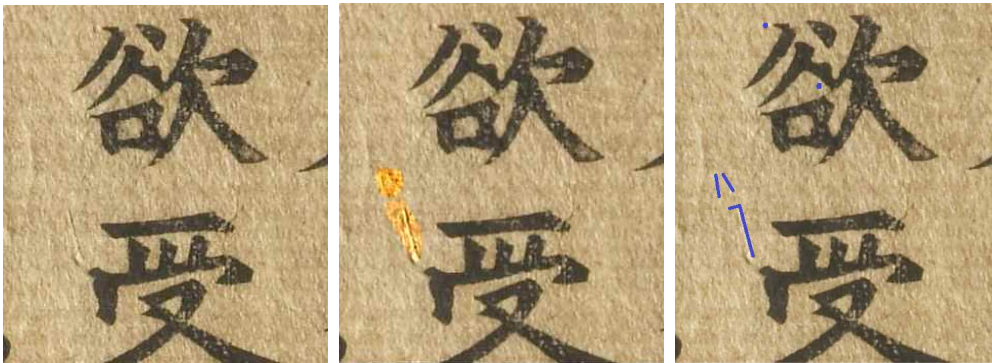
A:若彼物主[22~32(·)]於諸衆生[23(·),44(·)]不隨所欲[22(·),32~33(·)]受用[+15~25(-),34(·),21(·)]而[43(·)]棄[15~25(-),34~35(\)]是[34~35(·)]名[54(·)]不棄[53(·),35(·),+55(·)]

B:若彼物主[]於諸[]衆生[ㄱ, +]不隨所欲[3, 斤/ㄱ]受用[ㄴ ㄱ, 乙, ㄴ]而[]棄[ㄱ, ㄴ ㄱ 乙]是[乙]名[下]不棄[+, ㄱ, X ㄱ]

C:若 彼 物主 ㄱ {於}諸 ㄱ 衆生 ㄱ+ 欲(ㄴ) 3 斤/ㄱ 受用 ㄴ ㄱ 所 乙 隨 ㄴ 而 ㄴ 棄 ㄱ 不(冬) ㄴ ㄱ 乙 是 乙 名 下 不棄 ㄴ(ㄴ) ㄱ X ㄱ

D:그 物主가 모든 중생에게 (중생이 물건을) 바라고서는/바라면 (중생이 물건을) 受用할 바를 따라 (물주가 물건을 중생에게) 내버리지 않은 것을 이를 일컬어 不棄라 하고 하며,

-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32~33(·)이 자토석독구결의 ‘斤’ 내지 ‘ㄱ’과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자토석독구결에서 ‘斤’ 내지 ‘ㄱ’은 모두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으로 해독할 수 있는데(황선엽 2003), (4)의 32~33(·)도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의 연결어미 구성으로 해독할 수 있다.



<남선사 유가08 11:19> 원본 - 노출, 감마, 대비를 조정 - 구결점과 구결자 표시

(5) <남선사본 유가08 11:18-19>

A:若彼物主[22~32(·)]於諸[33(·)]衆生[23(·),44(·)]不[역독선]隨[역독선]所欲[22(·),32~33(·)]受用[+15~25(-),34(·),21(·),2자합부]而[43(·)]棄[15~25(-),34~35(\)]是[34(·)]名[54(·)]不棄[53(·),35(·),55(:)]{52(\)}

B:若彼物主[]於諸[]衆生[ㄱ, +]不隨所欲[3, 斤/ㄱ]受用[ㄴ ㄱ, 乙, ㄴ]而[]棄[ㄱ, ㄴ ㄱ 乙]是[乙]名[下]不棄[+, ㄱ, X ㄱ]

C:若 彼 物主 ㄱ {於}諸 ㄱ 衆生 ㄱ+ 欲(ㄴ) 3 斤/ㄱ 受用 ㄴ ㄱ 所 乙 隨 ㄴ 而 ㄴ 棄 ㄱ 不 ㄴ ㄱ 乙 是 乙 名 下 不棄 ㄴ(ㄴ) ㄱ X ㄱ

D:그 物主가 모든 중생에게 (중생이 물건을) 바라고서는/바라면 (중생이 물건을) 受用할 바

를 따라 (물주가 물건을 중생에게) 내버리지 않은 것을 이를 일컬어 不棄라 하고 하며,
E:만약 그 물건의 주인이 중생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받아쓰도록 내버린 것이 아니면 이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 특히 (5)의 경우 32~33(·)과 대응하는 구결자로 ‘ㄱ’이 기입되어 있기도 하다.⁴⁾ 따라서 32~33(·)은 자토석독구결의 ‘ㄱ’, ‘ㄴ’, ‘ㄱ’과 대응되는 구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자토석독구결에서 ‘ㄱ’이 현토된 환경에서는 ‘ㄱ’이 쓰인 예가 있지만 ‘ㄴ’이 쓰인 예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ㄴ’이 현토된 환경에서 ‘ㄱ’이 쓰인 예는 있지만 ‘ㄱ’이 쓰인 예는 없다. 그러므로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32~33(·)는 ‘ㄱ’과 대응되는 구결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3. ‘今ㄴ’과 ‘今ㄱ’

(6) ㄱ. <화소35, 09:17-19>

A:我於長夜, 愛着其身, 欲令充飽, 而受飲食, 今以此食, 惠施衆生,

B:我ㄱ {於}長夜ㄴ 十ㄴ 其 身乙 愛著ㄴ 而 充飽 令ㄴ{欲}人 而 飲食乙 受ㄴ 今ㄴ 此ㄴ 食乙 以 衆生ㄴ 惠施ㄴ 口ハ

C:나는 오랜 세월 이 몸을 愛着하여 充飽시키고자 飲食을 받은 것이라서 이제는 이 음식으로써 衆生에게 惠施하고자

ㄴ. <화엄14, 02:11-12>

A:汝今爲欲, 多所饒益, 多所安隱, 哀愍世間, 利樂天人, 問如是義,

B:汝ㄱ 今ㄴ 饒益ㄴ 所 多ㄴ 安隱ㄴ 所 多ㄴ 入ㄴ 世間乙 哀愍ㄴ 天人乙 利樂ㄴ 是 如支ㄴ 義乙 問ㄴ 丁

C:너는 지금 饒益하게 할 바가 많으며 安隱하게 할 바가 많기 때문에 世間을 哀愍하고 天人을 利樂하게 하려고 이 같은 義를 묻는구나.

ㄷ. <구인상, 11:13_2>

A:是故, 我今略歎佛.

B:{是}ㄴ 故 我ㄱ 今ㄴ 略ㄴ 佛乙 歎ㄴ 口トㄴ 口トㄴ 口トㄴ 口ト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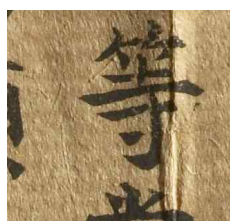
C:이 까닭으로 나는 지금 略히 佛을 歎한다 하겠다.

- ‘今ㄴ’은 자토석독구결에서 <화엄>, <화소>, <구인>에서 현토되었다(6). <유가>, <금광>에서는 쓰인 바 없다. 이들도 ‘이제’, ‘지금’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쓰였다.

4) 남선사본 <유가> 권8에서는 성암본과 달리 구결자가 한자 왼쪽 아래에 현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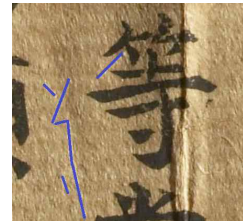
<남선사본 유가8, 06:06>



<남선사본 유가08 17:19> 원본



- 노출, 감마, 대비를 조정



- 구결점과 구결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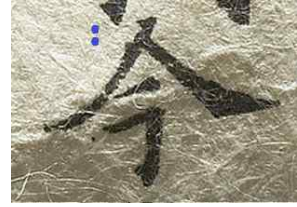
<주화 34, 08:18>



- 점토 표시



<주화 34, 20:21>



- 점토 표시

(7) ㄱ. <주본화엄34, 08:18>

A:我[33(·)]今[12(·)]但[23(·)]略[23(·)]說[13(·),11(·)]眞實義[53(·),33(·)]無餘[12(·),24(·),54(·)],경계선]

B:我[ㄱ] 今[ㄴ] 但[ハ]略[ㄴ]說[口今, ㄴ]眞實義[+, ㄱ]無餘[ㄴ, ㄴ, 口乙ㄴ]

C:我[ㄱ] 今[ㄴ] 但[ハ] 略[ㄴ] 說[口今, ㄴ] 眞實義[+, ㄱ] 餘[ㄴ] 無[ㄴ] 口乙ㄴ

D:나는 이제 오직 간략히 說하겠으니, 眞實義에는 남김없이 할 것이다.

ㄴ. <주본화엄34, 20:21>

A:如是[12(·)]初地[25(·)]法[41(·)]我[33(·)]今[12(·)]已說[44(·)]竟[34(·),55(·)]

B:如是[ㄴ] 初地[ㄴ]法[ㄴ]我[ㄱ] 今[ㄴ] 已說[尸] 竟[口, 口乙ㄴ]

C:是 如[ㄴ] 初地[ㄴ] 法[ㄴ] 我[ㄱ] 今[ㄴ] 已說[尸] 竟[口, 口乙ㄴ]

D:이와 같은 初地の 法을 나는 지금 이미 說하기를 마쳤습니다.

- 점토석독구결에서는 ‘今[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화엄> 계통에서 今[12(·)]이 쓰이고 있다. <유가> 계통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쓰인 바 없다.

(8) ㄱ. 今呑 藪未 去遣省如 <우적가>

ㄴ. 𑖦 𑖦 (今) (『訓蒙字會』 下: 2)

ㄷ. 그녀는 여태 출발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 향가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어형으로 (8ㄱ)와 같이 ‘今呑’이 등장하는데, ‘呑’이 [*튼] 정도의 음가를 표기한 것이라면, ‘今’은 (8ㄴ)의 ‘𑖦’, 그리고 (8ㄷ)의 ‘지금까지’의 의미를 지니는 ‘여태(<*열+애>)’와 관련이 있는 어형 “*열ㅎ/열”으로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今[ㄴ]’은 “*열ㅎ/열”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열흔”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화 06, 03:08>



- 점토 표시



<주화 06, 04:02>



- 점토 표시

(9) ㄱ. <주본화엄06, 03:08>

A:化度一切衆生海[41(·),22(·),45(!)]今[33(·)]成妙覺徧照尊[41(·),24(·),52(·)]

B:化度一切衆生海[乙, ㄴ, ㄴ] 今[ㄱ] 成妙覺徧照尊[乙, ㄴ, ㄴ]

C:一切 衆生海乙 化度(ㄴ) ㄴ ㄴ ㄴ ㄴ 今[ㄱ] 妙覺徧照尊乙 成 ㄴ ㄴ ㄴ

D:一切 衆生海를 化度하고 하신 까닭으로 이제 妙覺徧照尊을 이루시며

ㄴ. <주본화엄06, 04:02>

A: 今[33(·)]待衆集[41(·), 24(·), 43(·)]將演音[24(·), 23(·), 12(·), 21(·)]汝[=33(·)]可往[34(·), 43(·)]觀聞所說
[14(·), 41(·), 34(·), 44(·), 42(·), 25(·), 55(·)-중복선]

B: 今[7]待衆集[ノ尸入乙,リ,ホ]將演音[ホ,ハ,カ口7,四]汝[7]可往[3,ホ]觀聞所說[カ口尸,乙,白,X
カ,立,セ,ナ1,ナ1]

C: 今 衆集ノ尸入乙 待₁(3)ホ 將 演音(フ)ホハカ₁口₁(1)四 汝₁ 往₃ホ 説_カフ尸 所乙 觀
聞(フ)白X₁フ₁ 可₁セ(フ)ナ₁ | (フ)ナ₁ |

D: 이제 대중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장차 演音하신 것이라서, 너는 가서 이르는 바를 觀聞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ㄷ. <자비04, 21:11-12>

A:汝今得出，勿復更造，

B:汝₇ 今₇ 得₃ 糸 出_ソ去ナ₇リ四 復甲 更₃ 造尸 勿セナ_四ソ口ト云₇:

C: ‘너는 이제 능히 (지옥을) 나가게 되었으니 또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지만

- 한편 <화엄> 계통에서는 스[33(·)]도 현토되는데, 이는 ‘스’로 해독할 수 있으며 모두 ‘이제’, ‘지금’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해석된다(9ㄱ, ㄴ). 그리고 ‘스’는 자토석독구결인 <자비>에서도 1예 발견된다. 이 경우 ‘스’는 보조사 ‘스’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4. 今支

(10) <화소35, 09:15-16>

A:我今受此所有飲食，願令衆生普得充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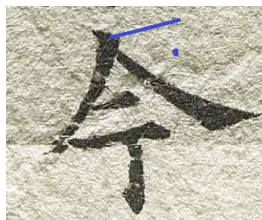
B:我→今支{此}リ 有セリ 所セ 飲食乙 受トセリ入リ 願口尸入リ 衆生乙 普リ 充飽ノ尸入乙
得リ 令リセテセセリソナセ

C: 내가 지극 이 있는 바의 飮食을 받는 것은 원컨대 衆生을 널리 充飽하는 것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여

- 자토석독구결에서 ‘今ᄃᆡ’는 1번 현토되었으며, ‘이제’, ‘지금’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해석된다(10).



<주화 34, 05:16>



- 점토 표시]



<주본 화엄36, 07:09>



- 점토 표시

(11) $\neg$. <주본화엄34, 05:16>

A:佛子[34(1)]今[24(·),경계선]此衆會[53(·)]皆[25(·)]悉[34(1)]已[43(·)]集[12(-)]

B:佛子[3]今[支]此衆會[+]皆[七]悉[3]已[3]集[ナ 7]

C:佛子；今支此衆會十皆七悉；已；集ナ

D:佛子여 지금 이 衆會에 모두 다 이미 모인

². <주본화엄36, 07:09>

A:佛願[33(·)]久遠[53(l),34(·),12(·)]今[24(·),43(·)]乃[43(·)]滿[45(-),51(·)]佛道[33(·)]久遠[53(l),34(·),12(·)]今[24(·),43(·)]乃[43(·)]得[45(-),51(·)]

B:佛願[ㄱ]久遠[ㄹ+ㄱ,ㄱ,ㄴㄱ]今[支,ㅣ]乃[ㅣ]滿[ㅈ,ㅇ]佛道[ㄱ]久遠[ㄹ+ㄱ,ㄱ,ㄴㄱ]今[支,ㅣ]乃[ㅣ]得[ㅈ,ㅇ]

C:佛願ㄱ 久遠ㄹ+ㄴㄱㄱ 今支ㅣ 乃ㅣ 滿ㅈㅇ 佛道ㄱ 久遠ㄹ+ㄴㄱㄱ 今支ㅣ 乃ㅣ 得ㅈㅇ

D:佛願은 久遠에 하고서는 지금에야 만족하시며, 佛道는 久遠에 하고서는 지금에야 얻으시며

- 점토석독구결에서 ‘今支’에 대응되는 구성으로는 <화엄> 계통에서 ‘今[24(·)]’이 쓰이고 있으며(11), <유가> 계통에서는 쓰인바 없다.
- ‘今支’는 자토석독구결에서 한 예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토자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점토석독구결의 예가 2개 더 존재함에 따라 오기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정리]

- 자토석독구결에서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는 ‘今支’와 ‘今ㄴㄱ’이 쓰이고
 <유가> 계통의 자료에서는 ‘今ㅈ’과 ‘今ㅈ’, ‘今ㅈㄱ’이 쓰인다.
 <구역>은 중층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비>는 용례가 극히 부족하다.

	今ㅈ	今支	今ㅈ	今ㅈㄱ	今ㄴㄱ	今ㄱ	비고
<화소>	0	1	0	0	10	0	<화엄> 계통
<화엄>	0	0	0	0	4	0	<화엄> 계통
<금광>	0	0	0	1	0	0	<유가> 계통
<유가>	2	0	5	0	0	0	<유가> 계통
<구역>	1	0	0	0	5	0	계통 중립
<자비>	0	0	0	0	1	1	계통 중립
총계	3	1	5	1	20	1	

[표1] 자토석독구결에서 ‘今’에 현토되어 ‘이제’, ‘지금’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형들의 빈도

- 이러한 경향은 점토석독구결에서도 대체로 확인된다.

	今[32~42(·)] 今ㅈ	今[32~33(·)] 今ㅈㄱ/ㅈ	今[11(·)] 今支	今[33(/)] 今ㄴㄱ
금광 권3	0	1	0	0
유가 권3	0	1	0	0
유가 권5	0	0	0	0
(성암) 유가 권8	0	1	0	0
(남선사) 유가 권8	0	1	0	0
총계	0	4	0	0

[표2]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今’에 현토되어 ‘이제’, ‘지금’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형들의 빈도

	今[23(:)] 今ハ	今[23(:),33(·)] 今ハㄱ	今[24(·)] 今支	今[12(:)] 今ㄴㄱ	今[33(·)] 今ㄱ
주화 권6	0	0	0	0	2
주화 권22	0	0	0	0	1
주화 권31	0	0	0	0	0
주화 권34	0	0	1	4	0
주화 권36	0	0	2	1	0
주화 권57	0	0	0	0	0
진화 권20	0	0	0	0	0
총계	0	0	3	5	3

[표3] <화엄>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今’에 현토되어 ‘이제’, ‘지금’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형들의 빈도

3. ‘餘’에 현토된 구결자의 검토

- 석독구결에서는 ‘餘’에 현토되는 구성으로 ‘餘ㄹ’, ‘餘ㄴㄱ’, ‘餘ㄱ’이 관찰된다. 아래에서는 각 어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1. 餘ㄹ

- ‘餘ㄹ’은 <유가> 계통의 자토석독구결에서 2회 현토되었으며(12), <화엄> 계통의 자토석독구결에서는 현토된 바 없다. 점토석독구결에서도 대응되는 구결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12) ㄱ. <금광03, 05:18-19>

A:生死涅槃, 皆是妄見, 能度無餘, 是波羅蜜義,

B:生死ㄴㄱ 涅槃ㄴㄱ 度ㄴㄱ 餘ㄹ 無ㄴㄱ 是 波羅蜜義ㄴㄱ

C:生死이다 涅槃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이는 妄見이거늘 능히 건너게 하되 남김없이 하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ㄴ. <유가20, 30:10-11>

A:若能於此無餘永斷, 名爲證得極淨道果.

B:若 能ㄴ {於}此ㄴ+ 餘ㄹ 無ㄴ 永斷ㄴㄱ 名下 {爲}極淨道果ㄴ 證得ㄴㄱ 丁ㄴㄱ

C: 만약 능히 이에 대해서 남김없이 영원히 끊는 것을, 일컬어 지극히 청정한 道果를 증득한 것이라고 한다.

- (12)에서 ‘餘ㄹ 無ㄴ’, ‘餘ㄹ 無ㄴ’은 ‘남김없이’ 정도로 해석된다.

(13) ㄱ. <두시언해 초간본 22:04b>

A:隔屋喚西家 借問有酒不 墻頭過濁醪 展席俯長流

B:지불 즈·슴·처 西ㅅ녓 지·불 불려 술 잇느녀 :엿스녀 무로니 ·담 우·호로 흐린 수·를 남·가
닐 듯 ·퍼고 :긴 흐르는 ·므를 구며 안조라

ㄴ. <월인석보 20:86>

A:留國婆羅門得兒歸家。婦逆罵之。何忍持此面來還。此兒國王種。而無慈仁心。搗打令生瘡身體皆膿血。速將街賣之更求可使者。墻隨婦言即行賣之。天王釋主行壞其市井言。此兒貴無能買者。兒適飢渴。天以自然氣令兒得飽滿。[太子須大拏經(卷1) T03, p0423a]

B:鳩留國 婆羅門이 아히 어더 지비 도라 니거늘 가시 마조 구지조되 엿데 츠마 그 뇓 가지

고 도라온다 이 아기내신 國王 | 孫子 | 어늘 어엿비 아니 너겨 모미 다 혈의틴다 어서 드려다가 프라 브룸 사르물 사아 오라 婆羅門이 그 가신 그물 몰 남가 저재 드러다가 푼더니 天帝釋이 저재를 흐지서 닐오디 이 아기는 貴히니라 훌씩 사리 업더라 그 아기 비 곱하 흐거든 하늘히 自然히 氣韻으로 빅브르게 흐더라

ㄷ. <두시언해 초간본 07:35b>

A:尚恐主守踈 用心未甚藏 清明遣婢僕 寄語踰崇岡

B:主守 | 疎闊·호야 只숨 뿌물 甚·히 잘 :몬호는가 ·오히·려 저히 물·곤 아·츠미 :겨집·종·을 보내야 :말스·물 브터 노·폰 :되호 넘거 보내노·라

- (13ㄱ, ㄴ)에서 ‘남가ᄇᆞᆫ’과 ‘남가’는 ‘남ㄱ-’에 ‘-아ᄇᆞᆫ’와 ‘-아’가 결합한 어형으로 ‘넘기거늘’, ‘넘겨’ 정도의 뜻을 지닌다.⁵⁾ 중세국어에서 ‘남-’은 ‘餘[남다]’의 의미와 ‘過/踰[넘다]’의 의미를 모두 지녔다. (13)의 예를 통해 ‘過/踰[넘다]’의 의미를 지니는 ‘남-’의 사동형으로서 ‘남ㄱ-’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실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餘[남다]’의 의미를 지닌 ‘남-’의 사동형으로 “*남ㄱ-”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13ㄷ)에서는 ‘넘-’의 사동형으로 ‘넘그-’도 확인이 가능하다.
- 자토석독구결의 ‘餘ᄇᆞᆫ’은 모두 ‘無餘’ 구문에만 현토되며 ‘남김없이 하며’, 또는 ‘넘김/지나침 없이 하며’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餘ᄇᆞᆫ’은 ‘남-’의 사동형인 “*남ㄱ-”에 동명사형어미 ‘-ㄴ’이 결합한 “*남김”이라는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2. 餘ソフ

- ‘餘₁’은 ‘餘₂’과 같이 거의 모든 예에서 ‘남김없이’로 해독되는 환경에서만 현토되는데, <구인>을 제외하면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과 가릴 것 없이 모두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만 쓰이고 있다(14, 15).

(14) $\neg$. <화엄14, 04:01>

A:修行於定，當願衆生，以定伏心，究竟無餘。

B:{於}定乙 修行ソ去₁ 十₁ 當 願 衆生 定乙 以₃ ハ 心乙 伏_ノ尸ム 究竟 餘_ソ 無_リソ_ニ 立

C:(보살이) 定을 修行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건데 “衆生은 定을 써서 마음을 伏하되 마침내 남김없이 하소서” (할 것이며)

ㄴ. <화엄14, 13:16>

A:則於一切衆生心，一念悉知無有餘，

B:則 {於}一切 衆生→ 心乙 一丁 念} + 悉} 知_レ尸ム 餘_ソ丁 無_リソヒ 有{有}

C:곧 일체 중생의 마음을 한 순간에 다 알되 남김없이 할 것이며,



<주화06, 18:03>



- 점토 표시



<주화31, 14:19>



- 점토 표시

5) (13나)의 ‘그를 못 남가’는 ‘반대를 못 넘겨’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5) ㄱ. <주본화엄06, 18:03>

A:一一[33(·)]佛刹[25(·)]中[53(·),43(\),55(·)]往詣[13(:)]悉[34(|)]無餘[12(:),25(·),24(|),53(!)]

B:一一[7]佛刹[七]中[十, 7, 1]往詣[ノ7ム]悉[3]無餘[ソ7, 七, 1, ナ3]

C:一一₇ 佛刹_七 中_十ア₁ 往詣_ノ7ム 悉₃ 餘_ソ7 無_七リ(ソ)ナ₃

D:하나하나의 佛刹의 가운데에마다 往詣하되 다 남김없이 하여

². <주본화엄31, 14:18-19>

A:入一切佛法[25(·)]方便[53(·),13(·)]無有餘[12(:),24(∣),25(∣)]甚微細智[11(·),31(·),55(·)]

B:入一切佛法[七]方便[十,ノ尸ム]無有餘[ソフ,リ,ノ今七]甚微細智[ミ,ノ禾,ナリ]

C:一切 佛法七 方便十 入ノ尸ム 餘ソ 無有リ(ソ)今七 甚微細智：ノヲナリ

D:一切 佛法의 方便에 들어가되 남김없이 하는 甚微細智이니 하는 것이다.

- 따라서 ‘餘_ㄴ’과 ‘餘_ㄹ’은 자료의 계통에 따라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3. 餘り

- ‘餘₁’는 앞서 살펴본 ‘餘₂’, ‘餘₃’과 달리 모두 ‘다른(것)/남은(것)’의 의미로 해석되며 관형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6, 17).

(16) $\neg$. <유가20, 23:03-04>

A:謂由依此所依無間，必能趣入正性離生，餘如前說。

B:謂「此所依乙依之」入乙由「無間」必ハ能分正性離生ヲ「趣入」スル「餘」前ヲ
說シ「如」之「矣」!

C: 말하자면 이 所依를 의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반드시 능히 正性離生에 들어가되, 다른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ㄴ. <자비04, 18:13-18:15>

A:以大悲水，洗除今日現受阿鼻地獄等，及餘地獄等苦一切衆生罪垢，令得清淨。

B:大悲水乙 以₃ 水 今日尸 阿鼻地獄 等₇ 口₁ 及₇ 餘₁ 地獄 等₇ 口₁ ノ今₇ 苦₂ 現 受₁ 一切 衆生₇ 罪垢₂ 洗除₇ 下₁ 得₃ 水 清淨 令₁ 口₁ ハ₇ 。

C:大悲水を 써서 今日の阿鼻地獄 같은 것이니 및 다른 地獄 같은 것이니 하는 데에서의 고통
를 현재 받는 一切 衆生の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淸淨하게 하시며



<성암 유가8 18:18>



-점토 표시



<주화36, 12:13>



-점토 표시]

(17) ¬. <성암본 유가08 18:18-19>

A: 不[역독선]以[역독선]餘[33(·)]手觸等[33(/)]方便[34(·), 24(·)]而[43(·)]出[역독선]不淨
[34(·), 21(·)]故[41(·)]名[54(·)]非鄙[53(·), 55(·), 2자합부]

B: 不以餘[ɿ]手觸等[ɿɿ]方便[乙, ɿ]而[ɿ]出不淨[乙, X]故[乙]名[ɿ]非鄙[乙, Xɿ]

C:餘1手觸等1方便乙以1而1不淨乙出不X故去名下非鄙1X分

D: 다른 手觸 등의 방편을 써 不淨을 내지 않으니, 그러므로 일컬어 非鄙라고 하며,

ㄴ. <주본화엄36, 12:12-14>

A:佛子[34(l)]如日月星宿[25(·)]宮殿[11(·)]光明[11(·),13(/),33(·)]風力[23(-)]所持[12(·),21(·)]不可沮壞[23(l),24(\),25(·),45(-),35(·),51(·)]亦[33(·)]非餘[33(·)]風[23(-)]所能[35(·)]傾動[23(l),14(·),34(l),35(·),33(·),24(·)]

B:佛子[3]如日月星宿[ㄷ]宮殿[ㄴ]光明[ㄴ, ㄴ ㄱ, ㄱ]風力[ㄹ]所持[ㄴ ㄱ, ㄹ]不可沮壞[ㄴ 3, ㄷ, ㄷ, ㄷ, ㄷ, ㄷ]亦[ㄱ]非餘[ㄱ]風[ㄹ]所能[ㄷ]傾動[ㄴ 3, ㄷ ㄱ, 3, ㄷ, ㄱ, ㄷ]

C:佛子 3 日月星宿 ㄷ 宮殿 ㄴ 光明 ㄴ ㄱ ㄱ 風力 ㄹ 持 ㄴ ㄱ 所 (ㄱ) ㄹ 沮壞 ㄴ 3 ㄷ (ㄷ) 可 ㄷ (ㄴ) ㄷ 不 ㄷ ㄷ 亦 (ㄴ) ㄱ 餘 ㄱ 風 ㄹ 能 ㄷ 傾動 ㄴ 3 ㄷ ㄱ 所 3 非 ㄷ ㄱ 如 ㄷ

D:佛子여, 日月星宿의 궁전이니 광명이니 하는 것은 風力の 유지한 바이라서沮壞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바람이 능히 傾動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과 같이

- 또한 ‘餘ㄱ’는 ‘餘ㄹ’, ‘餘ㄴㄱ’과 달리 자료의 계통과 관계없이 자토와 점토에서 모두 쓰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餘ㄱ’는 ‘餘ㄴㄱ’, ‘餘ㄹ’과는 서로 다른 형태소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석독구결에서 ‘餘ㄴㄱ’과 ‘餘ㄹ’은 모두 ‘남김’, ‘지나침’의 의미로 쓰이는데,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는 ‘餘ㄴㄱ’이 쓰이고
 <유가> 계통의 자료에서는 ‘餘ㄹ’이 쓰인다.⁶⁾ (참고: <구역>에서는 ‘餘ㄴㄱ’이 쓰임)

	餘ㄹ	餘ㄴㄱ	비고		餘[??] 餘ㄹ	餘[12(:)] 餘ㄴㄱ
<화소>	0	0	<화엄> 계통	주화 권6	0	1
<화엄>	0	4		주화 권22	0	0
<금광>	1	0	<유가> 계통	주화 권31	0	5
<유가>	1	0		주화 권34	0	1
<구역>	0	1	계통 중립	주화 권36	0	0
<자비>	0	0		주화 권57	0	0
총계	2	5		진화 권20	0	3
				총계	0	10

[표4] 자토석독구결에서 ‘餘’에 현토되어 ‘남김’, ‘지나침’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형들의 빈도

[표5] <화엄>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餘’에 현토되어 ‘남김’, ‘지나침’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형들의 빈도

- ‘餘ㄱ’는 ‘다른/남은’의 의미로 쓰이며 자료의 계통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6) 단 <유가> 계통 점토에서는 용례의 부족 때문에 ‘餘ㄹ’에 대응되는 구결점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 ‘餘ㄴㄱ’에 대응되는 ‘餘[33(/)]’의 용례도 <유가> 계통 점토에서 등장하지 않음도 덧붙여 둔다.

4. ‘ㄱ’과 ‘ㄴ’의 교체와 ‘ㄱ’과 ‘ㄴ’의 교체로 살펴본 ‘ㄱ’의 음가와 원자

- 2장에서 살펴본 ‘ㄱ’에 현토되는 어형과 ‘餘’에 현토되는 어형을 자료의 계통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형 자료의 계통	今		餘	
<유가> 계통	今ㄱ	今ㄴ/今ㄱ	餘ㄴ(남김/지나침)	餘ㄱ(다른)
<화엄> 계통	今ㄴ	今ㄴ/今ㄱ	餘ㄴ(남김/지나침)	餘ㄱ(다른)
계통 중립	今ㄱ	今ㄴ/今ㄱ	餘ㄴ(남김/지나침)	餘ㄱ(다른)

- <유가> 계통의 ‘今ㄱ’은 ‘今ㄴ/今ㄱ’에서 보조사 ‘ㄱ’이 제거된 형태로 추정된다. 한편 <화엄> 계통의 석독구결에서는 자토와 점토를 통틀어 ‘今ㄱ’, ‘今ㄴ’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今ㄴ/今ㄱ’이 쓰일 법한 환경에는 ‘今ㄴ’이 쓰이고 ‘今ㄱ’이 쓰일 법한 자리에는 ‘今ㄴ’이 현토된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중시한다면 ‘今ㄴ’은 ‘今ㄴ’에서 보조사 ‘ㄱ’이 제거된 어형이며 ‘ㄴ’은 [ㅎ]와 유사한 음가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흥미로운 것은 계통 중립의 자료에서는 ‘今ㄴ’에서 보조사 ‘ㄱ’이 제거된 어형으로 ‘今ㄴ’이 아니라 ‘今ㄱ’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ㄱ’과 ‘ㄴ’이 음가적으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 ‘三ㄴ 萬里ㄱ : <자비04, 20:05>’에서 ‘三ㄴ’의 ‘ㄴ’은 말음첨기로 보이는데, ‘三ㄴ’은 중세 국어의 수사 ‘생’이나 ‘석’과 관련되는 어형으로 보인다.⁷⁾ 그리고 ‘{此}ㄱ 菩薩ㄱ 年ㄴ 方七 少畵畵<화소35, 10:14-15>’에서 ‘年ㄴ’도 중세국어의 명사 ‘년’과 관련되는 어형으로 추정된다.⁸⁾ 한편 ‘上ㄱ 第一有ㄱ 生ㄴ 者ㄱ<유가20, 31:04>’에서 ‘上ㄱ’의 ‘ㄱ’은 말음첨기로 보이는데, ‘上ㄱ’은 중세국어에서 ‘웅’과 관련되는 어형으로 보인다.⁹⁾ 이처럼 말음첨기로 쓰인 ‘ㄴ’과 ‘ㄱ’은 중세국어에서 ‘ㅎ’로 반영되는 예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주화22, 15:01>



- 점토 표시



<주화22,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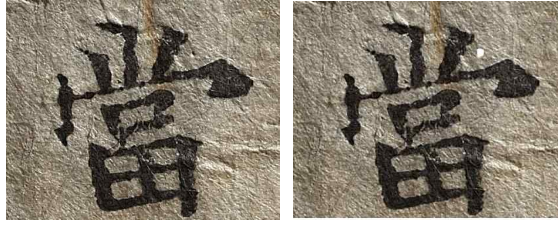


- 점토 표시

7) ‘세히 이시리여<석보 13:56>’, ‘三 석 삼<훈몽-초, 하:14>’.

8) ‘나과 德과 한 사르미게 노플썩 長老ㅣ라 일쿨더니(年德이 高衆故로 稱長老호더니)<법화 2:176>’.

9) ‘하늘 우과 하늘 아래<월석 2:38>’.



<주화06, 02:11> - 점토 표시

(18) ㄱ. <주본화엄22, 15:01-02>

A:知諸[33(·)]法相[23(-)]皆[25(·)]悉[34(l)]無相[21(·)]唯[24(·)]是[33(·)]一相[51(/)]智慧[25(·)]之本[42(/),41(·),22(·),경계선]

B:知諸[ㄱ]法相[→]皆[ㄷ]悉[ㄹ]無相[ㄴ]唯[ㄹ]是[ㄱ]一相[ㄴ]智慧[ㄷ]之本[ㄴ] 入乙,ㄱ]

C:諸[ㄱ] 法相→ 皆[ㄷ] 悉[ㄹ] 無相[ㄴ] 唯[ㄹ] 是[ㄱ] 一相[ㄴ] 智慧[ㄷ]之[之] 本[ㄴ] 入乙 知[ㄱ]

D:모든 法相이 모두 다 無相이라 오직 이는 하나의 相이며 智慧의 根本인 것을 알고

ㄴ. <구인상, 11:24>

A:唯佛與佛, 乃知斯事

B:唯[ハ] 佛[入] 與[七] 佛[入] 乃[ㄱ] {斯} 事[乙] 知[ㄷ] 七[ㄴ]

C:오직 佛과 함께 佛이시어야 이에 이 일을 아실 수 있다.

ㄷ. <주본화엄22, 19:06>

A:又[33(·)]現其身最[24(·)]殊妙[41(-),24(\),33(\),14(·),45(·)]故

B:又[ㄱ] 現其身最[ㄹ] 殊妙[ㄷ] 入乙,ㄱ,ㄷ,ㄹ,入[ㄴ] 故

C:又[ㄷ] 其 身 最[ㄹ] 殊妙[ㄷ] 入乙 現[ㄷ] 七[ㄴ] 入[ㄴ] 故

D:또한 그 몸이 가장殊妙하신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ㄹ. <화소35, 08:03>

A:何法最在初, 何法最在後

B:何[ㄷ] 法[ㄴ] 最[ハ] 初[ㄴ] 在[ㄷ] 何[ㄷ] 法[ㄴ] 最[ハ] 後[ㄴ] 在[ㄷ] 七[ㄴ] 入[ㄴ]

C:어느 法이 가장 처음에 있으며 어느 法이 가장 나중에 있는가 하는 것과

ㄷ. <주본화엄06, 02:11>

A:及餘[33(·)]一切廣大[12(:)]法[11(·),41(:)]爲利益[32(-),45(l)]故[24(·)]當[24(·)]開演[23(/),53(l)]

B:及餘[ㄱ] 一切廣大[ㄷ] 法[ㄴ] 爲利益[ㄴ] 故[ㄹ] 當[ㄹ] 開演[ㄴ] 入[ㄴ]

C:及 餘[ㄱ] 一切 廣大[ㄷ] 法[ㄴ] 爲 利益[ㄴ] 故[ㄹ] 當[ㄹ] 開演[ㄴ] 入[ㄴ]

D:및 다른 一切 廣大한 法이니 하는 것을 利益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반드시 開演하소서.

ㄴ. <화소35, 10:17-18>

A:大王當知.

B:大王[下] 當[ハ] 知[ㄴ] 入[ㄴ]

C:大王이시여 반드시 아소서.

- 이와 관련하여 ‘ㄱ’ 발음을 갖는 부사로 추정되는 ‘唯ハ’, ‘最ハ’, ‘當ハ’의 현토 양상도 주목된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부사 ‘唯ハ’, ‘最ハ’, ‘當ハ’이 ‘唯ㄹ’, ‘最ㄹ’, ‘當ㄹ’로 나타나는 예가 발견된다(18).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ㄱ’ 발음 부사에서조차 자료의 계통에 따라 ‘ハ’와 ‘ㄹ’의 교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료의 계통	唯	最	當
<유가> 계통	唯ハ	最ハ	當ハ
<화엄> 계통	唯ハ/唯支	最ハ/最支	當ハ/當支

- 한편 석독구결에서는 ‘ㄴ로斤/ㄴ로ハㄱ’과 ‘ㄴ로ㄴㄱ’의 교체, ‘ㄴㅅ斤/ㄴㅅハㄱ’과 ‘ㄴㅅㄴㄱ’의 교체와 같이 ‘ㄱ’과 ‘ㅎ’가 교체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교체는 <유가> 계통의 자료에서는 점토와 자토를 가리지 않고 찾아보기 힘든 반면,¹⁰⁾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는 점토와 자토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유가> 계통	ㄴ로斤	ㄴㅅ斤/ㄴㅅハㄱ
<화엄> 계통	ㄴ로ハㄱ/ㄴ로ㄴㄱ/ㄴ로ハ斤	ㄴㅅハㄱ/ㄴㅅㄴㄱ
계통 중립	ㄴ로ㄴㄱ	쓰인 예가 없어 확인 불가

- 요컨대 <유가> 계통의 자료에서는 ‘ハ’와 ‘支’, ‘ハㄱ’과 ‘ㄴㄱ’의 분포가 겹치는 일이 없는 반면에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는 ‘ハ’와 ‘支’, ‘ハㄱ’과 ‘ㄴㄱ’의 분포가 겹치는 일이 다수 관찰된다.

- 10) 아래의 구결점을 ‘ハㄱ’이나 ‘斤’ 대신에 쓰인 33(/)의 ‘ㄴㄱ’의 예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ㄴㄱ ㄴㄱ’인 33~43(/)로 보아야 한다.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已ㅅㄴ로ㄴㄱ’ 내지 ‘已ㅅㄴㅅㄴㄱ’으로 현토되므로 이를 점토구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ㄴㄱ’에 선행하는 연결어미 ‘-로’ 내지 ‘-ㅅ’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점이 더 현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아래의 예에서는 이를 나타내는 구결점이 함께 현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점토를 33(/)로 판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ㄱ. <유가3, 01:18>

A:由造色[22~32(·)]生已[33~43(/)]不離大種處[34(·)]而[43(·)]轉[+45(/),24(·),43(·)]故[51(·)]

B:由造色[ㄴ]生已[ㄴㄱ ㄴㄱ]不離大種處[乙]而[ᄇ]轉[ㄴㅅ ㄴ 乙, ㅅ, ᄇ]故[ㅣ]

C:造色ㄴ 生 已ㄴㄱ ㄴㄱ 大 種 處 乙 離 不 而 ᄇ 轉 ㄴㅅ ㄴ 乙 由 ㅅ (ㄱ ㄴ) ᄇ {故} ㅣ

D:造色이 生하기를 이미 한 것은 大의 種子의 處를 여의지 않고 轉하는 것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ㄴ. <유가05 18:17-21>

A:如理作意相應尋伺受用[51(·)]者[23~33(·)]謂[33(·)]如卽彼[22~32(·)]追求財[34(·)]已[33~43(/)]不染[35(·)]不住[35(·)]不耽[35(·)]不縛[35(·)],경계선]不悶[35(·)]不着[35(·)]亦不[역독선]堅執[35(·),15(·)]深[22~32(·)]見過患[34(·),35(·)]了知出離[34(·),35(·),22(·)]而[43(·)]受用[11(/),51(·),+51(·)]之

B:如理作意相應尋伺受用[ㅣ]者[ㄴ ㄱ]謂[ㄱ]如卽彼[ㄴ]追求財[乙]已[ㄴㄱ ㄴㄱ]不染[ᄇ]不住[ᄇ]不耽[ᄇ]不縛[ᄇ]不悶[ᄇ]不着[ᄇ]亦不堅執[ᄇ, ㅅ]深[ㄴ]見過患[乙, ᄇ]了知出離[乙, ᄇ, ㅅ]而[ᄇ]受用[X, ㅣ, x ㅣ]之

C:如理作意 相應 尋伺 受用(ㄴ)ㅣ {者}(ㄴ ㄱ) ㄴ ㄱ 謂 ㄱ 卽 彼 ㄴ 財 乙 追求 已 ㄴㄱ ㄴㄱ 不染(ᄇ)ᄇ 不住(ᄇ)ᄇ 不耽(ᄇ)ᄇ 不縛(ᄇ)ᄇ 不悶(ᄇ)ᄇ 不着(ᄇ)ᄇ 亦 堅執 不(冬ᄇ)ᄇ(ᄇ) ㅅ 深 ㄴ 過患 乙 見 ᄇ 出離 乙 了知(ᄇ)ᄇ(ᄇ) ㅅ 而 ᄇ 受用 X {如}{支}ㅣ x ㅣ {之}

D:如理作意 相應 尋伺 受用이라 하는 것은, 즉 그가 財를 追求하기를 이미 한 것은 不染하고 不住하고 不耽하고 不縛하고 不悶하고 不着하고 또 堅執하지 않고 해서, 깊이 過患을 보고 出離를 了知하고 하여 受用함과 같다 할 것이다.



- 이는 ‘ㄱ’이 ‘ㅎ’으로 약화되는 음운 현상을 문자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유가> 계통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음운 변화를 문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고, <화엄> 계통의 자료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자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유가> 계통에서만 쓰인 ‘今ㅼ’, ‘餘ㅼ’의 ‘ㅼ’은 어두음이 [ㅎ]라기 보다는 [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ㅼ’의 음가는 [ㄱ]이며 원자는 ‘ㄹ’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무림(1998), 「석독구결 음借字의 독법에 대하여」, 『제18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3-53.
- 김무림(1999ㄴ),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研究」, 『구결연구』 5, 구결학회, 75-108.
-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7-139.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145-175.
- 남풍현(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15-180.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문현수(2017),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백두현(1997), 「고려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이승재(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29-111.
- 안대현(2008ㄱ),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08ㄴ),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51, 國語學會, 195-227.
- 안대현(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85.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3-61.
- 이승재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 이승재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2』, 태학사.
- 이승재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 이승재 외(2009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4』, 태학사.
- 이승재 외(2009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 이승재(2002), 「口訣資料의 ‘-ㄱ-’ 弱化·脫落을 찾아서」,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31.
-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225.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9),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의 點吐에 대한 기초 연구」,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285-304.
- 장경준(2013ㄴ),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7-337.

장경준(2016),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39-62.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13-193.

허인영(2012), 「借字表記에 사용된 漢字의 音價에 대한 재검토」, 『제13차 한국한자음연구회 발표논문집』, 한국한자음연구회, 27-47.

황국정(2001), 「구결 한자음의 독법 검토」, 『국어사 자료 연구』 2, 국어사학회, 83-113.

황선엽(2003), 「구결자 ‘斥’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115-141.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0.

신라의 오방 관념과 <처용가> 형성 과정의 한 단서

서철원(서울대)

1. 문제 제기

본고의 목적은 「처용랑 망해사」에서 ‘동쪽’에 비정되었던 처용의 역할을 신라의 오방 관념을 토대로 추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및 고려 <처용가> 형성의 한 단서를 돌이켜 보는 것이다. 신라의 도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오악 나아가 오방의 관념은 신라 문화에서 나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문학 연구에서 이에 주목한 사례는 흔치 않았다. 서쪽이 결여된 불완전한 오방 관념의 구축과 붕괴의 모습을 ‘國亡’에 이르는 과정으로 풀이¹⁾한 처용설화의 서사와, 왕경 동쪽의 전통 연희 및 제의를 상징했던 <처용가>의 주체 처용의 모습은 문화사적 상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신라의 오방 관념을 단서로 한 <처용가>와 처용 전승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처용을 정치사적 상황의 은유,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인으로 파악했던 시각을 넘어서 문화사의 한 담당자로서 처용의 모습을 복원할 단서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신라의 오방 관념은 「聖德大王神鍾銘」의 “山河鎮列, 區宇分張”에서 산과 강이 신라를 鎮護하고 있다는 언급을, 『三國史記』·『祭祀志』에서 大祀·中祀·小祀를 각각 치르는 三山, 五岳, 四鎮 등을 비롯한 명산대천의 목록과 연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²⁾ 이 연구는 오악에 해당하는 동악 토함산, 중악 父岳, 북악 태백산, 남악 지리산, 서악 계룡산 등의 위치와 관련 기록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했으며, 특히 오악을 호국신앙과 연결한 점이 후대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삼산과 오악은 건국 초기부터 보여 온 신라인의 산악 숭배와 함께 거론되기도 했는데³⁾, 이와는 대조적으로 四鎮, 四濱을 비롯한 ‘물’과 관련한 측면은 한동안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제사지」에 본래 실린 대사·중사·소사의 관련 기록을 모두 고려하여 산과 강, 땅과 물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⁴⁾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오악 대신 오방 관념이라는 용어를 취하고자 한다.

처용과 그를 둘러싼 존재들은 「처용랑 망해사」에서 동쪽을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서는 대체로 토함산 혹은 석탈해가 이 방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동악으로서 토함산의 역할은 元聖王 때를 제외하면 8세기 무렵까지, 처용보다 이전의 세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신성한 異蹟보다는 재난과 관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9세기에 등장한 처용(그리고 동해 용)의 상징은 토함산과 석탈해를 대체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처용의 정체에 대한 해묵은 불가사의에 집착하는 대신, 「처용랑 망해사」에서 처용이 다른 방위신들

1) 이우성(1969), 「삼국유사 소재 처용설화의 일분석」, 『김재원박사화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박노준(1982),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291~336면; 김문태(1986),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설화 편찬 의식 - 기이편의 망국에 관련된 설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7~37면.

2) 이기백(1972), 「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 『진단학보』 33, 진단학회, 7면.

3) 홍순창(1983),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37~63면.

4) 채미하(2008), 「신라시대 四海와 四濱」, 『역사민속학』 26, 한국역사민속학회, 16면.

과 함께 등장하여 동쪽을 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⁵⁾ 그리고 그것이 다른 기록에 보이는 토함산의 역할과는 어떤 동질성과 이질성을 갖는지 돌이키고자 한다.

논의를 위해 먼저 처용이 동쪽을 맡기 이전, 신라 오방 관념의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이에 대한 연구는 中祀의 배경이었던 오악과 산악신앙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짙었지만, 여기서는 처용을 위시한 해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오악이 아닌 오방이라는 용어를 쓰려 한다.

다음으로 동쪽을 상징했던 신라 처용의 모습을, 기존의 토함산 혹은 석탈해가 지녔던 문화적 상징과 견주어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함산과 관련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동악으로서 토함산의 문화적 상징이 어떻게 지속 혹은 변모하면서 처용이라는 새로운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추정할 것이다. 토함산은 일찍이 석탈해를 비롯한 도래인 세력과의 인연이 나타난 곳인데, 처용 역시 해룡의 아들로써 해양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토함산은 불국사와 석불사를 통해 압도적인 종교적 상징성을 얻게 되었지만, 처용과 관련된 절인 망해사의 비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눈에 띄는 대비점부터 착안하여 토함산과 처용 사이의 같고 다른 점을 정리할 것이다.

끝으로 고려 시대 이후 <처용가>와 처용 전승의 변모를 통해, 동쪽만을 상징했던 처용이 오방처용으로 격상되어 모든 방위를 상징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선행 연구⁶⁾에 의지하여 검토할 것이다.⁷⁾ 이 과정에서 처용이 처음부터 모든 방위를 상징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훗날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신라의 오방 관념 특히 동쪽에 대한 상징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2. 신라의 오방 관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신라의 오방 관념에는 中祀에 해당하는 五岳에 더하여 四鎮, 四海, 四濱 등 사방에 대한 인식과 해양적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5와 4라는 숫자는 다르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전체 방위, 나아가 전체 공간을 상징하게 된다는 속성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방 혹은 사방의 관념을 신라 나름의 천하의식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삼산, 오악에 관계한 중국 사상을 흉내 낸 것일 수도 있고, 건국 초기부터 있어 왔던 신라의 산악신앙이 성장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오방을 신라인들의 천하로 이해할 수 있다면, 「처용랑 망해사」는 국망에 대하여 오방이 각각 경고 혹은 권계하는 천하의 목소리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왜 동악과 탈해 대신 동해와 처용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서쪽에 해당하는 존재는 왜 등장하지 않는지 등이 의문이지만, 이런 점에서 「처용랑 망해사」는 기존과는 다른 면모의 오방 관념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논자에 따라서 오악을 통일 이전 선덕여왕 때 狼山을 중심으로 경주 일대에 구성된 왕경 오악과, 통일 이후의 전 국토에 걸친 신라 오악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라 오악에 해당하는 산천에

5)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설화에서 왜 ‘서쪽’이 생략되었는지도 함께 추정하고자 한다.

6) 이 부분은 서철원(2016), 「처용가무의 전승 및 연행 과정에서 나타난 오방처용의 성격」, 『한국시가연구』 41, 한국시가학회, 51~79면에서 관련 부분만을 추려서 재구성하였다.

7) 본고에서 살피지는 못했지만 남해안 일대에는 오광대 탈놀이가 전해지는데, 처용의 등장 지역과 인접하기도 했고 이들 역시 ‘오방’이라는 성격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대한 제사가 통일 이전에 있기도 하고, 통일 이후에도 왕경 오악에 대한 신앙이 유지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을 교체 관계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도 한다. 다음 [1]에 따르면 왕경 오악에 대한 신앙이 지속된 이유는 왕경인들의 골품제에 기반한 특권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처용랑 망해사」의 남, 북 산신이 거론되기도 한다.

[1]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왕경 오악은 중대 이후 신라 오악으로 변화 내지 대체되어 사라지지 않았다. 하대인 헌강왕대 여진히 왕경 오악의 남악을 상징하는 남산 산신과 북악 금강산의 산신이 출현한 바 있다. 곧 중고기 성립된 왕경 오악은 신라 멸망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라의 유서깊은 골품제와 연계된 왕경민들의 지역적 특권 의식이 꾸준히 존재한 결과였다.⁸⁾

윗글의 논자에 따르면 왕경 서악은 仙桃山으로 추정되는데⁹⁾, 박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로 모시기도 했던 聖母가 머무는 곳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라가 시작된 곳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國亡의 경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 한편 신라 서악은 계룡산인데, 백제의 성산이었던 그 지역성이 이 시기까지 지속되었다면 신라 멸망의 경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윗글에서 활용한 「처용랑 망해사」에서 남과 북은 왕경 오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악을 왕경 오악인 선도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동악인 토함산은 왕경 오악인 동시에 신라 오악이기도 한데, 역시 「처용랑 망해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

요컨대 윗글의 논지를 존중하더라도, 「처용랑 망해사」는 왕경 오악에 대한 신앙이 신라 하대에까지 지속되었던 정황을 보이는 사료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왕경 오악과 신라 오악이 같은 자료에서 뒤섞여 등장하는가 하면, 그러한 느슨한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어떤 오악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처용이 등장할 만한 분위기를 보이는 쪽에 한결 가깝다.

그리고 오악, 오방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산악신앙은 이렇게 느슨한 체계를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2]는 각 지역집단의 산악신앙이 중앙의 일부로 포섭되어 가는 과정을 추론한 것이다.¹⁰⁾

[2] 6촌의 명칭에 모두 산이 들어가고 또 함께 결합한 명칭 중에 古墟, 大樹, 關川 등이 모두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신라초기 각 지역집단은 신성한 산과 그와 관련한 의례처를 결합시켜 각자를 변별하는 명칭으로 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산악신앙과 그 제사는 지역집단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지역집단은 곧 제사집단이기도 했던 것 같다. 외부인들에게 ‘즐거 산신을 제사한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라에서 산악 숭배와 제사는 중요한 것이었다. 산악 숭배와 제사는 지역집단과 밀접히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군현제 정비와 관련하여 율령제적 지배체제 정비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¹¹⁾

8) 김병곤(2014), 393면.

9) 김병곤(2014), 380면.

10) 3장에서 거론하겠지만, 처용이 동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역시 지역집단의 신앙이 중앙의 것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의 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11) 나희라(2016),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 종교문화의 측면에서 본 사회 통합과 지배체제의 정비」, 『한국고대사연구』 82, 한국고대사학회, 141면. 이 부분은 浜田耕策을 비롯한 몇몇 선행업적을 참조한 내용이다.

윗글에 따르면 자연발생적인 쪽에 가까운 각 지역집단의 산악신앙이 통일 이후 지배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오악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름의 기준에 따른 선별의 과정이 있었다는 셈인데, 다음의 표는 이러한 선별 과정이 지역적 배분과 일정 부분 상관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신라					고구려				백제				미상	총계
		王都	尙州	良州	康州	합계	漢州	朔州	溟州	합계	熊州	武州	全州	합계		
中祀	五岳	1		1	1	3		1		1	1			1		5
	四鎮			1		1		1		1	1			1	1	4
	四海			2		2			1	1			1	1		4
	四濱			2		2	1			1	1			1		4
총 계		1		6		8	1	2	1	4	3			4	1	17

12)

이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악 가운데 남악 지리산이 옛 가야 지역에 속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적 배분의 성격이 한결 분명해진다. 지리산은 <우적가>를 지은 영채가 도적들을 제자로 삼은 다음 은둔했던 雲上院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신라의 음악이 우륵과 가야금에 힘입어 발전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문화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역시 「처용랑 망해사」에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中祀와 관련한 오악, 사진, 사해, 사빈은 신라가 가야, 백제, 고구려의 영역을 모두 포섭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라인 나름의 천하 인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음의 [3]과 마찬가지로 유교의 산천 규범 인식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입장이 우세해 보인다.

[3] 그러하다면 신라가 천자국의 산천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분봉한 것은 신라 중대 왕실의 유교적인 지배체제 정비의 하나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 알다시피 제사지 신라조 찬자는 『예기』 왕제편을 들어 찬자는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후는 그 땅의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고 하면서 신라는 제후국의 예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비록 오악, 사진, 사해, 사독이 천자국의 산천규범이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신라 경내의 산천이었다. 그러하다면 신라 중대 왕실은 유교의 산천규범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천자국의 산천규범인 오악·사진·사해·사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신라 중대왕실은 유교적 지배 체제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꾀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교의 산천규범을 따른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¹³⁾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면, 「제사지」의 찬자 역시 신라 당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후대인의 관점에 따라 굴절되었거나 신라인을 위한 나름의 변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廣開土王陵碑文」 역시 중국을 제외한 고구려 중심의 동서남북 정벌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광개토왕이 중국에 대한 제후국의 예를 지켰다고 하지는 않는 듯하다. 또한 논자도 밝혔듯이 해양신앙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¹⁴⁾, 신라의 ‘경내’라는 표현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신라인의 ‘사방’에 대한 인식은 「眞興王巡狩碑文」, 특히 마운령과 황초령 비문에 분명히

12) 채미하(2008), 16면.

13) 채미하(2008). 25~26면.

14) 채미하(2008), 34면.

드러나 있다고 한다. 두 비문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했던 武德과 왕도의 덕화, 이웃과의 교린을 강조하는 문화적 성군의 모습을 검비한 것으로 진흥왕을 묘사하고 있다.¹⁵⁾

[4] 太昌元年 歲次 戊子 21일 興大王이 國號를 순수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무릇 순풍이 일지 않으면 世道가 참됨에 어긋나고, 그윽한 덕화가 퍼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이 서로 경쟁하도다. 그러므로 제왕이 年號를 세움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짐은 歷數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주며, 명명한 가운데 神祇에 감응되어 符命에 應하고 禋嘗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和使가 서로 통하여 오도다.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新舊民을 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戊子年 가을 8월에 管境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하락)¹⁶⁾

[5] (전략) 그러나 짐은 ... 태조의 기틀을 이어 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하면서 國號할까 두려워하였다. 天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 冥冥한 중에서도 神祇에 감응되어 ...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和好를 요청하는 사신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하락)¹⁷⁾

이 묘사의 서술 방식이 중국의 사례와 통하기도 하고, 3산과 5악에 대한 관념이 고대 중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라 나름의 천하 인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을 수입, 전래받은 것으로 보는 편이다. 다음의 [6]은 신라의 오방 관념이 고구려, 백제의 것들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6] 우선 신라보다 선진적이며 때로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던 고구려, 백제에서 오방 관념의 유입을 상정할 수 있다.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의 5족이, 시점은 불분명하나 오방 관념에 입각한 5부로의 전환이 있었으며, 백제도 성왕대 소위 5부 5방 제도를 통한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나타난 5족→5부 전환은 신라의 6촌→6부와 비교되지만, ①촌수의 상이에서 신라의 오방 관념 수용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백제 성왕의 사비 천도와 더불어 구축되었다는 5부 5방 체제는 신라와 우호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②성왕 재위 후반 양국이 적대한 결과, 제도적 차원의 5부 5방을 신라가 수용했을 여지는 높지 않다.

그러므로 ③신라 사회의 오방 관념은 중국의 노장 또는 불교의 오방 관념 유입과 연계될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 특히 인용 사료 4)에 오악 신군을 운운한 선도산 신모는 도교적인 속성을 검비한 인물이기도 하다.¹⁸⁾

15) 문덕과 무덕을 아울러 묘사한 점은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16) 「磨雲嶺新羅眞興王巡守碑·碑陽面部分」, 노중국 역,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1992.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17) 「黃草嶺新羅眞興王巡守碑」, 노중국 역,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1992.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18) 김병곤(2014),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 43,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377면.

그러나 윗글의 주장과는 달리, 신라의 오방 관념이 고구려나 백제, 특히 백제와 공유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①은 5와 6이라는 숫자가 다르니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의 상징성일 것이다. 앞서 4방과 5악의 실질적 의미가 같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5라면 중앙과 4방이고, 6이라면 천지와 4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구려와 신라의 오방 관념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라가 결국 6을 견지해야 할 텐데, 신라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5를 내세운 점을 보면 그리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②는 나제 양국이 적대했기 때문에 백제의 5부 5방을 신라가 도입할 리 없다는 것인데, 성왕 및 무왕 대에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격렬했지만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는 더욱 왕성했던 점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 미륵사와 황룡사 사이의 관계가 그렇고, ‘백제 불교의 東漸’¹⁹⁾이라는 현상이 이 시기에 나타났던 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7]의 이야기는 신라 불교의 미륵 상징이 백제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7] 진지왕 때에 와서 홍륜사의 중 진자가 언제나 堂의 주인인 미륵상 앞에 나가 발원하여 맹세를 했다. “우리 대성께서는 화랑으로 화해 이 세상에 나타나 내가 항상 미륵의 얼굴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을 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정성스러운 간절한 기원의 마음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니, 어느 날 밤 꿈속에 한 중이 나타나 말했다. “네가 웅천 수원사에 가면 미륵선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자는 꿈에서 깨자 놀라 기뻐하며 그 절을 찾아가는데 열흘 동안 발자국마다 절을 하며 그 절에 이르렀다. 문밖에서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아름다운 남자가 맞이하여 작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했다. 진자는 올라가면서도 읊하며 말했다. “그대는 평소에 나를 모르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대접함이 이렇듯 은근한가?” “나도 또한 서울사람입니다. 스님이 먼 곳에서 오심을 보고 위로했을 따름입니다.” 잠시 후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진자는 속으로 우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는 별로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중들이 자기가 이곳에 온 뜻과 지난밤의 꿈을 얘기하고는 말했다. “잠시 저 아랫자리에서 미륵선화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땠겠소?” 절의 중들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의 근심한 모습을 보고 말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천산이 있는데 예로부터 현인과 철인이 살고 있으므로 冥感이 많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 보는 게 좋을 게요.” 그 말을 좇아 진자가 산 아래에 이르니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 맞으며 말했다. “여기에 무엇 하러 왔는가?” “미륵선화를 보고자 합니다.” 진자가 대답하자 노인이 또 말했다. “저번에 수원사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으면서 다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진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깨달아 이내 달려서 본사로 돌아왔다.

그 후 한 달이 넘어 진지왕이 이 말을 듣고는 진자를 불러 그 까닭을 묻고 말했다. “그 소년이 스스로 서울사람이라고 했으니 성인은 거짓말을 안 할 텐데 어찌 성 안을 찾아보지 않았소?” 이에 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들을 모아 두루 마을을 돌면서 찾았다. 그 때 영묘사 동북쪽 길가 나무 밑에서 편안히 앉은 소년을 만났다. 화장을 갖추었는데 얼굴이 수려했다. 진자는 그를 보자 놀라며 말했다. “이분이 미륵선화다.” (중략) “未와 彌는 음이 서로 같고 尸는 力과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것을 택해서 바꾸어 부르기도 한 것이다. 부처님이 유독 진자의 정성에 감동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연이 있었으므로 가끔 나타났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나라 사람들이 신선을 가리켜 미륵선화라 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 하는 것은 모두 진자의 유풍이다. 路傍樹를 지금까지도 見朗이라하고 또 우리말로 는 사여수라고 한다.²⁰⁾

19) 신종원(1992), 「신라 불교전래의 제양상」,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33~135면.

[7]은 남모와 준정을 비롯한 원화 제도의 폐지 기록 바로 다음에 나오며, 미시랑의 명칭과 용모, 태도가 화랑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랑의 기원담으로 볼 기능성도 있다. 그런데 진지왕 때에도 신라와 백제는 서로 깊이 적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熊川’을 백제의 熊津이 아닌, 신라의 강역이었던 경남 진해 웅천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진해 웅천으로 보면 남쪽으로 더 가서 천산에 오르는 상황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이 기록의 웅천을 백제의 웅진으로 본다면, 전쟁과는 별개로 문화 교류가 활발했던 당시의 정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상사와 미술사의 여러 영역에서 확인되는 백제와 신라 문화의 공유점을 고려한다면, 백제의 5부 5방이 신라에 끼친 영향력의 일단을 굳이 부정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²¹⁾

끝으로 ③과 관련하여 신라의 오방 관념이 중국의 불교, 도교의 유입과 연계되어 있을 지라도, 신라 불교의 전래 자체가 고구려 불교를 통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삼국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불교의 유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신라 불교의 성지는 오대산이었다. 신라 오대산은 「자장정물」, 「대산오만진신」, 「정신태자효명태자전기」 등을 통해 5만 진신신앙의 성지²²⁾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오악을 정할 때 오대산이 포함된 적은 없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오악과 오방 관념이 외래사상의 유입과 무관하다는 모험적인 추론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방 관념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판정하고 논의를 종결하기보다는, 고구려와 백제가 공유했던 숫자 5와 얽힌 문화적 상징들이 신라의 오방 관념에 끼친 영향은 없을지 다시금 검토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²³⁾

3. ‘동쪽’의 상징으로서 신라의 처용

신라의 오방 관념은 고구려, 백제에 속했던 지역과 그 문화를 신라의 것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으며, 숫자 5와 얽힌 문화적 상징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이미 강조했던 것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 동쪽을 상징했던 산은 토함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석탈해였음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단 동악 토함산과 관련한 『삼국사기』에 5개, 『삼국유사』에 3개가 있는데,²⁴⁾ 『삼국사기』는 석탈해와 관련된 기록만 신비한 이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변, 전쟁, 치안과 관련한 불길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물에 대한 전승을 중심

20)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삼국유사』 권3 「탐상」 제4. 번역은 박성봉, 고경식(1991),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를 따랐으며, 이하 같다.

21) 백제의 5부 5방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장웅, 「百濟 西岳 旦那山과 慧顯의 修德寺·達摩山寺」, 『한국고대사연구』 84, 한국고대사학회, 303~345면 참조.

22) 염중섭(2017), 「한국불교 聖山인식의 시원과 전개 - 五臺山·金剛山·寶蓋山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6, 한국사학회, 95면.

23)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이전의 신라, 고려 미술 자료에서는 조선시대와 같은 의미의 ‘오악’은 잘 발견되지 않으며, 고구려 수렵도와 백제의 봉황산수문전, 금동대향로와 고려의 智光國師 현묘담비 등에 나타난 ‘삼산’의 도안 방식은 중국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도 있다. (이상은 김주연(2015), 「三山·五嶽 도상의 정치적 전용과 그 典據」, 『미술사학보』 44, 미술사학연구회, 174~175면)

24) 해당 자료의 분류는 김지영 외(2008), 『한국오악자료선집-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 이회문화사, 152~155면을 따랐다.

으로 한 『삼국유사』에 비하면 소략한 편이다.

[8-1: 치안] 낙랑이 우리 나라의 내부에 빈틈이 있다고 보고, 금성을 공격하여오니 상황이 위급하였다. 밤에 유성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자 적병이 두려워하며 퇴각하다가 알천가에 주둔하면서, 돌무더기 20개를 쌓아놓고 물러갔다. 6부 군사 1천 명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토함산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러 이 돌무더기를 보고는 적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추격을 멈추었다.²⁵⁾

[8-2: 異蹟] 3년, 봄 3월, 왕이 토함산에 올라가니, 우산 모양의 검은 구름이 왕의 머리 위에 피어났다가 한참 후에 흩어졌다. 여름 5월, 왜국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6월에 천선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²⁶⁾

[8-3: 전쟁] 9년 여름 4월, 왜병의 대부대가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힌 허수아비마다 병기를 들게 하여 토함산 아래에 열 지어 세워놓고, 용사 1천 명을 부현 동쪽 별관에 매복시켰다. 왜인은 자신의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곧장 진격해왔다. 북병들이 갑자기 공격하여 허를 찌르니, 왜인이 대패하여 도주하였다.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거의 모두 죽었다.²⁷⁾

낙랑 또는 왜국과 관련한 기록에 토함산이 주로 등장하여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8-2]에 한해서는 왜국과 친교를 맺기 두어 달 전 토함산에 오른 석탈해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석탈해 본인이 도래인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왜인이었던 호공을 회유하여 신하로 거느리는 등의 활동을 보였던 점을 유념한 묘사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아래 [8-6]에서 석탈해와 토함산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낙랑 혹은 왜국과의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서, 토함산은 災變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다소 변모한다.

[8-4: 재변] 15년 봄 3월, 동해변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뽕이 있고 수레에 가득 찼만큼 컸다. 여름 5월, 토함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세 길 높이로 솟아올랐다.²⁸⁾

[8-5: 재변] 4년 가을 7월, 일선군에 큰 홍수가 났다. 이 홍수로 3백여 명이 익사하였다. 동쪽 토함산에서 땅에 불이 났다. 그 불은 3년이 지난 후에야 꺼졌다. 홍륜사의 대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원문 3자 결자) 북쪽의 바위가 산산이 무너져 쌀로 변했다. 그 쌀을 먹어 보니 창고의 묵은 쌀과 같았다.²⁹⁾

토함산은 신이한 면이나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이지 않고, 다만 엄청난 재앙의 공간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삼국유사』는 석탈해, 김대성, 원성왕 김경신 등 주로 인물 전승과 관련하여 토함산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원성왕은 그 무덤의 위치를 설명하는 간략한 서술에 불과하다.

25) 「南解次次雄」 11년,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26) 「脫解尼師今」 3년,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27) 「奈勿尼師今」 9년,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28) 「實聖尼師今」 15년,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29) 「太宗武烈王」 4년,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8-6: 인물/원성대왕] (전략: 김경신(원성왕)과 김주원의 왕위 경쟁, 일본의 만파식적 거래 거절, 여의주 이야기) 왕의 능은 토함산 서쪽 동곡사에 있는데 최치원이 지은 비가 있다.³⁰⁾

이와는 달리 석탈해와 김대성의 경우는 토함산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업적과 활동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8-7: 인물/탈해] (전략: 아진의선이 탈해를 아진포에서 발견하고 키움) 말을 끝내자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①토함산 위에 올라가 돌집을 지어 그 곳에서 이레 동안 머물면서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가를 바라보니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된 봉우리가 보이는 데 그 지세가 오래 살만한 곳이었다. (중략: 지락을 써서 호공의 집을 빼앗음)

하루는 탈해가 동악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白衣를 시켜 물을 떠 오게 하였다. 백의는 물을 떠서 가지고 오다가 중도에서 자기가 먼저 마시고 탈해에게 올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물그릇 한쪽에 입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탈해가 이로 인하여 꾸짖자 백의가 맹세를 하였다. “이제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먼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제야 물그릇이 입에서 떨어졌다. 이후로 백의는 탈해를 두려워하여 감히 속이지를 않았다. ②지금 동악 속에 우물 하나가 있어 이를 세상 사람들이 요내정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우물이다.

(중략: 왕위에 오른 탈해, 그 성씨의 의미) 왕위에 오른 지 23년만인 건초 4년(79년)에 세상을 떠났다. 소친구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 신이 명령하기를, ‘내 뼈를 조심해서 묻어라’ 했다고 한다. 두골의 둘레는 3자 2치나 되고 몸의 뼈의 길이는 9자 7치나 되었다. 이는 서로 엉기어 하나가 된 듯하고 뼈마디 사이는 모두 연이어져 있었다. 이는 바로 천하에 짝이 없는 역사의 골격이었다. 이것을 다시 부수어서 塑像을 만들어 대궐 안에 안치를 하자 또 신이 말하기를, ③“내 뼈를 동악에 안치해 두어라.” 하였다. 그래서 그 곳에 모시게 하였다.³¹⁾

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석탈해는 훗날 月城이 되는 瓠公의 집을 빼앗기 이전까지 토함산의 돌집을 근거지로 삼았다. 석탈해라는 인물이 도래인 혹은 해양 세력을 비유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면, 토함산은 이들 세력의 첫 도읍이라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②에 나오는 우물은 석탈해의 신이함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며, 그 위치를 비정하는 연구 성과도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또한 ③을 보면 탈해의 뼈가 안치되는 최후의 안식처로 나타나 있는데, 고대 샤머니즘의 뼈 신앙을 고려한다면 이는 최후의 안식처인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는 공간, 기도와 신앙의 장소인 성지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①~③을 종합하면 동악 토함산은 석씨 세력의 출발점, 그 위세의 근거지인 동시에 葬地, 성지의 역할까지 모두 전담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석씨 세력의 위세가 약화된 탓일까?³²⁾ 토함산은 전략적 요충지, 신이함을 보여주는 신성한 공간의 모습에서 점차 재변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소재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다가 만년 전환의 계기가 8세기 중엽 불국사와 석불사의 창건이라 할 수도 있겠다.

[8-8: 인물/大城] (전략: 모랑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의 아들 대성이 보시의 대가로 국상 김

30) 「元聖大王」, 『三國遺事』 卷2, 「紀異」 제2.

31) 「第四脫解王」, 『三國遺事』 卷1, 「紀異」 제1.

32) [8-4], [8-5]에서의 토함산의 붕괴는 석씨 세력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채미하 (2008), 17면.

문량의 집에 다시 태어남) 아이는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더니 7일만에야 폈는데 손바닥에 대성이라고 새겨진 금간자가 있었으므로 이름을 대성이라 하고, 모량리의 어머니를 모셔다 함께 봉양했다. 이제 장성하니 사냥을 좋아했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날 밤 산 밑의 마을에서 유숙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곰이 귀신으로 변해 시비를 걸어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죽였느냐? 내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으리라.” 대성이 두려움으로 용서해 달라고 청하자 귀신은 물었다.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절을 세워 주겠느냐?” 대성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꿈에서 깨어보니 땀이 흥건히 나서 자리를 적시었다. 그 후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그치고 곰을 위해서 곰을 잡은 자리에다 장수사를 세웠다. 그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원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이승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세웠으며,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세워 신림, 표훈 두 성사를 청해서 각각 거주하게 했다. (중략) 옛 향전에 기재된 것은 이상과 같은데 절 안의 기록은 이렇다. ‘경덕왕 때에 대상, 대성이 천보 10년 신묘(751)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혜공왕 때를 거쳐 대력 9년 갑인(774) 12월 2일에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이를 완성시켰다. 처음에 유가, 향마를 청하여 이 절에 거주하게 했고 이를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고전과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³³⁾

불국사와 석불사의 종교적, 문화적 상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8-8]의 설화 자체는 신비롭고 비현실적이지만, 이 기록에 나오는 신림, 표훈을 비롯한 여러 승려들의 이름은 불국사와 석불사의 영향력은 엄연히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동악 토함산의 입체적인 속성이 종교, 불교적인 쪽에 한정되고 만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말하자면 불교적 건축과 조영의 속성이 강해지는 한편, 석탈해 신화를 통해 드러났던 해양성과 산악신앙, 고유사상의 요소 등은 이제 약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꼭 불국사와 석불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 이후로 토함산은 원성왕의 무덤 위치를 설명하는 단편적 기록 외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세대 후에 동쪽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새로이 처용이 출현하고, 남산북악의 산신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오방 관념의 한 표상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9-1] 제 49대 헌강대왕 때는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랫소리가 길거리에서 끊어지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때마침 대왕이 개운포-지금의 울주-에 놀러왔다가 돌아가려고 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득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었다. “이것은 동해 용왕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하여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왕은 일을 맡은 관리에게 명하여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짓도록 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구름과 안개는 걷혔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을 개운포라 이름 했다. 동해 용왕은 기뻐하며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중에서 일곱째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들어가 왕의 정사를 도왔는데, 그의 이름을 처용이라 했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하여 그를 치하했으며, 또한 금간이란 관직을 주었다. 그런데, 처용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으므로 역신이 그녀를 훔쳐가 버리면 사람으로 변하여 그 집에 가서 몰래 그녀와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물러나왔다. 그 노래는 이렇다.

33) 『大城孝二世父母』, 『三國遺事』 卷5, 「孝善」 제9.

“동경 밝은 달에, 밤드리 노니다가 /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일러라. / 둘은 내해인데, 둘은 뉘해이고, / 본디 내해지만, 앓겼으니 어이하리.”

이 때 역신은 본디의 모습을 나타내며 처용 앞에 꿇어앉으며 말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칭송하는 바입니다. 맹세하노니, 이제부터는 공의 모습이 그려진 것만 보아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로운 일을 맞아들이는 습속이 생겼다. 서울로 돌아오자 왕은 이내 영취산 동쪽 기슭에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절을 세우고 망해사라 불렀다. 혹은 이 절을 신방사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용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9-2] 왕이 또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의 신이 나타나 왕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러나 왕에게만 보일 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신)이 나타나 춤을 추므로 왕 자신도 이를 따라 춤을 추면서 그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 신의 이름은 혹 심상이라고 했으며,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 御舞祥審, 또는 어무산신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이 이미 나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그 모습을 살펴 공인에게 명하여 새기게 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기 때문에 상심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혹은 霜髯舞라고도 하니 그것은 그 형상에 따라 일컬은 것이다.

[9-3] 또 왕이 금강령에 갔을 때 북악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옥도령이라 했으며, 또 동례전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지신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이 신의 이름을 지백금간이라 했다.

[9-4] 『語法集』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때 산신이 춤도 추고 노래 부르기를, “智理多都波都波”라 했는데, 도파라고 한 것은 대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사태를 짐작하고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이다.’ 즉, 지신과 산신은 장차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춤을 추어 이를 경계한 것이나, 나라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祥瑞가 나타났다고 하여 술과 여색을 즐기니 더욱 심했으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한다.³⁴⁾

「처용랑 망해사」는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단락에 해당하는 처용이 절반 이상의 양적, 질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설화가 처용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었다면, 설령 동쪽에서 처용이 나타났다고 한들 오방 관념과 굳이 연결 지을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처용은 남산, 북악의 산신 그리고 중앙의 지신과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이 오방 관념의 한 방위를 차지하는 신격임을 드러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불국사와 석불사의 불교적 권위 (혹은 석씨를 둘러싼 정치적 사정) 때문에 사라져가는 토함산과 석탈해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처음 등장하는 처용을 이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기도 하다. 토함산 못지않은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선도산, 지리산, 계룡산 등의 산신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동해용과 처용만이 서사 문맥 속에서 뚜렷이 활동하는 인물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망해사라는 사찰 역시 불교적 맥락의 거룩함보다는 처용 출현의 계기가 된 “용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비중이 큰 다른 신격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처용이 한결 눈에 잘 띄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성격을 한정지음으로써 불교의 권위가 석탈해의 신이함을 위축해 갔던 과정을 방지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처용의 출현지인 왕경 ‘동쪽’의 울산은 “신라 불교의 流入路”로서 호국신이 머물던

34) 「처용랑 망해사」,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곳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는 점을 되새겨 본다. 이러한 주장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증보문헌비고』 등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특히 『大東史綱』의 “處容東海靑龍之者, 靑龍如日本南海白龍相鬪失戴遣子求救”에 주목하여 처용에 護國神의 직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황룡사 장육존상에 얽힌 전설 또한 불교의 유입으로서 동해안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⁵⁾ 이렇게 본다면 처용은 석탈해와 상통하는 면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으며, 토함산과 울산은 모두 탈해 나아가 도래 세력의 유입과 관계가 있었다.

석탈해와 처용의 사례처럼 지방의 독자적 의례를 중앙의 제사 안으로 흡수, 편입하는 사례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³⁶⁾ 해당 논의에 따르면 영일현 지역의 祭天神物이었던 細絹를 중앙의 御寶로 옮겨 보관하는 것은 수호신의 영력을 옮겨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신라 삼보가 고려에 돌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³⁷⁾

요컨대 석탈해의 신화 혹은 신앙의 중심지였던 동악 토함산의 성격이 불국사와 석불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중심적인 것으로 변모함에 따라, 신라 고유의 오방 관념에서 동쪽을 상징하는 새로운 지역문화 혹은 해양성의 상징이 필요했으며 그 역할을 처용이 맡았으리라는 가설을 내세우고자 한다.

4. 고려 <처용가>와 그 후³⁸⁾

오방 관념은 고려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 조선에서는 기우제를 중심으로 하여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왕이 서경과 남경을 순행할 때 오방색의 기를 들고 호위라는 모습을 『고려사』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①오방 각각의 색채를 엄격히 지키는 점, ②神獸 또는 용과 관련된 요소가 뚜렷하다는 점, ③불교와 무속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 동쪽이라는 하나의 방위를 상징하며 왕의 순행 과정에서 등장했던 처용은, 팔관회뿐만 아니라 물을 부르는 용의 아들로써 기우제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맡을 만한 존재였다. 오방 처용은 이러한 처용의 속성이 전방위로 확장된 성과였다.

[10-1] 12월 그믐 하루 전날 5更 초에 악사, 女妓, 악공 등이 대궐에 나아간다. 이달 儺禮 때에 악사가 여기, 악공을 거느리고 음악을 연주한다. 驅儺 뒤에, 內庭에 池塘具를 설치하고, 악사는 두 童女를 거느리고 들어가 蓮花 가운데 앉히고 (내정에서) 나와 절차를 기다린다. 구나 뒤에 처용무를 두 번[度] 춘다. 첫 번째는 학·연화대·回舞 등이 없다. 악사는 銅鉦을 잡고 청·홍·황·흑·백의 五方處容 및 여기 執拍樂師·鄉樂工을 인도한다. 처용 慢機 곧 봉황음의 一機이다를 연주한다. 여기는 처용가를 부른다.³⁹⁾

35) 윤영옥(1979), 「처용가」,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02면.

36) 나희라(2016), 149면.

37) 나희라(2016), 149면.

38) 이 부분은 서철원(2016), 「처용가무의 전승 및 연행 과정에서 나타난 오방처용의 성격」, 『한국시가 연구』 41, 한국시가학회, 51~79면에서 관련 부분만을 추려서 재구성하였다.

39) 이하 번역은 이해구 역(2000), 『신역 악학계법』, 국립국악원, 334~339면을 따랐으며, 춤 동작이 아닌 세부적인 주석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가급적 생략하였다.

처용무의 절차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방위를 상징하는 색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려의 <처용가>가 신라의 것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차이는 그 서사성과 극적 요소에 있을 텐데, 공연 과정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그리 부각되지 않는다.

[10-2] 차례로 들어가 (初入)排列圖 같이 벌여 선다. 음악이 중엽에 이르면 장고는 채편을 치고 처용 다섯 사람은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소매를 들었다 내려서 무릎 위에 놓는다. (일렬로 선) 청처용, 홍처용은 돌아다보며 서로 마주 향하고, 황처용은 돌아다보며 등을 향하고, 흑처용, 백처용은 돌아다보며 서로 마주 향하고 끝난다. 다시 북쪽을 향하고, 장고의 북편을 치면, 모두 두 소매를 들었다가 떨어뜨린다.

장고의 채편을 치면, (일렬로 선) 청·홍은 돌아다보며 서로 등지고, 황은 돌아다보며 서쪽을 향하고, 흑·백은 돌아다보며 서로 등지고 끝난다.

채편을 치면, 청·홍·흑·백은 모두 손으로 춤추다가 안쪽을 끼고, 황은 손으로 춤추다가 오른쪽을 낀다. 황은 짝이 없으므로 왼쪽·오른쪽이라 칭한다. 뒤에서도 이와 같다. 모두 손으로 춤추다가 바꾸어 끼고 마친다.

채편을 치면, 5인이 춤추며 나아간다. 殿庭의 한가운데에서 가지런히 일렬을 지어 북쪽을 향하여 가면 끝난다.

채편을 치면, 황은 동쪽을 향하여 춤추고 청·홍·흑·백은 모두 서쪽을 향하여 춤춘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서쪽을 향하여 춤추고 청·홍·흑·백은 모두 동쪽을 향하여 춤춘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홍은 춤추며 물러가 남방에 서고, 흑은 춤추며 나아가 북쪽에 서고, 청·황·백은 춤추며 제자리에 선다. 황은 중앙, 청은 동방, 백은 서방이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청·홍·흑·백은 중앙을 향하여 對舞하고, 청·홍·흑·백은 모두 중앙을 향하여 춤춘다.

끝나고 채편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하여 춤추고 흑은 중앙을 향하여 대무한다. 음악이 점점 잦아지면 鳳凰吟 中機를 연주하고 여기는 (봉황음) 노래를 부른다.

궁중 음악으로서의 처용은 오방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용이 자리를 찾고 잡아가는 추상적, 상징적 몸짓만을 보여주는 듯하다. <처용가>는 종속적이고, 오히려 처용무가 중심이 되며, 특히 오방의 색채와 위치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처용가>의 역할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10-2]에서 ‘중엽’을 기준으로 일종의 동작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의 속요 <처용가> 역시 중엽을 기준으로 의미상, 형식상의 단락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11-1]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 / 天下太平 羅侯德 /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호시란디 / 以是人生애 相不語호시란디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호샷다

[中葉] 어와 아비 즈이여 處容아비 즈이여 → ‘도입부 / 처용의 모습 묘사’를 나눔

[附葉] 滿頭插花 계오샤 기울이신 머리에

[小葉] 아으 壽命長願호샤 넘거신 니마해

[11-2]

[後腔] 山象이숯 깊어신 눈넙에 / 愛人相見호샤 오올어신 눈네

[附葉] 風入盈庭호샤 우글어신 귀예

[中葉] 紅桃花ㄴ티 붉거신 모야해 → ‘얼굴 위 / 얼굴 아래’를 나눔

[附葉] 五香 마트샤 웅긔어신 고해

[小葉] 아으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배

[11-3]

[大葉] 白玉琉璃ㄴ티 희여신 닛바래 / 人讚福盛호샤 미나거신 특애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애 /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스맷길해

[附葉] 설피 모도와 有德호신 가스매

[中葉] 福智俱足호샤 브르거신 비예 / 紅正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

→ ‘상반신 / 하반신’을 나눔

[附葉] 同樂大平호샤 길어신 허튀에

[小葉] 아으 界面 도르샤 넘거신 바래

[11-4]

[前腔] 누고 지셔 세니오 누고 지셔 세니오 / 바늘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附葉] 處容아비를 누고 지셔 세니오

[中葉] 마아만 마아만호니여 → ‘누고 지셔 세니오 / 마아만호니여’를 나눔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셔 세온

[小葉]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만호니여

[11-5]

[後腔] 머자 외야자 綠李야 / 썰리나 내 신고홀 미야라

[附葉] 아니웃 미시면 나리어다 머즌말

[中葉] 東京 볼곤 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 ‘머즌 말 / 옛 처용가’를 나눔

[附葉] 드려 내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

[小葉]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11-6]

[大葉] 이런 저귀 處容아비웃 보시면 / 熱病神이샤 膾炙가시로다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

[附葉] 千金 七寶 말오 / 熱病神를 날 자바 주쇼셔

[中葉] 山이여 미히여 千里外예 → ‘열병신의 처벌/ 결말부’를 나눔

[附葉] 處容아비를 어여려거저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⁴⁰⁾

6개의 단락은 각각 ‘장형의 강(또는 대엽)-부엽-중엽-부엽-소엽’이라는 5단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이 5단 구성의 숫자 ‘5’가 앞서 살핀 오방 관념과 필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 오방을 상징하는 다섯 처용이 5단 구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은 그저 예사로운 일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엽은 처용무에서 춤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락이다. 그리고 각각

40) 『樂學軌範』 卷5. 時用鄉樂呈才圖儀. 鶴蓮花臺處容舞合設.

의 단락마다 텍스트의 의미를 서로 구획 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1-1]에서는 도입 부분과 처용의 얼굴을 묘사한 부분 사이에, [11-2]에서는 그 얼굴의 위와 아래 사이에, [11-3]에서는 처용의 상반신과 하반신 사이에, [11-4]에서는 두 가지 반복어구의 사이에, [11-5]에서는 ‘머튼 말’과 옛 향가 <처용가> 사이에, [11-6]에서는 열병신을 처벌하는 장면과 결말 부분의 사이에 중첩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노랫말의 구분과 악곡의 변화, 그리고 안무의 전환이 한데 어우러진 사례에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속요 <처용가>를 통해 동쪽의 처용이 오방처용으로 격상됨으로써 음악과 무용, 문학에 두루 걸쳐 한결 다채로운 상징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이 신라의 오방 관념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방 관념의 문화적 성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은 충분할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오방 관념을 종래에 강조되었던 오악뿐만 아니라 사진, 사해, 사빈 등의 山水 상징을 모두 포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산악신앙의 요소에 진흥왕 순수비문에 나타난 사방과 천하의 관념,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오부, 오방 의식까지 두루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왕경 오악과 신라 오악이라 할 만한 지리적 상징들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혼재되기도 하였다. 이 혼재 양상은 외래 고등종교인 불교와 고유신앙, 해양성과 지역성 등을 망라한 신라 나름의 오방 관념을 성장하게 한 촉매이기도 했다.

둘째, 신라의 처용은 9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동쪽’ 방위를 상징하는 소재가 되었다. 그런데 8세기 무렵까지 신라의 오방 관념에서 동쪽을 상징했던 것은 토함산이었다. 토함산은 애초에 석탈해의 도래신화와 관련된 성지였지만, 불국사와 석불사의 건립 등을 거쳐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비중이 다른 요소를 압도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9세기 이후 신라 하대로 접어들어 따라 종교적 색채보다는 해양성, 지역성의 비중이 더욱 큰 새로운 문화적 상징이 필요하게 되었고, 처용과 울산, 망해사는 기존의 토함산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역할을 띠고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전승담에서 기존의 남산과 북악, 중악 등의 산신보다 더욱 큰 비중을 지니면서 나란히 등장할 수 있었다.

셋째, 고려의 문화 전통을 거쳐 처용은 동쪽 방위뿐 아니라 오방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격상하게 되었다. 국악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조선 세종 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팔관회, 나아가 신라의 오방 관념에서 그 기원을 찾을 가능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고대·중세어의 어미 구조체에 대하여

고영근(전 서울대)

1. 말머리를 풀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첫째로 우리말의 어미 구조체를 어간과 보조 어간 및 어미로 보는 남풍현 (2011/2012)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로 김완진 (1966) 이래 “집단 곡용”으로 통하여 왔던 격 어미의 겹침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올바른 현상 파악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셋째로 향가에 나오는 ‘去如’ 등의 해독이 문법에 맞는 해독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 볼 것이며 끝으로는 고려 가요에 나타나는 비존경 선행 어미에 대한 해석 (정경재 2007)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어미 구조체와 보조어간론

남풍현 (원고/2012)에서는 최현배 (1929, 1937/1971: 165)에서 사용한 “도움줄기” (補助語幹)를 고대 우리말 문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자어 용어 “보조 어간”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최현배 (1971)의 견해를 다음에 인용하기로 한다.

(1) 풀이씨의 줄기는 단일한 중심 관념을 나타내는 씨몸만으로 되는 것이 그 으뜸꼴 (基本形, 原形)이지마는 그 자세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중심 관념을 돕는 조각 (뒷가지, 接尾辭)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나니 (이는 우리말이 덧붙는 말-添加語-인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됨): 이 씨몸에 붙어서 복잡한 줄기를 이루는 조각 (部分)을 도움줄기 (補助語幹)라 이르느니라)

그런데 1940년대 후반에 de Saussure 등의 구조주의가 상륙하고 1950년대 후반에 미주의 기술적 언어 분석론이 선을 보임에 따라 단어 형성법의 하나인 파생법과, 굴절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어간부에 소속시키고 후자는 어미부에 소속시키되 후자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과 “어말”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고영근 1967/1999:225-243). 이렇게 되기까지는 해방 후의 일본 고대 문법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1985년의 통일 • 단일 문법에서는 어미를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가르치는 당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학교 문법뿐만 아니라 학문 문법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테면 “선어말 어미”란 용어를 누구든지 써 오고 있다. 1984년에 통일문법 교과서의 심의본 (박이정판 문법대계 (II). 2-168)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선어말”이라는 말이 우리말답지 않다

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달리 대처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

사실 “선행어미”이라는 말은 “prefinal/premod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직역한 것인데 우리말 문법에 맞는 역어는 “어말 선행어미”가 옳다. “postdoctor”를 “박사후 과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면 위의 역어의 잘못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의 경위에 대하여는 고영근 (1999:243-245)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이조어사전>(1964)을 내어 국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돌아가신 유창돈 선생 같은 분은 처음부터 “선행 어미”란 말을 썼다. 유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의 저술에 영어 등의 외국어 용어를 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 용어가 우리말 조어법에 맞는 역어로 생각하고 현재 이를 쓰고 있다.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 굴절법과 파생법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최현배의 문법에서 보조 어간의 대접을 받는 피동과 사동의 접미사는 어간 구조체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존경, 겸손, 시제, 서법 형태소와 어말 어미는 어미 구조체에 속하게 된다. 어미 구조체도 단어의 끝에 오느냐 그 앞에 오느냐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행 어미로 나눌 수 있다. 필자는 고영근 (1992, 1993: 28-42)에서 단어와 문장에 걸쳐 구성소의 형성소의 개념을 설정하여 우리말 문법을 서술하는 모형을 제안한 바 있고 며칠 전 탈고한 바 있는 <우리말 문법-그 총체적 모습> (임시제목)에서 전면적 응용화를 시도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남풍현 (원고, 2012) 등에서는 고대어에는 선행 어미가 어말에 쓰이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다음 예를 들었다.

- (2) 法界有情 皆 佛道中 道內去 誓內 ‘法界有情이 모두 확실히 佛道에 도달할 것을 맹서함)
<선림원중>’.

위의 ‘去’는 이두에서 ‘良’과 짝을 이루어 동사의 형태적 자질과 함께 확인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영근 1985/2004: 313-322), (2)에 나오는 ‘거’의 기능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나 선행 어미가 어말에 쓰인 것이다. 그것이 비타동사 표지 ‘거’의 차자라면 뒤에 ‘乙’과 같은 부동사의 일부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구문과 성격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 (3) 羅卜이 (새돌히 흙 프러오거늘)_{NP} 보고 (월인석보 23, 76)

만약 (2)의 구문적 성격이 (3)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道內去’의 다음에 ‘乙’과 같은 부동사 어미가 탈락된 것이 틀림없다. 남풍현 (2012)에서는 ‘去’가 보조 어간이면서 어말 어미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부동사 어미 또는 그 일부가 탈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어미 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근대 국어로부터 20세기 전 반기의 서간 문법 (한국학 중앙연구원 편 2005: 39-45)에 나오는 ‘히시압’과 같이 어말 어미가 절단되어 선행 어미만으로 문장을 종결시키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이를 어말에 쓰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일본어나 알타이어와 같이 시제나 서법 형태소가 어말에 자리잡는 현상 (고영근 2013)과 같아 우리말의 정동사의 유형론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말의 정동사 어미는 고아시아어의 하나인 길랴크어와 같이 단어의 끝에 온다 (강길운 1988, 고영근 2013). 인터넷 언어에는 ‘밥 먹었’과 같이 시제만으로 문장을 끝맺는 어형

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되면 우리말도 알타이 제어와 같이 시상법이 어말에 오는 언어 유형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

3. 이중 곡용과 집단 곡용론

김완진 (1966)에서는 다음 두 예를 들고 우리말의 집단 곡용과 집단 활용의 문제를 제기하여 특히 전자는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지금도 이를 인용하는 일을 더러 본다.

(4) 그 일을 누가 하는가가 문제다.

김완진 (1966)에서는 처음은 영어의 ‘the mayor of Boston’ s’에서 속격 어미 ‘-s’가 ‘the mayor of Boston’이라는 구에 붙는다고 하여 이를 집단 곡용이라 부르고 그 논리를 (4)의 우리말에 적용하였다. (4)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장이 명사 상당어가 되어 곡용하는 예이다.

(4’) [NP(s그 일을 누가 하는가)s]NP가 문제다.

그런데 이기문 (1972: 177, 1998: 186)에서는 ‘X왜, X와를, X왜에’와 같이 공격으로 나열된 명사구의 곡용형에 격 어미를 붙이는 현상을 알타이 제어와 관련시켜 “집단 곡용”이라 불렀고 이는 안병희 · 이광호 (1990: 323-24)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 김완진 (1966)과는 이름만 같고 내용을 전혀 다르다.

그런데 (4)에 대하여 집단 곡용 (group declension)을 이름을 붙인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말의 전거도 분명치 않거니와 우리말의 격 어미, 첨사, 후치사 (고영근 2012)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 상당어에 붙는데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집단 곡용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현대 언어 유형론에는 이를 “double case” (플랑크 ed) (1995: 3-110)이라 부르거니와 우리말에서도 고영근 (2012: 94)에서 제안한 대로 “이중 곡용”이 국어학계에 보편화되고 있는 “집단 곡용”이나 생성문법 학계에서 선호되고 있는 “격조사 겹침” (case stacking)(최기용 2009: 351)보다 현상에 알맞은 용어라 생각한다. 이중 곡용은 김민수 (1970)의 이중 내지 삼중 복합형에 가깝다. 이중 곡용이라는 말은 Poppe의 할흐몽골어 문법 (1951)에 “doppelte Deklination”이란 이름으로 나온다.

한편 김완진 (1966)에서는 “집단 활용”이라는 말이 보인다.

(5) 가①. 사람이 있다/아버님이 계시다.

②. 개가 있다/선생님이 계시다,

나①. 박장군은 권총이 열자루 있으시다

②, 박선생님은 치아가 없으시다

(5가)는 주격 보족어명사구가 평대 명사나 공대 명사냐에 따라 동사가 평대 동사와 공대 동사로 분간되는 것이다. ①은 관계가 없는데 ②의 앞 예는 ‘개’를 ‘학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5가)는 직접 존경의 예이고 (나)는 간접 존경의 예이다. 김완진 (1966)은 (나)에서 ‘있-,

없-’은 ‘권총’과 ‘치아’에 걸리고 ‘-(으)시-’는 주제격 보족어명사구에 걸리는 것이니 집단 활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 곡용이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면 집단 활용 역시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활용이란 어디까지나 형태론의 개념이지 형태통사론의 영역이 될 수 없다.

4. 향가의 부정법과 직설법

삼국유사 소재 향가 24수에는 어미부의 ‘-如’를 ‘-다’로 읽어 그 기능을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6)가. 夜矣 卯乙 抱遺 去如 (서동요)

나. 來如 來如 來如 (풍요)

다. 功德 修叱如良 來如 (풍요)

김완진 (1980: 95)에서는 (6)의 ‘-如’를 ‘-다’를 적은 것으로 보고 현대역 (96쪽)에서는 ‘간다, 온다’와 같이 직설법 현재로 해석하였다. 다른 해독자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고대어의 시상법은 자료의 부족과 해독상의 문제가 걸려 있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주로 향가 자료와 석독 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고영근 (1981/1998, 2004/2007: 387-388)와 김영옥 (1999)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그 열개를 그려 보기로 한다. ‘ㄷ, ㅈ, ㅊ’가 중세어의 ‘ㄴ’ ‘노’. ‘(으)리’에 대응한다면 고대어에도 기본 서법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동요와 풍요의 ‘가다, 오다’로 해독되는 ‘去如, 來如’는 중세어의 부정법 (不定法, aorist)과 거의 일치한다. (6가)의 예는 고대어의 부정법을 대표하는 예로서 ‘갔다’로 해석된다. 현재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노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가)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안고 간 사실을 읊은 것이고 (나)는 서러운 중생의 무리가 공덕을 닦으러 온 사실을 읊은 것이다. (다)도 마찬가지다.

회상법은 석독 구결에서는 보이지 않고 향가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되어 있다. ‘ㄹ, ㄷ, ㅈ, ㅊ’는 중세어의 부차 서법의 하나인 ‘아, 거’와 대응된다는 점에서 부차 서법의 소급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법 형태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중세어의 기본 서법과 부차 서법으로 발달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대명률직해 등의 이 두 자료에 보이는 ‘爲有’는 ‘하야 잇 (다)’로 읽히고 동시에 진행과 완료상의 복합 범주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영근 2006), 고대어도 중세어와 같이 서법과 동작상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고려 가요에 나타나는 비존경의 연쇄 ‘-거시-’에 대한 해석

고려 가요의 <정석가>에는 다음과 같이 ‘거시’라는 형태소 연결형이 나온다.

(7)가.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나. 그 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양주동 (1947/1948/1954/1995:)에서는 (4)의 세 예에 나타나는 ‘시’가 범칭으로 쓰인 것이라고 하였고 김완진 (1975/1979: 11)에서는 앞의 (5나)와 같은 간접 존경으로 해석하였다. 곧 ‘밤’을 비롯하여 다음에 나오는 ‘꽃, 옷’과 함께 ‘聖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사용되었다는 김완진 (1975/1979: 1028)의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고영근 • 남기심 1997/2014:465).

그러는가 하면 15세기에는 앞의 (7)과 비슷한 조건에서 ‘-시-’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8) 가. 이제 **내** 하마 阿羅漢道를 得^하야 오래 病^홀 緣을 여희엿가시니 엇데 오늘 문득 ㅁ
슴 알포미 나거뇨(능엄경언해 5, 72)

나. **네** …如來入 三十二을 브토라커시니(<하거시니) ㄴ 愛樂^호노 (능엄경언해 1, 45)

다. 故園엿 **버드리** 이제 이어 떠러디거시니 엇데 시러곰 시름 가온디 도로 나느니오 (두
시언해 16, 51)

차이는 (7)은 주격 보족어명사구가 제3인칭인 데 대하여 (8)은 제1인칭 (가). 제2인칭 (나). 제3인칭 (다)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정동사형이 반어법으로 끝나는 것도 차이점이다.

위의 (7)(8)에 나타나는 ‘거’는 형태론적으로는 비타동사 아래 쓰이고 있다. 물론 얼마간의 예외도 있다. 문제는 ‘거’에 후행하는 ‘-시-’가 존경법의 ‘시’와 형태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경재 (2007)에서는 (8)(9)에 나타나는 ‘거시’를 이미 중세에 확립되어 있었던 동사 표지 및 확인법 ‘-거-’와 감동법 ‘-웃-, -듯-, -스-’의 복합형 (고영근 1981/1998/2011: 170,가와사키 2016: 190-197)으로 해석하였다. 그렇게 보면 ‘거시’의 ‘시’는 존경법의 ‘-시-’가 아니고 확인법 ‘것’의 접속 부동사형 ‘*것으니’가 전설모음화에 의하여 ‘것이니’로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본 것이다. 이곳에서는 중세 시기에 매개모음 ‘으’가 처음 아래에서 ‘이’로 변화하는 예로 다음을 들었다.

(9) 오직 내 향가시 죄 엿시매 마자 귀향가는 주를 설워 호노라 (속삼 충, 005b)

그런데 이 예는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할 것을 잘못 읽었음이 이병기 (2009)에서 지적되었다¹⁾.

(9') 오직 내 향가시 죄 엿시 매마자 귀향가는 주를 설워 호노라 (속삼 충, 005b)

대신 정경재 박사는 메일을 통하여 ‘잇고, 이시니’를 들고 있으나 중세어의 ‘이시-’는 어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좋은 예로 삼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9)의 잘 • 잘못과는 관계 없이 정경재 (2007)의 논법에 따르면 (8가)의 ‘여희엿가시니’는 ‘*여희야 잇갓(<것+오)으니>여희여 잇가시니’의 과정을 밟았다고 하겠다. 이 분석법을 (8나,

1) 본고의 초고를 검토한 정경재 박사는 2017. 7. 30일자 답변 메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병기 (2009)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하였다.

다)에 적용해 보면 ‘(나)의 ’브토라커시니‘는 ’*브토라 흐것으니>브토라 흐거시니‘로, (다)의 ’떠러디거시니‘는 ’*떠러디것으니>떠러디거시니‘로 분석된다. 이 분석법을 고려가요의 (7)에 적용하면 (가)는 ’*삭나것으샤>삭나거시아‘, (나)의 ’꿔거시아‘는 ’*꿔것으샤>꿔거시아‘, (다)의 ’헐어시아‘는 ’*헐것으샤>헐어시아‘와 같다. 문제는 (8)은 반어법으로 끝나는 데 대하여 (7)은 부동형으로 문장 접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월인석보 23, 85에 나오는 ’업거시아‘도 ’*업것으샤‘에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감동법과 확인법의 혼효형이 두시언해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미 석독구결이 달린 구역인왕경과 음독구결기림사본 능엄경에도 보인다는 보고 이승희 1996)를 보면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말머리를 땅아 올리며

이상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그 사이 생각해 오던 것을 정리하여 보았다. 동사의 어미 구조체는 시대와 관계 없이 “어간+선행 어미+어말 어미”의 구조체로 파악해야 하며 “집단 곡용”은 전거가 없는 용어이니만큼 “이중 곡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대어도 중세어와 같이 기본 서법과 부차 서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향가의 ‘去如, 來如’는 “不定法”(Aorist) (고노 1951, 고영근 1981/1997/2011: 84-95)으로 단순 과거이다. 고려 가요와 중세어의 ‘거시’는 ‘거/어’의 교체와 함께 미해결의 과제였었는데 전자는 고영근 (1980)에서 교체 조건을 밝힘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정경재 (2007)은 음운론적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던 음성 연결체 ‘거시’의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계에는 선학들의 견해라면 맹종을 하고 후학들의 견해에 대하여는 馬耳東風식으로 지나쳐 버리는 관행이 오래 전부터 몸에 배어 있다. 이를테면 “phonologically /morphologically conditioned의 ‘conditioned를 ”조건된’이라는 한 선학의 번역이 수십년 동안 잉용 (仍用)되어 왔는데 “조건되다”란 동사가 우리말에 없는 것이니 “조건 지어진” 내지 “조건에 의한, 제약을 받는”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한 일이 있다 (고영근 2004: 22). 잘못된 역어는 “선어말 어미”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지금까지 발표한 수백편의 논문과 50여권의 저서에서 뜻밖의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은 후학들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표 아닌 발표를 끝맺는 바이다 (2017. 7. 31일 저녁 분당 열락재에서) .

참고 논저

가와사키

2016. 중세 한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강길운

1988. 韓國語 系統論, 한국문화사.

고영근

2004,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국어학19-51.

2006, 시상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2011, 중세 국어의 시상과 서법 (제4판), 집문당.

2012, 민족어 격 어미 및 부치사, 침사 범주와 그 유형론적 함의, 국어학 65, 1-34.

2013, 민족어 동사의 형태부와 그 유형론적 함의, 형태론 15.1, 1-34.

고영근 남기심

공편, 2014, 중세어 자료강해 (보정판), 집문당

김민수

1970, 國語文法論, 일조각.

김영옥

1999. 전기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선청어문 27, 719-51.

김완진

1966. 집단 곡용(Group Declension)의 문제에 대하여. 동아문화, (6), 224-225.

1979, 文學과 言語 (國語學研究選書 7), 탑출판사.

1980, 鄉歌 解讀法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남풍현

원고, 고대 한국어, 2012에 번역되어 실림,

2012, “Old Korean”, in, N. Tranter (ed), Languages of Japan and Korea, (Routledge): 41-72.

2014가, 古代韓國語論攷, 태학사.

2014나, 國語史研究, 태학사.

안병희·이광호

1990, 中世國語 文法論, 학연사.

양주동

1995, 麗謠箋注 (梁柱東全集②), 동국대학교 출판부.

이기문

1972, 改訂 國語史概說, 민중서관/탑출판사.

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이병기

2009, ‘-거-’, ‘-게’, ‘-겠-’의 ‘대상성’ 논의와 역사적 가설, 학여와 함께 하는 국어학, 태학사

이승희

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정경재

2008. {-겠-}의 발달에 따른 [{-것-}]의 역스적 변화, 고려대학겨 국문과 석사논문,

최기용

2009, 한국어 격과 조사의 생성 통사론, 한국문화사

최현배

1929, 조선어 품사 분류론

1971, 우리말본 (최종판), 정음문화사

플랑크 (ed)

1995: Double Case: Agreement by Suffixaufnahme,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학 중앙연구원 편

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 (언간)의 역주 연구 1,2,3, 태학사.

영상처리를 통한 입꺄(口訣) 연구*

남경란(대구가톨릭대)

1. 서론

이 글은 영상 정보처리를 통해 석독 입꺄(口訣)과 음독 입꺄(口訣)¹⁾ 그리고 각필 부호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의 영상 정보처리는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과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 다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Adobe Photoshop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을 뜻한다.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는 한컴오피스 한글에 부가적으로 달려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구결 자형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는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그림이나 사진이나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그림일 경우에는 먼저 그 파일이 ‘그림 파일’, 즉 MBP(*.bmp)로 저장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면 우선 그 파일을 그림 파일로 바꾸어 실행하는 것이 좋다.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Adobe Photoshop의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dobe Photoshop 실행 창으로 사진 파일이 열리면 사진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 어떤 작업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선인지, 또는 점인지, 혹은 문자인지에 따라 작업하는 도구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는 다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하기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도구들은 연구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구결 자형 및 각필 부호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처리 도구들이다.

본 발표자가 소개하려는 정보처리법은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과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 그리고 ‘Adobe Photoshop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 ‘영상 처리 장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의 4가지 정보처리법이다. 이 가운데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과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 그리고 ‘Adobe Photoshop을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은 본 발표자는 지난 20여 년간의 구결 연구를 통해 쌓아온 영상 정보처리법이고, ‘영상 처리 장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기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방법이다.

* 이 글은 2017년 8월에 출간되는 ‘『한국어 정보학』 (남경란 저, 경인문화사)’의 내용 일부분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이 글에서는 ‘입꺄’를 편의상 ‘구결’이라 칭하기로 한다.

2. 영상 정보처리를 통한 구결 연구

2.1.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

한컴오피스 한글을 활용한 정보처리는 한컴오피스 한글에 부가적으로 달려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구결 자형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는 입력(D)의 하위 도구인 필드에서의 ‘양식 개체(J)’와 그림의 하위 도구인 ‘효과’와 ‘속성’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들 도구들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구결 자형 및 부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처리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그림 효과 활용법

입력(D)의 하위 도구인 필드에서의 ‘양식 개체(J)’는 ‘명령 단추 넣기, 선택 상자 넣기, 목록 상자 넣기, 라디오 단추 넣기, 입력 상자 넣기, 개체 속성, 코드 보기, 양식 편집 상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구결 연구를 위해 정보처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개체 속성(P)’이다.

<그림 1> 입력(D)의 하위 도구 ‘양식 개체(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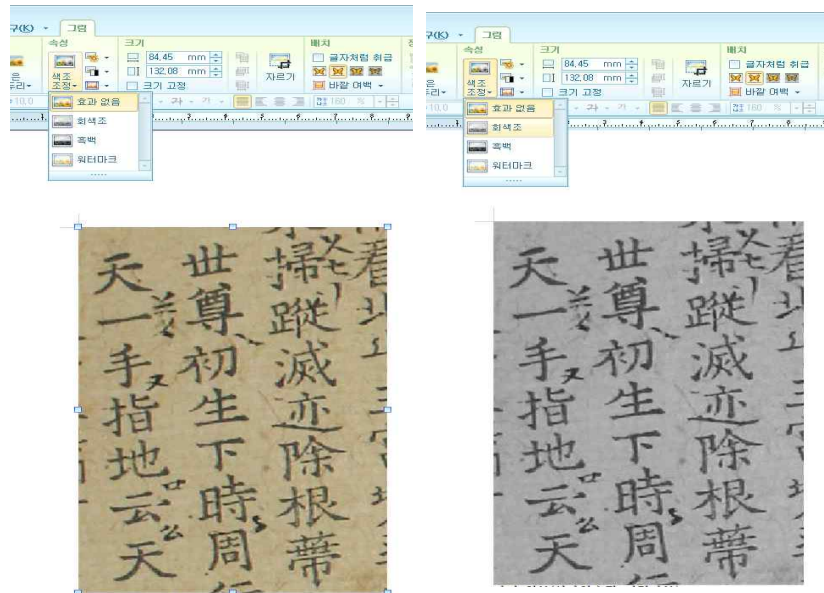
‘개체 속성(P)’은 다시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개체 회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본’과 여백과 캡션을 넣을 수 있는 ‘여백/캡션’, 선의 굵기와 종류, 곡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선’, 그림을 확대·축소하거나 여백과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 그밖에 ‘그림자’, ‘반사’, ‘네온’, ‘열은 테두리’의 하위 도구들이 있다.

<그림 2> 개체 속성(P)의 하위 도구

위와 같은 개체 속성(P) 가운데 구결 연구를 위해 정보처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도구는 바로 ‘그림’에서의 ‘그림 효과’이다. 이 도구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확대·축소하거나 그림의 여백과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그림에 ‘효과 처리’를 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구결 자형이나 부호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 개체 속성(P)의 하위 도구인 ‘그림’

그림에 처리할 수 있는 ‘효과’는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 없음’과 ‘회색조’, ‘흑백’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회색조’와 ‘흑백’이 아래에 제시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구결 연구를 위해 정보처리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인 처리로는 그림 하단의 ‘위터마크 효과’와 ‘그림 반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제시된 ‘밝기’와 ‘대비’를 더불어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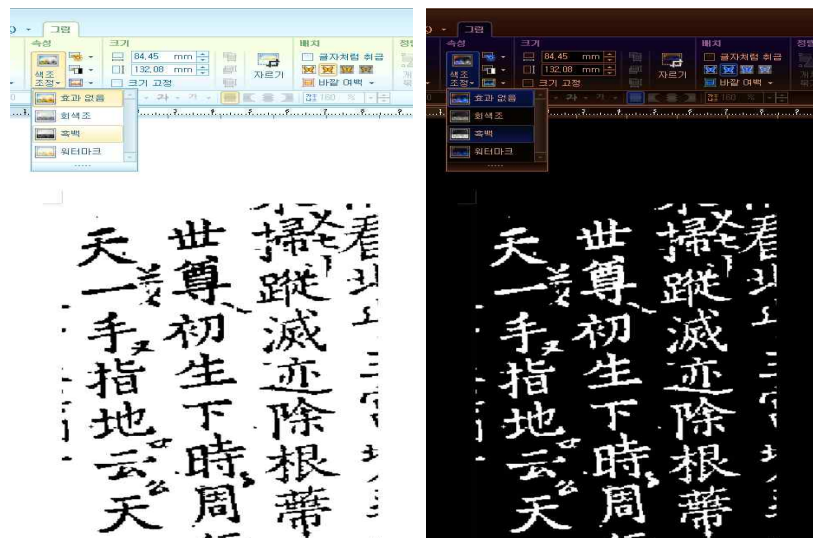


<그림 4> 효과 없음

<그림 5> 회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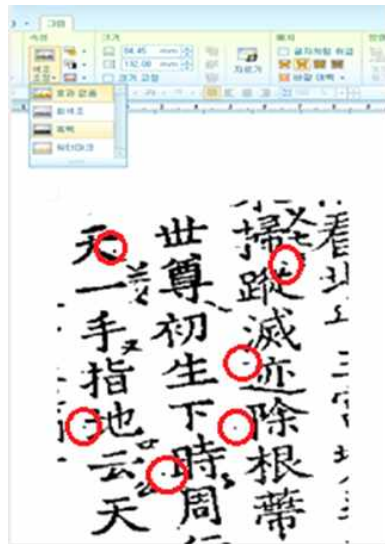
위의 그림 <그림 4>에서 효과 없이 원본의 사진에서 볼 때 자토 구결 이외에 묵서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나 흑백 도구를 사용하여 처리하면 <그림 6>에서와 같이 잡티나 종이 지질로 인한 실선들이 사라지고 먹이 사용된 부분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만약 <그림 6>의 처리로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위 <그림 3>의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단의 ‘반전’ 기법을 추가하면 <그림 7>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묵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그림 6> 흑백

<그림 7> 흑백 반전



<그림 8> 확인된 묵서

이와 같이 한컴오피스 한글에 부가적으로 달려 있는 도구 상자 중 입력(D)의 하위 도구 ‘양식 개체(J)’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구결 자형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아래의 <그림 8>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처리 기법은 연구 자료의 주요 부분의 구결 자형이 지워지거나 훼손되어, 공개된 사진 자료만으로는 구결 자형, 혹은 묵서의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그림 밝기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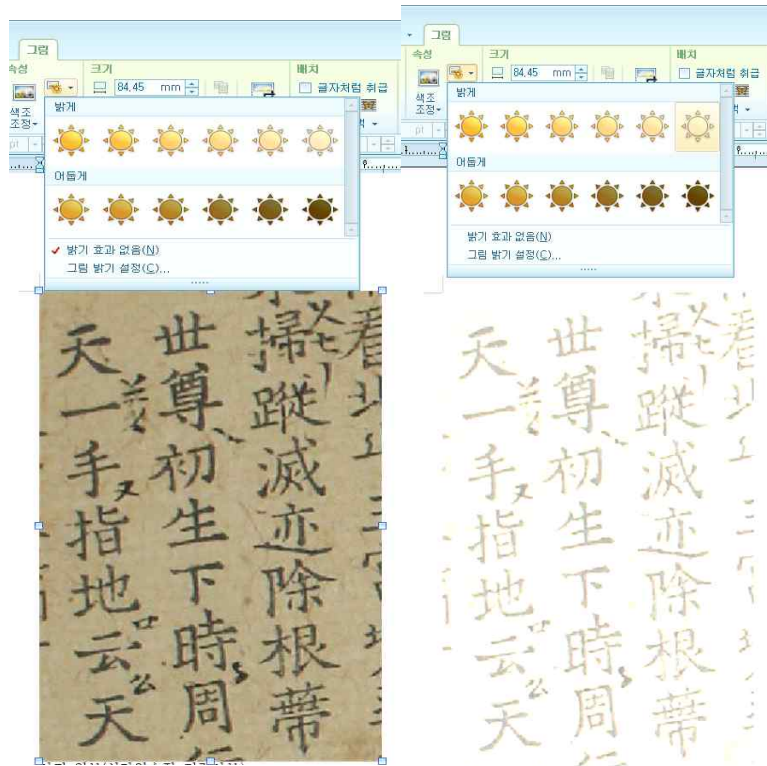
한컴오피스 한글의 도구 상자 가운데 그림의 하위 도구인 ‘그림 밝기’는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 메뉴판에서 ‘개체 속성(P)’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과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를 때 동시에 한컴오피스 한글의 상단 부분에 나타나는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림 10> 밝기 찾기 2

위의 2가지 방법은 단순히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그림의 하위 ‘밝기’를 찾는 방법일 뿐이다.

이들이 차이가 있다면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 메뉴판에서 ‘개체 속성(P)’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그 밝기의 비율을 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를 때 동시에 한컴오피스 한글의 상단 부분에 나타나는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는 그 비율이 대략 $\pm 10\%$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그 최고 비율도 $\pm 50\%$ 까지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처리를 할 경우에는 따로 밝기 효과 하단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 밝기 설정’을 다시 찾아 들어가 비율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림 11> 밝기 +5%

<그림 12> 밝기 +50

3) 그림 대비 활용법

한컴오피스 한글의 도구 상자 가운데 그림의 하위 도구인 ‘그림 대비’는 위에서 소개한 ‘그림 밝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 메뉴판에서 ‘개체 속성(P)’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과 정보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를 때 동시에 한컴오피스 한글의 상단 부분에 나타나는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 2가지 방법은 역시 단순히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그림의 하위 ‘그림 대비’를 찾는 방법 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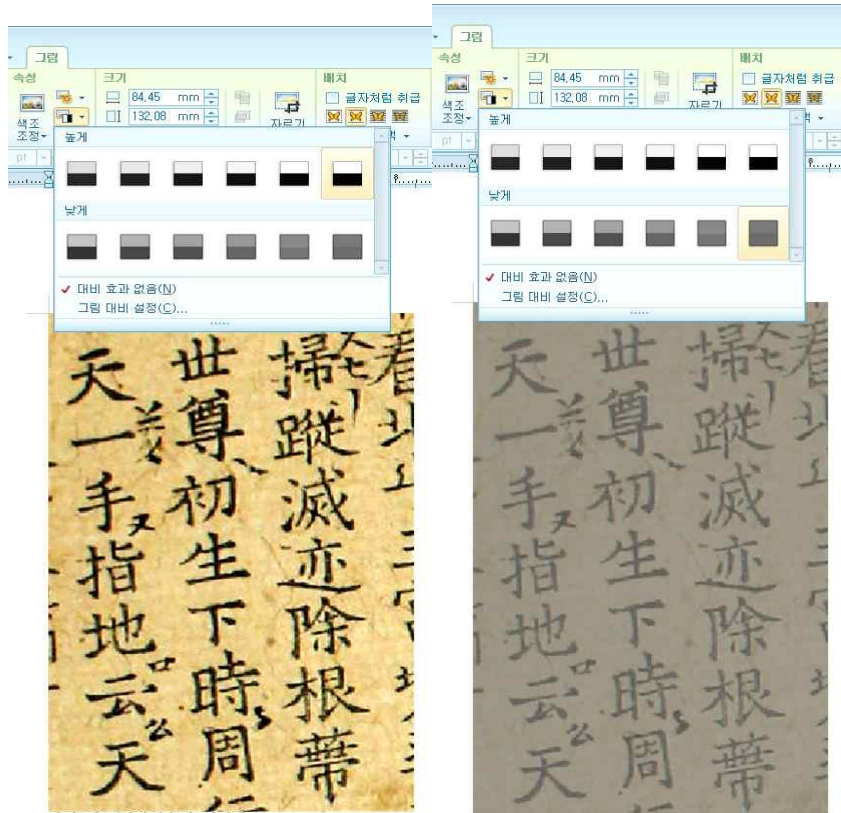
이들이 차이가 있다면 그림, 또는 사진을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나타나는 도구 메뉴판에서 ‘개체 속성(P)’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그 밝기의 비율을 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를 때 동시에 한컴오피스 한글의 상단 부분에 나타나는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는 그 비율이 대략 $\pm 10\%$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그 최고 비율도 $\pm 50\%$ 까지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 메뉴판의 ‘속성’을 이용하여 바로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처리를 할 경우에는 따로 밝기 효과 하단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 대비 설정’을 다시 찾아 들어가 비율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림 13> +대비 비율

<그림 14> -대비 비율

대비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비의 비율을 50%높일 때가 대비의 비율을 50% 낮출 때보다 구결자들의 기입 형태가 더 뚜렷하게 드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대비 +50%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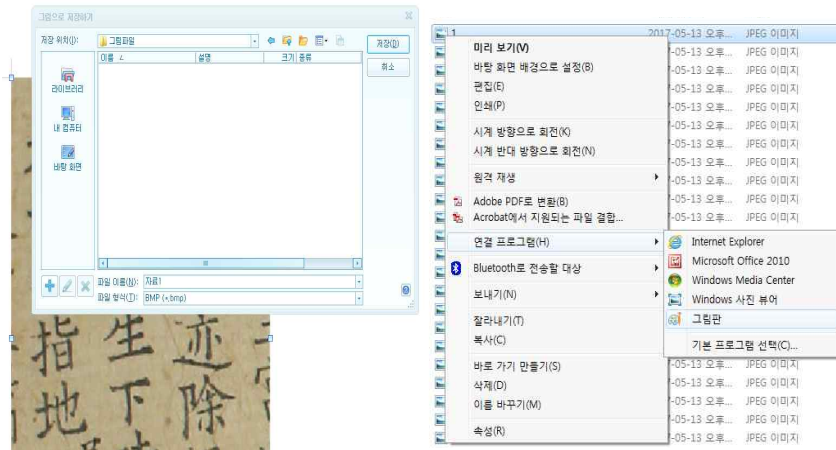
<그림 16> 대비 -50% 낮게

2.2.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는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그림이나 사진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그림일 경우에는 먼저 그 파일이 '그림 파일', 즉 MBP(*.bmp)로 저

장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림 파일로 바꾸어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림 16> 그림 파일로 저장하기 <그림 17> 사진 파일 처리 방법

이제 이 두 가지 자료들을 Window 그림판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구결 자형 및 부호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1) 그림 자료 처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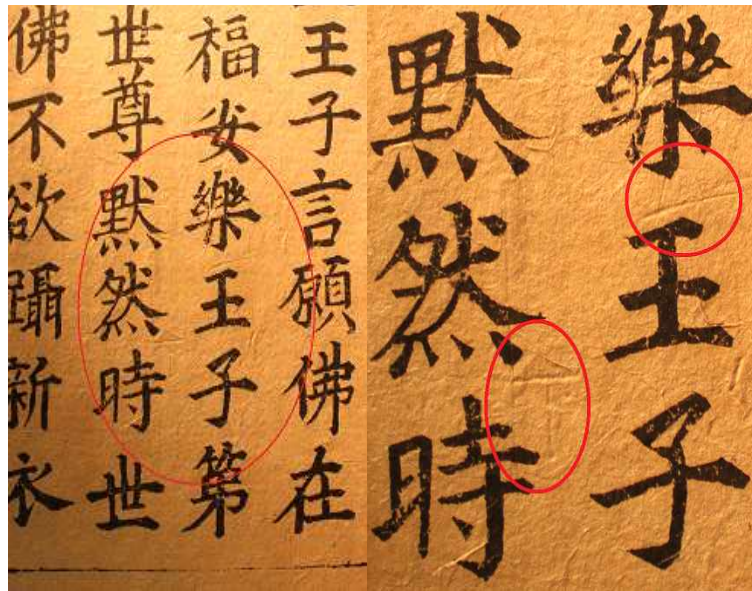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indow 그림판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그림일 경우에는 그 파일을 우선 '그림 파일MBP(*.bmp)'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림판을 열어 실행해야 한다.

Window 그림판을 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Window 그림판의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도구들은 정보처리자의 선택과 구미에 따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구결 자형 및 부호들을 보다 확인하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8> Window 그림판의 상단의 도구 메뉴

이러한 도구 활용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뾰족한 필기구로 눌러 쓴 각필 구결 및 부호들이다. 이들 각필 구결 및 부호들이 기입된 자료들은 대개가 초주대장경이거나 국가 혹은 불사를 통해 간행된 귀중 자료들로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원본을 접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원본 문헌이 아니라 주로 사진이나 그림 자료로 각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바로 Window 그림판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면 훨씬 더 유용하고 정확한 각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9> 원본 파일

<그림 20> 확대 단추 활용

위의 그림과 같이 원본 파일에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각필들이 Window 그림판의 하단의 확대 단추를 이용하여 그림을 확대하면 각필들이 선명하게 들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종이 질의 상태에 따라 보푸라기, 또는 종이 접힘 현상이 각필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각필인지 보푸라기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림판이 아니라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하면 선명하게 각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사진 자료 처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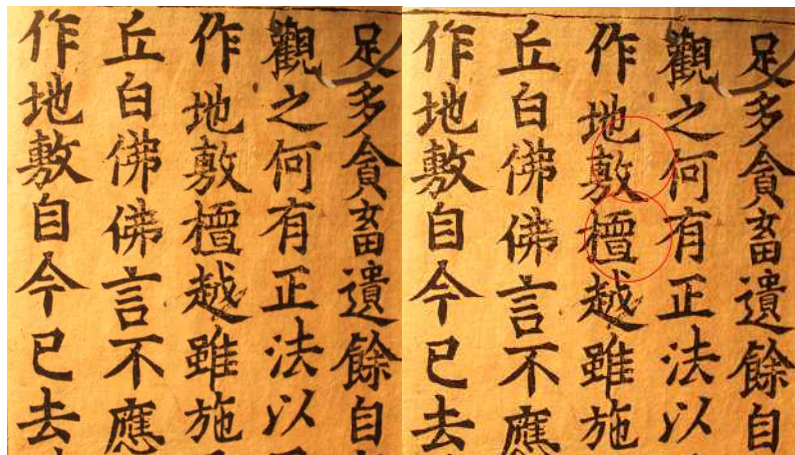
Window 그림판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할 자료가 사진일 경우에는 그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H)을 찾아 다시 오른쪽에 표시된 전각 기호 '▶'를 누르면 나타나는 연결 프로그램 가운데 그림판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Window 그림판을 열면 위의 그림 자료 처리법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Window 그림판의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난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들은 정보처리자의 선택과 구미에 따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구결 자형 및 부호들을 보다 확인하기 쉽도록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림 21> Window 그림판의 상단의 도구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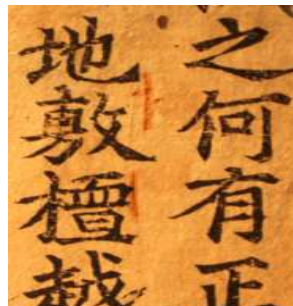
Window 그림판의 도구는 빠른 필기구로 눌러 쓴 각필 구결 및 부호들의 실체 확인들을 가공 처리할 때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연구자들이 육안으로 자료를 대충 훑어보고 지나쳐 놓쳐 버릴 수 있는 구결자와 부호들을 찾아 고대 국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원본 사진을 Window 그림판을 활용하여 각필 형태를 표시한 자료를 다시 사진 파일로 저장하더라도 각필의 형태는 정보처리자 이외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이 질의 상태에 따라 보푸라기, 또는 종이 접힘 현상이 각필처럼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각필인지 보푸라기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림 22> 원본 사진

<그림 23> 100% 비율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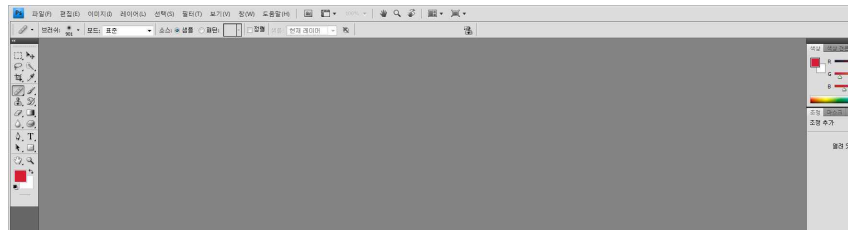
이 경우는 그림판이 아니라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선명하게 각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24> 가공 처리

2.3. Adobe Photoshop을 활용한 정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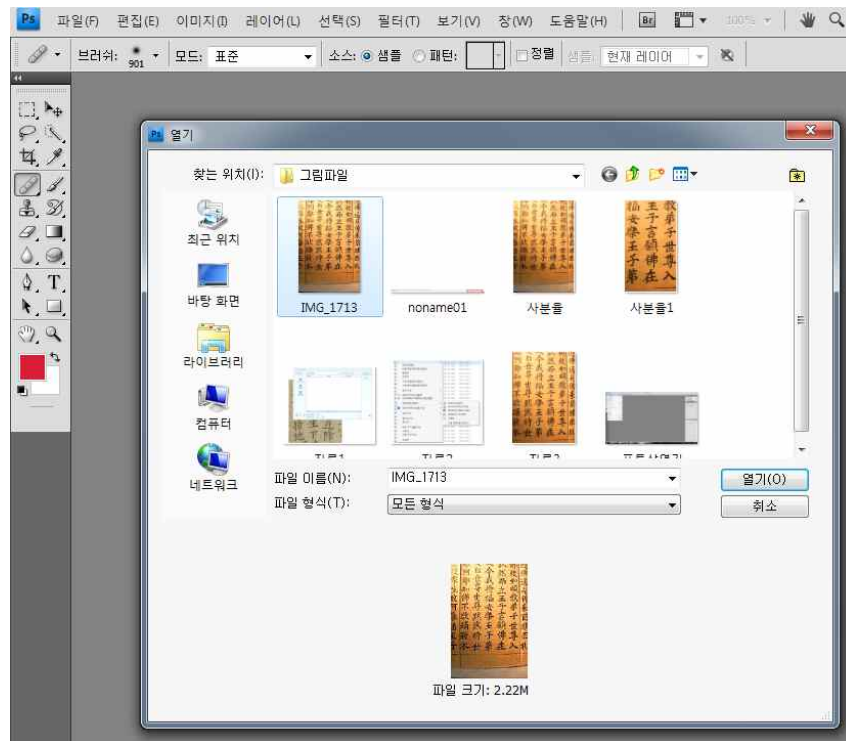
Adobe Photoshop을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Adobe Photoshop의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dobe Photoshop을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창이 열린다.



<그림 25> Adobe Photoshop 실행 창

실행된 창에서 파일 열기를 프로그램 가운데 그림판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이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보처리자가 정보 처리하고자 하는 사진 파일을 찾아 그 파일을 열어 Adobe Photoshop 실행 창으로 불러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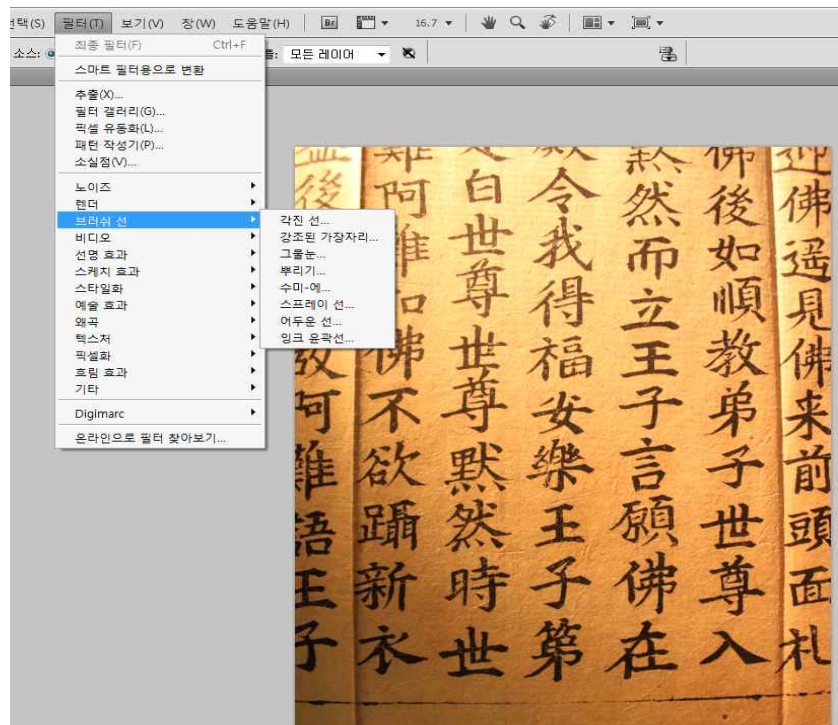
<그림 26> 사진 파일 찾기

Adobe Photoshop 실행 창으로 사진 파일이 열리면 사진의 어느 부분을 작업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 어떤 작업으로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선인지, 또는 점인지, 혹은 문자인지에 따라 작업하는 도구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dobe Photoshop 실행 창에서 할 수 있는 정보처리 방법으로는 ‘필터’ 메뉴를 활용하여 자료를 단순 확인하는 방법과 패널 도구 가운데 ‘번’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이 2가지 방법 가운데 ‘필터’ 메뉴 활용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1) 필터 메뉴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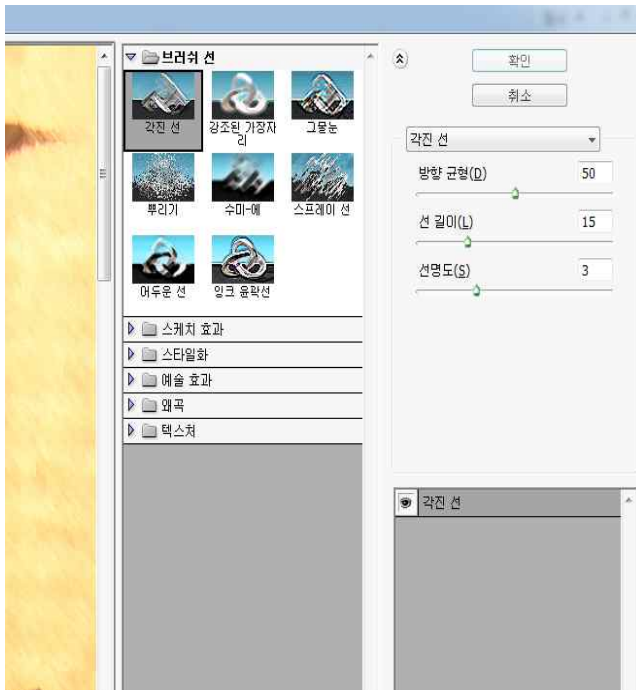
원본 사진이 열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obe Photoshop 실행 창의 상단에 있는 메뉴들 가운데 ‘필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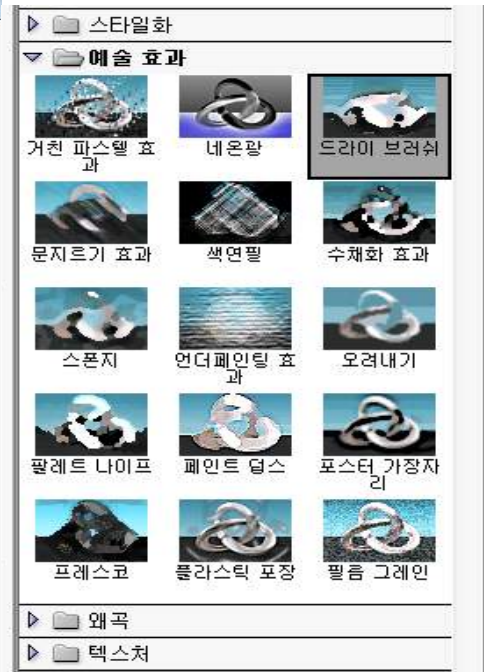
<그림 27> 필터의 하위 도구 창

상단의 ‘필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위 도구들로 갈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필터’의 하위 도구들로는 ‘노이즈, 렌더, 브러시, 비디오, 선명 효과, 스케치 효과, 스타일화, 예술 효과, 왜곡, 텍스트’ 등 있다.

이 가운데 Adobe Photoshop을 사용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활용 방법은 ‘필터’를 실행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실행 창의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예술 효과’와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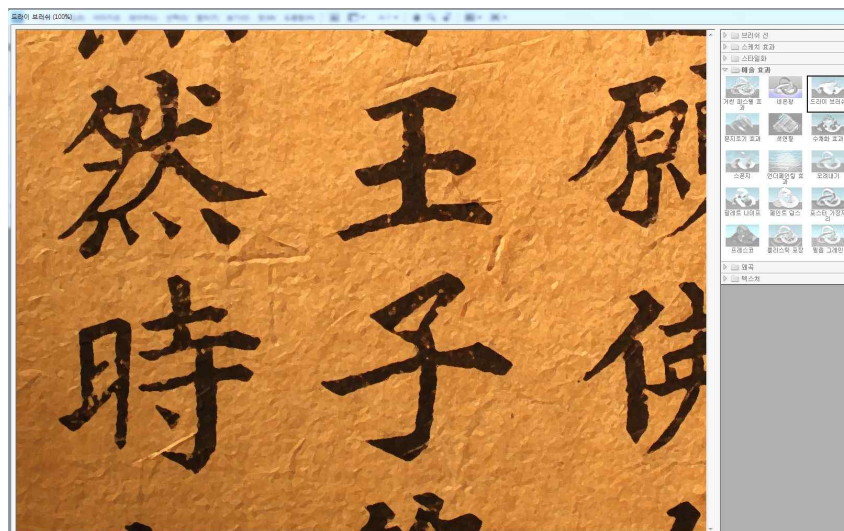
<그림 28> 필터 실행 창의 오른쪽 상단 도구 메뉴



<그림 29> 예술 효과 실행 메뉴

‘필터’의 ‘예술 효과’에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거친 파스텔 효과, 네온광, 드라이 브러쉬, 문지르기 효과, 색연필, 수채화 효과, 스펀지, 팔레트 나이프, 필름 그레인’ 등 15가지 도구들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이 브러쉬’이다.

‘필터’의 ‘예술 효과’ 가운데 ‘드라이 브러쉬’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dobe Photoshop 실행 창으로 불러온 원본 사진에 ‘드라이 브러쉬’ 도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30> 예술 효과 중 ‘드라이 브러쉬’ 실행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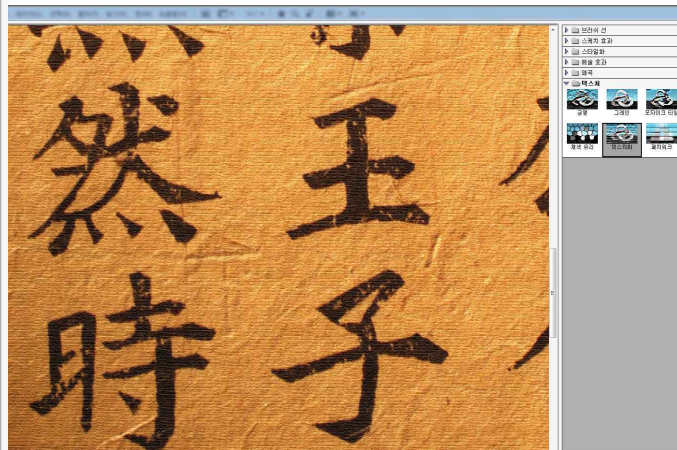
위의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의 ‘예술 효과’인 ‘드라이 브러쉬’를 실행하면 원본 사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각필들이 육안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선들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필터’의 하위 도구들 가운데 예술 효과 이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텍스처’를 들 수 있다. ‘텍스처’의 하위 도구에는 ‘균열, 그레인, 모자이크 타일, 채색 유리, 텍스처화, 패치워크’의 6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텍스처화’이다.

‘필터’의 ‘텍스처’ 가운데 ‘텍스처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dobe Photoshop 실행 창으로 불러온 원본 사진에 ‘텍스처화’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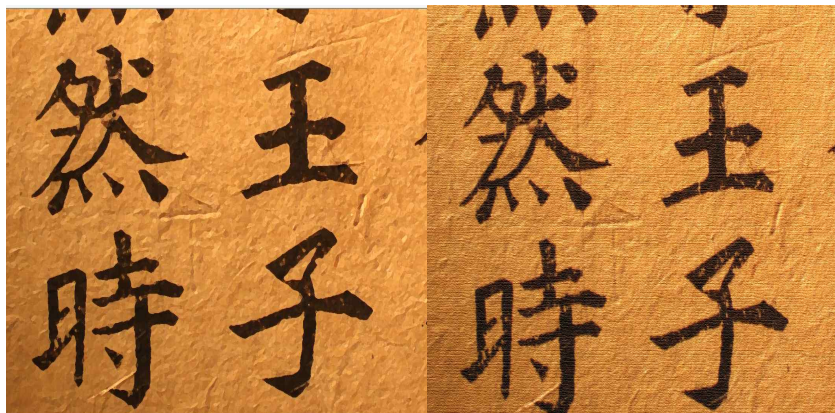
<그림 31> 텍스처 실행 메뉴



<그림 32> 텍스처 중 ‘텍스처화’ 실행 자료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터’의 ‘텍스처’인 ‘텍스처화’를 실행하면 원본 사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각필들이 육안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선들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확인한 ‘필터’의 ‘예술 효과’ 가운데 ‘드라이 브러쉬’와 ‘필터’의 ‘텍스처’ 가운데 ‘텍스처화’의 실행 최종 자료의 차이점은 ‘드라이 브러쉬’로 처리한 자료가 ‘텍스처화’로 처리한 자료보다 조금 더 선명하다는 점이다.



<그림 33> ‘드라이 브러쉬’ 자료 <그림 34> ‘텍스처화’ 실행 자료

위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처리 작업들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래의 <그림 35>와 같은 각필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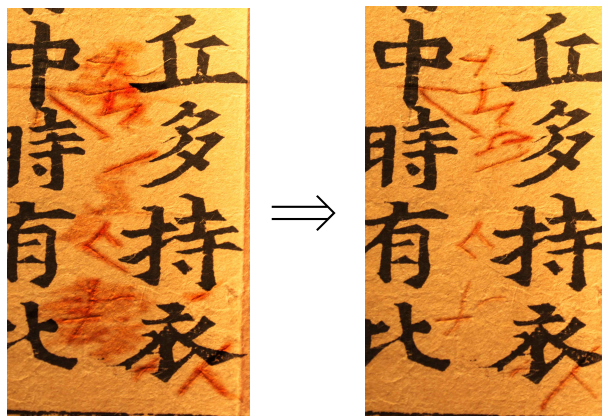


<그림 35> 최종 각필 자료

2) 번 메뉴 활용법

초보자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dobe Photoshop 실행 창의 상단 메뉴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중급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패널’ 도구 가운데 ‘번’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필터’는 단순 작업으로 자료의 정확성이 ‘번’ 도구를 활용할 때보다 떨어지며, 각필의 점과 선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번’ 도구를 활용하여 한두 차례 ‘문지르기’를 실행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남경란(2007-)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36> 불필요 부분 제거 작업

2.4. 영상 검사 장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영상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정보처리는 IT 분야의 자동 광학 영상 검사 장비(AOI)와

Open Source, Connected Devices과 Cyber Physical System(CPS)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²⁾이다.

이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한컴오피스 훈글을 활용한 정보처리’와 ‘Window 그림판을 활용한 정보처리’, ‘Adobe Photoshop을 활용한 정보처리’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때에 사용되는 영상 검사 장비의 경우는 일반 연구자들이 마음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장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가 있다.³⁾

CPS 시스템 구축은 네트워크 통신 방식의 부품을 사용하였고, 제어는 OpenCV를 활용하여 software를 제작하였다.

CPS에서 초점, 광도, 광색상 등을 변화시켜 촬영된 영상 중에서 최적의 영상을 도출하며, 이때 도출된 영상을 아래의 <그림 37>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의 구결 자료에서 판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집중 조명하여 자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7> CPS 시스템을 통한 자료 처리 과정

이때 최적의 배율은 3배로 높여 관찰하면 아래의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선명한 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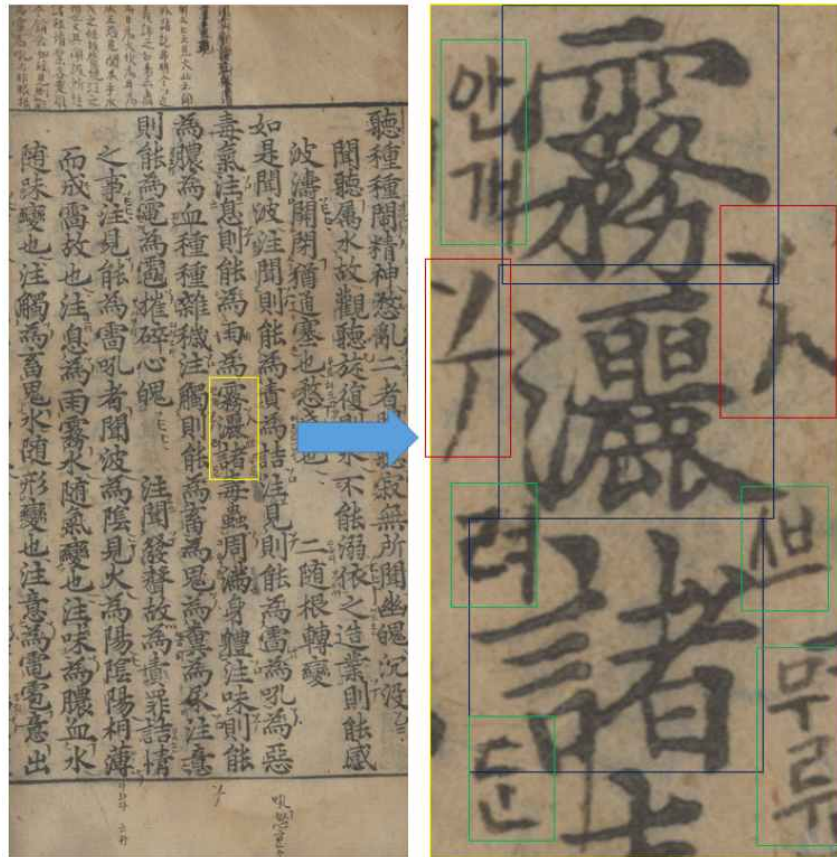
<그림 38> 3배율 처리 작업

-
- 2) 이 영상 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yungtae Kim 외(2017), “Image Acquisition for Inspecting Medieval Handwritings (Gugyeol) on Buddhist Scripture Using Open Source Platform”를 참조할 수 있다.
- 3) 이 장에서 제시한 자료의 원본의 권리는 본 연구자에게 있으며, 이 원본을 바탕으로 한 영상 장비 활용 정보처리는 한국생산기술원의 김형태 선임연구원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또한 이 장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들은 Hyungtae Kim 외(2017)에서 임의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본의 한자 ‘此’자 옆에 쓰인 구결결합형이 맨 처음에는 ‘ㄴㅇㅏ(이어오)’라고 썼다가 교정 과정에서 위에 덧칠하여 ‘ㄴㅇㅓㅣ(이엇다)’라고 수정한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의 구결자는 《능엄경》 권9의 2장 앞면 5행에 나타나는 것으로 원전의 원문은 ‘欲流則趨於生死雖至六天未足爲勝’이다.⁴⁾ 그리고 기존의 연구자가 육안으로 파악하고 인식했던 구결문은 ‘欲流ㄱ(은)則趨於生死ㄴㅇ(이니)雖至六天ㄴㅇㄱ(ㅎ야도)未足爲勝ㄴㅇㅏ(이어오)’이었으나 이번 영상 실험을 통해 ‘未足爲勝ㄴㅇㅓㅣ(이엇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이 CPS 시스템은 각필 형태뿐만 아니라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독 구결이나 혹은 한글 구결 형태를 확인하는 대로 매우 유용하며, 특히 세필로 필사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모든 자료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림 39> 능엄경 음독 구결 및 한글 구결 확인

4) 이 장에서 연구 자료로 사용된 《능엄경》은 15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다. 이 책의 크기는 16.8×29.8, 반광은 14.5×21.8cm이다. 권수제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八[九/十]’이고, 판심에는 흑구와 어미가 없다. ‘楞’이란 약호가 있고 11행, 22자이며, 계선은 없다. 구결의 형태는 묵서(墨書)로 되어 있으며, 책의 소장자는 본 연구자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구결의 연구 방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경전의 전문과 구결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연구자가 원하는 바대로 병행 배열한다. 그 다음 2차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구결이 기입된 권수와 장차 및 행수의 정보처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결 자형과 결합유형의 색인을 만든다. 만들어진 색인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능엄경》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구결 자료들을 모아 구결 자료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어사전 등을 활용하여 병행 배열된 구결 문장들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행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구결의 특성을 찾아 구결과 고대 및 중세 한국어의 상관성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일일이 연구자의 수작업과 직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과정 자체가 너무 지난하고도 어렵기 때문에 구결을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들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영상 장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방법이 보급된다면 지금까지 미완으로 남겨져 있던 문제들의 해결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승식(2002),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 검색』, 홍릉과학출판사.
- 김광해(2001), “국어정보화를 위한 어휘연구의 방향”, 『21세기 국어 정보화와 국어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연구소.
- 김병선(1994), “한국학 자료 전산처리의 기본 문제”, <정신문화연구>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경란(2002), “중세한국어 원시말뭉치를 이용한 한자와 번역어휘 용례의 전산화”, <<한국어정보처리(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03Ⅰ), “국어사 자료의 전산화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국어사 자료학회 전국학술 발표대회 발표 요지문.
- 남경란(2003Ⅱ): “중세한국어 연구를 위한 전산 처리 방안”. <민족문화논총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03Ⅲ): 『국어사 연구를 위한 국어정보처리법』. 경인문화사.
- 남경란(2004), “국어의 시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민족문화논총 2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14), “15세기 문헌자료의 전산화-연구자 중심 말뭉치 구축 및 활용”, <우리말연구> 제37집, 우리말학회.
- 남경란(2016), 새 資料, 初雕大藏經 南禪寺本 『四分律藏第三分』 卷四十의 角筆에 대하여,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 남경란(2017Ⅰ), 11세기 초조대장경 『四分律藏第三分』의 각필 부호 분석,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17), 『한국어정보학』, 경인문화사.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쪽.
- 롤란트 하우썸(2002), 『전산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정석진외(역).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소강춘(2001), “국어사 자료의 정보처리 방법론”, <국어문학> 36, 국어문학회.
- 소두영(1992), 『기호학』, 인간사랑.
- 연규동외(2003),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 태학사.
- 이기용(2002), 『전산형태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상억(2001), 『계량국어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태영(2001),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과목 개발의 필요성”, <한글문화 15>, 한글학회 전라북도지회.
- 정승은 외(2014), 『포토샵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 한국정보과학회·한국인지과학회(2000), “인간과 기계와 언어-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2000년도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 Hyungtae Kim 외(2017), “Image Acquisition for Inspecting Medieval Handwritings (Gugyeol) on Buddhist Scripture Using Open Source Platform.

명수법의 통시적 변화 연구

— ‘億’을 중심으로 —

최준호(서울대)

1. 서론

이 글은 근대 이전에 사용되었던 명수법(命數法)의 단위 값이 현재와는 달랐음을 당대의 문헌을 통해 기술하고, 이러한 단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단위 값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명수법(命數法)과 기수법(記數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명수법은 수를 말로 나타내는 것이고 기수법은 수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컨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100,000,000’로 나타내면 기수법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一億’이라고 하면 명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명수법에는 다양한 단위들이 사용되며,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명수법의 단위로는 ‘一, 十, 百, 千, 萬, 億, 兆, …’ 등이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一, 十, 百, 千, 萬’까지는 앞 단위의 열 배가 다음 단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億’부터는 ‘一萬, 十萬, 百萬, 千萬’을 거쳐 ‘萬’의 만 배가 ‘億’이 되고, 다시 ‘億’의 만 배가 ‘兆’가 되는 등 앞 단위의 만 배가 다음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億’을 ‘萬萬’으로 정의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과거에 ‘億’은 때로는 ‘十萬(10^5)’으로, 때로는 ‘千萬(10^7)’으로, 때로는 ‘萬萬(10^8)’으로 정의되기도 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현대한국어에서 ‘億’은 ‘萬萬’이라는 의미로 굳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즉,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과거에 ‘億’을 비롯하여 ‘億’보다 큰 ‘兆, 京’ 등의 단위 값이 혼동되어 사용되다가, 근대에 오면서 동아시아 삼국이 모두 동일하게 ‘一’부터 ‘萬’까지는 열 배씩, ‘萬’부터는 만 배씩 커지는 ‘만진법(萬進法)’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수사가 중국을 통하여 전파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한자어는 처음에는 비슷한 의미였을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 안에서 그 의미가 분화한다. 일례로 ‘人間’이라는 단어의 경우 과거에는 ‘사람이 사는 세계’라는 의미였으나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사용되었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한·중·일의 언어에서 명수법의 단위 값이 모두, 그것도 동일하게 바뀌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중국 문헌에서 예전부터 나타나고,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바뀐 ‘經濟’, ‘社會’,

1)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수사는 한자어 수사에 한정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의 수사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로 양분된다. 양자는 그 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 수를 셀 때는 주로 고유어 계열을 사용하고, 수를 읽을 때나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는 한자어를 사용한다. 현대한국어에서 고유어 수사는 ‘하나’부터 ‘아흔아홉’까지 百 이하에만 사용되고, 중세국어에서 사용되었다가 소멸된 ‘온’이나 ‘즈믄’ 등의 고유어 수사 역시 관용적인 용법이나 관형어로만 사용되었다. 이들 고유어 수사는 통시적으로 의미가 변화하지 않았기에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文化’, ‘自然’ 등의 단어들은 일본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번역어’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아시아 삼국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근대 개념어들은 이렇듯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명수법의 단위 값이 변화한 이유를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명수법의 단위 값이 천 배씩 커지는 ‘천진법(千進法)’이 사용되는데,²⁾ 어째서 한·중·일의 명수법 단위 값은 만 배씩 커지는 ‘만진법(萬進法)’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서구 문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 간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명수법의 단위 값이 바뀐 현상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자료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한·중·일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김병덕(1994, 1995, 1999)는 과거의 산학서(算學書)와 일제 강점기 및 그 이후에 나온 산학(算學) 교과서를 바탕으로 명수법의 단위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의 명수법을 주제로 연구된 거의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글 역시 김병덕(1994, 1995, 1999)의 연구 성과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문제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명수법에 대해서 수학사(數學史)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이전 시기의 경우 산학서만을 자료로 삼고 있고, 따라서 산학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되었던 명수법의 단위 값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병덕(1999: 54)에서는 열 배씩 커지는 단위 수에 대해서 “字典에서 數詞의 字義로 지금도 觀念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는 2장에서 열 배씩 커지는 단위 체계가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산학서에서 명수법의 단위가 어떠한 값을 가졌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중·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영향 관계는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두 가지 한계점을 의식하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명수법에 관한 연구는 지금껏 수학사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數’는 수학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언중들의 언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따라서 단순히 산학서만을 대상으로 명수법의 단위를 고찰할 경우 이러한 단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놓치게 된다. 이는 수학사 연구라고는 할 수 있어도 국어사 연구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산학서를 포함하여 언해자료, 한문자료, 근대의 잡지, 신문, 교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명수법의 단위 값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의 부제가 보여주듯 이 글의 초점은 상당부분 ‘億’에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億’이라는 단위가 매우 큰 수이기는 하지만 근대 이전의 문헌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수이며, 그렇기에 의미의 통시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億’이라는 단위는 인구수나, 돈을 셀 때가 아니면 실생활에서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위이다. ‘億’보다 큰 ‘兆’나 ‘京’ 등의 단위는 현대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근대 이전의 문헌에 관용적인 쓰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億’이라는 단위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우선 집중하고, 이어 ‘億’이 놓여있는 명수법의 단위 값 체계 전반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고자 한다.

2) 영어의 경우 ‘thousand(10^3), million(10^6), billion(10^9)’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천 배씩 커진다.

이 과정에서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두 가지의 명수법 단위 체계가 공존했으며,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체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수법 단위 체계는 개화기 시기의 산학 교과서를 통해 정착되었음을 논의할 것이다.

2. 근대 이전 한국 문헌에 나타난 ‘億’의 두 가지 의미

이 장에서는 우선 근대 이전의 한국 문헌을 바탕으로 ‘億’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우선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는 ‘億’의 정의로부터 출발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억04 (億)

「수사·관형사」

만(萬)의 만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이 공사 몇 억 들었어요?』 이 화석은 몇 억 년 전의 것이니?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億’의 현대적인 의미는 ‘萬’의 만 배가 되는 수, 즉 ‘萬萬’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億’의 의미가 ‘萬萬’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2.1. ‘萬’의 열 배로서의 ‘億’

이 장에서는 ‘億’이 ‘十萬’으로 사용된 예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아래는 『월인석보(月印釋譜)』에서 ‘億’이 사용된 예이다.³⁾

- (2) 光音天이 한 비를 느리와 브리 下界에 ㄹ독 ㅎ야 기피 十一億二萬由旬이러니 **[億은 열 萬 이라]** 由旬은 마흔 里라] <『월인석보』 1:39>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월인석보』의 협주에서는⁴⁾ ‘億’을 현대한국어에서 쓰이는 의미와 같이 ‘萬萬’으로 풀이하지 않고, ‘열 萬’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는 ‘萬’의 열 배에 해당하는 단위로 ‘十萬’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億’이 사용된 것이며, 이때 사용된 ‘億’의 의미는 현대한국어의 ‘十

- 3) 15세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UNICONC에서 ‘億’을 검색하면 대부분 불경을 언해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불경을 언해한 자료에서 ‘億’의 용례를 조사하면 ‘千百億, 百千萬億, 億千’ 등 단위가 겹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는 정확한 숫자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라는 것을 과장해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億’이 관용적으로 쓰인 예들은 제외하고, ‘億’의 의미를 협주에서 풀이한 것이나, ‘億’이 명확하게 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예들만을 검토한다.
- 4) ‘億’의 값에 대한 정의가 협주에 나타나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고영근(1987/2010: 3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협주는 불경의 원전에서 번역한 주석문이 아니며, 언해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전을 전제하지 않고 부가적으로 설명한 역주(譯註)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협주는 당대 사람들이 어떤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2)나 (3)과 같은 예문은 당대 사람들이 ‘億’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알게 해 주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다.

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한편 같은 책의 협주에서 ‘億’은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였다.

(3) [千百億은 百億곱 호니 一千이라 혼 마리니 즈른 萬이 億이라] <『월인석보』 2:54나>

(3)은 ‘천백억화신 석가모니(千百億化身 釋迦牟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협주이다. 여기서는 ‘億’을 ‘즈른 萬’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한 책 안에서도 ‘億’에 대한 풀이가 달라지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億’의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億’을 ‘즈른 萬’으로 풀이하는 것은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4) 風俗 通에 云호되 十萬曰億이오 十億曰兆ㅣ오 十兆曰京이오 十京曰姦라 호니라 爲揚大之數ㅣ니 卽所謂那由他也ㅣ라 [風俗 通에 닐오되 十萬을 닐오되 億이오 十億을 닐오되 兆ㅣ오 十兆를 닐오되 京이오 十京을 닐오되 姦라호니 姦는 모든 큰 數ㅣ니 곧 니르 是 那由他ㅣ라] <『법화경언해』 3:186ㄱ>

(4)는 『법화경언해』의 한 구절로서, 불경에서 사용되던 명수법의 단위 체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문이다. (4)에서 알 수 있듯이 ‘一, 十, 百, 千, 萬’까지의 단위 수가 열 배씩 커지는 것과 동일하게 ‘萬’보다 더 큰 단위인 ‘億, 兆, 京, 姦’ 역시 이전 단위 값의 열 배가 다음 단위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億’을 ‘十萬’으로 파악하는 예문은 불경을 언해한 자료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十萬’이라는 값으로 사용된 ‘億’이 불경을 언해한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 百이 열이면 千이라 하고, 千이 열이면 萬이라 한다. 萬이 열이면 億이라 하고, 億이 열이면 兆가 된다. 兆가 열이면 京이라 하고, 京이 열이면 秭(자)라 한다. 秭가 열이면 垓(해)라 하고, 垓가 열이면 補(보)라 한다. 대체로 京兆尹(중국 한나라 때 수도를 지키고 다스리던 관직을 의미하며, 조선시대에 한성판윤(漢城判尹)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 인용자)이란 칭호는 역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필담(筆談)』에서 말하기를, “算家에서는 萬이 萬이면 億이라 하고, 萬萬億을 兆라 하고, 萬萬兆를 垓라고 한다.”라고 했다.

『완위여편(宛委餘編)』에 말하기를, “後漢에서 남단우(南單于)에게 1億 9,000餘萬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1億은 1萬이 萬번인 것이다. 『운회(韻會)』에 말하기를, “10萬을 億이라고 하는 것은, 옛 숫자이다. 秦나라 때에 제도를 고쳐서 비로소 萬萬을 1億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十百曰千, 十千曰萬, 十萬曰億, 十億曰兆, 十兆曰京, 十京曰秭, 十秭曰垓, 十垓曰補. 蓋京兆尹之稱, 亦以人衆而言也. 又筆談云, 算家以萬萬爲億, 萬萬億爲兆, 萬萬兆爲垓. 宛委餘編云, 後漢供南單于一億九十餘萬, 然則一億爲一萬萬也. 韻會曰, 十萬曰億, 古數也. 秦時改制, 始以萬萬爲億云.) <『지봉유설』 제17권 「數名」>⁶⁾

5) 다만 위의 문장만으로는 ‘億’의 열 배의 의미로 ‘兆’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만일 ‘十億’의 의미로 ‘兆’가 사용되었다면 ‘十一億二萬由旬’이 아니라 ‘一兆一億二萬由旬’으로 표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한국어에서도 ‘億’이라는 단위는 돈에 대해서나, 세계의 인구를 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위가 아니며, ‘兆’라는 단위는 현대한국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수가 아니다. 중세한국어에서도 ‘億’ 이상의 단위가 사용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에 ‘十一億二萬由旬’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명수법의 단위 체계가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은 1614년에 완성되고 1633년에 발간된 것으로서, (5)와 같이 수에 관한 항목이 등장한다.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위 체계는 『법화경언해』에서의 단위 체계와 동일하다. 또한 여기서 이수광은 산학가들은 다른 단위 체계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3.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15세기에 쓰인 『법화경언해』에도, 17세기에 쓰인 『지봉유설』에도 열 배씩 커지는 단위 체계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다. 다만 이 두 예는 단위 값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 (6) 「**백이전(伯夷傳)**」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 「노자전(老子傳)」, 「분왕(分王)」, 「벽력금(霹靂琴)」, 「주책(周策)」, 「능허대기(凌虛臺記)」, 「의금장(衣錦章)」, 「보망장(補亡章)」은 **2만 번**을 읽었다. 「제책(齊策)」, 「귀신장(鬼神章)」, 「목가산기(木假山記)」, 「제구양문(祭歐陽文)」, 「중용서(中庸書)」는 **1만 8천 번**을 읽었다.(伯夷傳讀一億一萬三千番。老子傳, 分王, 霹靂琴, 周策, 凌虛臺記, 衣錦章, 補亡章讀二萬番。齊策, 鬼神章, 木假山記, 祭歐陽文, 中庸序讀一萬八千番。) <『백곡집』 부록 「독서기」 >

(6)은 백곡 김득신(柏谷 金得臣, 1604~1684)이 작고한 이후 출간된 『백곡집(柏谷集)』의 부록 「독서기(讀書記)」에서 발췌한 것이다. 백곡 김득신은 다독을 했던 선비로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이름을 남겼던 선비이다. 「독서기」에서 김득신은 자기가 어떤 책을 몇 번 읽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고 있다.

(6)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김득신이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는 구절이다. 이때문에 그는 자신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 칭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億’이 ‘十萬’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 체계로 표현하자면 김득신은 「백이전」을 11만 3천 번 읽은 것이다. 이는 ‘億’이 ‘十萬’이라는 개념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었음을 알려 주는 예문이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그의 문집에서 김득신의 「독서기」를 변증하는 (7)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는다.

- (7) 김백곡은 그의 「독서기(讀書記)」에 자기가 읽었던 여러 책의 읽은 번수(番數)를 기록하였는데,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의 경우는 무려 1억 3천 번을 읽었다 하였다. (...중략...) 비록 그러나 그옥이 생각해 보건대, 독서를 잘 하는 선비라면 하루에 「백이전(伯夷傳)」을 1백 번은 읽을 것이다. **그렇다면 1년에 3만 6천 번은 읽을 수 있어서 3년을 계산하면 간신히 1억 8천 번을 읽을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사이에 질병(疾病)의 우환(憂患)과 왕래(往來)의 문답(問答)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金柏谷「讀書記」, 記讀諸書之數, 而『史記·伯夷傳』至一億一萬三千番。(...중략...) 雖然, 竊嘗思之, 士之善讀書者, 一日當讀「伯夷傳」百番, **卽一年可以讀三萬六千番, 計三年僅可讀一億八千番矣**。其間亦豈無疾病憂患往來問答哉?)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제12권 「김백곡 독서변」 >

다산은 ‘3만 6천 번’을 세 번 곱했을 때, ‘10만 8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8천 번’이

6)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서를 참조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서 모아서 밝히고자 한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번역한 경우에는 (번역은 인용자)라고 표기할 것이다.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다산의 수 체계 안에서 ‘億’은 ‘十萬’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상에서 우리는 ‘十萬’의 의미로 ‘億’이 사용되는 것이 김병덕(1999: 54)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관념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다산이 살았던 19세기 중반까지는 ‘億’이 ‘十萬’의 의미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2.2. ‘十萬’보다 큰 값으로 사용된 ‘億’

근대 이전 자료 중에서 ‘億’이 ‘十萬’으로 사용되었을 때를 제외한다면, ‘億’의 값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億’의 값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위의 몇 배에서 ‘億’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3만 6천 번’을 세 번 곱하면 ‘10만 8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8천 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萬’의 열 배가 ‘億’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체계에서는 ‘十萬, 百萬, 千萬’ 등의 수가 나타날 수 없다. 설령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수를 나타내기 위해 ‘千百億, 百千萬億, 億千’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지칭하기 위한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자료 중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지칭할 때, ‘億’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十萬’ 혹은 ‘百萬’이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경우 ‘億’은 적어도 ‘十萬’이나 ‘百萬’보다 큰 값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億’이 ‘十萬’으로 사용되었다면, ‘十萬’이라는 단위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億’이 ‘十萬’ 혹은 ‘百萬’보다 큰 값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서술되어 있는 호구수와 인구수에 관한 기사이다.

(8) ㄱ. 충청도의 전답(田)은 22만 3천 90결이고, 호(戶)는 1만 9천 5백 61이며, 구(口)는 4만 8천 4백 76이다. 전라도의 전답(田)은 17만 3천 9백 90결이고, 호(戶)는 1만 5천 7백 3이며, 구(口)는 3만 9천 1백 51이다. 경상도의 전답(田)은 22만 4천 6백 35결이고, 호(戶)는 4만 8천 9백 92이며, 구(口)는 9만 8천 9백 15이다. (忠淸道田二十二萬三千九十結, 戶一萬九千五百六十一, 口四萬四千四百七十六。全羅道田一十七萬三千九百九十結, 戶一萬五千七百三, 口三萬九千一百五十一。慶尙道田二十二萬四千六百二十五結, 戶四萬八千九百九十二, 口九萬八千九百十五。) <『태종실록』 태종 4년(1404) 4월 25일>

ㄴ. 한성부(漢城府)에서 금년 호구(戶口)의 수를 올렸는데, 서울과 8도(道)를 합하여 호수가 1백 23만 4천 5백 12호이고, 인구가 4백 70만 3천 5백 5구(口)이었다. (漢城府上今年戶口之數。合京中及八道, 戶一百二十三萬四千五百十二, 人口四百七十萬三千五百五口。) <『숙종실록』 숙종 1년(1674) 10월 27일>

ㄷ. 한성부에서 민수(民數)를 바쳤는데, 호수(戶數)는 1백 71만 5천 3백 71호이고, 인구는 7백 23만 8천 5백 23명이었다. (漢城府獻民數, 戶一百七十一萬五千三百七十一, 口七百二十三萬八千五百二十三。) <『정조실록』 정조 1년(1777) 12월 29일>

ㄹ. 한성부(漢城府)에서 오부(五部), 팔도(八道), 제주(濟州) 등 세 고을의 인구수를 보고 하였다. 원래의 총 호구수(戶口數)가 179만 3,922호이고, 인구는 남녀 합하여 671만 7,453명인데 그 중 남자가 337만 5,572명이고 여자가 334만 1,801명이다.

(京兆獻民數。五部、八道及濟州等三邑都, 元戶一百七十九萬三千九百二十二戶, 人口男女並六百七十一萬七千四百五十三口, 男三百三十七萬五千五百七十二口, 女三百三十四萬一千八百一口。) <『고종실록』 고종 22년(1885) 12월 30일>

(8)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인구수와 호구수에 관한 기사 중에서 수 단위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예문을 추린 것이다. (8ㄱ)을 보면 15세기부터 ‘二十二萬’, ‘一十七萬’ 등의 숫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億’이 ‘十萬’으로 사용되는 수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었고, 이 체계만 사용이 되었다면 위의 숫자들은 각각 ‘二億二萬’, ‘一億七萬’으로 나타났어야 한다. 그러나 15세기 초부터 (8ㄱ)과 같은 수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億’이 ‘十萬’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다른 체계가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8ㄴ), (8ㄷ), (8ㄹ)은 각각 17세기, 18세기, 19세기 기사들이며, 여기서는 ‘十萬’뿐만이 아니라 ‘百萬’도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실학자들의 저서에는 ‘億’의 값을 보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예문들이 나타난다.

(9)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태양천의 직경은 3천 6백 16만 리다. 그 절반이 지구의 중심이 되면 그 사이는 1천 8백 8만 리가 되고, 사람이 지구의 중심에 가기는 1만 5천 리가 되면, 태양과 사람 사이는 실제로 1천 8백 6만 5천 리가 된다. (…중략…) 여기서 1도를 빼면 열수천의 둘레가 되어서 그 거리는 5억 3천 5백 81만 2천 6백 97리가 된다. (以此推之太陽天徑三千六百一十六萬里。半之爲地心則爲一千八百八萬里, 人去地心一萬五千里, 則太陽之去人實爲一千八百六萬五千里也。 (…중략…) 則一度之行準地一千三百七十八萬七千三百零三里也。除一度爲列宿天之圍, 則爲五億三千五百八十一萬二千六百九十七里也。 >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 「일천지행」)

(9)는 성호 이익(星湖 李瀲,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僊說)』(1760)에 나오는 것이다. (9)에서는 ‘千萬’이라는 단위와 ‘億’이라는 단위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億’이 ‘千萬’보다 큰 값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과 (9)의 예문들은 모두 인구수나 호구수, 혹은 천문(天文)에 관한 수들로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큰 단위의 수들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조선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큰 단위의 수를 표기해야 할 경우에는 ‘億’이 ‘十萬, 百萬, 千萬’보다 더 큰 값으로 사용되는 단위 체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2.1.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명수법의 단위 체계가 필요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億’이 ‘十萬’의 값으로 사용된 것이고, 두 번째는 ‘億’이 ‘千萬’보다 큰 값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두 체계는 사용된 영역이 서로 다르다. ‘億’이 ‘十萬’으로 사용된 경우는 불경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그다지 큰 수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 반면 ‘億’이 ‘千萬’ 이상의 값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인구수나 호구수를 파악하거나, 천문에 관한 숫자 등을 다뤄야 할 때였다.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큰 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十萬’으로 ‘億’을 사용하기에는 ‘億’의 값이 너무 작았다. 따라서 ‘億’을 ‘十萬’이 아닌, ‘千萬’ 이상의 값으로 확대하여 사용한 것이다.

3. 명수법 단위 값의 변화 - 한·중·일의 산학서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한·중·일의 산학서를 중심으로 명수법의 단위 값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장에서 살펴본 두 체계, 즉 ‘億’을 ‘十萬’으로 파악하는 체계와 ‘億’을 ‘千萬’ 이상으로 파악하는 체계는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발명해 낸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3.1. 중국의 고전 산학서에 나타나는 명수법의 단위 값

吳文俊 主編(1999: 92)에 의하면 중국은 문자에 의한 기록이 시작된 이후, 숫자를 기록할 때는 주로 십진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은대(殷代)의 갑골문과 서주(西周)의 금문은 모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萬’ 등의 글자를 합쳐서 10만 이내의 자연수를 표기하였는데, 모두 십진법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후 사회와 수학의 발전에 따라 10만보다 더 큰 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萬’보다 큰 수(大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후한(後漢)의 서악(徐岳)이 저술한 『수술기유(數術記遺)』 7)에 나타나 있다. 8)

(10) 황제가 법을 만들때, 수에는 열 가지 등급을 두었다. 그 쓰임에 이르러서는, 곧 세 가지가 있다. 열 가지 등급은 억(億), 조(兆), 경(京), 해(垓), 자(秭), 양(壤), 구(溝), 간(澗), 정(正), 재(載)이다. 세 가지 쓰임은 上, 中, 下로 불린다. 下數는, 십십(十十)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十萬을 億, 十億을 兆, 十兆를 京이라고 하는 것이다. 中數는, 만만(萬萬)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萬萬을 億, 萬萬億을 兆, 萬萬兆를 京이라고 하는 것이다. 上數는, 수가 다다르면 변화한다. 예를 들면 萬萬을 億, 億億을 兆, 兆兆를 京이라고 하는 것이다. 下數는 얇고 짧아, 일을 헤아리면 다하지 못한다. 上數는 넓고 커서, 세상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을 전할 때에는, 오직 中數로만 할 따름이다. (黃帝爲法, 數有十等. 及其用也, 乃有三焉. 十等者, 億, 兆, 京, 垓, 秭, 壤, 溝, 澗, 正, 載. 三等者, 謂上, 中, 下也. 其下數者, 十十變之. 若言十萬曰億, 十億曰兆, 十兆曰京也. 中數者, 萬萬變之. 若言萬萬曰億, 萬萬億曰兆, 萬萬兆曰京. 上數者, 數窮則變. 若言萬萬曰億, 億億曰兆, 兆兆曰京也. 下數淺短, 計事則不盡. 上數宏闊, 世不可用. 故其傳業, 惟以中數耳.) <『수술기유』>(번역은 인용자)

(10)에서는 ‘億’ 이상의 단위 값 체계가 ‘上數, 中數, 下數’의 세 종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0)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위 값을 표로 나타내보면 (11)과 같다.

(11) 上數, 中數, 下數의 체계 및 현대 명수법의 단위 체계

	一	十	百	千	萬	億	兆	京	垓
上數	1	10	10^2	10^3	10^4	10^8	10^{16}	10^{32}	10^{64}

7) 『수술기유』의 편찬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後漢의 연대가 A.D. 25~220이기에 이즈음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8) 550년 경 북조(北朝)의 건란(甄鸞)이 저술한 『오경산술(五經算術)』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술이 나타난다. 按黃帝爲法, 數有十等. 及其用也, 乃有三焉. 十等者, 謂億, 兆, 京, 垓, 秭, 壤, 溝, 澗, 正, 載也. 三等者, 謂上, 中, 下也. 其下數者, 十十變之. 若言十萬曰億, 十億曰兆, 十兆曰京也. 中數者, 萬萬變之. 若言萬萬曰億, 萬萬億曰兆, 萬萬兆曰京也. 上數者, 數窮則變. 若言萬萬曰億, 億億曰兆, 兆兆曰京也. 若以下數言之, 則十億曰兆. 若以中數言之, 則萬萬億曰兆. 若以上數言之, 則億億曰兆.

中數	1	10	10^2	10^3	10^4	10^8	10^{16}	10^{24}	10^{32}
下數	1	1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현재	1	10	10^2	10^3	10^4	10^8	10^{12}	10^{16}	10^{20}

‘上數, 中數, 下數’는 萬보다 큰 단위의 값에 대해서 설명하는 체계이기때문에, ‘萬’ 이하의 값은 모두 동일하다. ‘下數’의 체계에서는 앞의 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 배씩 커지고, ‘中數’의 체계에서는 ‘萬’에서 ‘億’으로 갈 때는 만 배(10^4), 그 이후는 억 배(10^8)씩 커지며, ‘上數’의 체계에서는 앞 단위의 제공이 다음 단위가 된다. 따라서 2장에서 살펴본 열 배씩 커져서 ‘億’이 ‘十萬’의 값으로 쓰인 체계는 ‘下數’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億’이 ‘千萬’보다 큰 값으로 쓰인 체계는 ‘中數’의 체계, 혹은 ‘上數’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上數, 中數, 下數’의 세 가지 체계는 모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수법의 체계와 같지 않다. 우연히 ‘億’의 경우에만 ‘上數’, ‘中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명수법 체계에서 그 값이 10^8 으로 같지만, 현재 사용되는 명수법에서는 ‘億’ 이상의 단위도 만 배(10^4)씩 균등하게 커지는 반면, ‘中數’의 체계에서는 억 배(10^8)씩, ‘上數’의 체계에서는 앞의 단위의 제공씩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上數, 中數, 下數’의 체계는 어느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었는가? 고대 중국에서 쓰인 수학책인 『구장산술(九章算術)』⁹⁾에는 이미 ‘六百八十一億 四千八百三十四萬 九千四百六十六’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 김용운·김용국(2009: 137)에 따르면 신문왕 2년(682)에 시작된 교육제도인 ‘국학(國學)’에서 본과 중 하나로 산학을 가르쳤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算學博士 또는 助教 한 사람을 두어 『절술(綴術)』 · 『삼개(三開)』 · 『구장(九章)』 · 『육장(六章)』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서의 『구장』은 물론 『구장산술』을 가리킨다.

따라서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는 ‘上數, 中數, 下數’의 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2.1.에서 살펴본 『지봉유설』에서 “算家에서는 萬이 萬이면 億이라 하고, 萬萬億을 兆라 하고, 萬萬兆를 垓라고 한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즉, ‘中數’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3.2. 현대 명수법 체계로의 변화 - 일본의 『진접기』, 중국의 『필산』 및 『수리정운』

이 절에서는 현대적인 명수법 단위 체계가 나타난 일본의 『진접기(塵劫記)』와 중국의 『필산(筆算)』 및 『수리정운(數理精蘊)』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야타 요시미(宮田義美)(2013)에 따르면,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수사는 요시다 미즈요시(吉田光由)가 저술한 『진접기』의 「대수의 명칭(大數の名)」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또한 이 저술로부터 확산되었다고 한다.¹⁰⁾ 『진접기』는 1627년, 1631년, 1634년의 세 번에 걸쳐서 출

9) 『두산백과』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고대 수학서는 10종류가 있는데 이를 흔히 『산경십서(算經十書)』라고 한다. 이 중 『구장산술』은 10종류 중 2번째로 오래된 것이며, 오늘날에는 위(魏) 유휘(劉徽)의 『구장산술주(九章算術註)』(263)이 전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에 정본(定本)이 있었음을 뜻한다. 정확한 저자와 저작연대는 불명이라고 한다.

10) 『진접기』는 에도시대의 일대 베스트셀러로서, 메이지 시대에만도 몇 번에 걸쳐서 간행되었으며

간되었는데,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는 ‘一, 十, 百, 千, 萬’까지는 열 배씩 커지고 ‘萬’부터는 만 배씩 커지는 현재와 동일한 명수법 체계가 나타난다.

- (12) 관영(寬永) 4년(1627)년의 『진겁기(塵劫記)』에서는 萬부터 極까지는 십진법, 그 이상은 8항 누진법(累進法)으로 적었으나, 寬永 8년(1631년)에 이르면 億부터 極까지는 명확히 4항 누진법으로 적었다. 관영 11년(1634년) 소형본이 되면, 모두 4항 누진법이 되었다. 즉, 萬萬을 億, 萬億을 兆, 萬兆를 京 …으로 한 것이다. 이 4항 누진법은 요시다 미츠요시가 시작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들어온 산학서의 것(체계-인용자)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에 발간된 중국의 『역산전서』, 『수리정운』에서는 4항 누진법을 채택하고 있다.) <寬永四年の塵劫記には萬より極までを十進法, それ以上を8桁累進法で記しているが, 寬永8年本に至ると億より極までは明らかに4桁累進法で記している。寬永11年小形本になると, すべて4桁累進法となっている. すなわち萬萬を億, 萬億を兆, 萬兆を京, … とするのである. この4桁累進法は吉田光由が創めたもので, 中國より移入せる算書のものを改めたものである。(後年に出た中國の曆算全書, 數理精蘊には4桁進法を採用している。)> 日本學士院日本科學史刊行會編(1979: 43-44, 미야타 요시미(宮田義美)(2013: 270)에서 재인용) (번역은 인용자)

(12)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산학서의 체계’는 앞에서 언급했던 ‘上數, 中數, 下數’를 뜻한다. 3.1.에서 이들 모두는 현대에 쓰이는 명수법의 단위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 했는데, 『진겁기』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명수법의 단위 체계와 동일한 체계가 처음으로 문증된다. 다만 세 번의 걸친 간행으로 인해 체계가 바뀌었다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13)



(13ㄱ) 『진겁기』 (1627) (13ㄴ) 『진겁기』 (1634)

현대에도 그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13ㄱ)은 1627년, (13ㄴ)은 1634년에 간행된 『진검기』이다. (13ㄱ)에서는 萬 아래에 작은 글씨로 ‘천십을 이른다.(千十をいふ)’라고 되어 있고, 이는 ‘極’까지 동일하다. (13ㄴ)은 명수법의 체계가 만 배씩 늘어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한편, 日本學士院日本科學史刊行會編(1979: 43-44)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매문정(梅文鼎, 1633~1721)의 저서 『필산(筆算)』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14) 萬 이상은, 十萬이 億이 되고, 十億이 兆가 되고, 十兆가 京이 되며, 이로부터 垓(垓)와 祿(祿), 양(壤), 구(溝), 간(澗), 정(正), 재(載)까지 모두 십으로써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러 小數라 한다. 萬萬이 億이 되고, 億億이 兆가 되고, 兆兆가 京이 되고, 그 위로도 모두 그러하니, 모두 제곱으로써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러 大數라 한다. 오늘날 사용하는 것은 萬萬이 億이 되고, 萬億이 兆가 되고, 萬兆가 京이 되고, 그 위로도 모두 그러하니, 모두 萬으로써 변하며 이를 일러 中數라 한다.(萬以上, 有以十萬爲億, 十億爲兆, 十兆爲京, 自此而垓而祿, 壤, 溝, 澗, 正, 載, 皆以十而變謂之小數. 有以萬萬爲億, 億億爲兆, 兆兆爲京, 以上盡然, 皆以自乘而變謂之大數. 今所用者, 以萬萬爲億, 萬億爲兆, 萬兆爲京, 以上盡然, 皆以萬而變謂之中數.) <『필산』>(번역은 인용자)

또한 『수리정온(數理精蘊)』¹²⁾에서도 매문정의 『필산』과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15) 億 이상은 十으로써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十萬을 億이라 하는 것과, 十億을 兆라고 하는 것 등이다. 萬으로써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萬萬을 億이라 하는 것과, 萬億을 兆라고 하는 것 등이다. 제곱으로써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萬萬을 億이라 하는 것과, 億億을 兆라고 하는 것 등이다. 오늘날 법을 세울 때에는 中數를 따른다.(自億以上, 有以十進者, 如十萬曰億, 十億曰兆之類. 有以萬進者, 如萬萬曰億, 萬億曰兆之類. 有以自乘之數進者, 如萬萬曰億, 億億曰兆之類. 今立法從中數.) <『수리정온』>(번역은 인용자)

요시다 미즈요시의 『진검기』에서는 ‘上數, 中數, 下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숫자들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검기』(1627)에서는 억 배(10^8)씩 커지는 ‘中數’의 체계였다가, 『진검기』(1634)에서는 만 배씩 커지는 것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에 전파되어 있던 ‘中數’의 체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산학서인 『필산』과 『수리정온』에서는 ‘中數’ 체계의 정의를 과거의 문헌과 달리하고 있다. 『진검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萬’ 이상의 수가 모두 만 배씩 커지는 체계가 확립되고, 이것이 이전의 ‘中數’의 체계와는 다른 것임에도 똑같이 ‘中數’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11) 미야타 요시미(宮田義美)(2013: 273)에 의하면 요시다 미즈요시(吉田光由)가 『진검기』를 저술할 때 정대위(程大位, 1533~1592)의 『산법통중(算法統宗)』(1592)을 참고했다고 한다. 1977년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에서 간행된 『진검기』는 오오야 신이치(大矢眞一)가 주를 단 것인데, 오오야 신이치(1977: 14)에서는 『산법통중』의 「大數」에 萬萬을 億, 萬億을 兆라고 표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살펴본 바에 의하면 『新編 산법통중』이든 『原本 산법통중』이든, 여전히 萬까지는 만 배, 兆부터는 억 배씩 커지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2) 『수리정온(數理精蘊)』은 청나라 강희제의 명에 의해 천문학, 수학, 음악 등 여러 분야를 100권으로 집대성한 『율력연원(律曆淵源)』에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서, 1722년에 완성되어 1723년에 발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中數’ 체계의 불규칙성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술기유』에서부터 거의 유일하게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中數’의 체계는 ‘一, 十, 百, 千, 萬’까지는 열 배씩 커지고, ‘萬’에서 ‘億’으로 갈 때는 만 배(10^4)가 커지다가, ‘億’ 이상에서는 억 배(10^8)씩 커지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億’과 같은 큰 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러한 정의 방법이 굳이 큰 불편함을 주지 않았겠지만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큰 수가 필요해지던 시기가 오자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수가 만 배(10^4)씩 커지는 것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中數’ 체계가 변화한 것이 과연 요시다 미즈요시의 『진검기』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물론 『필산』과 『수리정운』이 『진검기』보다 출간이 늦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8세기는 청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이며, 문화와 국력이 삼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4항 누진법을 채택(4桁進法を採用している)”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큰 수를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자,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각각 기존에 불규칙했던 ‘中數’의 체계를 규칙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나아갔다고 생각된다.

3.3. 한국의 산학서에 나타나는 명수법 체계

이 절에서는 한국의 산학서에 나타나는 명수법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¹³⁾ 한국의 경우 실학의 영향으로 인해 17세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산학자에 의한 산학서가 저술된다. 최초의 산학서는 경선징(慶善徵, 1616~?)이 저술한 『묵사집산법(默思集算法)』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수와 대수의 이름(小大數名)’이 우리나라 산학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명수법 체계에 대한 기술이다.

- (16) 대수는 一에서 시작하여 十이 一개이면 十이라 하고 十이 十개이면 百이라 하고 十이 百개이면 千이라 하고 十이 千개이면 萬이라고 한다. 一萬, 十萬, 百萬, 千萬, 萬萬은 億이라고 하고, 萬萬億은 兆라고 한다. [주: 前과 같이 부르는 것은 一億, 十億, 百億, 千億, 萬億, 十萬億, 百萬億, 千萬億, 萬萬億은 兆라고 한다. 뒤에서 이와 비슷한 것은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않는다.] (大數始於一, 十一爲十, 十十爲百, 十百爲千, 十千爲萬。一萬, 十萬, 百萬, 千萬, 萬萬曰億, 萬萬億曰兆。[如前呼之, 一億, 十億, 百億, 千億, 萬億, 十萬億, 百萬億, 萬萬億曰兆是也。後倣此更不繁說。]) <『묵사집산법』>

(16)에서 경선징이 언급하고 있는 명수법 체계는 ‘中數’의 체계이다. 앞서 서술하였던 것처럼, 통일신라시기 이전부터 들어와 있던 『구장산술』에서 이미 ‘中數’ 체계를 사용한 숫자들이 사용되었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중국 산학의 영향을 받아 왔다.

앞서 중국의 산학서 중에서 현대 명수법의 체계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서적은 매문정의 저작 『필산』과, 강희제의 명에 의해 편찬되어 1723년에 발간된 『수리정운』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수리정운』은 조선으로 수입되어 조선의 산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13) 여기에서 기술되는 내용들은 이미 김병덕(1994)에서 대부분 다루어진 내용이다. 다만 김병덕(1994)에서는 한문을 인용하고만 있을 뿐, 해석을 달아두지 않았다. 이후 2002년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 시대의 산학서 번역』이라는 총서가 발간되면서 김병덕(1994)에서 언급된 많은 내용들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여기서는 번역문을 병기하고, 김병덕(1994)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는데, 실학기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저술한 『산학입문(算學入門)』¹⁴⁾에는 『수리정온』에 대한 언급¹⁵⁾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분명 『수리정온』에서 바뀐 명수법 체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대수명목(小數大數名目)」에서 기존 ‘中數’의 체계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수리정온』의 명수법에 대한 언급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¹⁶⁾

한편, 『산학입문』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과거에 億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파악한 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 (17) 『서전(書傳)』의 주에서 신안진(新安陳) 씨가 말하기를 『낙고(洛誥)』에는 十萬을 億이라 하였고 『태서(泰誓)』에는 또 百萬을 億이라 하였는데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략…) 진(秦)나라 때는 처음으로 萬萬으로 億이라 하였다. 百萬이 億이라는 근거는 보지 못하였다.(書傳注, 新安陳氏曰, 洛誥云, 十萬曰億, 泰誓又云, 百萬曰億, 不同何也? (…중략…)泰始以萬萬爲億, 百萬爲億未見所本。) <『산학입문』 卷21, 「대수소수명목」>

(17)에서, 『산학입문』의 저자인 황윤석 역시 ‘億’의 값이 때로는 ‘十萬’으로, 또 때로는 ‘萬萬’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학서에서 명시적으로 현대에 사용되는 명수법 체계가 기록된 것은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의 『산학정의(算學正義)』(1867)에서이다. 『산학정의』는 조선 산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상편 「도량형」 부분에서 명수법의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 (18) 도량형 단위 이상은 즉 십(十), 백(百), 천(千), 만(萬), 억(億)(만만(萬萬) 혹은 십만(十萬)), 조(兆), 경(京), 해(垓), 자(秭), 양(穰), 구(溝), 간(澗), 정(正), 재(載), 극(極), 항하사(恒河沙), 아승기(阿僧祇), 겁(劫), 나유타(那由佗), 불가사의(不可思議), 무량대수(無量大數)를 말하는데, 이상은 萬으로써 나아간다.(度量衡單位以上則曰, 十, 百, 千, 萬, 億[萬萬或十萬], 兆, 京, 垓, 秭, 穰, 溝, 澗, 正, 載, 極, 恒河沙, 阿僧祇, 劫, 那由佗, 不可思議, 無量大數, 以上以萬遞進.) <『산학정의』>(번역은 인용자)

한국의 경우에는 『산학정의』에 이르러서야 현대에 사용되는 명수법 체계가 문증되는데, 여기서 남병길은 도량형 단위 이상의 수가 모두 만 배씩 증가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수리정온』의 도입이 18세기부터 시작되는데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현대 명수법 체계가 산학서에 적힌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14) 『산학입문』은 황윤석(黃胤錫, 1719~1791)의 백과사전식 편저 『이수신편』의 일부이다. 수학에 관해서는 마지막 세 권, 즉 권21부터 권23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다. 권21과 권22의 제목은 『산학입문』이고, 권23의 제목은 『산학본원(算學本原)』이다.

15) 이 방법은 대략 『율려신서(律呂新書)』나 『황종장본(黃鍾章本)』에 나와 있고 조충지나 『수리정온(數理精蘊)』에도 역시 나와 있다. [此法亦略見律呂新書黃鍾章本 出祖沖之而精蘊亦因之](『산학입문』 제21권 「도량형」).

16)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열이 하나 있다.], 百[열이 열 있다.], 千[百이 열 있다. 梵語로 小千이다.], 萬[千이 열 있다.], 十萬, 百萬[梵語로 中千이다.], 千萬, 萬萬은 億이다. 十億[梵語로 大千이다.], 百億, 千億, 萬億, 十萬億, 百萬億, 千萬億, 萬萬億은 兆이다.(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一十], 百[十十], 千[十百, 梵語小千], 萬[十千], 十萬, 百萬[梵語中千], 千萬, 萬萬曰億. 十億[梵語大千], 百億, 千億, 萬億, 十萬億, 百萬億, 千萬億, 萬萬億曰兆.) <『산학입문』 卷21, 「대수소수명목」>

김병덕(1994: 11)에서는 『산학정의』에서 “억(億)(만만(萬萬) 혹은 십만(十萬))”이라고 기술한 것을 일컬어 “下數’에 대한 미련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구장산술』 이후의 산학서에서 열 배씩 커지는 ‘下數’의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곧이 19세기 후반의 산학서에 ‘億’을 ‘萬萬’ 혹은 ‘十萬’으로 표시한 것은 당대까지도 ‘億’에 대해 이 두 값이 공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2.1.에서 다산의 문집을 검토하며, 다산이 살았던 19세기 중반까지도 ‘億’이 ‘十萬’이라는 값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산학정의』가 저술되는 약 30년 동안에는 이렇다 할 커다란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億’이 ‘十萬’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산학정의』에서 ‘億’에 대해 ‘萬萬’과 ‘十萬’이라는 두 가지 값을 이야기한 것은 “下數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당대의 실제적인 數 사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현대 명수법 체계의 정착

4장에서는 근대 시기 이후에 현대와 같은 명수법 단위 체계가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에서는 산학 교과서 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고, 4.2.에서는 개화기의 산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근대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는 萬萬으로서의 ‘億’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약 십 년 동안 조선은 이전에는 겪지 못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고, 외국과의 교역 역시 크게 확대된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상에 발맞추어 명수법의 체계 역시 이전에는 산학에서만 사용되었던 단위들이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 (19) 근년에 한 해의 수입은 거의 3억 7,140여 만 원을 넘고 한 해의 지출은 2억 6,790만 원이니 지출과 수입을 대비할 때 남는 것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각 항구에 들어오는 물건의 세를 줄이자고 논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 항구에 들어오는 물건의 세를 줄인다면 다른 나라에서 명주, 비단, 도구 같은 물건 등의 수입이 날로 증가하여 들어오고 그에 따라 값이 싸지면 백성들은 사서 쓰기를 좋아하면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백성들이 자연 게을러지고 나라가 빈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年來歲入, 殆過三億七千一百四十餘萬圓, 歲出二億六千七百九十萬圓, 較其出入, 餘剩爲四分之一。故或有各港口稅減額之論, 又或曰: ‘各港口, 若爲減稅, 則他國物貨之絀絀器用, 日增輸入, 價額隨以廉歇, 民樂於貿用, 不肯製造, 則民自懶惰, 國以貧弱’云。) <『고종실록』 고종 26년(1889) 7월 24일>

(19)는 고종이 미국주재 전권 대신(美國駐在全權大臣)으로 있다가 돌아온 박정양을 소견하면서, “미국이 매우 부강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던가?”라고 묻는 고종의 하교에 박정양이 대답하는 부분이다. 이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 ‘億’이 사람의 이름이나 ‘供億’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숫자로 사용된 유일한 예이다. ‘億’이 ‘萬萬’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을뿐더러, 이제는 더 이상 ‘億’이 ‘十萬’의 단위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문이기도 하다. ‘億’이 ‘十萬’의 단위로 사용되기에는 이미 표기해야 할 숫자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億’이 ‘萬萬’의 값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대의 교과서에서도 등장한다.

(20) ㄱ. 그 港口는 또한 屈指하는 良港이니 周回 二十五 哩로 直徑이 八哩라 内外 船隻의 出入이 긋칠 씩 업고 一歲의 輸出入하는 物貨 價格이 七億萬元이 되야 東은 大 西洋을 橫斷하여 歐羅巴로 直航하고 <『국민소학독본』(1895) 28ㄴ>

ㄴ. 英人이 法國과 交兵하여 紀元 一千六百十三年 顯宗 五年에 巴黎(法國 서울)에 會하여 講和한 後로 國用이 蕩耗하여 國債가 一億八千萬磅 有餘라 <『국민소학독본』(1895) 50ㄴ>

(21) 六대쥬 밋기는 왕양(汪洋)한 큰 바다와 모든 섬들이 심히 만하며 六대쥬 안에 있는 인구는 대략 十五億가량이라 (『독립신문』 (1899년 10월 20일))

(20)의 두 예문 역시 돈과 관련된 예문이다. (20ㄱ)은 뉴욕의 항구에 관한 내용이고, (20ㄴ)은 미국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종실록』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億’ 역시 ‘萬萬’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돈 이외에 ‘億’이 사용되는 경우는 (21)처럼 세계의 인구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 시기가 되면 ‘十五億’은 더 이상 ‘150만’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다른 숫자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億’이 단독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같은 값인 ‘萬萬’의 의미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2. 산학 교과서를 통한 현대 명수법 체계의 정착

명수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 전체가 공유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광범위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인해 1895년부터는 새로운 제도에 의한 학교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새롭게 정비된 여기서의 교과과목 중에는 ‘산술(算術)’ 또는 ‘산학(算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에서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산학 교과서인 『산술신서(算術新書)』¹⁷⁾와 『정선산학(精選算學)』¹⁸⁾을 검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대에 명수법 단위 체계가 어떻게 정착되어 갔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2) 命數法

(二十) 命數法은 數를 命名하여 表現하는 法이라

17)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해제에 따르면, 『산술신서』는 1900년 이상설(李相高, 1870-1917)이 편찬한 수학책으로서, 일본학자 우에노 기요시(上野清)의 『근세산술(近世算術)』의 내용을 수정, 편집해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사범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며, 한국 수학 교과서의 발달 과정을 살필 수 있고 개화기 수학 교육의 교육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자료이다.

18) 『정선산학』은 『산술신서』와 함께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수학 교과서 중의 하나이다. 김용운·김용국(2009: 564)에 따르면 이 책은 일본에서 엮어진 유럽계 신수학을 재차 편집한 것으로서, 교열자는 권재형, 편집자는 남순희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중략…)

拾은 卽 單位를 十聚호는 者ㅣ니 九보다 一이 多호는 數

百은 卽 十을 十聚호는 者

千은 卽 百을 十聚호는 者

萬은 卽 千을 十聚호는 者ㅣ니 又 萬을 十聚호는 數는 十萬이라 云호며 十萬을 十聚호는 數는 百萬이라 云호며 百萬을 十聚호는 數는 千萬이라 云호야 別異호는 名稱을 不作호는니라

億은 卽 萬을 萬聚호는 者

兆는 卽 億을 萬聚호는 者

京垓 以上은 逐次호야 如是히 萬聚호야 成호는 者ㅣ니 類推호미 可호는니라

<『산술신서』(1900) 7>

(23) 命數法

(六) 命數法 命數法은 數의 名目을 附호는 法을 云호

(七) 正數의 名目

(…중략…)

又 十式十을 百이라 云호야 百, 二百, 三百 (…중략…)

又 百式十을 千이라 云호야 一千, 二千 (…중략…)

又 万式万을 億이라 云호야 第三大原位の 單位라 名호고 億式万을 兆라 云호야 第四大原位の 單位라 稱호니 此에 倣호야 次第로 大原位の 單位를 万式集호야 左의 數를 得호나 然而京垓 以上の 數는 實地에 應用이 稀少호는 故로 以下 筭題에 不載호

京垓 梯穰溝澗 正載 極

上の 名目에 依호야 數를 呼호는 時는 各大原位の 單位를 幾個를 含호는지 万以下の 數를 呼호과 如호되 但 各大原位の 名目만 添호니 假令 兆를 三千二百七十九와 億을 四千三百八과 萬을 六百十三과 九千三百二十一의 舍호는 數를 呼호는 時는 三千二百七十九兆 四千三百八億 六百十三萬 九千二十一이라 云호 <『정선산학』(1900) 2-3>

『산술신서』와 『정선산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수법의 단위 값은 동일하며, 또한 현대적인 명수법 체계가 이제 완전히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十, 百, 千, 萬’까지는 열 배씩 커지고, ‘億, 兆, 京, 垓, 梯, 穰, 溝, 澗, 正, 載, 極’까지는 만 배씩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수법의 단위 값과 동일하다.

『산술신서』와 『정선산학』 두 권의 책 모두 일본의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진첩기』로 인해 17세기부터 ‘一’부터 ‘萬’까지는 열 배씩 커지고, ‘萬’부터는 동일하게 만 배씩 커지는 ‘만진법(萬進法)’이 정착하게 된다. 이 체계가 그대로 근대로 이어지게 되고 근대의 산학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은 일찍이 『수리정온』을 수입하게 되고, 『수리정온』에서 사용되는 변형된 ‘中數’의 체계는 『진첩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진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에는 산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億’ 이상의 단위를 사용할 만한 일도 거의 없었을 것이기에 이때 수입된 『수리정온』을 통해서 명수법의 단위 체계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는 힘들다.

병자수호조약 이후에 조선이 근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러 열강들과 수교를 맺고 외국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億’이라는 단위가 필요해지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億'이 '十萬'을 나타내는 값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며, '億'이 '萬萬'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갖게 된다. 그러다가 1895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학교 교육을 위해 산학 교과서가 편찬되고, 널리 교육되면서 현대적인 명수법 단위 체계가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一, 十, 百, 千, 萬'은 열 배씩, '萬'부터는 만 배씩 커지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5.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명수법 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조선에서는 초기부터 '億'을 '十萬'으로 사용하는 체계와 그 이상의 값으로 사용하는 두 체계가 공존해 왔다. 두 체계는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불경이나 실생활에서 사용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구수나 호구수와 같이 큰 수를 나타내거나, 천문에 관한 수를 다룰 때에만 사용되었다. 천문에 관한 수나 산학을 제외하고, 실생활에서 '億'이 '萬萬'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근대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명수법의 단위 값에 대한 정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수술기유』부터이지만, 여기서 밝히고 있는 '上數, 中數, 下數'의 어떤 체계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명수법의 단위 체계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위 체계와 동일한 것은 17세기 일본의 『진검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이어서 중국의 『필산』과 『수리정온』에도 나타난다. 중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수 체계로 이동하게 된 것은 가장 널리 쓰였던 '中數'의 체계가 '萬'에서 '億'은 만 배, 그리고 '億'부터는 억 배씩 커지는 불규칙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모두 만 배씩 커지는 것으로 규칙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경우에는 청의 『수리정온』을 받아들였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의 산학서에 와서야 현대 명수법의 체계와 동일한 것이 문증된다. 다만 이 당시에 산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또한 여전히 '億' 이상의 단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직 '億'은 산학서에서만 관념적으로 존재하던 체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 외국의 문물과 정보를 접하게 되자, 돈이나 전 세계의 인구 등, 큰 수가 사용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億'은 더 이상 '十萬'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萬萬'이라는 의미만을 갖게 된다.

이후, 1895년에 새로운 제도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면서 교과서들이 편찬되는데 이때 이 교과서들은 일본의 산학 교과서의 내용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는 17세기의 『진검기』 이래로 지속되어 온 명수법의 체계가 존재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때 받아들인 현대적인 의미의 명수법 체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고영근(1987/201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3판, 집문당.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병덕(1994), 「우리나라 명수법에 대한 小考」, 『창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논문집』 제6輯, 9-13쪽.
- _____(1995), 「우리나라 명수법에 대한 小考(Ⅰ)」, 『한국수학사학회지』 第8輯, 35-40쪽.
- _____(1999), 「우리나라 명수법에 대한 小考(Ⅱ)」, 『한국수학사학회지』 第12輯, 53-64쪽.
- 김용운·김용국(2009), 『한국수학사』, 살림Math.
- 남만성 역(2016), 이수광 저, 『지봉유설』, 올재클래식스.
- 박영식·최길남 옮김(2015), 남병길, 『산학정의』, 교우사.
- 장혜원(2006), 『산학서로 보는 조선수학』, 경문사.
- 정민(2012),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 독서법』, 보림. (「讀書記」 참조)
- 한영우(1997/2014), 『다시 찾는 우리역사』, 제2전면개정판, 경세원.

조선시대의 산학 총서

- 강신원·장혜원 옮김(2006), 황윤석 編, 『산학입문』, 교우사.
- 유인영·허민 옮김(2006), 경선정, 『목사집산법』, 교우사.
- 정해남·허민 옮김(2006), 최석정, 『구수략』, 교우사.

한국 개화기 교과서 총서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第1卷, 아세아문화사.

2. 중국서

- 吳文俊 主編; 沈康身 分主編(1999), 『中國數學史大系』 第4卷:西晋至五代, 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9.

3. 일본서

- 宮田 義美(2013), 「日本語の漢數字の命數法の歴史と累進法」, 津田塾大學數學・計算機科學研究所報 (35), 257-313.
- 大矢 眞一 校注(1978), 吉田 光由, 『塵劫記』, 東京: 岩波書店.

4. 사료 및 말뭉치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산술신서』, 『정선산학』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유니콧크 말뭉치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여유당전서』, 『성호사설』 참조)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고신문 데이터베이스,
“<http://www.bigkinds.or.kr/mediagaon/goNewsKeyword.do>”
中國基本古籍庫. (『수술기유』, 『오경산술』, 『구장산술』, 『필산』, 『수리정온』 참조)
와세다 대학 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http://www.wul.waseda.ac.jp/kotenseki/>”
(『진첩기』, 『산법통종』 참조)

